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 ▶ 책임연구원 :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계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리만큼 다 분화되고 있으며, 이행과정이 세분화되고 각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연구는 고용정책으로 수립되는 이제까지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만으로는 다 분화되어 있는 20대 청년들의 정책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대상자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이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향해 가기위해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이 세분화되고 있는 이행단계에 대한 이해와 그 단계에 따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과 청년 친화적인 접근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비율의 감소와 청년 중심의 통합지원 추진체계의 마련 그리고 청년 참여의 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 보다 단단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범 부처에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되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행 지원 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정책사업 중심으로 고찰하고, 성인기 진입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과 20대 시기에 드러난 문제 및 정책적 당면과제를 고찰하였으며,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현황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6개 집단 총 36명의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와 20대 2,0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자료의 분석 및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대 청년정책 발전전략을 도출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을 얻었다. 즉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20대 청년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개인과 생활균형, 개인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의 평가 등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집단에 대한 주요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였고, 이를 고려한 20대 청년정책의 발전전략의 기본 틀과 전략과제들을 도출하였다.

국가정책으로서 20대 청년 정책의 정책비전은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기조를 지향하는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①이행단계에 따른 접근(Approach of Transition Steps), ②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nd Inclusive Approach), ③청년 친화적 접근(Youth Friendly Approach)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 가지 전략목표를 ①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비율의 감소, ②청년 중심의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③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로 설정한 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총 7개의 전략과제와 전략과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총 1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이행(transition), 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현행 지원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평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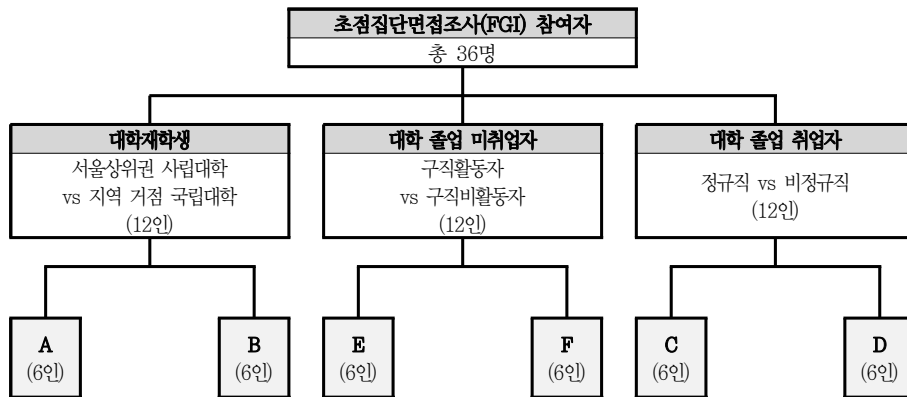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정책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성인기 진입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과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 및 정책적 당면과제를 고찰하였으며, 20대 청년문제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연구 추진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해온 정부부처의 공무원,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슈를 발굴해 온 현장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검토·자문을 구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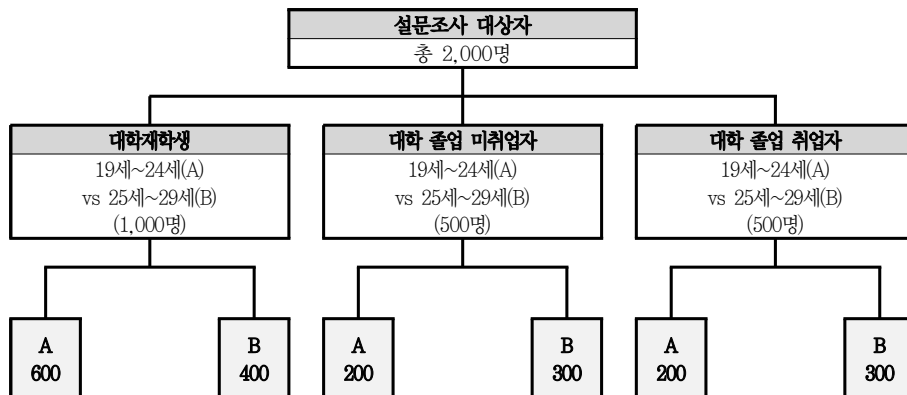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현재 상태 및 당면한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앞서, 이들의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20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그림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 설문조사

고찰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문가자문의 내용, 그리고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여 19세~29세의 연령을 횡축으로, 현재 상태를 종축으로 하는 틀을 설문조사의 기본 틀로 구성하여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총 2,000명을 할당표집 하여 조사하였음.



【그림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표본 할당

○ 콜로키움

정책대상자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중요한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선진복지국가에서의 정책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 또는 전문가와의 대담을 중심으로 한 콜로키움을 총 2회 실시함.

○ 정책실무협의회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높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자인 20대 당사자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의 추진 단계별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실태조사를 통한 주요 발견

(1) 심리·정서적 특성

- 언론에서 특징지우는 20대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대학재학여부나 취업여부 등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동의정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언론에서 설명하는 20대의 특성은 대체로 대학졸업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설명임.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됨.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졸업미취업자가 가장 취약하며, 공통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하게 낮은 수치로 하락함이 발견되므로 유럽연합의(EU)의 “Youth Guarantee Scheme”과 같이 상태지속기간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 중 구직비활동자의 경우 진로성숙도 향상이 시급하며, 20대를 위한 진로지원 정책은 이들을 정책 목표(target)집단으로 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2) '대학'의 의미와 대학생활 경험

- 20대 청년들은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음.
- 20대 청년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은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학 1~2학년생들의 '반수', '편입', '대학중퇴'를 시도하게 하고, '휴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 시키고 있음.
-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상(상경)계열로 집중되고 있는 복수전공의 선택 현상에는 서울지역 인문계열 및 교육계열의 여학생들이 쏠려 있음이 확인됨.
-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학금수혜 총액이 많을수록 생활비대출 총액이 많으므로, 기존의 장학금지원이 수혜대상의 확대였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전액 장학금으로의 선별적 장학금의 증액이 필요함.
-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만, 학업에 높은 수준으로 방해가 되는 장시간 근로는 등록금 충당이나 대출상환을 위해 많은 소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의 확대가 필요함.

(3) 학자금 부담

-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고학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를 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향후 학자금 누적 대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집단으로 드러남.
- 생활비 대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현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고,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집단은 졸업미취업자임.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의 상황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환율이 높아, 상환주체는 20대 당사자가 아닌, 부모임.
-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로 20대 청년들의 장학금 수혜 경험률은 높으나,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아 확대가 필요함.

-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 재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 또는 욕구를 파악할 수 없으며, 근로의 목적과 주당근로시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목표(target) 집단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재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임.

(4) 졸업 전·후 취업준비와 구직경험

-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에 대해 조사대상 20대 청년들은 '인성→외국어구사능력→직무관련자격증'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외국어구사능력→인성→직무관련자격증', 졸업미취업자는 '직무관련자격증→외국어구사능력→외국어점수', '졸업취업자는 '인성→직무자격증→외국어구사능력'의 순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임.
- 인턴은 전체 20대 청년들 중 16.1%가 경험을 하였고, 졸업취업자의 경험률(29.2%)이 졸업미취업자(18.2%)나 졸업유예생(22.1%)에 비해 높음. 서울소재대학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인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인턴 유경험자들은 평균 1.36회, 6.33개월 인턴경험이 있으며, 졸업취업자의 경우 평균 1.45회, 7.7개월의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인턴의 경험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은 취업에의 도움(5.24점/10점)보다 진로결정에 더 큰 도움(6.37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재학 중 및 졸업 후 시기 모두에 인턴 유경험자들은 진로결정에 절대적으로 도움(9점/10점)이 되며, 취업에도 도움(7.4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인턴제의 확대 운영이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겪는 구직과정의 어려움을 종합해보면, 일자리부족과 저임금·비정규일자리에 집중된 취업 기회라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빚어지는 경쟁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요건의 상승의 문제도 주된 어려움이지만, 졸업미취업자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임. 초·중·고·대학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의 부족과 자기탐색의 시간이 부재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임. 따라서 대학 재학생들에게 졸업 전 자기탐색의 기회와 시간을 의무적으로라도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졸업 후 취업경험

- 졸업자의 취업경험 비율은 60.8% 이고, 졸업 후 평균 1.59회의 취업경험을 가짐. 졸업자 10명 중 4명가량은 평균 졸업 후 경과기간 1.23년 동안 취업경험이 전혀 없음. 취업한 첫 일자리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58.0%임 수준임.
- 첫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이직의 주된 사유가 되는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나 고용계약만료의 사유이지만, 20대 청년들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유는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의 부재'로 드러나,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정착과 생애 삶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하며,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20대 청년들은 '경제적 필요로 어쩔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정규직 취업 시 공백 줄이기'등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직무몰입도에 있어 정규직(4.4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3.5점)을 보임.
- 장시간 근로, 높은 업무스트레스, 자신의 커리어 와 미래 발전에 대해 탐색수준이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20대 청년들이 이직준비의 가능성이 높으나, 고용의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의 수준은 이직준비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6) 주거형태 및 취업목적 주거 이동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20대 청년의 비율은 전체의 24.2%로 4명 중 1명 정도 되고, 이들의 절반(50.8%) 가량이 월세자취를 하며, 평균 33.63만원을 주거비로 지불함. 이 금액은 월평균 총 소득의 57%이고, 생활비의 29.9%임. 단, 대학생과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월소득 및 생활비에서의 주거비 비중은 더 높아지므로, 주거 지원정책이 소득이 없는 재학생과 미취업자, 소득이 있는 20대 취업자 대상 지원정책으로 세분화 될 필요가 있음.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20대 청년들 중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 하는 이들은 부모 비동거자 중 37.4%이고,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35.4%, 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12.7%에 불과함. 특히, 다른 권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은 취업목적으로 이동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이들의 70.5%로, 서울지역의 20대 청년 주거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2) 현 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당사자의 정책유용성 평가 결과

(1) 학자금지원

- 학자금지원서비스 중 인지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국가장학금이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의 평가수준이 사립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음.
- 등록금수준과 생활비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보다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지원에 대한 평가가 타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음.

(2) 주거지원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유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학자금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보일만큼 낮은 수준임. 이는 선별적 정책으로 수혜자 대상 범위는 좁고, 청년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목표 설정 대상집단의 범위가 넓은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인지도 및 정책유용성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델분석에서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함. 이는 수혜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에 높은데 따른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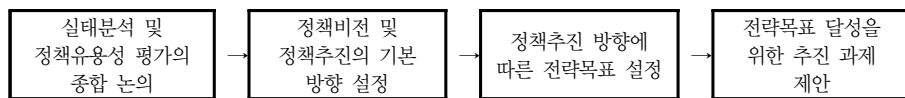
(3) 취업지원

-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의 수준이 낮음. 20대 청년들의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스펙초월멘토스쿨'이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상자 모집·선발의 규모가 작고, 대학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등 사업운영의 특성에 기인하여 인지수준이 낮은 것임.
-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의 수준이 낮음. 20대 청년들의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스펙초월멘토스쿨'이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상자 모집·선발의 규모가 작고, 대학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등 사업운영의 특성에 기인하여 인지수준이 낮은 것임.

4. 정책발전 전략의 도출

1) 정책 발전전략의 도출과정

- 고찰한 정책현황과 분석된 20대 청년의 실태 및 현행 지원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의 발전전략을 단계적으로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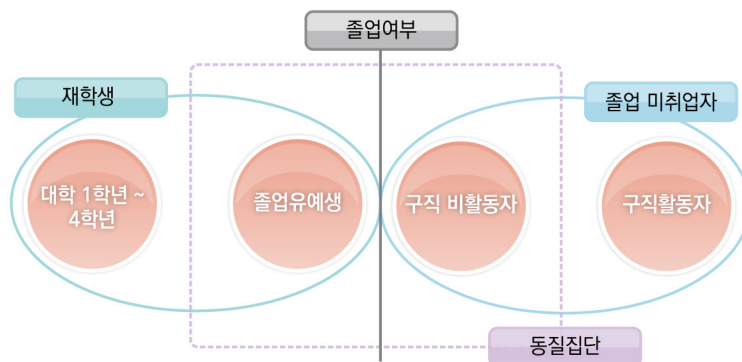


【그림 3】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2) 정책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 20대 청년 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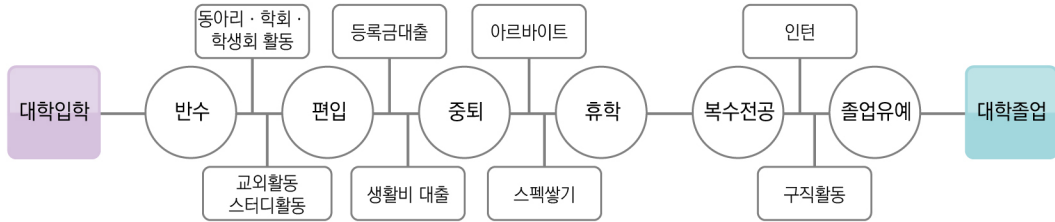
- 연령보다는 현재 상태(재학생 vs 졸업생, 취업자 vs 미취업자, 구직활동자 vs 비활동자, 정규직 vs 비정규직)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된 상태에 있음.
- 세분화된 집단 간의 차이의 '이질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동질집단이 존재함.



【그림 4】 20대 청년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질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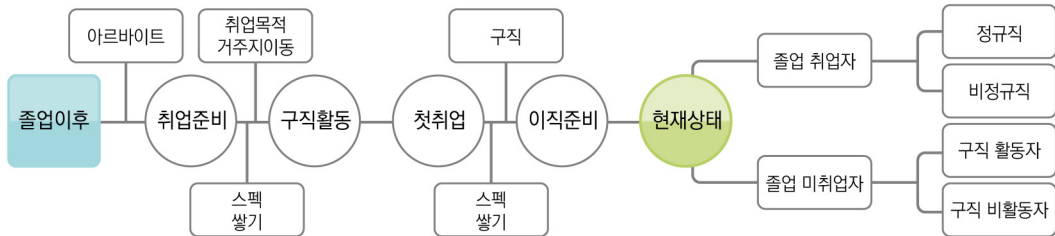
○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 ‘대학 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의 단선적 이행을 가졌던 기존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행(transition)의 지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고착화된 상태.



【그림 5】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대학 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하고 정책적 접근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취업률 상승’만이 고려되어도 무리가 없지만, 이행지체가 고착화된 현재 20대 청년들에게는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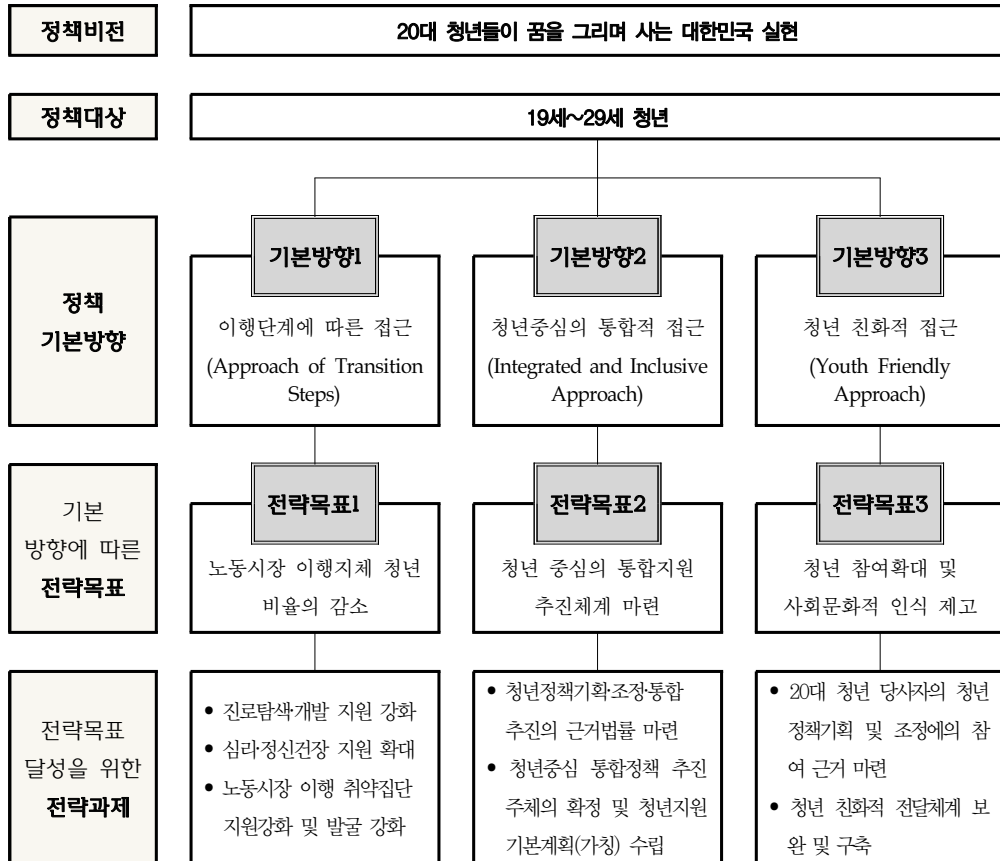


【그림 6】 졸업 후 현재 상태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 20대 청년들은 일과 다른 생활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기존 세대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

3)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안) 도출



【그림 7】 20대 청년정책 발전전략의 기본 틀(안)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8
1) 연구내용의 구성	8
2) 연구방법의 구성	9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8
1) 연구 추진체계	18
2) 연구 추진 절차	19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1.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23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3
2) 정책사업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개념 및 범주	24
2. 후기청소년기 유예에 관한 이론적 관점 및 관련 연구 고찰	28
1) 후기청소년기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28
2) 성인기 진입 유예관련 기존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30
3.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관련 드러난 문제와 당면과제	31
1) 생애경력 형성의 지연: 풀리지 않는 취업문제	31
2) 학자금 부담의 유예: 학자금 대출의 명과 암	35
3) '취업'으로 수렴되고 구조화되는 삶: 스펙쌓기와 압박감	39

Ⅲ.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47
1. 정책적 대응 현황과 한계	49
1) 고용정책	49
2) 학자금 지원정책	62
3) 주거 지원정책	64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	67
1) 고용정책	67
2) 학자금지원정책	70
3) 주거 지원정책	74
3. 청년지원관련 법안 발의 현황	76
1)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법안	76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안	78
Ⅳ.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79
1. 조사개요	81
1)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81
2) 설문조사	87
2.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분석	96
1) '20대'에 대한 당사자 인식과 심리·정서적 특성	96
2) '대학'의 의미와 대학생활 경험	109
3) 학자금 부담	139
4) 졸업 전·후 취업준비와 구직경험	168
5) 졸업 후 취업경험	183
6) 주거형태 및 취업목적 주거 이동	198

3. 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유용성 평가	203
1) 학자금지원	204
2) 주거지원	206
3) 취업지원	209
 V.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215
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217
2. 정책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218
1) 20대 청년 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218
2)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219
3)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221
3. 정책 비전의 설정과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223
1) 정책 비전의 설정	223
2)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224
4.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 및 과제	230
1)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230
2)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231
 참고문헌	245
 부 록(설문지)	257

표 목 차

〈표 I-1〉 연구 내용의 구성	9
〈표 I-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추진 내용	12
〈표 I-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방법	14
〈표 I-4〉 설문조사 방법	16
〈표 I-5〉 콜로키움 개최 내용	17
〈표 I-6〉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8
〈표 II-1〉 정책사업 대상자의 ‘상태’ 기준의 예시: 고용정책사업	25
〈표 II-2〉 정책사업 대상자의 ‘상태’ 기준의 예시: 학자금지원사업	27
〈표 II-3〉 정부 학자금 대출현황	37
〈표 II-4〉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졸업 이후 상환 현황(2014.12월말 기준)	38
〈표 II-5〉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010년~2014년	39
〈표 III-1〉 각 부처별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현황	49
〈표 III-2〉 각 부처별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 현황	53
〈표 III-3〉 각 부처별 일자리 창출인턴제 및 채용 지원 현황	57
〈표 III-4〉 각 부처별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 현황	59
〈표 III-5〉 각 부처별 창업지원 현황	60
〈표 III-6〉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	62
〈표 III-7〉 학자금 대출 제도	64
〈표 III-8〉 주거지원 정책 현황	66
〈표 III-9〉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고용정책	68
〈표 III-10〉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학자금 지원 정책	71
〈표 III-11〉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주1	75
〈표 III-12〉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발의 법안의 비교	77
〈표 IV-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최종 할당 기준 및 수	83
〈표 I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재학생	84

〈표 IV-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85
〈표 I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85
〈표 IV-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주요 면접 내용	86
〈표 IV-6〉 조사내용의 구성	90
〈표 IV-7〉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91
〈표 IV-8〉 응답자 특성	95
〈표 IV-9〉 ‘20대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당사자 인식: 세 집단 비교	97
〈표 IV-10〉 ‘20대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당사자 인식: 여섯 집단 비교	100
〈표 IV-11〉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여섯 집단 비교	106
〈표 IV-12〉 ‘대학’ 이 갖는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	110
〈표 IV-13〉 재학 및 졸업한 대학생활의 만족도 수준	114
〈표 IV-14〉 반수 경험률 및 성공률	115
〈표 IV-15〉 반수의 주요 사유	116
〈표 IV-16〉 반수 경험 및 반수 성공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Model	118
〈표 IV-17〉 편입 경험률 및 성공률	119
〈표 IV-18〉 편입의 주요 사유	120
〈표 IV-19〉 편입 경험 및 성공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Model	121
〈표 IV-20〉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생의 대학중퇴의 의사	122
〈표 IV-21〉 대학 중퇴의사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124
〈표 IV-22〉 휴학 경험률 및 휴학기간	126
〈표 IV-23〉 휴학의 주요 사유	127
〈표 IV-24〉 휴학 경험 유무의 영향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128
〈표 IV-25〉 휴학 기간의 영향요인: Count Model	129
〈표 IV-26〉 복수전공 경험여부	130
〈표 IV-27〉 복수전공의 계열	131

〈표 IV-28〉 복수전공 여부의 영향 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132
〈표 IV-29〉 졸업유예 경험 유무 및 기간	133
〈표 IV-30〉 졸업유예의 결정 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134
〈표 IV-31〉 졸업유예 기간의 영향 요인: Count Model	135
〈표 IV-32〉 교내/외 활동 여부	136
〈표 IV-33〉 교내/외 활동의 주된 목적	136
〈표 IV-34〉 등록금 대출 경험	140
〈표 IV-35〉 등록금 대출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141
〈표 IV-36〉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총액 평균과 상환 금액	144
〈표 IV-37〉 등록금 대출 총 금액 및 총액 대비 상환금 비율 : Tobit Model	145
〈표 IV-38〉 등록금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147
〈표 IV-39〉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 Multiple Regression Model	148
〈표 IV-40〉 생활비 대출 경험	149
〈표 IV-41〉 생활비 대출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150
〈표 IV-42〉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평균 총액과 상환 금액	153
〈표 IV-43〉 생활비 대출 총금액 및 총액 대비 상환 비율 : Tobit Model	154
〈표 IV-44〉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155
〈표 IV-45〉 생활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 Multiple Regression Model	155
〈표 IV-46〉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 유형	157
〈표 IV-47〉 학자금 대출 유형의 결정 요인: Multinomial Logit Model	158
〈표 IV-48〉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경험 유무	160
〈표 IV-49〉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경험: Logistic Regression Model	161
〈표 IV-50〉 수혜 장학금의 총액 및 도움 정도	162
〈표 IV-51〉 수혜 장학금의 총액 및 도움 정도: Tobit Model	163
〈표 IV-52〉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여부	164

〈표 IV-53〉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목적	165
〈표 IV-54〉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일수, 시간, 월소득 및 학업 방해 정도	166
〈표 IV-55〉 재학 중 근로여부 및 근로소득 영향 요인: Heckman's Selection Model	167
〈표 IV-56〉 취업 스펙의 주관적 중요도	169
〈표 IV-57〉 재학생과 졸업 미취업자의 취업 준비 사항	170
〈표 IV-58〉 인턴 경험률	173
〈표 IV-59〉 인턴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174
〈표 IV-60〉 인턴경험의 시기	175
〈표 IV-61〉 인턴경험의 횟수와 기간	176
〈표 IV-62〉 인턴 경험의 진로결정 및 취업에의 도움정도	177
〈표 IV-63〉 취업으로 연계된 인턴제 유무 및 종류	178
〈표 IV-64〉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의 현재 구직활동 여부	180
〈표 IV-65〉 재학생 및 졸업미취업자 구직활동자의 평균 구직기간	181
〈표 IV-66〉 재학생 및 졸업 미취업자 구직활동자의 어려움	181
〈표 IV-67〉 구직 비활동 사유	183
〈표 IV-68〉 졸업자의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 및 경험 일자리 수	184
〈표 IV-69〉 졸업자의 현재 상태와 첫 일자리의 일치 여부	185
〈표 IV-70〉 첫 일자리 고용 형태	186
〈표 IV-71〉 첫 일자리 사업체 유형	186
〈표 IV-72〉 첫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	187
〈표 IV-73〉 첫 일자리 그만둔 사유	188
〈표 IV-74〉 현재 일자리 선택 사유	189
〈표 IV-75〉 현재 일자리 취업 시 결정적 도움이 되었던 사항	191
〈표 IV-76〉 현재 일자리 사업체 유형	192

〈표 IV-77〉 현재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	193
〈표 IV-78〉 이직준비 여부	195
〈표 IV-79〉 이직준비의 사유	195
〈표 IV-80〉 취업자의 이직준비 여부: Logistic Regression Model	197
〈표 IV-81〉 현재 상태별 부모 동거여부 및 주거형태	200
〈표 IV-82〉 부모비동거자 월평균 주거비와 생활비	200
〈표 IV-83〉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자의 이동 유형	202
〈표 IV-84〉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 유형별 주거 형태	203
〈표 IV-85〉 학자금 지원 도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Multiple Regression Model	206
〈표 IV-86〉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1 : Multiple Regression Model	208
〈표 IV-87〉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2 : Multiple Regression Model	209
〈표 IV-88〉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1 : Multiple Regression Model	211
〈표 IV-89〉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2 : Multiple Regression Model	212
〈표 IV-90〉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3 : Multiple Regression Model	213
〈표 IV-91〉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4 : Multiple Regression Model	213
〈표 V-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제1항 개정안	236
〈표 V-2〉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 추진 주체로서 확정 시 장단점 비교	239
〈표 V-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개정안	241
〈표 V-4〉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개정안	241
〈표 V-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244

그림 목 차

【그림 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2
【그림 2】 설문조사 대상자의 표본 할당	2
【그림 3】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8
【그림 4】 20대 청년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질 집단	8
【그림 5】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9
【그림 6】 졸업 후 현재 상태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	9
【그림 7】 20대 청년정책 발전전략의 기본 틀(안)	10
【그림 I-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13
【그림 I-2】 설문조사의 기본 틀	15
【그림 I-3】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I-4】 연구 추진절차	20
【그림 II-1】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범주	24
【그림 II-2】 청년층(20세~29세) 고용률 추이	32
【그림 IV-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82
【그림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표본 할당	88
【그림 I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설문지 개발 절차	89
【그림 IV-5】 현재 상태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102
【그림 IV-6】 졸업미취업자의 졸업 후 경과 기간 따른 자존감의 비교	103
【그림 IV-7】 현재 상태에 따른 긍정미래관의 비교	104
【그림 IV-8】 현재 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비교 ..	105
【그림 IV-9】 졸업미취업자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일상생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비교	107
【그림 IV-10】 현재 상태에 따른 진로성숙도 총점의 비교	108
【그림 IV-11】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생의 대학중퇴의 사유	123

【그림 IV-12】 등록금 대출의 종류	142
【그림 IV-13】 등록금 대출 받을 당시, 대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143
【그림 IV-14】 생활비 대출의 종류	151
【그림 IV-15】 생활비 대출 받을 당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152
【그림 IV-16】 생활비 대출로 얻은 가장 큰 이점	156
【그림 IV-17】 경험 인턴제 종류의 분포(복수응답)	176
【그림 IV-18】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유	190
【그림 IV-19】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도 비교	194
【그림 IV-20】 현 거주지별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자 비율	201
【그림 IV-21】 학자금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205
【그림 IV-22】 주거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207
【그림 IV-23】 취업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210
【그림 V-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217
【그림 V-2】 20대 청년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질 집단	219
【그림 V-3】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220
【그림 V-4】 졸업 후 현재 상태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220
【그림 V-5】 정책 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224
【그림 V-6】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230
【그림 V-7】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의 기본 틀(안)	243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에서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자 과도기(장휘숙, 2010, p.4)로 설명되는 청소년기는 유예(moratorium)되고 있는 성인기 진입으로 인해 그 시기가 연장되고 있다. 특히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이루어지는 후기청소년기가 '생애단계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주2)와 더불어 연령범주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전상진·정주훈, 2006; 오찬호, 2010).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대상자로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고, 이들 중 후기청소년은 19세부터 24세 연령대, 즉 20대 초반 연령대로 이해되고 있으나, 성인기 이행과정의 불안정성 증대 및 지연으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의 경계는 이미 모호해졌다. 확장되고 연장된 후기청소년기로 인하여 이제까지 서로 다른 집단으로 간주되었던 20대 청년과 후기청소년은 단지 불리는 명칭이 다를 뿐 삶의 동일선상에 놓인다.

연장되고 분화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후기청소년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과 세대 간·세대내 불평등의 심화 등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 사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갖는 역할과 의무에서 유예되어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유예 '당한' 상태에 있다(이광호, 2003; 오찬호, 2010; 전상진, 2011).

완전고용과 안정된 결혼생활이 가능했던 서구자본주의 황금시대(Golden Age)에 형성된 성인으로서의 역할 규범과 성인지위의 요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후기청소년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지 않으며(Blatter, 2007;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사회구성원으로서 유예당한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본 장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15년 제1호(2015.2.28)로 기 발행된 바 있음.

주2) 청소년기의 탈표준화와 탈구조화란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규정하는 제도와 조직(regime)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고 그 변이형의 수가 많아지는 상황을 말함(전상진·정주훈, 2006, p.282).

성인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획득할 수 없는 성인의 지위로 인하여, 후기청소년들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약자(social minorities)로서 위치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88만원세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들이 부각된 이래로 이들의 삶의 여건은 잔혹하리만큼 더 열악해졌다. 여전히 10명 중 7명은 고교 졸업 후 고등교육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고,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들의 대학생활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으로 수렴되는 균형 잃은 일상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예전이라면 ‘여가활동’이라고 했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조차도 취업이라는 목표에 적절히 합치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키며(한운형, 2013, p.234), “취직을 위해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조차도 정형화 시키는데 개의치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p.13).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후기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 경쟁 하에서 취업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졸업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선택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며, 취업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준비하는 일명 ‘스펙 쌓기’의 비용은 학자금부담과 함께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기반을 형성하기도 전에 ‘빚’이라는 부담을 안긴다. 또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취업’이라는 목표 이외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단절’되는 삶을 선택한다. 20대 청년들에게 특권이라고 간주되었던 연애조차도 이들은 취업을 위해 포기하며, ‘자립을 위한 고립’의 누적된 시간을 기꺼이 감내한다.

졸업 후 연장되고 있는 취업준비기간은 “취업준비생”이라는 새로운 계급³⁾을 탄생시켰는데(전다운·강선일·나해리·정은주, 2014, p.405), 그나마 “취업준비생”이라는 지위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보다 나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감당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어야만 겨우 획득할 수 있는 지위다.

취업준비생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까지 언급될 정도로 그 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것은 이들을 둘러싼 두 주체, 즉 정부와 부모의 기본적인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³⁾를 지탱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로 편입되지

주3) Doeringer and Piore(1971)에 의해 제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서는 노동시장이 고임금과 높은 고용안정성 및 양호한 근로조건의 특성을 갖는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저임금과 낮은 고용안정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갖는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로 분단되어 있으며,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않는 상황이 난감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양육한 자녀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괴롭다(한윤형, 2013, p.232).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당사자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반복되는 취업실패로 인한 ‘자기에 상실’과 ‘좌절감’, 그리고 부모에 대해 높아만 가는 ‘부채감’ 등의 무게로 위축되어 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자신만의 고립된 시·공간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갖는다(정상근, 2011, p.132; 한윤형, 2013, p.284~285).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하고 정형화된 내용들로 20대의 삶을 구성하여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면, 20대 청년들이 취업하기까지 가졌던 곤란함과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바늘구멍을 뚫고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다할지라도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계약직이며,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0명 중 2명(통계청, 2014. 1.14; 한국경제, 2015.1.14)도 채 되지 못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대졸신입사원의 4명 중 1명은 입사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퇴사하며, 그 비율은 2010년 15.7%에서 2014년 25.2%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이른 시기에 퇴사하는 주요 사유가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47.6%)’(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p.8)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취업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주4)}와 같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열심히 일해도 절망적인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토리세대’에 빗대어 ‘달관(達觀)세대’로 칭해진 이들은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정규직에서 일하여 적게 벌지라도 덜 일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청년들이다(조선일보, 2015.2.24.).

젊은이들이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에 가능하며, 미래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지이다”(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p.8).

경제성장과 함께 계층 상승을 경험한 부모세대와는 달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이미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을 경우 이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파악함(김훈, 2015, p.59; 금재호, 2001, p.4~5).
주4)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의 사토리(さとり)는 ‘득도, 깨달음’이란 뜻으로 양극화, 취업전쟁, 주택난 등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적 미래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지금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1980년대 중후반~90년대에 태어난 10대 후반~20대 중반의 일본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조선일보, 2015.2.24.).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의 부모세대의 계층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다. 정규직이 되어도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는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지금은 행복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표면적으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세된 기대심리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좌절의 심리를 체념의 현실 안주로 대체하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등장은 저성장·장기불황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낭만주의 모라토리엄주의^{주5)}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달관세대’의 삶의 지향점과 방식이 후기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삶의 문화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활력의 중심에 있어야 할 세대가 하향 지향적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사람’이 최대 자원인 우리사회의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생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증가는 저성장에 봉착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주요한 문제 집단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따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빈곤’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부모’ 또는 ‘가족’이라는 우리사회의 최강 복지인프라 덕분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의 삶에 ‘빈곤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후루이치노리토시, 2014). 이처럼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우리사회가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이들이 생애주기 상에서 또는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세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층(表層)” 이기 때문인 것이다(한윤형, 2013, p.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은 ‘고용률 증가’에 집중되어 있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취업의 문제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미 장기간 청년고용의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불안정한 현재와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 그리고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려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주5)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 청소년기의 확장과 성인기 이행의 유예(moratorium)와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목표는 성인지위의 준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존재의 획득에 있다(전상진, 2011, p.169)고 보는 관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단순히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허리세대로서 자리매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이들의 삶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의 노력은 이제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범주에 포함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고민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하고자 했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주6)}. 그러나 대학생과 같이 후기청소년을 구성하는 일부 하위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시점(spot)에서 포착된 문제에 집중하였을 뿐, 생애전반의 관점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유예당하고 있는 모든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향과 정책적 개입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접근하는 시각과 관점을 보다 확장하고,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개별 문제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대응해온 기존의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대상자 중심의 생애주기적 관점과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하위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연장되고 있으며 이미 다분화 된 상태에 놓인 후기청소년기의 특성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동시에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운의 실태, 특히 높은 고등교육진학률로 인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세대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실태를 통해 파악된 정책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6) 2015년 2월 5일, 국회 김기춘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가 주최한 ‘서울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한 「대학생 정책연구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임.

2. 연구의 구성

1) 연구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라는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성인기 진입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유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의 실태를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방향과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연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장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가 어떠한 사유로 수행되며, 어떠한 측면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문제제기와 더불어 연구의 배경을 설명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그리고 어떠한 체계로 연구를 수행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과 후기청소년을 함께 접근해야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용어로 칭해지는 이들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 법령과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후기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성인기로의 진입이 유예되는 현 상황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정책연구의 성과 및 한계와 더불어 기존 관련연구들에서 드러난 문제들과 당면과제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현황을 현재 범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학자금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 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같은 틀로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한국의 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시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20대 청년 또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즉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웹기반 온라인 설문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욕

구를 발견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찰된 정책현황의 한계 및 시사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발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의 구성

구분	해당 장	내용
서론	제1장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의 구성 •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2장	• 정책대상으로서 개념 및 범주 • 성인기 진입 유예에 관한 이론적 관점 •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관련 드러난 문제와 당면과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대상 지원 정책 현황	제3장	• 정책 대응 현황과 한계 • 주요 선진국의 정책 대응 사례 • 청년지원관련 법안 발의 현황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제4장	• 조사개요 •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분석 • 현 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정책욕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 전략	제5장	• 정책 추진 방향 • 비전과 전략 • 추진체계 및 추진과제

2) 연구방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 내용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및 간담회,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설문조사,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들 방법들 중 본 연구 내용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FGI: Focus Group Interview와 설문조사는 정책당사자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참여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윤리(Basic Principles of Ethical Research)를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Project’(UNICEF, 2013)의 연구윤리 가이드 및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연구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2015.3.10. 일 검색), 그리고 미국 SRCD(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연구윤리가이드(Ethical Standards in Research; 2015.3.10. 일 검색)의 공통사항을 연구 추진의 각 단계에서 준용하였다.

먼저, 연구 설계 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의 구성 및 방법이 연구대상자이자 참여자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잠재적 피해는 없는지(Protection from Harm)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이 연구 참여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편의를 최대화(Harms and Benefits)하는 것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각 단계별 연계되는 참여과정 또는 한 단계 내의 참여를 하는데 있어 모든 단계와 과정에서 강요와 강제(coercion)는 요구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과 거부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연구 참여 전에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연구에 참여하기 전, 섭외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연구의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며, 소요되는 시간과 참여한 결과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nformed Consent).

셋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anonymity)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Maintenance of Privacy), FGI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과정에서 얻게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범위, 그리고 이들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와 관련해서도 동의를 구하였다(Maintenance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넷째, 설문초안 서면검토에 참여한 참여자들 중 자신의 의견이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경우, 이에 대해 e-mail 회신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및 비반영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였다(Debriefing).

다섯째, 연구 참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수당이나 답례품, 예컨대 설문초안 검토에 대한 참여 수당,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답례품, 그리고 간담회 등에서 제공되는 간식 등에 대해서도 각 단계에 참여하기 전,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Sharing Benefit and Compensation).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연구윤리의 준수를 기초로 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1) 문헌연구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를 관계법령과 정책사업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성인기 진입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과 이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학술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 및 정책적 당면과제를 기존 연구들과 문헌 그리고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현황을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가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문헌과 해당국가의 온라인상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연구 추진과정에 있어 각 단계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을 개발하거나 시행해온 정부부처의 공무원,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슈를 발굴해 온 현장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검토·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 정책대상자로서 이들을 접근하는 시각과 그와 관련하여 실증적 연구의 틀 거리가 될 수 있는 이론에 관한 자문과 현행 주요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20대 청년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특성에 관한 자문을 시작으로 연구가 착수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방향 및 내용구성, FGI 질문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실태조사 도구로서 개발되는 설문초안 및 수정본에 대해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주요 분야(노동, 교육, 사회, 정책)의 학계 및 정책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을 자문위원으로 포함하여 정책당사자들 시각에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및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정책 발전전략의 방향 설정, 그리고 전략을 도출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자문진	개최 시기
1차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접근하는 시각 및 근거이론, 연구의 방향 및 실행계획 내용 검토	20대 청년연구 전문가 1인	3월 17일
2차	현장에서 만난 20대 청년의 심라-정서적 특성과 면접조사 질문 구성 시, 주요 반영해야 할 사항	20대 청년연구 전문가 1인	4월 09일
3차	각 분야 20대 청년연구의 현황에 관한 간담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연구자 10인	4월 14일
4차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자립, 양극화에 관한 간담회	대학생 기자 2인	5월 08일
5차	설문초안 서면 검토	전문가 7인 및 20대 18인	5월 22일~5월26일
6차	설문초안 수정 방향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7인	6월 02일
7차	설문초안 수정본 검토 및 의견 청취를 위한 20대 청년 간담회	20대 청년 10인	6월 05일
8차	설문초안 수정본 서면 검토 및 자문회의	전문가 7인 및 20대 11인	6월 5일~6월8일
9차	실태조사 분석 결과검토 및 정책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전문가 5인	11월 12일

(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현재 상태 및 당면한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앞서, 이들의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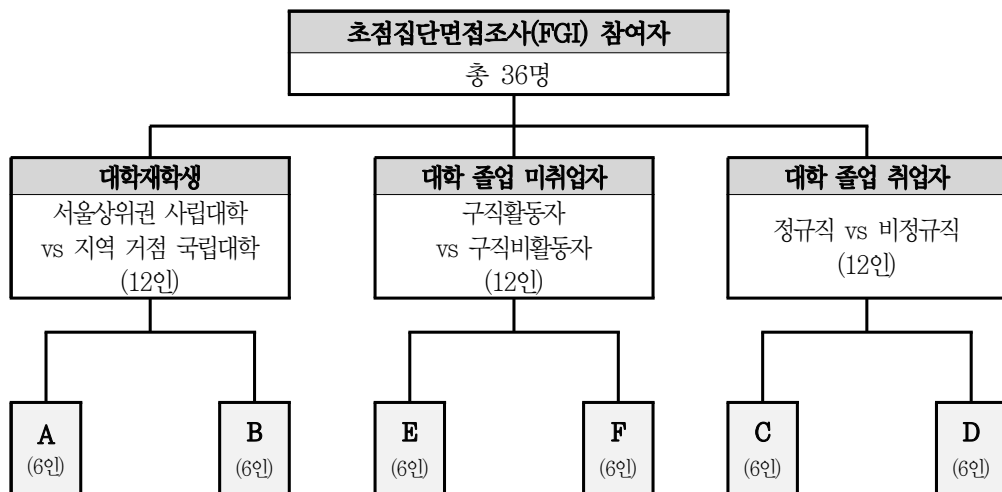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상태를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미취업자, 대학 졸업 취업자(정규직 vs 비정규직)의 하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별 2개씩의 세부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각 세부집단별 6인으로 구성된 총 36명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FGI의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각 집단별 참여자의 구성은 문헌고찰 및 전문가자문회의 내용에 기초하여 참여자 섭외기준을 마련한 후 할당하였다. 집단별 공통적으로 성비(gender)의 균형 할당을 하였으며, 성별 구성 이외 다른 조건들은 정책적으로 각 집단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대학 재학생 집단의 경우, 이미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과 이공·자연계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구성과 졸업 후 진로 경로 및 취업 가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 국립대학 재학생과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학자금 부담의 격차를 고려하여 크게 두 집단(서울 상위권 사립대학 재학생(A) vs 지방거점 국립대학 재학생(B))으로 구분하였다.

대학 재학생 중 지방 사립대학 재학생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의 학교생활과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과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여 대학 재학생 FGI대상 집단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학 졸업 미취업자 및 취업자들의 회고적 경험을 통해 지방사립대학 학생들의 특성과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그림 1-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졸업자 중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 구직활동 여부 등 현재 상태와 생활실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령을 기준으로 두 집단(구직활동자(E) vs 구직비활동자(F))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졸업자 중 취업자 집단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그리고 직장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두 집단(정규직(C) vs 비정규직(D))으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서울지역 취업자와 여타 지역 취업자의 구성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FGI는 학교 안과 밖에서의 대학생활, 현재의 어려움과 고민들, 20대 청년들의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경제적 부담과 학자금·생활비, 재학 중 일 경험 및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졸업자만), 현 직장 취업과정 및 일자리 실태(졸업자 중 취업자만) 등과 관련한 내용의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표 1-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 고
참여자 섭외과정	- 연구자가 각 집단별 세부 섭외기준 마련 - 섭외기준에 따라 조사전문회사가 참여자 온라인을 통한 공개 모집	
참여자 수	19세~29세 하위 세부 6개 집단(A~F)각 6명, 총 36명	【그림 1-1】 참조
면접방식	반 구조화된 집단 면담 및 집단 토론 병행	
소요시간 및 횟수	1시간 30정도 각 집단별 1회	
자료 기록 및 녹취	녹음 및 녹화 후 전사	녹화 병행
면접진행	연구자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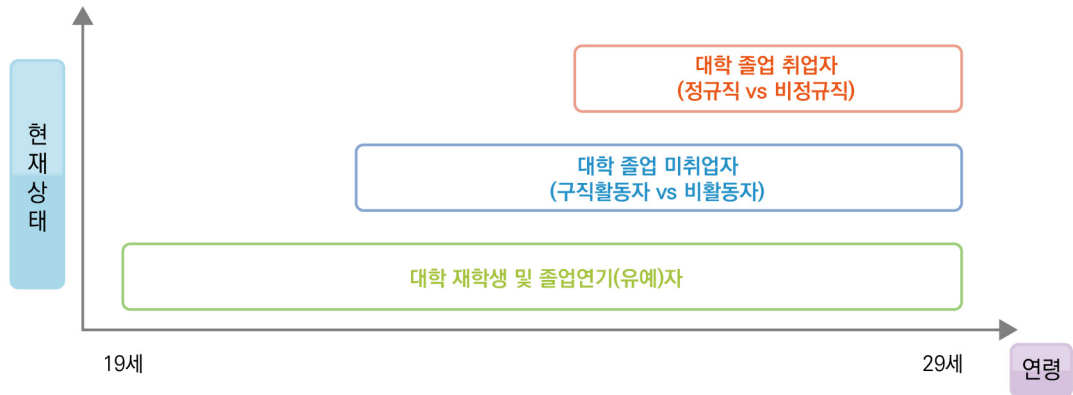
(4) 설문조사

앞서, 고찰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전문가자문의 내용, 그리고 FGI를 통해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여 19세~29세의 연령을 횡축으로, 현재 상태를 종축으로 하는 틀을 설문조사의 기본 틀로 구성하여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및 졸업자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생 수의 60%에 이르는 학생들이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구조 및 특성이 다른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괄할 경우 표본 수에 많은 비중을 반영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현재 실태가 분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주7)}. 이에 따라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비교적 경험 구조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주8)}.

주7) 문헌고찰, 조사관련 업무협약, 설문초안 수정방향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5.6.2.)에서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임.

주8) 대학과정이 있는 학교의 수는 총 223개교이고, 이들 중 일반대학은 189개교로 83.6%임. 학생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



【그림 1-2】 설문조사의 기본 틀

2015년 현재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5년 학교 개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 중 국립 28개교, 공립 1개교, 국립대법인 3개교, 특별법법인 3개교, 그 외 나머지 154개교는 사립이다(2015.5.27일 검색). 본 연구에서는 편의에 따라 국·공립 35개교와 사립 154개교로 나누어 본 설문에 관련 측정문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의약계열전공자와 예체능계열전공자가 아닌, 19세~29세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다. 의약계열전공자와 예체능전공자를 본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대학과정의 학교들 중 일반대학으로만 한정하는 사유와 같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의 구조적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총 수는 물리적 시간과 금전적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2,000명이며, 존재하지 않는 표본 틀로 인하여 비확률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6개 하위집단의 표본수를 임의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표본 할당 시, 연령범주와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하위집단별 19세~24세 및 25세~29세 연령범주의 비율과 남녀의 성비는 가능한 5:5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문헌고찰과 기존에 개발된 청년대상 설문지의 검토 및 보완 활용, 그리고 FGI를 통해 포착된 현실관련 문항의 개발 등으로 설문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20대 당사자들의 검토, 검토의견을 반영한 설문초안의 수정·보완, 수정된 설문에 대한 반복된 재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작성되었다.

학과정에 있는 학생수는 2,791,975명이고, 이들 중 일반대학 재학생은 1,649,176명으로 59.1%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pp.31~35).

자료 수집은 최종 작성된 설문문항을 웹(Web)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오류체크 등을 거친 후 웹(Web)기반 온라인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1-4 설문조사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4년제 일반대학(189개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 제외) 중 2015년 6월 1일 현재 19세~29세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표집 틀	• 비확률 할당표집 방법으로 표집 틀 없음																																									
표본 수	• 총 2,000명 (단위: 명)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전체</th><th>재학생</th><th colspan="2">졸업생</th></tr><tr><th colspan="2"></th><th></th><th></th><th>취업</th><th>미취업</th></tr><tr><td rowspan="2">19~24세</td><td>남</td><td>500</td><td>300</td><td>100</td><td>100</td></tr><tr><td>여</td><td>500</td><td>300</td><td>100</td><td>100</td></tr><tr><td rowspan="2">25~29세</td><td>남</td><td>500</td><td>200</td><td>150</td><td>150</td></tr><tr><td>여</td><td>500</td><td>200</td><td>150</td><td>150</td></tr><tr><td colspan="2">계</td><td>2,000</td><td>1,000</td><td colspan="2">1,000</td></tr></table>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생						취업	미취업	19~24세	남	500	300	100	100	여	500	300	100	100	25~29세	남	500	200	150	150	여	500	200	150	150	계		2,000	1,000	1,000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생																																						
				취업	미취업																																					
19~24세	남	500	300	100	100																																					
	여	500	300	100	100																																					
25~29세	남	500	200	150	150																																					
	여	500	200	150	150																																					
계		2,000	1,000	1,000																																						
표집방법	• 표집방법: 할당표집 • 조사방법: 온라인 자기기입식																																									
조사 시기	• 2014년 6월 3주 ~ 7월 4주																																									

(5) 기타 연구방법

○ 콜로키움

정책대상자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접근 방법, 그리고 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중요한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 선진복지국가에서의 정책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 또는 전문가와의 대담을 중심으로 한 콜로키움을 총 2회 기획하였다.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20대 청년, 특히 대학재학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집필활동을 하는 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학습을 하였다. 아울러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 및 정책들의 시각과 접근 방식의 한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문헌자료에서 쉽게 파악되지 않는 인턴 및 수습제도에 대해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하고 논의하였다.

표 1-5 콜로키움 개최 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오찬호 박사	5월 12일
2회	인턴 및 수습제도의 실태, 문제점, 대응방안	김종진 연구위원	9월 03일

○ 정책실무협의회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높은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자인 20대 당사자들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내용의 추진 단계별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미진하게 대응해온 정책대상자인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부처에서 어떠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봄과 동시에, 본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타진하였다.

두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정부의 추진 계획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는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였다.

표 I-6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후기청소년관련 정책 추진 계획 및 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논의	여성가족부	2월 03일
2차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관련 동향 파악	기획재정부	4월 09일
3차	국회 관련 발의법안 관련 주관부처의 검토내용 파악	여성가족부	6월 26일
4차	대학장학금 사업 현황 파악	교육부	8월 20일
5차	정책 발전전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1월 12일
6차	제안된 정책발전전략 입법가능성 검토	국회	11월 19일

세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등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청취하고 상임위에서 검토한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네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확대된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의 현황과 향후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의 담당과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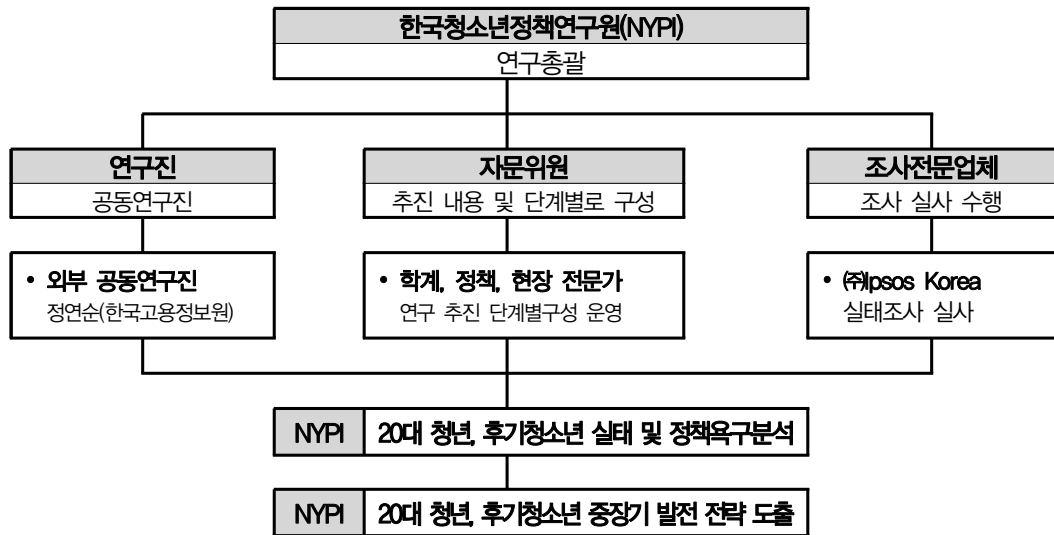
다섯 번째 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여섯 번째 정책실무협의회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의 입법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실과의 정책실무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다.

3.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의 실태를 이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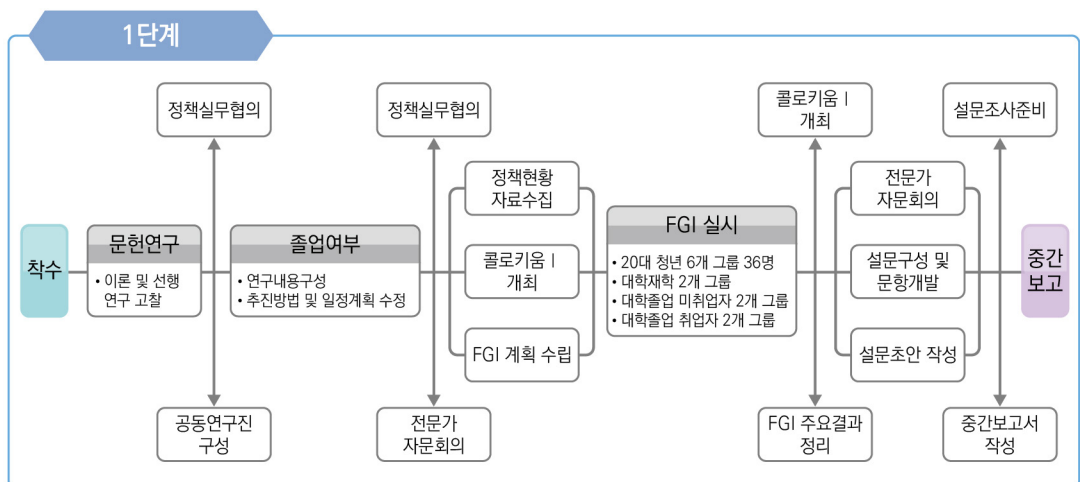
정책의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방법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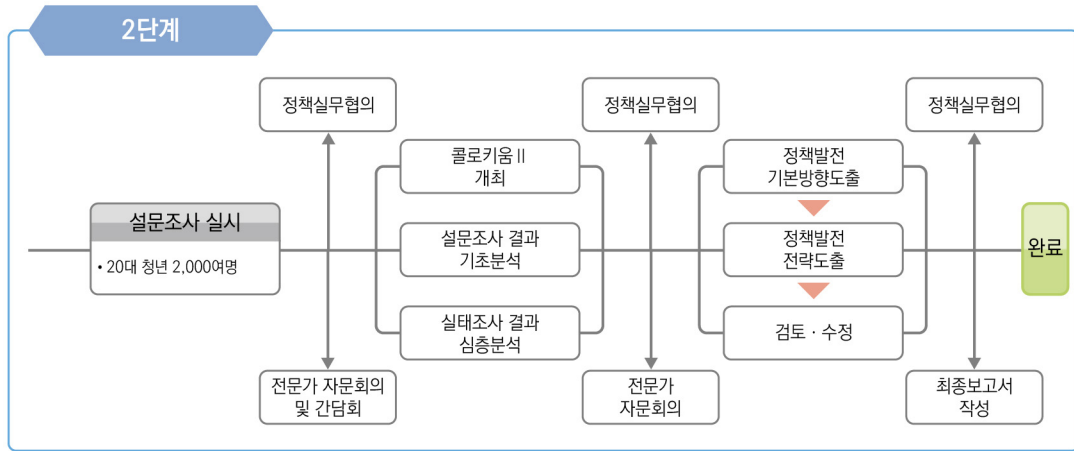


【그림 I-3】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 절차

상기의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획된 연구의 내용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I-4】 연구 추진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2. 후기청소년기 유예에 관한 이론적 관점 및 관련 연구 고찰
3.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관련 드러난 문제와 당면과제

제 II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1) 관계법령에 따른 개념 및 범주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 즉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에 근거하며, 여기에 신체적·정서적·인지적·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과 공교육과 같은 사회제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연구 분야에서 구분한 세 단계의 연령집단, 즉 초기청소년(9~14세), 중기청소년(15~18세), 후기청소년(19~24세)에 기초하여 정의된다.^{주10)}

청년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적용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2015.4.15.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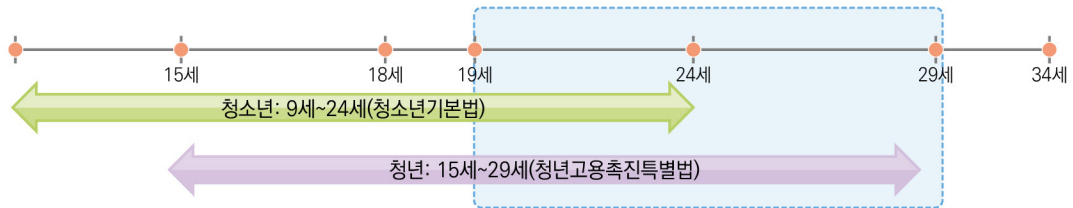
이처럼 정책영역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정의하는 데에는 ‘연령’이 기준이 되며, 그 연령의 준거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다. 예컨대 2013년에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을 정의함에 있어 그 나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로 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제정 당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였던 30대 구직자들이 청년의 개념을 29세까지로 한정할 경우 연령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 이 장의 1절과 2절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3절은 김지경과 공동연구원인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15년 제1호(2015.2.28)로 기 발행된 바 있음.

주10)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

등의 요구가 있었고, 그러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주를 [그림 II-1]과 같이 비교해보면, 15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대가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범주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이 15세부터 시작되기는 하나, 우리사회에서 중등학령기의 10대를 사회통념상 청년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또한 연령에 따른 경계가 무의미한 상태이고, 동시에 성인기 이행의 유예가 30대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 범주의 후기청소년 및 20대 청년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정책사업 대상자 기준에 따른 개념 및 범주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생애발달이 탈표준화 및 탈구조화됨과 동시에, 사회의 제도적 영향력 또한 개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정책대상자를 연령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에서 정책대상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연령 이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계법령 외,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정책 사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법령이 연령에 따라 큰 틀을 제시하였다면, 정책 사업에서는 대체로 관계법령에 기초하되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상태’는 정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기도 하며, 정책 사업의 목적과 운영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청년들의 취업과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사업의 대상자는 대체로 ‘미취업’이라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예컨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AP+(청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의 약자), Hi(고교(highschool) 단어의 영문 앞 글자, 사회에 첫 진출한다는 의미로 ‘안녕(Hi)’라는 인사말의 영문단어를 의미),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allA(‘오르다’라는 뜻과 모두(all) 최고(A)라는 의미)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표 II-1 정책사업 대상자의 ‘상태’ 기준의 예시: 고용정책사업

구분	사업명(프로그램)		사업대상 기준의 ‘상태’
취업 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allA	미취업 + 니트(NEET) 상태
		Hi	미취업 상태
		청년취업역량	미취업 상태
		CAP+	미취업 상태
		취업희망	미취업 + 심리적 취약 상태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상태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미취업 상태
	해외 취업지원(K-Move)		미취업 상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미취업 상태
	청년취업아카데미		미취업 상태
일자리 창출	해외인턴사업		미취업 상태
	중소기업근속장려금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 고졸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5세 이상 미취업자, 고3 재학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최종학년으로 대학원 비진학자
	취업사관학교 운영		15세~24세 학교 밖 상태의 청소년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 각 사업의 내용 발췌재구성.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미취업’이라는 상태와 더불어 또 다른 상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기도 하는데, 니트(NEET)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인 allA프로그램의 경우 니트 상태라는 조건을 하나 더 고려하여 지원한다. 또 다른 예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희망프로그램의 경우 미취업상태와 더불어 ‘심리적 취약 상태’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K-Move 스쿨,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도 대상 연령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미취업’이라는 상태 이외의 것을 고려하여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사업도 있다. 예컨대 기업이나 사업주단체가 대학과 협력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인턴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대학 ‘졸업예정’ 또는 대학 ‘졸업’이라는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용노동부, 2015, p.15; p.20). 또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고졸청년의 장기근속 및 경력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근속장려금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의 근로자라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라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들 사업 이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취업사관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밖 상태에 있는 15세~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정책 사업에 이어 학자금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에서 기본적으로 가계의 소득수준과 성적이 신청자의 ‘상태’로 고려되고 있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이 가능하고 등록금 전액이 대출 가능하며 신용 등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든든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의 경우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임과 동시에 ‘가구소득 8분위 이내’라는 상태, 그리고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고 C학점의 성적을 얻은 상태라는 조건이 신청자격으로 전제된다. 또 일반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의 경우도 ‘가구소득분위 9분위 이상’이라는 요건만이 상이할 뿐 사업대상자를 복합적인 상태의 기준으로 규정한다. 소득이 사업대상 기준의 상태로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학자금 대출과 같이,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소득분위와 성적이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대상자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II 유형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성적이 B학점이상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 8분위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인 상태여야만 신청가능하다. 정책사업 대상자인 대학재학 후기청소년들은 소득과 성적을 국가장학금 지급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요건의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집단 내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이태형, 2015). 한편, 희망사다리장학금의 경우 현재의 상태가 아닌 ‘미래의 상태’, 즉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을 약속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표 II-2 정책사업 대상자의 ‘상태’ 기준의 예시: 학자금지원사업

구분	사업명(프로그램)	사업대상 기준의 ‘상태’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가구소득 8분위 이내, 3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C학점 이상 성적
	일반상환 대출 및 생활비 대출	• 국내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5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C학점 이상 성적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C학점 이상 성적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이용 학부생 중 든든학자금 대출조건 충족자 • 등록금 대출 잔액이 10만원 이상인자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II 유형	• 가구소득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차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C학점 이상 성적
	국가근로장학금	• 가구소득 8분위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로 C학점 이상 성적
	희망사다리장학금	•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자 + 총장 추천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에서 발췌재구성(2015.4.21.일 검색).

이상과 같이, 정책사업 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과 범주는 관계법령에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연령’이외 사업에 참여하는 당시의 ‘상태’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더불어 대학재학 여부와 취업 여부 등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미 다양한 정책 사업에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대상으로 범주화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후기청소년기 유예에 관한 이론적 관점 및 관련 연구 고찰

1) 후기청소년기 유예(moratorium)를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

사전 상 ‘모라토리엄’의 의미는 전쟁, 공황,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정부가 채무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말한다(다음백과사전, 매일경제백과사전 2015.2.27. 검색). 이 개념을 루소가 교육학적 및 청소년학적인 연관에서 사용한 이래 청소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자리 잡는다(Zinnecker, 2003, p.42-44; 전상진, 2011, p.168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를 발달적 특성, 즉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9세~14세), 중기(15세~18세), 후기(19세~24세)로 나누어 구분한다면, 고등교육기간의 연장과 경제적 독립이 지연에 따른 후기청소년기의 연장, 즉 유예(moratorium)는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리만큼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 분야와 정책 영역에 따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을 후기청소년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나름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공통적으로 후기청소년기를 20대 중·후반까지 연장시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조혜영·김지영·전상진, 2012, p.17; 오찬호, 2015.5.12)들로 이어지고 있다.

오찬호는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취업 또는 취업준비에 대한 ‘힘듦’과 주어진 상황을 개선시키자는 정치적 의사표출의 부재 등을 고려해볼 때, 2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되는 ‘청년’을 ‘후기청소년’으로 표현해야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과거 20대를 통칭하는 보편적인 용어가 ‘청년’ 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는 과거의 20대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구조적 제약을 받고, 그 상황 하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삶의 내용을 갖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의 이미지에 더 가깝다고 설명 한다^{주11)}.

생애주기 상, 후기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유예되고 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있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한 사회의 독립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유예 당하고 있는 후기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관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계몽주의적·근대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낭만주의적·탈 근대적 모델이다(전상진, 2004;

주11) 콜로키움 I (2015.5.12.) 주제발표 및 논의 내용

전상진, 2011).

계몽주의적 모델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어, 후기청소년기를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학교교육과 자격증 등의 획득은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로 본다. 그리고 이들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전상진, 2004, p.204; 전상진, 2011, p.169; 전상진, 2013, p.52). 이와 같은 관점의 계몽주의적 모델에서는 합리적 계산에 의한 목적-수단의 준거들에 입각한 성과지향적인 기획으로서 인적자본(human capital), 학습자/소비자로서의 학생 양성을 중요시한다(전상진, 2004, p.204; 전상진, 2013, p.52).

이와는 달리 낭만주의적 모델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며, 청소년기 고유의 의미를 강조한다. 경제적 효율성 보다는 개별적·감정적·심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인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준비가 목표가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존재의 획득을 목표로 한다(전상진, 2004, p.204; 전상진, 2013, p.52). 여가와 청소년 문화활동은 가장 중요한 삶의 장소이며,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가치들의 획득이 중요하다고 보며, 일상생활의 문제들은 또래의 도움과 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전상진, 2004, p.204; 전상진, 2011, p.169). 최근, 청년세대가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불안과 낮은 임금을 받을지라도 저비용의 소비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하는 ‘달관세대’의 등장은 낭만주의적 모델의 범주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오찬호, 2015.5.12.).

이상의 후기청소년기 유예(moratorium)에 관한 두 관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경제적 독립과 성인으로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배제하고서 논의하기는 어려우며, 후기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또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갖는 개별적이고 감정적이며 정서·심리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관점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두 관점 사이에 아직 포착되지 못한 연계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현재 상태를 기점으로 하여, 이들의 현재 상태·경험과 의식·감정, 그리고 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택·행위를 기본 틀로 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의 단면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2) 성인기 진입 유예관련 기존 정책연구의 성과와 한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정책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수행된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와 2012년과 2013년에 수행된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나 직업 선택을 분석한 학술논문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수행된 연구는 이들 연구이외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책연구는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드러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에 후기청소년들이 포함되기는 하나, 후기청소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대학생’ 또는 ‘20~30대 성인 남녀’ 라는 명칭 하에서 일부 20대, 후기청소년들이 포함될 뿐이다.

2010년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의 첫 해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인기 이행 양상을 분석하여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학력화와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2011년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의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자 했던 두 번째 해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취약·위기 후기청소년들이 성인기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계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인기 이행의 과업과 과정에서의 실태와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후기청소년 집단 내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서구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형성된 성인역할의 규범 이행에만 초점을 두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의식과 감정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격적으로 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이들의 삶의 단면들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라 할 수 있다. 2012년 첫 해 연구에서는 후기청소년세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주거, 재학 중 근로, 취업준비, 여가 등 생활 및 의식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연구의 결과가 국회 「청소년기본법」 개정 발의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광범위한 생활 전반의 실태를 이슈중심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는데 그쳐 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식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각 이슈별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쳤다.

2013년 두 번째 해 연구에서는 고졸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으로서 소외된 이들을 정책대상자로 부각시키고 다양한 하위집단(취업자, 구직자, 진학·취업·창업 준비자, 니트)의 존재와 그에 따른 집단별 상이한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 또한 국회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발의의 기초자료가 된 바 있다.^{주13)} 이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 가지(통합적 정책, 권리기반 접근, 하위집단별 맞춤형 정책)로 제시하고, 네 가지(정책대상화, 제도운영, 기업 및 고용주, 입법) 측면에서 추진 과제를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청소년정책으로서 동력을 얻어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현 추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실태에 기초한 정책수요를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3. 20대 청년, 후기청소년관련 드러난 문제와 당면과제

1) 생애경력 형성의 지연: 풀리지 않는 취업문제

(1) 좁은 취업문, 질 낮은 일자리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 공급이 부족하고, 복지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규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테올로지”(전병유, 2009, p.100; 오혜진, 2013, p.465에서 재인용), 즉 신자유주의가 유입됨에 따른 우리사회 위험도의 체감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고용문제에서 가장 극명하고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청년 고용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층에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청년 실업률, 질 낮은 일자리,

주12) 후기청소년 개념 정의에 관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발의(2013.03.22., 국회 강은희의원 외 1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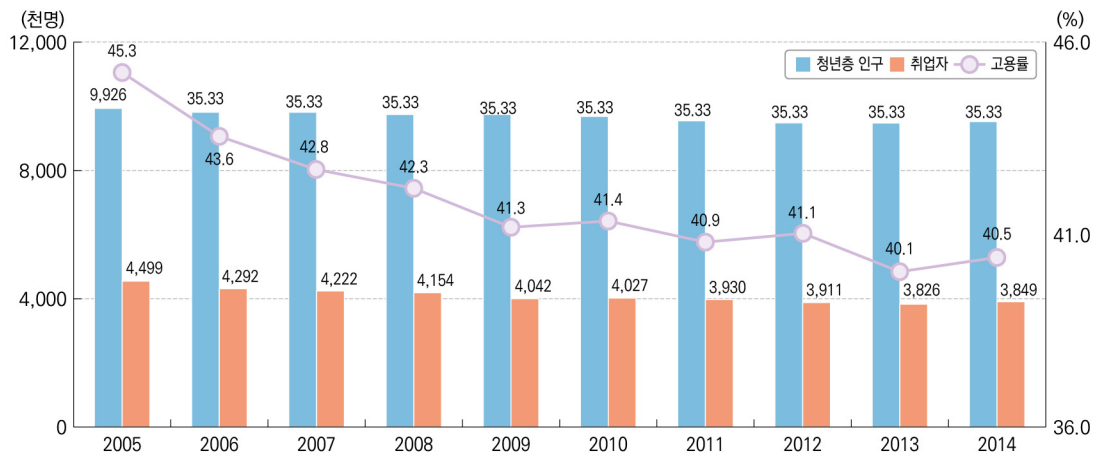
주13) 비진학 청소년 지원 관련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발의(2014.03.11., 국회 강은희의원 외 10인).

대규모 취업준비생들의 존재는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 곤란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성인기 이행의 중요한 생애사건을 지연시키거나 포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단 청년 세대 뿐 아니라 이들을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부담으로까지 증폭됨으로써 우리사회 전 세대에 걸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 실업률의 두 배 정도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15년 4월 현재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 실업률 3.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1999년 관련 통계가 정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아시아경제, 2015.6.8., 2015.6.10.일 검색). 일반적으로 통계조사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 일자리에 일한다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 취업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20대 청년(20세~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 수준이다. 전체 청년들 중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5년 이래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출처: 통계청(2014.7.15.),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p.1

【그림 II-2】 청년층(20세~29세) 고용률 추이

최근 청년층에서 구직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나, 청년 일자리의 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진희·김두순·이제

성, 2015, p.35). 다시 말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더욱 장기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은 20대 청년의 42.7%가 대학 중 평균 2년 4개월(남 2년 8개월, 여 1년 4개월)의 휴학기간을 갖고,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졸업 유예로 4년제 대졸자의 평균졸업소요기간이 5년 2개월(남자 6년 4개월, 여자 4년 4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취업기회의 감소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졸업 후 평균 12개월가량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4.7.15.).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12개월에 이르는 것은 다수가 희망하나,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첫 취업을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 중 단기계약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고졸 이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주14)}(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p.33). 최근 청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증가 부문을 보면, 임시, 아르바이트 성격이며, 직종별로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 산업별로는 주로 음식 및 숙박업에 종사함으로써 청년들의 경력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자리들이다.

또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7년 35.9%에서 2014년 32.4%로 낮아진 반면, 청년층은 같은 기간 33.5%에서 34.6%로 오히려 상승하였다(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p.35). 청년층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은 2007년 90.4%에서 2014년 77.8%로 12.6%p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수준 하락폭의 두 배에 이른다(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p.35). 이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단기·임시 일자리의 증가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노동 시장 이행은 점차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낮은 질의 일자리에 유입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연장되는 취업준비기간, 증가하는 취업준비자

열악한 청년 노동시장의 상황과 취업난으로 다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고

주14) 첫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의 비중은 2006년 8.7%에서 2014년 14%로 상승.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004년 20.8개월에서 2014년 17.9개월로 감소(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거나, 아예 취업 의욕을 상실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화 되어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괜찮은 일자리'로 대변되는 1차 노동시장과 '열악한 일자리'로 대변되는 2차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워 초기 첫 일자리 질이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의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친다(김성환·박상우, 2008; 박진희·김두순·이제성, 2015, p.39). 이를 인식하고 있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졸업이나 취업을 유예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주15)} 진입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을 선호하며, 이와 같은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대학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감수한다. 이들이 첫 일자리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데에는 비정규직이 가고 일자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분석된 연구결과들, 즉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고, 300인 이상의 민간부문과 비교해도 고용평등기회, 고용안정성 부문에서 우위를 보인다(김기민, 2015, p.1)는 결과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26.3%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은 43.9%의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이 높다(이지은, 2015, p.1)는 결과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에 20대 청년들이 선호가 집중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한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의 취업을 위해 졸업 후 장기간의 취업준비기간을 갖는다고 하여, 졸업 후 즉시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한 이들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의 이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대학 졸업 이후 취업준비기간이 대다수에게 성공적인 취업이행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권혜자, 2014, p.180).

이러한 여파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지도,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청년 NEET 규모는 147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통계청, 2015.5.13). 가장 활기차게 일하면서 숙련을 형성할 청년 세대들이 노동시장 밖에 머물면서 '비노동력화', '유휴화'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상당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몇몇 실증연구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대졸자의 취업경쟁과 취업준비의 장기화

주15)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2000년 유럽연합(EU)에서는 리스본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 질(Quality of Work)'이라는 개념을 제시함(김기민, 2015, p.1).

현상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고학력자의 눈높이 조절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결과(오호영·송창용·송봉모, 2012)가 도출되기도 하였지만, 청년 고용문제가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기인했다는 점은 공통적인 진단이다. 인력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률 상승으로 인한 고학력화가 진행된 반면,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 효과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확대 등으로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기회가 감소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전주용·강순희·김미란·남기곤·민주홍, 2013; 채창균·오호영·윤형한·정재호·신동준·이인재, 2012)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구직 기간 경과에 따라 청년들의 의증임금이 조정되고 있으며,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 경험(이병희, 2011, p.71)이라는 사실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의 지연과 취업난의 문제가 이들의 취업 눈높이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2) 학자금 부담의 유예: 학자금 대출의 명과 암

(1) 줄지 않는 등록금 부담

2014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9%로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대학에 진학(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p.14)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은 대부분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특히 2010년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학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인상되어 이에 대한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반상진, 2012).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비용의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0.8%(OECD 평균 1.4%)이며 정부지출대비 2.6%(OECD 평균 3.1%)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진상기·김진영, 2014, p.191). 그러나 정부부담(22.3%)에 비해 사적부담(68.9%)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민간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가 있다(OECD, 2013, p.207-218; 진상기·김진영, 2014, p.191). 또한 OECD(2013)의 조사결과 한국의 명목 학자금 규모는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장학금이나 기타 학비보조금 비율이 OECD 평균이나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청년 당사자와 부모들이 지는 학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반상진, 2012).

등록금 부담의 정도와 영향력은 소득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장학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학생의 응답비율이 90%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소득이 올라갈수록 등록금 부담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진상기·김진영, 2014). 김안나와 김성훈(2010)에 의하면 가계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집단의 휴학률이 다른 집단보다 높으며, 휴학의 원인으로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이 저소득 집단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장학금은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서 휴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학자금 대출은 집단에 관계없이 휴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안나·김성훈, 2010, p.163). 이러한 결과는 가계 형편이 어려울수록 높은 등록금에 영향을 더 받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업 성과가 낮아지거나 재학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소득 계층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장학금지원의 경우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유의한 효과가 있다(김지하·이병식, 2009, p.464; 진상기·김진영, 2014, p.19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된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보다는 장학금 지원이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지하·이병식, 2009, p.464~465).

(2) 학자금 대출 확대의 명과 암

높은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결해야 할 의제로 떠올랐고, 대학생 시위로까지 확산된 2011년 이후에는 이것이 국가적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일련의 학자금 지원정책을 마련해 왔다.

학자금 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려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손창용·신동준, 2013, p.174). 이 제도는 학자금 정부가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정부보증 학금 대출제도’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2009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 은행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 직접대출로 전화되었다.

이와 같은 학자금 지원의 효과로 다소나마 실질 등록금 부담은 경감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증분석의 결과(진상기·김진영, 2014)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정책이 등록금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등록금 부담의 수준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학자금 대출은 청년층 신용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반상진, 2012).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려했던 바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보증에서 직접대출로 전환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3조 7천억원 이었던 대출금 규모가 2014년 10조 7천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증가하였다.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정부보증 은행대출 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졌고, 2010년부터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이 도입되면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학교육연구소, 2015, p.2).

표 II-3 정부 학자금 대출현황

(단위 : 만명, 조원)

구분		일반상환학자금		든든학자금		합계		1인당 대출액 (백만원)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2010년		53	2.9	17	0.8	70	3.7	525
2011년		65	4.1	31	1.8	95	5.9	616
2012년		65	4.3	53	3.1	118	7.4	628
2013년		65	4.3	71	4.5	136	8.8	651
2014년		67	5.1	85	5.6	152	10.7	704
2014 – 2010	증가	14	2.2	68	4.8	82	7.0	179
	배수	1.3	1.8	5.0	7.0	2.2	2.9	1.3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학자금 대출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2015.02.15.), p.2에서 발췌

또한 같은 기간, 학생 1인 당 대출액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179만원(34%p) 증가하였다(대학교육연구소, 2015.). 이는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도입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국가장학금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득 8분위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대학교육연구소, 2015., p.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만 1,171명인데, 이들 중 상환을 시작한 사람은 2014년 12월 말 기준, 1만 2,791명으로 60.4%에 불과하였다. 2011년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상환기간이 평균 45.5개월로 졸업 후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며, 학자금 대출자의 31.8%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12.8%가 상환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송창용·신동준, 2013).

표 II-4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졸업 이후 상환 현황(2014.12월말 기준)

(단위 : 명, 억원, %)

구분	대출(A)		대출(B)		상환율(B/A)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대출자 수	대출액
2010년 졸업 (졸업 후 4년 경과)	21,171	1,007	12,791	302	60.4	30.0
2011년 졸업 (졸업 후 3년 경과)	49,373	3,609	35,945	904	72.8	25.0
2012년 졸업 (졸업 후 2년 경과)	80,864	5,896	52,724	1,240	65.2	21.0
2013년 졸업 (졸업 후 1년 경과)	113,774	9,858	79,661	1,798	70.0	18.2
합계	265,182	20,370	181,121	4,244	68.3	20.8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학자금 대출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2015.), p.3에서 발췌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도 학자금 연체자와 신용유의자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납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2014년 12월 말 현재 4만 4,620명에 달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수는 2010년 2만 6,097명에서 2013년 4만 1,691명까지 급증하였다가 2014년 9월 정부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매각하고, 원금의 30~50%를 감면해주면서 잔액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함에 따라 2014년 20,23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대학교육연구소, 2015.2.5.).

표 II-5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010년~2014년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용유의자 수	26,097	31,363	40,419	41,691	20,231
연체액	1,362	1,656	2,325	2,595	1,252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학자금 대출 현황' 정보공개청구자료(2015.2.15.), p.4에서 발췌.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 현황은 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 비판, 즉,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세계적인 대학 등록금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현재 국가에 의한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 당국에 등록금 인하 유인책이 되지 못하며 학생 당사자들의 부담만 유예시키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피할 길이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확대가 당장의 학비 마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정책대응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지만, 취업난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재학 중 유예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관점과 접근에 기초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3) '취업'으로 수렴되고 구조화되는 삶: 스펙쌓기와 압박감주16)

(1) '취업3중세트' 스펙 쌓기의 시작

1990년대 초·중반 '세계화'와 '효율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시장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20대 청년 개인들의 삶 속으로도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들어 학벌, 학점, 공인 영어점수가 '취업 3중 세트'로 묶이면서 세상에 등장했다.

주16)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콜로키움 I (2015.05.12.)' 발표자인 오찬호박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그의 저서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발표한 '20대 대학 재학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자료와 콜로키움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임.

2004년 국립국어원 신조어로 등록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기의 제품사양의 설명서 또는 명세서를 일컫는 ‘스펙(spec: specification)’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즉, 한국에서는 ‘스펙’을 구직자의 학력, 경력, 외국어, 자격증 등을 아우르는 뜻을 가진 신조어로 이해된다. 인터넷 구인-구직게시판에 ‘이 정도 스펙이면 지원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이 때 이 질문을 읽는 이들은 구직자가 입사 전까지 확보한 모든 조건을 합해 부르는 단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점차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뚫고, 괜찮은 일자리를 갖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시간의 사용은 거의 ‘취업’이라는 목표로 수렴되며, 경쟁의 정글에서 낙오되지 않고자 하는 생존의 분투는 대학재학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한 내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스펙’이라 불리우는 취업을 위한 조건들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조건들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취업 3중세트’부터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학벌은 이미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해결되지 않는 입시와 사교육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다. 학벌에 따른 차별도 문제지만, 지금은 학벌만 차별하던 시대가 오히려 유토피아로 보일 만큼 극심한 경쟁 하에서 구별 짓기와 차별에 20대 당사자들이 찬성하는 경향조차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벌을 제외하고 먼저 학점을 둘러싼 변화들을 살펴보면, 학점이 필수요소가 되자 이상한 풍경이 대학에서 나타났다.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보다는 쉽게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로 학생들이 몰린다. 물리적으로 제약된 시간 하에서 많은 스펙을 쌓아야 하는 대학생들 스스로는 배울게 많은 강의보다 휴강이 잦고 출석체크가 느슨한 강좌를 과거보다 더 선호하고 추천하며, 급기야 먼저 수강신청을 한 자가 미처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서 강의를 사고 파는 일까지 일어난다. 주로 학교 커뮤니티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통해 인기 강의를 거래하는데, 인기과목의 경우 15-20만원까지 호가한다(한국대학신문, 2014.8.24.). 거래방식은 간단하다.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접선이 이루어지며, 접속자가 적은 새벽시간에 거래가 성사된다. 한명이 강의를 취소하는 동시에 다른 한명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여유인원 1명’을 차지하는 식이다(오찬호, 2015, p.55).

공인 영어점수와 어학연수는 현실이 어떠한 ‘당연하게 요구’될 성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역량은 ‘경제적 투자’에 철저히 비례하기 때문이다. 어학실력과 부모소득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하다. 영어는 경제적 투자대비 점수상승효과가 가장 탁월하다. 가구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

증가할수록 그 자녀의 토익점수는 21점씩 상승한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이면 그 자녀들의 토익평균은 676점이고 700만 원 이상이면 804점이다. 그런데 토익 점수 10점당 대기업 취업 확률은 3%가 높아진다. 어학연수 경험은 대기업 취업 확률을 무려 49%나 높이고 평균 7% 정도의 임금 상승을 보장한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어학연수 경험은 구직 활동으로부터의 해방 가능성을 12.8% 높인다. “10대 대기업의 합격자 평균 스펙 중 어학연수 횟수가 평균 1회가 되지 않은 곳은” 없다(오찬호, 2015, p.120). 대학생의 어학연수 경험비율이 그 부모의 소득상태와 비례하는 건 당연하다. 부모소득 월2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녀의 어학연수 비율이 10%에 그쳤지만, 월700만 원 이상일 때는 32%였다(박천수, 2009, p.129; 중앙일보 2013.6.4.; 주간경향, 2014.3.11.).

많은 이들이 ‘경력력’과 ‘영어성적’의 상관관계를 ‘그걸 누가 모르냐’는 식으로 반문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알고도 그것이 ‘공식 스펙’의 하나가 되도록 내버려두었다는 점이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이 ‘토익 750점 정도는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면, 750점을 획득했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 경쟁의 우위에 서기위해 자연스레 800점에 목표가 맞추어지고, 그 다음은 850점, 900점으로 자체 기준이 상향된다. 영어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상량(多商量)까지는 아닐지라도 대학생활에서의 사색이 가능한 잉여시간은 포기해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인문교양서 등은 쉽게 접할 수 없으며, 영어를 얻는 대신에 무엇인가 잃어버렸을 것임에 분명하나, 우리 사회는 아무도 이를 ‘손실’로 이해하지 않는다.

(2) ‘취업9종 세트’로의 진화, 그 동안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취업 3종 세트’는 ‘취업 9종 세트’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해, 3종 세트로는 부족하니 9종 세트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9종 세트의 종류가 무엇인지 외우는 것도 힘들다. 기존 3종(학벌·학점·영어점수)에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인턴, 봉사활동 그리고 마지막은 ‘성형수술’이다. 이것은 대기업 취업‘준비’의 자격요건이지 합격보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10여년 사이, ‘취업9종 세트’가 필요한 세상으로 진화하였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자격증, 공모전 입상경력 등도 ‘영어점수’와 속성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인턴’, ‘봉사활동’은 문제가 없는가? 이 두 가지는 기존의 스펙들이 한계가 있다면서 나타났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 자체가 난센스다. 대학이, 기업이 요구한 것들을 다 해낸 20대 청년들에게 ‘요즘 애들은 스펙만

챙긴다고 정작 사회생활 자체를 몰라'라거나 '영어만 할 줄 아는 속 빈 강정'이라면서 조롱과 비난이 쏟아진다.

대학에서 자치활동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토익점수,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을 어떻게 마련한다 말인가? 그 결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은 그에 걸맞게 받지 못하는' 인턴제도가 자연스러워졌다. 성실하게 인턴생활을 하면 채용 시 일정 정도의 고려가 된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취업성공의 기대를 걸고,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노동시장의 가장 낮은 지위에서 철저히 '을'의 위치에서 사회를 체험하고 경험한다. '봉사활동' 역시 '스펙에만 몰두하면 인간성이 별로다'라는 여론과 함께 취업준비를 위한 필수요소로 진입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스펙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 단 1%도 메리트가 없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것을 다 완수하고 '봉사활동' 경험을 수치화하여 제시해야지만 평가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 되니 '스토리'를 첨가하여 차별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동네 앞 양로원 봉사보다 '캄보디아에서 집짓기'가 성행한다. 결국 인턴과 봉사활동마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만 급여는 형편없으며 열정노동을 강요하는 인턴, 그리고 보상자체가 없는 봉사활동은 전체 대학생들이 똑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어디 있겠는가?

아홉 번째 스펙으로 등장한 '성형수술'은 매우 상징적이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외모도 경쟁력이 다'에 대한 논쟁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대학에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강좌가 성행하고, 대학 캠퍼스에 '학교연계 라식수술 대 할인!'이라는 병원광고가 나붙기 시작한 것들이 아홉 번째 스펙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취업준비에 '성형수술'이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들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대학생들을 잠재적 환자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이 풍경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취업3종 세트가 등장했을 때, 5종 세트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든 이를 줄이기 위한 묘수를 찾았어야 한다. 이런 속도라면 곧 '취업10종 세트'가 등장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대학생들은 취업10종 세트에도 적응할 것이다. 그렇다고 채용문이 '활짝' 열릴 리 만무하다. 이것이 이들의 '객관적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건, '대학생들'에 관한 질타가 아니다. 그들이 처한 그 객관적 상황을 방조한 '어른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사회적 약자로의 재위치: 주거 빈곤층으로의 편입

2015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총 7,330,695명이다. 이들 중 25.1%인 1,576,38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통계청DB, 2015.6.12.일 검색). 20대 청년들이 겪는 곤란함과 어려움과 관련한 주제는 취업과 등록금문제에 이어 단연 주거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20대 청년들의 공통된 정책의제로 발전되지 못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왜 그럴까? 이는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의 문제, 고비용의 민자기숙사의 운영,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구하기의 어려움과 높은 월세 등 주거와 관련해서 붙어지는 문제들이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체감도 높은 문제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4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다수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20대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약자로 위치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주거 빈곤층으로서 사회적 약자로 편입된 사실이 극명하게 보여 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동거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비로소 독립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청년 주거 문제는 그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가족해체로 인한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입과 주택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 특히 임대료 부담이 크고 고시원, 옥탑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밀집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황서연, 2014).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과 함께 청년층을 신빈곤 계층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2000년대 초반 해도 청년 문제의 주된 초점은 고용문제였고 주거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생활과 주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니, 고용이 최우선적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년 노동시장이 갈수록 열악해져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 및 전세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여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최은영·권지웅·김기태·정남진·정원준·황서연, 2014). 부모에게

재산이나 주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 청년들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 감소하면서 청년들은 반지하나 옥탑방, 원룸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청년 당사자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청년가구의 가구형성 확률은 전세 가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정의철, 2012, p.28; 최은영 외, 2014, p.2에서 재인용)가 보여주듯,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중요한 생애 과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재생산 시스템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또한 부모에게서 주택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계층과 평생을 일해도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계층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지 못한다면 주거문제는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변창흠, 2014).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거 복지 정책에서 청년 세대는 주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20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 3.1%이며 특히 서울은 1.2%에 불과한 실정이다(최은영 외, 2014, p.72). 정부가 대학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숙사 신축을 독려하고 있으나 2014년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16.6%에 불과하며, 특히 수도권은 10.4%, 비수도권 대학 평균 22.1%에 그쳐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주17)}. 그나마 대학이 직영보다는 기업이 짓는 민자 기숙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민자 기숙사 비용은 지역기숙사의 월 기숙사비보다 2~4배 비싼 상황으로 2013년 평균 약 32만원 이었다(민달팽이유니온, 2014.11.13.).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월세나 전세 등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고 수도권일수록 주거비용 부담은 커진다. 소득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 주거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2000년에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은 당시 초봉 대비 244.5%였으나 2010년에는 325%에 이른다. 전세 가격이 소형 위주로 상승되고 있어 전체 가구에 비해 청년 가구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 청년들의 22.9%, 서울 1인 청년가구의 36.2%가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있다(최은영 외, 2014, p.12).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현재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아 주거 상황 사다리가 붕괴되어 간다는 점이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서울시거주 근로청년 가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주17) 대학알리미 정보공시(<http://www.academyinfo.go.kr>, 2015.4.30.일 검색).

42.8%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약 70%가 경제적 능력 부족 때문에 준비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전환이 힘들어짐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형태는 월세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최은영 외, 2014, p.viii).

제 Ⅲ 장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1. 정책적 대응 현황과 한계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
3. 청년지원관련 법안 발의 현황

제 III 장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1. 정책적 대응 현황과 한계

1) 고용정책

(1) 진로 및 취업지원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가 되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80여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이다. 청년 특화 서비스는 아니나 성인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년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집단상담, 취업특강, 단기 상담 등의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에 직접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표 III-1 각 부처별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현황

소관	사업명	대상	내용
----	-----	----	----

* 이 장의 1.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인 정연순(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와 3.은 김지경이 집필하였음.

부처			
고용 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청소년 및 성인 구직자	채용지원 서비스, 직업정보지도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18~34세 청년(II유형)	취업상담, 훈련비지원 프로그램 참여·훈련참여·취업성공 수당 지급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15~34세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 청년에게 3개월 이내 직장체험 기회 지원. 참여자에 월 40만원 수당, 연수 및 운영기관에 소정의 수당 지급
	취업지원관 사업	4년제 전문대학	선정 대학에 취업전문 취업지원관 인건비 최대 60% 지원. 73개 대학에 116명 취업지원관 배치. 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은 공간·시설 제공, 운영기간은 민간탄생턴트 채용하여 대학 청년고용센터 운영. 정부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확산	역량기반 채용 희망 기업 및 공공기관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기업활용 지원(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급 및 컨설팅 실시)
	스펙조율 멘토스쿨	15~34세 청년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 산업분야 전문멘토의 멘토링, 청년인재은행 등록 및 취업 매칭
	청년취업아카데미	고교졸업 예정자, 34세 이하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자	기업·대학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제공. 1인당 374만원 교육비 전액 지원. 연수 후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교육부	평생교육전담 성인학부 개편유도	4년제 대학	중장년층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및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성인학부 체제로 개편 유도, 4년간 개편 학과(30명 기준)당 3억원 내외 지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전문대, 4년제 대학	후진학 지원체계 확충, 인생 제2막 관련 융복합형·취창업특화형 학과개설·운영, 일자리 친화적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 가족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 사업	여대생, 지역사회 청년여성	젠더의식 강화훈련, 개인별 커리어코칭, 직무능력훈련 등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제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업희망 여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직업교육훈련·인턴십·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이버멘토링 운영	여대생, 취업준비여성, 경력단절여성	온오프라인 멘토링, 성공여성 공개멘토링, 온라인 1:1 매칭, 그룹멘토링
중소 기업청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별 대상 상이	KBS 스카우트 방송 협찬, 중소기업 바로알기 체험활동 실시, 인재육성형 홈페이지 상에 바로알기 코너 운영(~16년2월)
	청년가점형 기업지원	3년 평균 고용증가율 또는 매출증가율 20%이상 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시설8년, 운전 5년), 해외마케팅 비용(1년), 기술개발 자금(2년) 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운영	대학졸업예정자, 3년 이내 미취업자	중소기업 현장 실무교육과 중소기업 취업연계를 위한 취업·면접 교육과 잡페어 개최 등 지원
		유급지원병 및 기술병과 단기복무 후 제대(예정)자	국방부 및 군특성학교 등과 협조하여 취업희망인력 모집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 교육	이공계 졸업 미취업 대학생, R&D분야 퇴직인력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양성교육, 채용지원(교육기간: 1개월)
대통령 직속 청년위	찾아가는 청년버스	19~39세 청년	상담버스 활용하여 일자리 및 진로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정보 제공, 성향·진로테스트, 소통프로그램 진행
	청춘순례	청년	공감캠프(3회), 예술캠프(3회), 체육청년캠프(1회), 사회적기업 청년캠프(1회) 추진
	동영상 멘토링 팟캐스트	대학생, 사회초년생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 제작, 방송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 발췌·재구성.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청년은 II유형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용노동부, 2015, p.83). 대학생 진로·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에 취업지원관 사업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스펙초월 멘토 스쿨 등 운영하고 있다.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확산은 학력에 편향된 우리 사회의 채용관행을 역량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위 '스펙' 중심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생이 주 대상이어서 20대 청년 대상 사업은 많지 않다. 일부 청년 사업도 대학을 중심으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평생교육 전담 성인학부 개편 유도' 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이 그러한데 정부는 이를 청년고용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성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오히려 중장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여성새로인하기 센터', '사이버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특허청, 청년위원회 등에서 부처 성격을 반영한 진로·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으로 청년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들은 꾸준히 양적으로 증가하고 사업도 다양화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들이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 비 재학 청년들의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은 편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제로 대학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청년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대학에 예산을 투여하고 대학이 해당 학교 재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공히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된 방식이어서 비재학생들은 이러한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정연순·변정현·황여정·宮本美子, 2013).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미취업 청년들을 사회적 취약집단으로 보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진일보한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다수 청년들은 오랫동안 공공서비스나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보다 적극적 발굴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 엄격하고 정형화된 사업 방식이 청년들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에 맞추지 못하여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점 등 사업 수행 방식에서 청년층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정연순 외, 2013).

실제로 청년들의 공공고용서비스 이용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저조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부가조사에 나타난 청년구직자(15세~29세)의 공공취업알선기관 이용률은 1.4%로, 고령취업자(55세~79세)의 이용률 21.2%에 비해 현저히 낮다(오성욱·김균·이만기, 2010).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을 공공서비스로 유인할 적극적 사업이 필요하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훈련·인력양성 지원 사업

청년 대상 사업의 특성상 교육·훈련·인력양성 지원은 다른 어느 고용지원 사업보다 다양하다. 청년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훈련 사업들이 대부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직업훈련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청년 인력의 양성훈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을 통한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사업, 한국폴리텍대학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 민간훈련기관을 통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훈련비 지원과 함께 월 30만원 내외의 훈련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들에게도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80% 출석의 경우 11.6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사관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술훈련 뿐 아니라 학교 형식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학비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학습 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일·학습 병행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기업대학’ 등의 사업에서는 해당 기관, 대학, 참여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공계 인턴십’ 등 이공계 인력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주 운영기관으로 삼아 청년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을 통해 관련분야 인력양성과 취업연계 사업을 실시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이러닝 인력양성’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분야 인력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주로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에서 관련 분야의 청년 양성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 중이다.

표 III-2 각 부처별 교육·훈련·인력양성 사업 현황

소관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채용 기업	취업과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4년간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및 학습자 지원
	기술·기능인력양성	비진학청소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자 및 무기능인	교육훈련 비용, 훈련장려금(기능사 과정 등), 다기능기술자 과정(2년), 기능사과정(3개월~1년) 등(폴리텍 대학위탁)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한국기술교육대 학생	직업훈련교원 양성경비(재료비, 실험실습비 등), 장기현장실습 경비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5세 이상 실업자, 고3학년 재학 중인 비진학자, 대학 최종학력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자	훈련기관에 기준단가 또는 실비용,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월316천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최대 6개월 월10만원 추가지원)
	내일배움카드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구직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
	취업사관학교 운영지원	15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훈련비용 지원, 훈련생에 지급수당 월30만원(훈련비, 기숙사비 무료) 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근로자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시설·장비비,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15년 3월 현재 총 196개 공동훈련센터 운영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가 계약학과 운영 대학(이공계열)과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훈련 비용 지원
	기업대학	기업대학 설립운영 사업주	인프라 구축비용, 훈련비용, 식대기숙사비, 임금 등 지원
미래 창조 과학부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	이공계 박사	1인당 연간 50백만원(법정부담금 별도), 채용일로부터 2년간 정부출연연 연수기회 제공
	이공계 인턴십 운영사업	이공계 졸업자(공업고, 학사, 석사)	1인당 월 110~150만원(법정부담금 별도), 채용일로부터 11개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로서 32세 미만	전문연수(4개월 이내), 기업연수(2개월 이내)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대학 및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선정	석사과정 전액 지원(정부지원+대학기업 매칭펀드), 과정 수료 후 참여기업에 2년간 의무 근무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경력단절 및 학위취득 후 미취업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여성과학기술인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매칭하여 R&D 복귀과제 지원, 재취업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교육부	사내대학	사내대학 설치 작업장의 종업원, 해당 사업장내 타업체, 하도급업체 종업원	고용주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 부담(재학생 등록금 없음)
	의과학육성지원사업	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 재학 중	연 등록금 전액(실 납입액) 및 교육연구지원비(5백만원) 지원(최대

		의과학자 과정 대학원생	7년간)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대학에 재직자 별도 모집단위 설치, 야간·주말과정 운영, 재직경력 학점으로 인정 (선별비용 '12년 2%, '14년 4%, '15년 5.5%)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소재 기업과 대학	공동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학생 연구원 5명이상 참여, 지원금의 40~50%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원)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분야 예비취업자, 현업인, 재직자	재직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연중 수시, 무료)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만 35세 이하, 학력제한 없음)	문화예술 종업자들의 인턴 연수, 연수단원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120만원, 11개월간)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방송제작, 마케팅에 관심 있는 예비인력	주5일 10개월 과정, 50명(PD과정/MD과정) 교육비 전액, 취업연계
산업 통상 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에너지분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	R&D 신기술 및 현장적용기술 단기교육 지원(프로그램별 1~2주 단기교육)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사업	대학, 연구소 + 기업 참여 산업별 핵심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과정	세부과제별 미래 유망산업, 신산업 분야 교과과정 개설 운영(5년 내외)
	이러닝 인력양성	재직근로자 및 미취업자	이러닝산업 직무계층별 교육과정 운영, 신규인력 양성
환경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미개척 분류군 전공 석박사과정,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 경영 등 관련분야 석박사(과정, 학위자)	인건비 지급 및 1개월 이상 국외연수 지원('15년~ '17년), 석사 1천5백만원 이내, 박사 2천만원 이내, 융합과제 5천만원까지 ('15년 5월~12월)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이공계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교육훈련(집합교육+현장교육+해외교육) '15.1월~12월
	생태 독성·위해성 평가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자(석박사 포함)	환경유해성 시험항목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비 전액, 생태위해성 평가 전문가과정 운영('15년6월~12월)
국토 교통부	항공인력양성사업	항공신체검사 1종, 토익 700점 이상 군필면제자	항공 조종인력, 특성화대 석박사급 인력, 항공인턴 및 기초인력 4개분야 총 500여명 인력 양성(5년간 2,600명)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해외건설업자(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로서 해외 현장 보유 기업	1개사당 20명까지 채용하면 1,140만원 내외 금액 1년간 지원
	U-City 인력양성사업	관련학과 졸업생(예정자)의 석박사급 인력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연구 비용, 인턴십과 실습 지원('14년~ '18년)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관련기관으로서 공모 선정된 고교·전문대·대학(원) 재학생	국내외 현장실습·견학, 인턴, 전문가 특강, 장학금, 물류장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06년~계속)
해양 수산업	해운항만물류인력 산학연계 지원사업	관력학과를 개설한 대학 4개 선정 대학생	6개월간 기업특강 등 사전교육 실시 4~6주 인턴십기간 체재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	외항상선3급(9개월, 1,020만원), 원양어선3급(8개월, 345만원), 내항상선5급(5개월, 250만원)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18~24세 고졸 이하 비진학·미취업 청년	입영 전(기술훈련 훈련비, 수당), 군 복무(특기 입영, 복무중 자격 취득), 전역 후(취업지원, 복직 보장, 취업성공수당 20~10만원 지급)

중소 기업청	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 졸업생	멘토링 비용(월80만원 1년+1년 연장), 인턴근무 종료 후 창업자금(최대 1억원)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1팀-1프로젝트, 현직아실습, 산학맞춤교육 등 위업연계 비용을 대학당 연간 2억원 내외(3년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 근로자, 의무근무 조건 채용약정 체결 자	재교육형(학위취득 비용의 70%), 채용조건형(학위취득 비용의 100%) 등 2년간
	벤처기업 공동채용·훈련사업	수도권소재 기업(매출 100억이상), 지방소재 기업(매출 50억이상)	채용광고 홍보 동영상 제작, 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벤처기업에 대한 업무 적응 및 역량강화 훈련(5일 집체교육)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중소기업, 학사급 이하의 기술개발인력(연구전담요원 자격)	최대 2년동안 기업별 2명이내, 1인당 최대 1,65만원(학사 기준) 지원
	창업대학원	5개 창업대학원('14년 신규지정)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창업학 정립 ('15년.1월~ '16년.3월)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 교육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보증 시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담보대출 특허기술평가(IP담보대출을 위한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 발췌·재구성

정부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어 실업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에게도 훈련 참여 기회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청년패널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응답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중은 1~2%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 2015b, p.119).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실업자와 재직자는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만 불완전 취업 상태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의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훈련 수당을 받더라도 야간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한 근로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일자리 창출·인턴제 및 채용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채용지원의 대표적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이다. 이 제도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기르고,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4년 37,023명이 참가했으며 2015년에는 35,000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전환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는 30% 정도에 불과하여 청년 일자리 효과 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또 인턴이 현장의 직무스킬을 익힐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채 단순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는 점, 사업이 분산되어 있어 시행 기업의 질 보장이나 취업 후 사후관리가 관리가 어려운 점, 기업의 청년 노동 착취에 대한 논란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청년인턴제의 종합적인 재검토와 대대적 개편을 준비하는 중이다(국민일보, 2015.5.19.).

한편, 2013년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2014년부터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졸자 채용이나 채용형 인턴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제시했다. 채용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정원의 약 5%를 고려해 채용규모를 결정하며,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391개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74.4%(291곳)로 2013년 51.3%에 비해 23.1포인트 증가했다. 신규 고용된 청년층 규모는 총 정원 30만559명의 4.8%인 1만4천549명으로, 2013년(1만691명, 3.5%)보다 3천858명 늘었다(매일노동뉴스, 2015.5.22.). 그러나 청년의무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주된 사유가 기관의 신규채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채용에 대한 의무적 할당은 극히 제한적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분야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해당분야 예술 전공자가 예술 강사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는 생활체육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속적 일자리가 아니라 1년 단위의 한시적 일자리이므로 청년들이 안정적 취업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관련 부처의 유관 분야 일자리 사업 및 인턴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기 일자리이며, 정규직 채용으로의 연계가 미흡하고, 현장 직무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III-3 각 부처별 일자리 창출인턴제 및 채용 지원 현황

소관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인턴기간 3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상 고용시 390만원(월65만원) 정액지원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고교학력자로서 졸업 후 1년 이내 취업자 (신성장동력, 뿌리산업 중소기업)	최대 3년 근속기간 300만원 지원(근속 1년에 100만원)
기획 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15세~34세 청년	인턴의 최소 70%이상 정규직 채용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제도	고교 졸업(만 18세전후), 상응하는 지식·기술 보유자	공통적합직무 외 기관 특성에 맞는 적합직무 적극 발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해당 시도 단위 기준으로 설정	전년 대비 목표비율 설정, 달성계획 수립 및 시행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 해당 예술분야 전공자	인건비 월 1,184천원(10개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7개시도/시군구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및 활동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지원(2000년~계속)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월 근로시간 160~209시간, 월 120~155만원, 4대보험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월1,854천원, 11개월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 특수체육전공자 - 국가공인 자격보유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수료자 - 경기단체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수당.인건비 ('15.1월~12월)
	박물관 진흥지원	사립박물관 학예사, 교육인력	학예인력(월 138만원), 교육인력(월 125만원) 연중 채용
농촌 진흥청	이공계대 인턴십운영	이공계·농학계 대학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미경과자	연수계약 체결(1년 이내, 최대 참가기간은 2년 이내), 임금 월170만원 및 보험료 일부와 초과근무 수당 지원, 해당 연수과제에 연구원으로 참가
산업 통상 자원부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이공계 석박사 취득 후 3년이내자/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기업별 2명씩 최대 3년, 석사(기준연봉 2,700만원 대비 50%) 박사(기준연봉 3,300만원 대비 50%)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 발췌재구성

(4)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

해외인턴 사업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

어 왔으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되어 왔다. 청년 해외인턴사업은 크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취업과 연계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총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대학생 해외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일자리 발굴, 교육과정 제공, 취업 연계 및 상담 등을 제공하며 해외인턴 청년들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비자 발급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급여는 현지체재비는 사업별로 지원 현황이 다르며,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원에게만 제공한다. 선발과 재정지원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15년 현재 'K-Move 스쿨'에 3,000명, 'K-Move 멘토단 운영'에 2,000명, '해외 인턴'에 700명, '해외취업성공장려금'에 2,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교육부는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사업(WESTY)',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역시 항공료, 체재비,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와 교육부 이외의 각 부처에서도 부처 특성을 반영한 해외인턴십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의 'ODA 청년 인턴', 산림청의 '해외산림인턴',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등이 대표적 사업들이다. 사업 성격에 맞는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턴기간은 대체로 3개월~6개월 정도의 단기이며 왕복항공비, 보험료, 비자비와 일정 금액 이상의 체재비를 지원받는다(고용노동부, 2015).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부처별 산발적 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되고 사업 대상 및 목표가 불분명 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지나치게 짧은 인턴기간이라는 지적과 문제점이 지적되면서(국회예산정책처, 2013; 정부해외인턴사업평가단, 2013; 조희경·박동열·김민규, 2014, p.vii에서 재인용) 2014년부터 대학생 연수를 제외한 6개 부처 사업을 고용부로 이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총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부처나 시행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청년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월드잡플러스'라는 해외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해외인턴십은 해외취업과의 실질적인 연계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정부해외인턴사업평가단, 2013; 조희경·박동열·김민규, 2014, p.vii에서 재인용). 실제로 정부 해외인턴 참가자의 해외취업률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조희경 외, 2014). 인턴십의 내용도 해외 취업역량을 쌓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실습 부서 및 직무가 참여자의 희망과 다르게 배정되기도 하고, 업무 역량을 익힐 수 있는 실질적 업무가 아닌 단순 보조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해외 인턴십 사업이 사업의 본래 취지인 현장 학습의 실질화와 취업연계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조희경 외, 2014).

표 III-4 각 부처별 해외 인턴 및 취업지원 현황

소관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고용 노동부	K-Move 스쿨	34세 이하 미취업자	양질의 해외 일자리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교육비, 항공료 포함 1인당 최대 800만원 지원
	K-Move 멘토단 운영		해외에서 2년 이상 취·창업 경험자를 멘토로 해외 취업에 필요한 사항 온오프라인 멘토링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 희망자 상담 및 일자리 알선,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해외 인턴		해외인턴 청년들에게 항공료, 체재비, 비자발급비용 등 지원
	해외취업 성공 장려금	34세 이하이며 8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단순 노무직 배제, 연봉 1500만원 이상	취업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추가 150만원 지원
교육부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왕복 항공료 지원, 참가비, 체재비를 소득이나 인턴십 조건에 따라 차등지원(12개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대학 재학생(4학기 이상 수료자)	연간 150명에게 4~6개월간 개인당 220만원~450만원 지원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전문대 대학생(2학기 이상 수료자)	연간 550명에게 4~6개월간 개인당 400만원~750만원 지원
	교·사대 졸업자 해외 진출	미임용 수학·과학 2급 정교사	10개월간 2000만원 지원
외교부	월드 프렌즈 코리아	KOICA 봉사단 등 해외봉사 사업 참여자	생활비, 주거비, 국내정착금 등 KOICA봉사단(2년), 과학기술지원단(1년)
	ODA 청년인턴	18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현지어 가능자	KOICA 해외사무소 및 ODA 사업수행기관 청년 인턴 고용비용(국내근무 월 120만원, 해외근무 월 180만원), 해외상주 파견 출장 경비 지원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35세 이하 산림관련 대졸 미취업자, 관련 고교 졸업후 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체제비(월800천원~1,400천원) • 왕복 항공료 • 파견준비비(한도 1,200천원)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과계대학 재학생, 졸업생	KOPIA • 연구원(6개월 체재비 월100만원, 항공료, 파견준비금) • 선임연구원(11개월, 월180만원, 항공료, 파견준비금) • 책임연구원(11개월, 월200만원, 항공료, 파견준비금)
기재부	청년 인턴 등 청년해외진출 사업 확대	연령, 학력, 병역 제한 없음. 수출입은행 인사관련 규정 및 해외체류 결격사유가 없는 자	5개월간 수출입은행 해외지점에 인턴으로 근무하며 비용 일체 지원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고용노동부, 2015)에서 발췌재구성

(5) 창업지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청년 창업 지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청년 창업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표 III-5 각 부처별 창업지원 현황

소관 부처	사업명	대상	내용
미래 창조 과학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국내 엑셀러레이터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공동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1년간)
	ICT 분야 재도전 창업 사업화 지원	재도전기업인이 참여하는 ICT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예정자	계획수립, 아이템구현, 사업성분석, 사업화 등 각 단계별 예 산 지원(1년)
	창조경제태운 구축·운영	사업화·창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권리화, 사업성진단, 마케팅 컨설팅 지원
	창업 진흥 방송콘텐츠 제작·방영	방송매체 활용	창업 생태계, 창업 스토리 등 전문 방송콘텐츠 제작 방영
	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자/벤처기업 등과 일반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연계, 판로 지원
교육부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대학교, 학생 등 대학사회 전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산, 전문가 연수, 멘토링 체제 구 축, 창업 EXPO 지원
	학교기업지원사업	대학, 전문대, 특성화고 내의 학교기업	현장실습비, 신제품제작 등 학교기업 사업비 지원
중소 기업청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교육 희망 대학생/ 창업 동아리	학점인정형 실전창업강좌 제공 및 동아리 활동 지원(‘15.5 월~12월)
	대학 기업가센터	4년제 대학의 기업가센터	연간 센터당 5억원 내외(6년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비창업자·초기기업 /희망 대학생 및 일반인	시제품개발비 등 사업화자금(10개월 내외)·창업경진대회· 투자상담회 등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인 자	창업공간,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코칭(‘15.5월~’ 16.3월)
	엔젤투자매칭펀드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R&D비율 5%이상,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엔젤투자자 투자시 정부가 매칭투자, 존속기간 10년(투자기간 9년)
	청년기업가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금 및 정책자금 연대보증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 확대(연중)
	재도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재도전기업(인)	신속한 기업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 신용회복, 재창업 지원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2인 이상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초기기업	선도벤처기업 내에 입주하여 창업보육지원(1~2년) /선도벤처기업의 투자, 구매, 마케팅 등 협력 비즈니스 지원 (1~2년간)
	청년창업 특례보증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 기업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7천만원까지 보증
	창업기업자금-청년전용창 업자금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기업	연 2.9% 고정, 5년(2년 거치), 1억원 한도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또는 7년 이내 소규모 기업	청년창업펀드(투자 후 7~8년 운용) 엔젤매칭펀드(기간 10년)
	예비창업자 창업 아카데미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 후 1년 미만자	실전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15.5월~12월)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경진대회 500만원 미만 상금 수여자)	상금(최대 1억원) 및 부상품,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연수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대표자	해외 창업자에게 전문가 특강, 공간 제공, 멘토링, 체제비 지원 등의 현지 보육
	창업보육센터 지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건립비(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등을 총비용 70%이내, 3억원 한도), 운영비(매니저 인건비, 교육훈련비, 여비 등 평균 5천만원), 센터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특허청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창업 활성화	이공계 졸업 미취업 대학생 및 R&D퇴직인력/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지식재산서비스 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1개월)
병무청	군 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 연기

출처: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2015)에서 발췌재구성

2013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부처합동으로 마련하여, ‘창업친화적 대학교육 제도마련’을 위시한 3개 영역의 전략과제들을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을 통해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1년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창업 문화와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의 아이디어 창출과 사업화 지원, ‘청년 창업 특례 보증’과 같은 제도 마련 등 창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과 병무청도 부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지원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다수 중복되어 있어 사업간 조정과 총괄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창업 지원 사업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참여나 인식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박동외, 2014). 또한 대부분 지원 사업이 창업의 특정 단계에 머물러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 연계가 부족한 편이며, 사업 지원기간이 1년 이하로 설정되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초기 창업 기반을 닦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성공확률보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창업의 성격상 재도전 지원을 위해 재도전 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박천수·박동·김수진, 2013).

2) 학자금 지원정책

(1) 국가장학금 지원

현행 국가 장학금 제도는 소득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되는 특성을 지닌다.

표 III-6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

장학금	지원 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I 유형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II유형	• 대학 자체기준
	재학생 (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1993.1.1 이후 출생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국가근로 장학금	• 국내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성적(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교내근로 저소득층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교외근로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 단,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또는 취업연계 근로기관 근로시에는 분위적용 배제 가능	
대통령과학장 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15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확정인 자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신청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천문), 정보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분야 1개를 신청 ※선발기준: 수학·과학 분야의 우수성	
국가우수 장학금 (아공계)	신규 장학생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2015년도 우수 신입생 단,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재학 중 우수자	• 입학당시 국가우수장학생(아공계)으로 선정되지 않은 재학생으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진급 학생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자
	계속 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4.5만점(3.30이상/4.3만점)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사회계)	신규 장학생	• 전공탐색유형(고등학생): '15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조기졸업자도 가능) • 전공탐색유형(대학생): '15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자 중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신입생 • 전공확립유형 '15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3학년 진급자 중 해당대학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포함)
	재학 중 우수자	• 입학 당시 인문100년 장학금으로 비선정된 재학생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계속 장학생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4.5만점(3.30이상/4.3만점)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신규 장학생	• '12년 사업폐지로 인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없음
	계속 장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백분위 85점 또는 평점 3.5/4.5(3.3/4.3) 이상

장학금	지원 자격 및 성적기준
국가연구 장학금 (인문사회계)	•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미취업 대학원생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또는 평점 4.00이상/4.5만점(3.70이상/4.3만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
드림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선발기준 : 학업실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선발
사랑드림 장학금	• 기부처의 기부 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상이함
희망사다리장 학금	• 4년제 대학 3, 4학년 재학생/전문대학 2, 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신청 대학 및 소속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로 한함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발췌재구성 (2015.5.15.일 검색)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크게 소득 연계형 기본 장학금인 I 유형과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는 II 유형, 다자녀 국가 장학금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까지이다. ‘국가근로 장학금’ 역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 장학금으로는 ‘대통령 과학 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전문대학 우수 장학금’, ‘국가 연구 장학금(인문사회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 ‘드림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과 연계한 장학금 제도이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5.5.15. 검색).

2012년 이후 국가 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장학금 증가는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액 등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들이 장학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대학들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고,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도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15, p.4; 한겨레, 2015.7.2.). 실제로 최근 일각에서는 국가장학제도의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중앙일보, 2015.5.19.),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 2015.5.12.검색).

(2)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내인 만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취업 후 소득 발생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만 5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상의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업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사업' 등이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5.5.15.검색.). '든든학자금'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과 생활비(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두 가지로 구분해 지원되며 생활비는 등록생이라면 등록금 대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별도 대출이 가능하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2015.5.15.검색.). '일반상환학자금'에서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든든학자금'을 받은 학생은 약 58만 5,000명이며 금액은 약 1조 6,386원이었다. 2015년부터 학자금 대출 대상이 7분위에서 8분위까지 확대되었으며 약 9만 7,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책공감블로그, 2015.5.19.검색.).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는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상환 기간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내리는 채무조정을 실시했지만, 청년 채무자의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III-7 학자금 대출 제도

종류	지원자격	대출규모	상환방법 및 이자지원
든든(취업후 상환) 학자금	35세 이하 '협약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 학부: 소득 8분위 이하	- 생활비 지원: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등록금 지원: 상환은 전액, 하한은 50만원	-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 유예 - 이자지원: 소득1~3분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일반상환 학자금	55세 이하 - 협약한 고등교육기관 재학자 (대학원 포함) - 소득 9분위 이상	- 생활비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등록금 지원: 학제에 따라 다름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9천만원 : 의학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중 택 1, 자동계좌 이체를 통한이자 (or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 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 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등록금 전액	- 상환: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부터 대출금 상환 - 이자지원: 무이자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발췌재구성 (2015.5.15.검색.)

3) 주거 지원정책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2012년부터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2015년 서울 1,000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3,000호가 공급되는데 이중 10%는 공동거주용으로 배정되었다. 이 제도 역시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1순위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이다. 2순위 대상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이거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순위는 일반가구이다. 대상 주택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호당 75백만원, 광역시는 55백만원, 기타 도 지역은 45백만원 이내의 비용이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을 LH 공사를 통해 재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1, 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과 월세 7~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대한토지주택공사, 2014.11.17.)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매입,건설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주로 기숙사형과 원룸형 등으로 마련된 임대주택에는 가스레인지 등 일체의 생활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공급 대상은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차상위계층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 저소득 소외계층 중심의 정책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4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6만원~9만원 수준이다(서울특별시 SH공사, 2015.5.29.). 서울 대학가 주변의 평균 주거비와 비교하면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과 ‘희망하우징’의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여 지원 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줄어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워낙 한정되어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생 전체의 주거 부담 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또 다른 사업으로 대학 기숙사 건설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를 들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숙사 건설시 저리자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립대 5개교에 총 600억원을 지원하면 2,200실의 증실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월 33.7만원 수준인 기숙사비를 월 24만원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국토해양부, 2012). 그나마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이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졸 미진학자나 졸업자 등 대다수 청년들은 열악한 주거 조건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청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배려나 일정한 비율의 할당없이 청년층이 임대주택이나 신혼가구 주택의 입주대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 등 가난을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수도권외의 청년층 주거 빈곤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최은영 외, 2014; 변창흠, 2014).

표 III-8 주거지원 정책 현황

소관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LH	대학생 전세 임대 주택 ^{주1}	• LH와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 체결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 사업대상 지역 내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자 포함)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대학생 및 100% 이하 장애인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 않는 대학생
	행복 주택 ^{주2}	•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 대학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 신혼부부: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계층별 공급 비율의 80%가 청년층※
SH	희망 하우징 ^{주3}	•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및 건설한 원룸 (공릉·정릉희망하우징)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	•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 재학생 (단,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배우자가 유주택자 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제 외)
한국 사학 진흥 재단	행복 기숙사 ^{주4}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SPC)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 에게 기숙사 제공 • 행복(연합)기숙사: 2인 1실 월 19만원 • 행복(공공)기숙사: 2인 1실 월 24만원	• 사회적 배려자 우선 입주 후 잔여분은 일반 입주 학생 선발 • 각 대학별 선발 기준을 따름
	공공 전환 기숙사 ^{주5}	• 기 운영 중인 사립학교 기숙사의 고금리 민간 자금 을 장기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하여 이자비 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주1) 대학생전세임대주택 (<http://myhome.lh.or.kr/welfare/rent/base01.asp>, 2015.5.13.검색)

주2) 행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 2015.5.13.검색)

주3) 희망하우징 (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2015.5.13.검색)

주4) 행복기숙사 (<http://happydorm.or.kr/hub/20/2010.kmc>, 2015.5.13.검색)

주5) 공공전환기숙사 (<http://happydorm.or.kr/hub/20/2040.kmc>, 2015.5.13.검색)

2.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대응 사례

1) 고용정책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 국가는 유럽연합(EU)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청년고용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EU의 청년고용률은 성인에 비해 3배 이상 하락하여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청년 2명 중 1명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고^{주19)},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소)년 증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부재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조세 수입의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이 매년 1,530억 유로에 달하여 EU 전체 GDP의 1.2% 수준으로 높아지자, 국가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EU 전체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22.8%)과 니트 청(소)년의 비율(12.8%)이 증가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European Youth Forum, 2012, pp.2-8; EU, 2012; EU, 2013).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고자 EU의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들에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EU공동의 대응책으로 “Youth Guarantee Scheme”을 권고하고 각국이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시급히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EU, 2012; EU, 2013; 전국무역인연합, 2013). “Youth Guarantee”의 핵심 내용은 25세 이하 모든 청(소)년과 30세 미만의 대졸자들이 학교 졸업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거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훈련이나 견습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EU, 2013).

“Youth Guarantee”가 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은 장기간 실업상태가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공포효과’(EU, 2013)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니트 상태로 빠지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U의회는 “Youth Guarantee Scheme”이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하는데 있지 않으며, 니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한다는 것임을 강조한다(European Youth Forum, 2012; EU, 2012; EU, 2013).

주19) EU 회원국 중 청년실업률이 높은 그리스 54.3%, 스페인 52.4%, 포르투갈 37.4%, 이탈리아 34.2%로 높음(European Youth Forum, 2012, p.8)

유럽연합(EU)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Youth Guarantee” 정책을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실업상태의 장기화 및 니트 상태로의 진입 예방으로 설계한 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에게 ‘고용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과 이해는 기존의 정책들과는 달리, ‘청년실업’이라는 문제를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권리’로 접근한 새로운 시도이며, 권리기반 접근 정책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표 III-9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고용정책

국가	정책	내용	대상
EU ^{주1}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주1}	• 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 또는 실업 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에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교육지속, 훈련, 견습과정의 하나를 제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일자리 보장(job guarantee)보다는 니트(NEET) 상황에 빠지지 않는데 초점	• 25세 이하 모든 청(소)년 • 30세 미만 대졸자
일본 ^{주2}	재도전지원 종합계획	• 니트족을 위한 ‘청년.자립.도전 플랜’ : ‘자립기숙사’를 통해 니트족들의 재활을 지원 • 청년실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	• 중학생부터 진로교육 실시 • 29~39세 청년층
	프리터를 위한 ‘자유와 생존의 집’ 프로젝트	• 프리터 전반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젝트	

주1) European Youth Forum(2012), A Youth Guarantee for Europe, p6-17.

EU(2012),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Establish Youth Guarantee(2012,2,5.)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36>(2015.11.6.검색).

EU(2013), Youth Guarantee(2013,2,19.)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2015.11.6.검색).

전국무역인연합(2013), EU, 회원국에 사회투자로서 Youth Guarantee Scheme 이행촉구, 해외시장동향(2013.3.6.) 발췌재구성.

주2) 청년일자리하브(2014), News from welfare-State 자료집, p.30-31 발췌재구성.

“Youth Guarantee”정책이 각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성공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난 공통점인 다양한 주제들 간의 ‘파트너십 접근’이 필요한 요건의 하나이다. 예컨대 핀란드의 경우, 관계부처(고용, 교육, 사회 및 보건부)와 지역사회,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청년대표, 학생조직 등이 함께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의체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독일의 경우, 고용기관과 잡센터, 지역사회, 청년단체 등이 협력양해각서를 체결(‘Young People and Career Work Alliance’)하여 운영한다.

두 번째 요건은 ‘초기개입의 활성화’로, 청년들을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는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일명 추적시스템(Tracking or Catch up services)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접촉센터들을 마련한 국가들(덴마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도 있음. 또한 고용서비스에 일단 등록하게 되면, 개인별 이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에 기초한 교육, 훈련,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강제화(binding regulation)하고, 상호의무원칙(principle of mutual obligation)하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세 번째 요건은 ‘통합적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정규교육과정에서 조기이탈(early school leaving)하는 청년들을 줄이는 것인데, EU는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에서 조기에 이탈하는 이들의 54%가 실업상태에 있고, 특히 18세-24세 남성의 15.3%, 여성의 11.6%가 조기이탈자로 파악하고 있다(EU, 2013). 또,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같은 직업기술 미스매치의 해소도 통합적 노동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공식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의사, 치의사, 수의사, 그리고 예술분야를 제외한 영역의 비공식 학습에 대해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배심원 판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교육법’에서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조세부담을 줄이고, 환경세나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와 같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2012년 기준 전체 청년층의 1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며, 청년들 중 44만명 이상이 니트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도전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프리터 청년의 상용직일자리로의 고용, 그리고 니트 청년들의 직업적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의 ‘제도전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일본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고용대책법’을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과 경험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고, 현실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법 개정이의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 경험을 기업 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정비하고, 장기간 비정규노동을 계속 해

온 프리터 청년들의 자립능력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학자금지원정책

청년들의 학자금지원 또한 유럽연합(EU)의 선진국들이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대상과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원의 내용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등록금과 같이 학업을 위한 직접비용 지원과 생활비 지원, 그리고 장학금이 있고, 이에 더하여 학생이라는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이나 교육지원보조금, 학생을 위한 교통보조금과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록금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의 형태로 지원되며, 대체로 저리로 대출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영국과 같이 대출 이자율이 소득에 연동하여 차등 결정하고, 상환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상이한 경우도 있으며, 프랑스와 같이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비 대출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영국인데, 우리나라의 생활비 대출과 차이가 있다면, 학생의 상황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학생의 상황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거주하는 지역이 런던 지역 내인지의 여부, 영국에서 공부한 기간 등이다. 생활비 대출과 함께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 금액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생활비 대출이 아닌, 생활비보조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활비 대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생의 학업능력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장학금과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각각 갖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생의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생과 그의 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다수의 재단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가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중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가지,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 달리 국가장학금 운영의 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것과 ‘거주 지원 장학금’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한편,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대출, 그리고 국가장학금 운영은 눈에 띄지

않으나, 다른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호주의 경우 16세~25세 이하 전일제 학생과 훈련과정에 있는 자, 구직자에게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혼인여부, 독립생활여부, 자녀유무 등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 25세 이상 전일제 학생과 도제과정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아울러 집에서 나와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수당이나 교육지원 보조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교통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호주의 청(소)년 수당과 유사하게 스웨덴에서도 ‘학생수당’의 형태로 지원한다. 스웨덴의 학생수당에는 16세~20세 전일제 고등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학생지원금이 있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보충수당, 그리고 집과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수당이외에 대출과 보조금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는 학생지원금이 있는데, 별도의 상환기간은 없어 대출로 분류하기도 어려우나, 대출의 형태가 보조금 지원형태에 비해 지원되는 금액이 2배 이상 많다.

표 III-10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학자금 지원 정책

영국^{주1)}

국가	정책	내용	대상	한국 해당 사항																	
영국 ^{주1)}	학자금대출	• 졸업 후 상환 방식 • 등록금 상한 금액 졸업 후 소득 연동 – 연소득 £21,000 이상, 초과분 9% 매달(봉급생활자), 매년(자영업자) 상환 • 소득 따라 대출 이자율 차등 • 상환시기 따라 이자율 상이 ※저소득 졸업생 보호 • 대출금액	• 생애 최초 학사 학위 취득자만(대학원 진학자 및 재입학자 제외)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table><tr><th>상황</th><th>지원금</th></tr><tr><td>전일제 학생</td><td>£9,000</td></tr><tr><td>전일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td><td>£6,000</td></tr><tr><td>시간제 학생</td><td>£6,750</td></tr><tr><td>시간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td><td>£4,500</td></tr></table>			상황	지원금	전일제 학생	£9,000	전일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	£6,000	시간제 학생	£6,750	시간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	£4,500							
		상황			지원금																
		전일제 학생			£9,000																
		전일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			£6,000																
		시간제 학생			£6,750																
		시간제 학생 (사립대, 단과대)			£4,500																
	생활비 대출 (Maintenance Loan of living costs)	• 학생 거주 상황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액	• 영국 국적의 60세 이하 전일제 학생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table><tr><th rowspan="2">상황</th><th colspan="2">연간 대출액</th></tr><tr><th>(2013.9월부터)</th><th>(2014.9월부터)</th></tr><tr><td>부모님과 거주</td><td>£4,375 까지</td><td>£4,418 까지</td></tr><tr><td>독립, 런던 밖 거주</td><td>£5,500 까지</td><td>£5,555 까지</td></tr><tr><td>독립, 런던 내 거주</td><td>£7,675 까지</td><td>£7,751 까지</td></tr><tr><td>1년, 영국 해외에서 공부</td><td>£6,535 까지</td><td>£6,600 까지</td></tr></table>			상황	연간 대출액		(2013.9월부터)	(2014.9월부터)	부모님과 거주	£4,375 까지	£4,418 까지	독립, 런던 밖 거주	£5,500 까지	£5,555 까지	독립, 런던 내 거주	£7,675 까지	£7,751 까지	1년, 영국 해외에서 공부	£6,535 까지	£6,600 까지
		상황				연간 대출액															
(2013.9월부터)	(2014.9월부터)																				
부모님과 거주	£4,375 까지	£4,418 까지																			
독립, 런던 밖 거주	£5,500 까지	£5,555 까지																			
독립, 런던 내 거주	£7,675 까지	£7,751 까지																			
1년, 영국 해외에서 공부	£6,535 까지	£6,600 까지																			

국가	정책		내용	대상	한국 해당 사항																																
	생활비 보조금 (Maintenance Grant of living costs)		상환안함 부모 가계소득 따라 지원 지원액 <table><tr><th colspan="2">2013.9월부터</th><th colspan="2">2014.9월부터</th></tr><tr><th>가계 연간 소득</th><th>연간 보조금</th><th>가계 연간 소득</th><th>연간 보조금</th></tr><tr><td>£25,000 미만</td><td>£3,354</td><td>£25,000 미만</td><td>£3,387</td></tr><tr><td>£30,000</td><td>£2,416</td><td>£30,000</td><td>£2,441</td></tr><tr><td>£35,000</td><td>£1,478</td><td>£35,000</td><td>£1,494</td></tr><tr><td>£40,000</td><td>£540</td><td>£40,000</td><td>£547</td></tr><tr><td>£42,620</td><td>£50</td><td>£42,620</td><td>£50</td></tr><tr><td>£42,611 초과</td><td>없음</td><td>£42,620 초과</td><td>없음</td></tr></table>	2013.9월부터		2014.9월부터		가계 연간 소득	연간 보조금	가계 연간 소득	연간 보조금	£25,000 미만	£3,354	£25,000 미만	£3,387	£30,000	£2,416	£30,000	£2,441	£35,000	£1,478	£35,000	£1,494	£40,000	£540	£40,000	£547	£42,620	£50	£42,620	£50	£42,611 초과	없음	£42,620 초과	없음	영국 국적의 전일제 학생 나이제한 없음	-
2013.9월부터		2014.9월부터																																			
가계 연간 소득	연간 보조금	가계 연간 소득	연간 보조금																																		
£25,000 미만	£3,354	£25,000 미만	£3,387																																		
£30,000	£2,416	£30,000	£2,441																																		
£35,000	£1,478	£35,000	£1,494																																		
£40,000	£540	£40,000	£547																																		
£42,620	£50	£42,620	£50																																		
£42,611 초과	없음	£42,620 초과	없음																																		
독일 ^{주2}	생활비 보조	교육 지원금 (BAföG) ^{주3}	부모와 동거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자녀 여부 지원 종료 5년 후부터 매월 최소 €105 상환	일반학교/직업학교 10학년 이상 (중등 2단계)의 학생, 대학생 등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학생 능력 따라 지급, 부모 소득 고려치 않음 매월 €300 지급, BAFöG과 중복 수혜 가능 최소 2학기, 최대 정규 교육 기간 전체 지원 반드시 우수 성적 유지	각 대학 선발 기준 따름	국가장학금 II																																
		12개 우수인재 지원재단 장학금	학생과 부모의 경제적 형편 고려, 학업성과 보고서 제출 세미나 등 프로그램 제공받음		국가 우수장학금																																
	학자금 대출	KfW 학자금 대출 ^{주4}	BAföG 보충, 저리 이자, 14학기까지 지원	44세 이하 전체 대학생 박사과정, 부분제 대학과정 학생 (두 번째 대학과정, 추가보충과정, 직업 병행 등)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교육 대출		BAföG와 중복 수혜 가능 저리(연 1.44~1.45%) 보장 최초 대출금 수령 4년 후부터 상환 시작 상환금 매월 €120 비초과	36세 미만 교육참여자 대학생인 경우, 1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프랑스 ^{주7}	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가계 소득 따라 차등 지원	28세 미만 학생																																	
		우수인재 지원(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 대상, 추가 장학금 지원 €1,800/1년	학부 최대 3년 지원 석사 최대 2년 지원 학부 “매우우수”, 석사는 학부 과정 최우수 성적인 자	국가장학금 I, II 국가 우수장학금																																
		긴급지원 국가	학생 상황 반영 지원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학생	-																																

국가	정책	내용	대상	한국 해당 사항																											
	장학금																														
	거주지원 장학금	- 거주 지원비^{주5}와 사회거주지원^{주6} 받음 - 가족의 소득과 거주 형태 고려, 가족수당기금으로 지급		-																											
	학자금 대출	- 첫 상환 이후부터 10년간 정부가 이자 제외 대출금의 70% 까지 보증 - 최대 €15,000까지 대출 가능 - 분할 상환,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	28세 미만 모든 학생 (프랑스 혹은 EU회원국 국적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호주 ^{주8}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독립, 결혼, 자녀 따라 지급	16~25세 이하 전일제 학생, 직업 훈련자, 도제과정 참가자, 구직자 등 - 독립한 경우 15세 부터 가능	-																											
		<table><tr><th>상황</th><th>지원금(A\$) (2014.02)</th><th>지원금(A\$) (2015.02)</th></tr><tr><td>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비독립</td><td>226.8</td><td>233.6</td></tr><tr><td>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독립</td><td>414.4</td><td>426.8</td></tr><tr><td>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비독립</td><td>272.8</td><td>281.0</td></tr><tr><td>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독립</td><td>414.4</td><td>426.8</td></tr><tr><td>미혼, 유자녀</td><td>542.9</td><td>559.2</td></tr><tr><td>기혼, 무자녀</td><td>414.4</td><td>426.8</td></tr><tr><td>기혼, 유자녀</td><td>455.5</td><td>468.7</td></tr><tr><td>미혼 구직자 혹은 어린이의 핵심 부양자</td><td>699.9</td><td>725.4</td></tr></table>			상황	지원금(A\$) (2014.02)	지원금(A\$) (2015.02)	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비독립	226.8	233.6	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독립	414.4	426.8	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비독립	272.8	281.0	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독립	414.4	426.8	미혼, 유자녀	542.9	559.2	기혼, 무자녀	414.4	426.8	기혼, 유자녀	455.5	468.7	미혼 구직자 혹은 어린이의 핵심 부양자	699.9	725.4
		상황			지원금(A\$) (2014.02)	지원금(A\$) (2015.02)																									
		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비독립			226.8	233.6																									
미혼, 무자녀, 18세미만, 독립		414.4			426.8																										
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비독립		272.8			281.0																										
미혼, 무자녀, 18세이상, 독립		414.4			426.8																										
미혼, 유자녀		542.9			559.2																										
기혼, 무자녀	414.4	426.8																													
기혼, 유자녀	455.5	468.7																													
미혼 구직자 혹은 어린이의 핵심 부양자	699.9	725.4																													
교육지원급여 (Austudy)	독립, 결혼, 자녀 따라 지급	25세 이상 전일제 학생 (나이상한없음) - 호주 도제 과정 풀타임 이수자	-																												
	<table><tr><th>상황</th><th>지원금(A\$) (2014.02)</th><th>지원금(A\$) (2015.02)</th></tr><tr><td>독신, 무자녀</td><td>414.4</td><td>519.2</td></tr><tr><td>부부, 무자녀</td><td>542.9</td><td>468.8</td></tr><tr><td>독신, 유자녀</td><td>414.4</td><td>561.8</td></tr><tr><td>부부, 유자녀</td><td>455.0</td><td>468.8</td></tr></table>			상황	지원금(A\$) (2014.02)	지원금(A\$) (2015.02)	독신, 무자녀	414.4	519.2	부부, 무자녀	542.9	468.8	독신, 유자녀	414.4	561.8	부부, 유자녀	455.0	468.8													
	상황			지원금(A\$) (2014.02)	지원금(A\$) (2015.02)																										
	독신, 무자녀			414.4	519.2																										
부부, 무자녀	542.9	468.8																													
독신, 유자녀	414.4	561.8																													
부부, 유자녀	455.0	468.8																													
교통비 보조금 (Fares Allowance)	Austudy 및 Youth Allowance와 중복 수급 가능	부모와 비동거 독립 생활하는 고등교육 과정 학생	-																												
스웨덴 ^{주9}	학생 수당 (Study Allowance)	- 학생지원금: 16~20세 학생에게 지급 - 보충수당: 부모의 경제 상황 따른 선별적 수당 - 주거지원금: 부모의 집과 학교의 거리 따라 지급	16~20세 전일제 고등학교 재학생 (upper secondary school)	-																											
		<table><tr><th>종류</th><th>한달 지원금 (SEK) (2013.07~)</th></tr><tr><td>학생지원금</td><td>1,050</td></tr><tr><td>보충 수당</td><td>285/570/855</td></tr><tr><td>주거지원금</td><td>1,190~2,350</td></tr></table>			종류	한달 지원금 (SEK) (2013.07~)	학생지원금	1,050	보충 수당	285/570/855	주거지원금	1,190~2,350																			
		종류			한달 지원금 (SEK) (2013.07~)																										
		학생지원금			1,050																										
보충 수당	285/570/855																														
주거지원금	1,190~2,350																														
학생 지원 (Student Aid)	- 지원금 및 대출 운영 - 별도의 상환 기간 없음 - 지원액	20~54세의 전일제 /시간제 학생 - 대학재학생 (최대240주) - 고등교육 수강생 (80~120주) - 의무교육 수강생 (40~100주)	-																												
	<table><tr><th>종류</th><th>1주 지원금(SEK)</th></tr><tr><td>지원금</td><td>705</td></tr><tr><td>대출</td><td>1,546</td></tr></table>			종류	1주 지원금(SEK)	지원금	705	대출	1,546																						
	종류			1주 지원금(SEK)																											
지원금	705																														
대출	1,546																														
추가 지원액																															

국가	정책	내용		대상	한국 해당 사항
		종류	지원금(SEK)		
		유자녀 (1/2/3/4명)	126/239/287/335		
		보충대출	879		
		추가대출	때에 따라 다름		
		* 보충대출: 최저선보다 낮은 소득의 25세 이상 학생			
		* 추가대출: 필요시마다			

주1) <https://www.gov.uk/student-finance/loans-and-grants>(2015.5.20.검색).

주2) 한국교육개발원(2013), 독일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2013.2.26.) 온라인자료 발췌재구성(<https://www.kedi.re.kr> 2015.11.06.검색).

주3) BAfö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연방 장학법.

주4) 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부흥은행.

주5) A.P.L; 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가족 구성에 따라 임대료나 월세지원.

주6) 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 시설에 따라 임대료나 월세지원.

주7) 한국교육개발원(2013), 프랑스의 대학학자금 지원제도 현황(2013.2.26.) 온라인자료 발췌재구성(<https://www.kedi.re.kr> 2015.11.6.검색).

주8) <http://www.humanservices.gov.au>(2015.5.20.검색).

주9) <http://www.csn.se/en/2.1034/2.1036/2.1037/2.1038/1.9265>(2015.5.20.검색).

3) 주거 지원정책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도 유럽연합(EU)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청년층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기 보다는 각 국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 제도 하에서 청년들이 그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네델란드의 경우, 사회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셰어하우스(Share-House)의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네델란드는 가구의 1/3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많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셰어하우스는 도시의 학생들이 거주 공간 마련이 어려워 4~5명이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형태가 생긴 것이고,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이 집 찾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청년일자리허브, 2014 p.37-40).

네델란드 이외, 핀란드와 스웨덴, 영국은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지원 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핀란드는 저소득층의 사회보장포함자, 스웨덴은 정식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18세~29세 청년, 그리고 영국은 시간제 수입, 재산, 가족형태(한부모 등),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한편, 이들 유럽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저소득층 대상 ‘주택바우처’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I-11 주요 선진국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주1}

국가	정책	내용	대상	비고
네덜란드	사회임대주택	• 전체 가구의 1/3 공급		저소득층 지원정책
	임대료 보조	• 임대료 지출이 많고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지원 • 매년 신청, 1년 간 지급 • 임대료 수준과 가구 소득 따라 지원 금액 결정	• 자기 명의 아파트 계약 소유자 • 최소 18세 • 네덜란드 정부 지정 최저 소득 이하/임대료 이하 • IND ^{주2} 등록자, 네덜란드 이주귀화 서비스 신청자 (EU 시민 무관)	
	셰어하우스 (Share House)	• 네덜란드 대학교의 주거 담당기관이 학생 대신 임대인과 협상, • 학생은 학교의 주거 담당기관과 거래 • 6월에 수요 결정	• 네덜란드 대학생	대학자체 지원
미국	주택바우처	• 저소득층 임대료 일부 지원 (쿠폰 형태) • 전체 주거비 보조 가구(495.2만)의 1.9% 지원		저소득층 지원정책
핀란드	Kela ^{주3} 주거비 지원	• 주거비 일부 지원	• 저소득층 핀란드 영구 거주자 • Finnish 사회보장 포함자	저소득층 지원정책
영국	학생주거수당	• 수입, 재산, 가족 따라 차등 지급	• 시간제 학생 • 한부모, 미혼모, 미혼부, 장애 학생 • 수입 지원 수혜 학생 • 유자녀, 전일제 학생 배우자 • 21세까지 교육과정 비소속 학생 • 20세 이하 아동 수당 수혜 학생 • 연금 크레딧 수혜 연령 학생 (배우자 포함) •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	청년대상 주거지원 정책
스웨덴	주거비 지원	• 반드시 스웨덴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에 거주해야함 • 반드시 인구조사 등록 • 석사 과정 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 (두 학기 동안은 집 제공, 한 학기 동안은 기숙사 제공)	• 18~29세 청년	청년대상 주거지원 정책

주1) 청년일자리허브(2014), News from welfare-State 자료집, p.37-41 발췌재구성.

주2) IND: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 네덜란드 출입국이민청.

주3) Kela: 핀란드 사회안전보장 사무소(<http://www.kela.fi/web/en/housing-supplement-for-students>(2015.5.20.검색)).

3. 청년지원관련 법안 발의 현황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년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으로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청년을 지원하는 현행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19대 국회에서 제정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발의 법안을 살펴보았다.

1)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법안

풀리지 않는 취업난의 문제와 주거 빈곤층으로의 편입 등 청년들이 생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청년지원정책이 고용정책, 교육정책, 복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청년들의 현 상황에 국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과 같이 ‘청년’이라는 대상자 중심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청년발전기본법」의 법안이 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되었다.

2014년 3월 13일 박기춘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09701)과 2014년 5월 22일 김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의안번호: 1910709)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청년’의 연령 범위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주관부처, 그리고 정책심의와 조정하는 기구의 명칭과 소속, 청년정책 기본 시책 등의 주요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갖는다.

두 법안 중 먼저 발의된 박기춘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40세 이하로 정하고, 현재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관부처로 명시하였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년정책기본 시책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그리고 국제협력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이 포함되고, 청년단체 및 시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구성하였다.

후에 발의된 김상민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주관부처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나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였으며,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를 ‘청년발전위원회’로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등 박기춘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내용과 차이가 있다. 또 청년정책임관의 지정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기본 시책에서도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 등의 증진 내용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해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하였다.

표 III-12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발의 법안의 비교

구분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법안
청년의 정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19세 이상 40세 이하
기본계획 수립 및 주관부처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정책 심의·조정 기구	명칭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조정회의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임관의 지정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청년주간		매년 5월 셋째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
청년정책 기본시책		•참여 확대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 등 증진 •고용촉진 •창업지원 •국제협력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참여 확대 - - •고용촉진 •창업지원 •국제협력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청년단체 및 시설의 지원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재정지원

출처: 「청년발전기본법」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 자료(2014.11), p.28 발췌재구성

법안에 대한 소위(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에서는 두 법안 모두 정책대상자로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 범주가 넓고, 대상자 규모가 커서 법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청년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보다는 여성가족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의 연령 범위와 주관부처의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심의·조정기구에 있어서도 대통령소속 ‘청년발전위원회’는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 2014.11).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법안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고용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적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용어나 규정 표현의 수정과 관련된 개정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갖는 대표적인 법안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2014년 10월 29일 김광진의원(의안번호: 1912181)이다. 이 법안은 현행 법령에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고용특별위원회’에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발의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발의 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2015년 4월 9일에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14658)으로, 실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5조의(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내용을 보완하여 청년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 제안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은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설이 핵심이다.

제 IV 장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1. 조사개요
2.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분석
3. 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유용성 평가

제 IV 장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1. 조사개요

1)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 참여자 구성 및 할당기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현재 상태 및 당면한 문제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앞서, 이들의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상태를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미취업자, 대학 졸업 취업자(정규직 vs 비정규직)의 하위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별 2개씩의 세부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각 세부집단별 6인으로 구성된 총 36명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을 FGI에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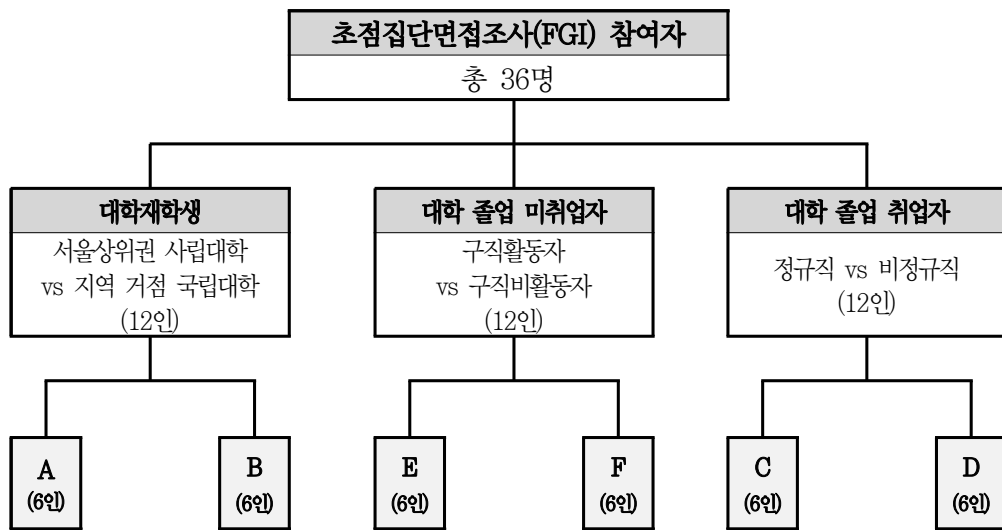
각 집단별 참여자의 구성은 문헌고찰 및 전문가자문회의 내용에 기초하여 참여자 섭외기준을 마련한 후 할당하였다. 집단별 공통적으로 성비(gender)의 균형 할당을 하였으며, 성별 구성 이외 다른 조건들은 정책적으로 각 집단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대학 재학생 집단의 경우, 이미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인문·사회계열 학생들과 이공·자연계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구성과 졸업 후 진로 경로 및 취업 가능성 등에 있어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차이가 있다는 점, 국립대학 재학생과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학자금 부담의 격차를 고려하여 크게 두 집단(서울 상위권 사립대학 재학생(A) vs 지방거점 국립대학 재학생(B))으로 구분하였다.

졸업자 중 미취업자 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 구직활동 여부 등 현재 상태와 생활실태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령을 기준으로 두 집단(구직활동자(E) vs 구직비활동자(F))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졸업자 중 취업자 집단의 경우, 고용형태에 따라 그리고 직장의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고용형태에 따라 두 집단(정규직(C) vs 비정규직(D))으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서울지역 취업자와 여타 지역 취업자의 구성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IV-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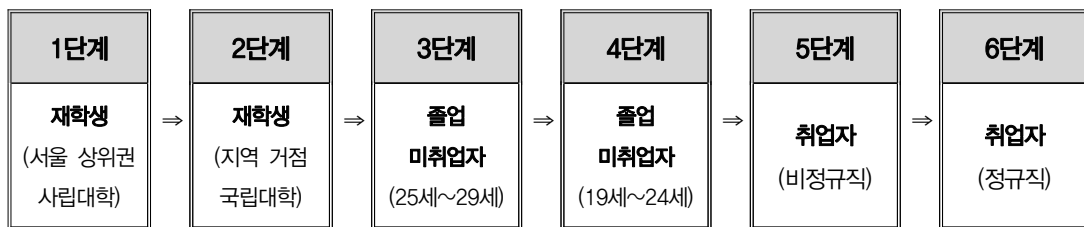
각 집단별 참여자의 섭외 완료 후 FGI실시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예비후보자 중에서 성비와 참여하지 못하는 우선 섭외대상자와 조건이 유사한 자를 참여시켰다. 최종 참여자는 아래 <표 IV-1>과 같으며, 집단별 5인~7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집단별로는 서울 중·상위권 사립대학 재학생 집단과, 정규직 취업자 및 비정규직 취업자 집단이 계획된 성비 동수의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지역거점 국립대학 재학생 집단과 25세~29세 미취업자 집단은 남/여 한 명씩 부족한 5인이 참여한 반면, 미취업자 19세~24세 집단의 경우, 추가적으로 예비후보자 1명을 포함하여 7인이 참여하였다.

표 IV-1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최종 할당 기준 및 수

구분		성별		계
		남	여	
대학재학생	서울 상위권 사립대학	3	3	6
	지역거점 국립대학	2	3	5
취업자	정규직	3	3	6
	비정규직	3	3	6
미취업자	구직활동자	3	4	7
	구직비활동자	3	2	5
계		17	18	35

(2) 추진 절차

본 연구의 FGI에서는 6개로 구분된 하위집단의 심층면접을 추진함에 있어,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현 실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애주기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고자 총 6개 그룹의 FGI 추진절차를 ‘대학재학생 → 졸업 미취업자 → 졸업 취업자’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면접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질문내용을 보다 견고하고 깊이 있게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세부 하위집단의 우선 진행의 여부는 각 상위집단의 실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세부 하위집단을 먼저 배정하고, 참여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그림 I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추진 절차

(3) 참여자

FGI에 참여한 이들을 각 상태를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IV-2>에서 <표IV-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표IV-2>의 대학 재학생집단의 2개 하위집단 1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명 여성이 6명이고, 연령은 20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대학생활의 내용을 보다 폭넓게 청취하기 위하여 3~4학년들을 중심으로 섭외하였으며, 전공계열에 따라 대학생활의 구성과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와 이·공계열전공자의 비율을 동수로 하였다.

표 IV-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재학생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학년	전공
A	서울상위권 사립대학 재학생	A1	남	25	4	물리학
		A2	여	25	4	국어국문
		A3	남	23	3	불어불문
		A4	여	21	3	화공생명공학
		A5	남	26	4	외식경영학
		A6	여	19	2	전기생체공학
B	지역거점 국립대학 재학생	B1	남	25	4	수학
		B2	남	26	4	화학공학
		B3	여	23	4	영어영문
		B4	여	25	4	경영학
		B5	여	22	3	철학

<표IV-3>의 졸업 후 취업자 2개 하위집단 1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여 각 6명이고, 대학 재학생 집단과 같이 20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정규직 집단과 비정규직집단으로 구분한 후, 직장의 소재지에 따라 생활의 내용이 다를 것으로 보고, 서울 및 수도권 근무자와 그 외 지역 근무자로 나누어 섭외 시 할당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역 근무자와 그 외 지역 근무자가 동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학생활의 회고적 경험과 취업까지의 과정, 그리고 현재의 직장 생활에 관한 실태를 연계성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령과 더불어 입사연도가 가능한 최근 3년 이내인 취업자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대학 재학생과 같이, 다양한 전공자가 참여하였다.

표 IV-3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전공	현재고용상태	입사년도	직장소재지
C	정규직	C1	남	23	법학	정규직	2013.12	충북 청주
		C2	여	26	경영학	정규직	2014.04	충남 아산
		C3	여	27	경영학	정규직	2013.02	강원 정선
		C4	여	24	경영경제	정규직	2013.02	서울
		C5	남	24	전자	정규직	2015.01	서울
		C6	남	25	경제학	정규직	2014.08	서울
D	비정규직	D1	여	23	국어교육	계약직	2015.03	충북 청주
		D2	남	21	사회복지	계약직	2014.12	서울
		D3	남	24	컴퓨터공학	비정규직	2014.06	대전
		D4	여	25	중국어교육	계약직	2015.01	서울
		D5	남	26	기계공학	인턴	2014.07	세종
		D6	여	29	경영학	계약직	2014.07	서울

같은 방식으로 <표IV-4>의 졸업 후 미취업자 2개 하위집단 1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여 각 6명이고, 대학 재학생 집단과 같이 20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집단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직활동 활동자 집단과 비활동자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전에 할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미취업자들 중 과거 취업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와 경험이 없는 참여자가 동수로 구성되었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기간 또한 짧게는 1개월 미만부터 길게는 12개월까지 다양한 범주에 있어 미취업 상태에서 경험하는 생활과 의식, 정책욕구를 폭넓게 청취할 수 있었다.

표 IV-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전공	미취업사유	미취업 상태기간
E	구직 활동자	E1	남	24	토목	자진퇴사	3개월
		E2	여	24	러시아어학	졸업	1개월
		E3	남	24	관광경영	졸업	2개월
		E4	여	23	경영정보	졸업	12개월
		E5	여	26	화학공학	자진퇴사	12개월
		E6	남	26	경영학	자진퇴사	12개월

하위집단구분			성별	연령	전공	미취업사유	미취업 상태기간
		E7	여	25	사회복지학	인턴기간만료	6개월
F	구직 비활동자	F1	남	27	법학	졸업	2개월
		F2	여	25	세무회계학	자진퇴사	7개월
		F3	남	26	기계공학	졸업	1개월 미만
		F4	남	24	메카트로닉스과	자진퇴사	1개월
		F5	여	22	시각디자인	자진퇴사	7개월

(4) 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FGI는 학교 안과 밖에서의 대학생생활, 현재의 어려움과 고민들, 20대 청년들의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경제적 부담과 학자금·생활비, 재학 중 일 경험 및 취업준비, 졸업 후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졸업자만), 현 직장 취업과정 및 일자리 실태(졸업자 중 취업자만) 등과 관련한 내용의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1시간~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각 집단에 따라 내용을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질문을 이어가기도 하였으며, 단순히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참여자들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방법론 측면으로는 FGD(Focus Group Discussion)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참여 전과 후에 있어 윤리적 연구의 기본 원칙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의사 타진 시, 구두 동의뿐만 아니라 면접조사 실시 전에 참여자 서명의 확인서를 통해 동의내용을 확인토록 하였으며, 면접 후 이메일을 통한 참여자의 질문에 대해 회신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사전·사후 윤리적 연구의 원칙들을 면밀하게 준수하고자 하였다.

표 IV-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주요 면접 내용

구분	주요 면접 내용
상태 · 경험	〈공동〉 • 기대했던 대학생생활과 실제 대학생생활과의 비교, 요즘 대학생들 사이의 이슈가 되는 것은? • 학교 안에서의 대학생 생활(학업, 동아리, 스터디,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과 선택 사유 및 기준 • 학교 밖에서의 대학생 생활(사교육, 아르바이트, 동아리, 스터디, 봉사활동, 인턴 등)과 선택 사유 및 기준 • 고비용의 학비, 생활비, 부채의 실상, 학자금 부담 • 주거생활과 주거비 부담 • 대학생생활에서의 성별 차이와 학년별 차이 〈졸업자〉

구분	주요 면접 내용
	•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사했나? • 입사 전 회사에 대한 정보와 입사 후 알게 된 회사의 정보는 다른지? 다르다면 어떤 것이? • 맡은 일의 직무는? • 대학재학생과 취업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 취업생 생활에서의 성별 차이 또는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 현재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일을 선택한 이유는? •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 하루 일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 취업생들에게 월평균 최소 얼마나 필요한지? •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을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유용한지? • 취업을 위한 스터디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유용한지? • 취업 경험
의식 · 감정	〈공통〉 • 현재 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또는 고민들 • 3포세대, 5포세대, 달관세대, 관계단절세대 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 • 20대가 보는 20대의 특성은? • 준비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 나에게 ‘일’의 의미 〈졸업자〉 • 재학생 또는 취업생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얘기 할 수 있나? • 현실에서의 직업세계와 내가 갖는 이미지의 격차
선택 · 행위	〈공통〉 • 향후계획 •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들 〈취업자만〉 • 현 직장 계속 근무계획

2)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중 2015년 6월 현재 19세~29세에 해당하는 남/여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를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및 졸업자 전체를 포괄하지 않고,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생 수의 60%에 이르는 학생들이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구조 및 특성이 다른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을 포괄할 경우 표본 수에 많은 비중을 반영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현재 실태가 분산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주21)}. 이에 따라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비교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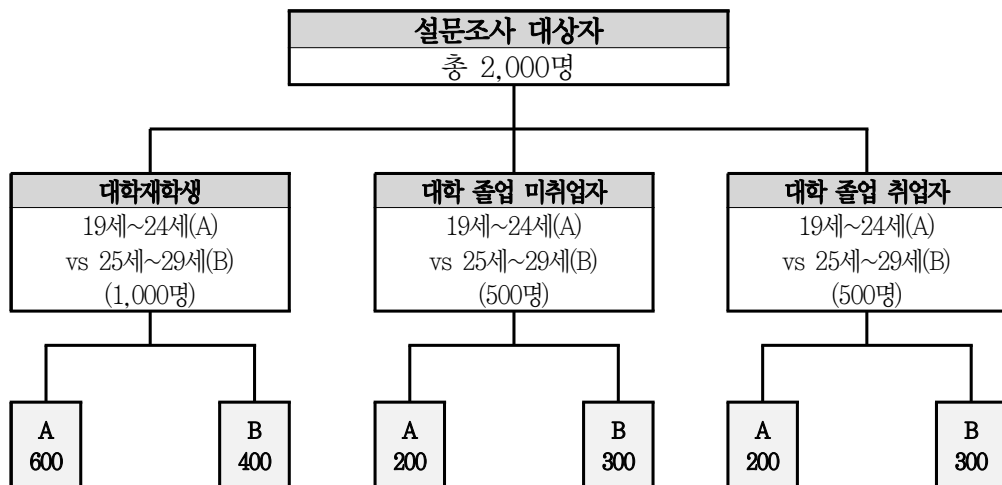
주21) 문헌고찰, 조사관련 업무협의, 설문초안 수정방향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5.06.02.)에서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임.

구조의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정하였다^{주22)}.

2015년 현재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5년 학교 개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 중 국립 28개교, 공립 1개교, 국립대법인 3개교, 특별법인인 3개교, 그 외 나머지 154개교는 사립이다(2015.5.27일 검색). 본 연구에서는 편의에 따라 국·공립 35개교와 사립 154개교로 나누어 본 설문에 관련 측정문항을 반영하였다.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9개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의약계열전공자와 예체능계열전공자가 아닌, 19세~29세의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이다. 의약계열전공자와 예체능전공자를 본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서, 대학과정의 학교들 중 일반대학으로만 한정하는 사유와 같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의 구조적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의 총 수는 물리적 시간과 금전적 예산 제약 하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2,000명이며, 존재하지 않는 표본 틀로 인하여 비확률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여 6개 하위집단의 표본수를 임의 할당하여 구성하였다. 표본 할당 시, 연령범주와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각 하위집단별 19세~24세 및 25세~29세 연령범주의 비율과 남녀의 성비는 가능한 5:5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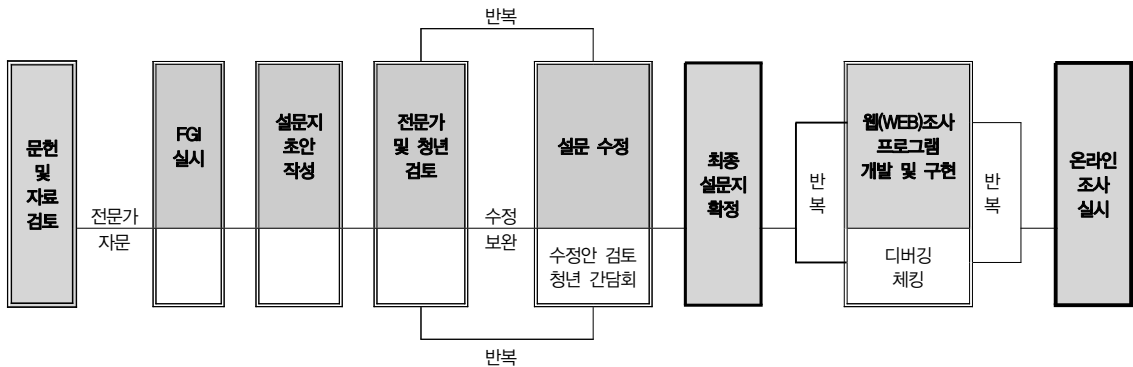
【그림 IV-3】 설문조사 대상자의 표본 할당

주22) 대학과정이 있는 학교의 수는 총 223개교이고, 이들 중 일반대학은 189개교로 83.6%임. 학생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과정에 있는 학생수는 2,791,975명이고, 이들 중 일반대학 재학생은 1,649,176명으로 59.1%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p.31~35).

(2) 조사도구의 개발 절차 및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문헌고찰과 기존에 개발된 청년대상 설문지의 검토 및 보완 활용, 그리고 FGI를 통해 포착된 현실관련 문항의 개발 등으로 설문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20대 당사자들의 검토, 검토의견을 반영한 설문초안의 수정·보완, 수정된 설문에 대한 반복된 재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작성되었다.

① 개발절차



【그림 N-4】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설문지 개발 절차

② 내용 구성

설문문항의 구성은 ‘상태·경험·의식·감정·선택·행위’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영역을 구성하고, 문항을 개발하였다.

상태·경험의 영역에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 또는 졸업한 대학의 설립주체나 소재지와 같은 일반현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학업을 비롯한 대학생활에서의 활동 등의 경험이 재학생과 졸업생 공통응답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재학생과는 달리 졸업자들은 졸업 후 취업 경험과 첫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었고, 졸업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의식·감정의 영역은 공통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이 개인에게 갖는 의미를

비롯하여, 언론에서 20대 청년세대를 통칭하거나 특성으로 정의내리는 용어와 그 의미에 관한 의식과 청년대상 현행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자존감, 긍정미래관, 진로성숙도와 같은 심리·정서적 특성도 포함하였다.

상태·경험 및 의식·감정에 영향을 받는 선택·행위의 영역에서는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험, 즉 재학 중 또는 취업 전 아르바이트, 취업준비내용, 인턴과 구직활동의 경험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IV-6 조사내용의 구성

구분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상태 · 경험	- 재학 또는 졸업대학 일반현황 - 대학생활 경험 - 학자금 부담 및 장학금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재학 또는 졸업대학 일반현황 - 대학생활 경험 - 학자금 부담 및 장학금 - 졸업자의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재학 또는 졸업대학 일반현황 - 대학생활 경험 - 학자금 부담 및 장학금 - 졸업자의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 - 졸업 후 취업자의 현 일자리 - 사회·인구학적 특성
의식 · 감정	- 대학생활만족도 및 대학이 갖는 의미 - 심리·정서적 특성 -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의식 - 청년대상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	- 대학생활만족도 및 대학이 갖는 의미 - 심리·정서적 특성 -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의식 - 청년대상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	- 대학생활만족도 및 대학이 갖는 의미 - 심리·정서적 특성 -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의식 - 청년대상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
선택 · 행위	- 취업준비와 인턴 및 구직 활동 경험 - 재학 중, 취업 전 아르바이트	- 취업준비와 인턴 및 구직 활동 경험 - 재학 중, 취업 전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와 인턴 및 구직 활동 경험

③ 설문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구성된 조사내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문항은 <표IV-7>과 같이 작성되었으며, 작성과정에서 이미 개발된 설문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문항, 또는 연구진이 발췌하여 재구성한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작성의 근거로서 출처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IV-7 설문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설문대상			출처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재학 또는 졸업대학 일반현황	• 학년 • 입학년도 • 졸업년도 • 대학 설립주체 • 대학 소재지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문1-1 문1-2 문1-3 문1-4 문1-5	• 연구진 작성
대학생활 경험	• 반수 경험 여부 • 반수 이유 • 반수의 결과 • 편입 경험 여부 • 편입 이유 • 편입의 결과 • 휴학 경험 여부 • 휴학 이유 • 휴학 기간 • 복수전공 경험 여부 • 선택한 복수 전공 • 졸업 유예 경험 여부 • 졸업 유예 기간 • 교내/외 활동 여부 • 교내/외 활동의 목적 • 현 재학 대학 유지 여부 • 그만두려는 주된 사유	문9 문9-1 문9-2 문10 문10-1 문10-2 문11 문11-1 문11-2 문12 문12-1 문13 문13-1 문14 문14-1 문15 문15-1	문9 문9-1 문9-2 문10 문10-1 문10-2 문11 문11-1 문11-2 문12 문12-1 문13 문13-1 문14 문14-1 - -	문9 문9-1 문9-2 문10 문10-1 문10-2 문11 문11-1 문11-2 문12 문12-1 문13 문13-1 문14 문14-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일부 발췌 ·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학자금 부담 및 장학금	• 납입한 실제 등록금 • 학자금 대출 경험 여부 • 학자금 대출의 종류 • 학자금 대출 내용의 이해 정도 • 학자금 대출금 총액 및 상환 금액 • 상환하고 있는 대출 학자금 규모 •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 정도 • 생활비 대출 경험 • 생활비 대출의 종류 • 생활비 대출 내용의 이해 정도 • 생활비 대출금 총액 및 상환 금액 • 상환하고 있는 대출 생활비 규모 • 생활비 대출 상환의 부담 정도 • 생활비 대출로 얻은 이점 • 장학금 수혜 경험 여부 • 수혜 장학금의 종류 • 수혜 장학금의 규모 • 수혜 장학금의 학업 기여도	문16 문17 문17-1 문17-2 문17-3 문17-4 문17-5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9 문19-1 문19-2 문19-3	- 문17 문17-1 문17-2 문17-3 문17-4 문17-5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9 문19-1 문19-2 문19-3	- 문17 문17-1 문17-2 문17-3 문17-4 문17-5 문18 문18-1 문18-2 문18-3 문18-4 문18-5 문18-6 문19 문19-1 문19-2 문19-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 2013년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발췌재구성 • 연구진 작성
재학 중 및 취업 전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진행 여부 •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개수 • 아르바이트의 목적 • 주당 아르바이트 시행 평균 일수 • 주당 아르바이트 시행 평균 시간 • 아르바이트의 학업 방해 정도 • 아르바이트의 취업 준비 방해 정도	문20 문20-1 문20-2 문20-3 문20-4 문20-5 문20-6	문20 문20-1 문20-2 문20-3 문20-4 문20-5 문20-6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발췌재구성

구분	문항	설문대상			출처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유형 • 현재 하고 있는 직종 •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재직 기간 •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 • 아르바이트 급여 산정 기준 • 최근 3개월 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아르바이트 중단 사유 • 최근 3개월 간 경험했던 아르바이트 유형	문20-7 문20-8 문20-9 문20-10 문20-11 문21 문21-1 문21-2	문20-7 문20-8 문20-9 문20-10 문20-11 문21 문21-1 문21-2		
취업준비 와 인턴 및 구직 활동 경험	• 취업준비시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들(16) •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인턴 경험 여부 • 인턴 경험 시기 • 인턴 경험 횟수 • 총 인턴 경험 기간 • 참여 인턴제의 종류 • 인턴 경험의 진로 결정 도움 정도 • 인턴 경험의 취업 도움 정도 • 인턴 경험의 취업 도움 또는 미도움 이유 •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진 인턴 여부 • 취업 준비 관련 사항(10) • 구직 활동 여부 • 구직 활동 기간 • 구직 활동의 어려운 •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경로 • 구직 활동 하지 않는 이유 • 구직 미활동 기간	문22 문23 문23-1 문23-2 문23-3 문23-4 문23-5 문23-6 문23-7 문23-8 문24 문25 문25-1 문25-2 문25-3 문25-4 문25-5	문22 문23 문23-1 문23-2 문23-3 문23-4 문23-5 문23-6 문23-7 문23-8 문24 문25 문25-1 문25-2 문25-3 문25-4 문25-5	문22 문23 문23-1 문23-2 문23-3 문23-4 문23-5 문23-6 문23-7 문23-8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2GOMS) 일부 문항 재구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설문지 문 항 발췌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졸업자의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	• 대학 졸업 후 취업 경험 • 졸업 후 취업 경험 횟수 • 취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의 일치 여부 •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근무 기간 • 첫 취업한 일자리 기관의 형태 • 첫 취업한 일자의 고용 형태 •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급여 • 첫 취업한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도 • 첫 취업한 일자의 사직 이유	-	문26 문26-1 문26-2 문26-3 문26-4 문26-5 문26-6 문26-7 문26-8 문26-9	문26 문26-1 문26-2 문26-3 문26-4 문26-5 문26-6 문26-7 문26-8 문26-9	•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2GOMS) 일부 발췌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졸업 후 취업자의 현 일자리	• 현 일자리 기관의 형태 • 현 일자의 고용 형태 • 비정규직 선택 사유 • 현 일자리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 • 현 일자리에서의 월평균 급여 • 현 일자리와 전공의 일치 정도 • 현 일자리 선택의 이유 • 현 일자리에 입사의 결정적 도움 항목 • 새 일자리로의 이직 준비 여부 • 이직하려는 이유 • 현 일자리 관련 사항(12)	-	-	문27 문28 문28-1 문29 문30 문31 문32 문33 문34 문34-1 문35	•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2GOMS) 일부 발췌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사회·인	• 성별	문39	문39	문3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구분	문항	설문대상			출처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구학적 특성	• 군복무 경험 여부 • 거주지 • 부모님과 동거 여부 • 현 주거형태 • 주거비 월평균 지출 규모 • 취업 준비 또는 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여부 • 지역이동 • 월평균 총 소득 • 용돈 포함 월평균 생활비 •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 형제자매의 수 • 소속 가구의 계층	문39-1 문40 문41 문41-1 문41-2 문41-3 문41-3-1 문42 문43 문44 문45 문46	문39-1 문40 문41 문41-1 문41-2 문41-3 문41-3-1 문42 문43 문44 문45 문46	문39-1 문40 문41 문41-1 문41-2 문41-3 문41-3-1 문42 문43 문44 문45 문46	2012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일부 문항 발췌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대학생활 만족도 및 대학이 갖는 의미	• 대학생활만족도(15) • 대학이 갖는 의미 (7)	문2 문3	문2 문3	문2 문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2012) 설문지 및 대학내일20대연구소 대학생CAMPUS LIFE 2015-대학생활환경 실태조사 백서 일부 발췌재구성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 (11) • 미래관 (9) • 진로성숙도 (8) • 일상생활에서의 감정과 상태 (7)	문4 문5 문6 문7	문4 문5 문6 문7	문4 문5 문6 문7	• 자존감 심리척도핸드북(1999)에 제시된 Rosenberg(1965) 척도를 김문주(1988)가 변안한 척도 사용 • 미래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긍정미래관 문항사용 • 진로성숙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년 후기청소년세대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문항 사용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의식	• 20대 청년세대의 특성에 대한 언론의 언급	문8	문8	문8	
청년대상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	• 학자금 지원 서비스 관련 사항(3)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 학자금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학자금 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 학자금 지원 서비스의 도움/미도움 이유 • 주거 지원 서비스 관련 사항(4) • 주거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 주거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주거 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문36 문36-1 문36-2 문36-3 문36-4 문37 문37-1 문37-2 문37-3	문36 문36-1 문36-2 문36-3 문36-4 문37 문37-1 문37-2 문37-3	문36 문36-1 문36-2 문36-3 문36-4 문37 문37-1 문37-2 문37-3	• 한국고용정보원 2013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2GOMS) 일부 발췌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구분	문항	설문대상			출처
		대학재학생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 졸업 후 취업자	
	• 주거 지원 서비스의 도움/미도움 이유 • 취업 지원 서비스 관련 사항(10) • 취업 지원 서비스 인지 정도 •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취업 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 취업 지원 서비스의 도움/미도움 이유	문37-4 문38 문38-1 문38-2 문38-3 문38-4	문37-4 문38 문38-1 문38-2 문38-3 문38-4	문37-4 문38 문38-1 문38-2 문38-3 문38-4	

(3)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최종 작성된 설문문항을 웹(Web)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오류체크 등을 거친 후 웹(Web)기반 온라인 조사의 형태로 6월 3주~7월 4주까지 이루어졌다.

(4) 응답자 특성

앞서 조사대상 표본 구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대학 졸업 여부 및 취업여부, 성별,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의 설립주체 비중(국·공립 2: 사립대학 8)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할당표집 하였다. 표본 2,000명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가 각각 50%를 구성하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취업자가 다시 각각 50%의 비중을 갖는다.

표본 할당 기준에 따라 각 집단별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5로 같은 비율이다. 졸업 미취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구직 활동자와 구직 비활동자가 동 비율로 구성되었고, 취업자 또한 정규직취업자와 비정규직취업자가 동 비율로 구성되었다.

표본 할당 시, 고려하지 않았던 연령의 경우 19세~24세 연령대와 25세 이상의 연령대로 나누어 보았을 때, 19세~24세 연령대가 55.1%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재학생의 경우 85.8%가 이 연령대 이고, 반대로 졸업자의 경우 25세 이상의 비중이 더 많아 졸업 미취업자의 70.2%, 졸업 취업자의 81.0%가 25세 이상이다. 재학생의 학년의 경우도 할당 기준이 있지는 않았으나, 졸업을 연기하고 미루는 최근의 현상을 고려하여 재학생 집단의 응답대상자로 졸업유예자를 포함하였으며, 이들은 재학생 응답자의 10.4%를 차지한다.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대학을 설립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이 21.9%, 사립대학이 78.2%로 표본설계 시 전국의 4년제 일반대학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중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및 졸업자의 전공계열의 분포는 공학-사회-인문-자연-교육계열 순으로 비중이 높다.

한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pm 50\%$ 이내에 해당되는 이들이 전체의 66.7%, 중위소득 - 50% 이하가 23.5%, 중위소득 + 50% 이상이 9.9%를 차지하며, 재학생과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집단별 분포가 거의 유사하다.^{주23)}

표 IV-8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전체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성별	남	1,000(50.0)	500(50.0)	250(50.0)	250(50.0)
	여	1,000(50.0)	500(50.0)	250(50.0)	250(50.0)
연령	19~24세	1,102(55.1)	858(85.8)	149(29.8)	95(19.0)
	25세 이상	898(44.9)	142(14.2)	351(70.2)	405(81.0)
	평균(편차)	24.3(2.81)	22.4(1.86)	25.8(2.22)	26.6(2.26)
대학설립 주체	국공립	437(21.9)	200(20.0)	137(27.4)	100(20.0)
	사립	1,563(78.2)	800(80.0)	363(72.6)	400(80.0)
대학전공 계열	인문계열	405(20.3)	188(18.8)	105(21.0)	112(22.4)
	사회계열	608(30.4)	282(28.2)	168(33.6)	158(31.6)
	교육계열	75(3.8)	30(3.0)	30(6.0)	15(3.0)
	공학계열	624(31.2)	349(34.9)	126(25.2)	149(29.8)
	자연계열	288(14.4)	151(15.1)	71(14.2)	66(13.2)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이상	197(9.9)	119(11.9)	39(7.8)	39(7.8)
	중위소득 $\pm 50\%$ 이내	1,334(66.7)	669(66.9)	335(67.0)	330(66.0)
	중위소득 -50%이하	469(23.5)	212(21.2)	126(25.2)	131(26.2)
	평균(편차)	358.7(195.8)	378.5(201.9)	336.7(184.2)	341.0(191.0)
재학생 학년	1학년	56(2.8)	56(5.6)	-	-
	2학년	251(12.6)	251(25.1)		
	3학년	293(14.7)	293(29.3)		
	4학년	296(14.8)	296(29.6)		
	졸업유예	104(5.2)	104(10.4)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자	250(12.5)	-	250(50.0)	-
	구직비활동자	250(12.5)		250(50.0)	
고용형태	정규직	250(12.5)	-	-	250(50.0)
	비정규직	250(12.5)			250(50.0)

주23)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임.

2.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실태조사 자료를 날 것으로 분석하여 나열하는데 그치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현재’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실의 발견’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일차적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된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시 20대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한 후 이차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정책적 활용과 정책 실현의 실증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실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1) ‘20대’에 대한 당사자 인식과 심리·정서적 특성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언론에서 특징지우는 20대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대학재학여부나 취업여부 등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동의정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언론에서 설명하는 20대의 특성은 대체로 대학졸업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설명임.
-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됨.
- 자존감, 긍정미래관,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진로성숙도에서 졸업미취업자가 가장 취약하며, 공통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하게 낮은 수치로 하락함이 발견되므로 유럽연합의(EU)의 “Youth Guarantee Scheme” 과 같이 상태지속기간을 고려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 중 구직비활동자의 경우 진로성숙도 향상이 시급하며, 20대를 위한 진로지원 정책은 이들을 정책 목표(target)집단으로 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1)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특성에 관한 당사자 인식

20대 청년에 대한 언론의 특징지우기는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용어와 의미로 수렴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에

대한 특징지우기와 이해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FGI와 전문가 콜로키움 등을 통해 도출된 총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항목에 기술된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가를 10점 척도로 측정한 후, 세 집단(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개의 항목 중 ‘20대 청년의 취업난에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이 크다’에 동의정도(7.43점)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20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목이 가장 낮은 동의점수(3.97점)를 얻었다. 이는 20대 청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이 개인의 능력부족보다는 우리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9 ‘20대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당사자 인식: 세 집단 비교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GLM-test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1) 사회가 경쟁사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경쟁사회 체제에 순응한다.	6.97 (1.9)	7.12 (1.9)	6.91 (1.8)	6.72 (2.1)	7.60***
2) ‘성취중독’ 과 ‘비교중독’ 상태이다.	6.69 (2.2)	6.77 (2.2)	6.70 (2.3)	6.52 (2.2)	2.09
3)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자 발적으로 포기한 ‘5포세대’ 이다.	6.11 (2.7)	5.77 (2.8)	6.66 (2.5)	6.25 (2.6)	19.75***
4) 낮은 고용안정성과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적응하며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달관세 대’ 이다.	5.77 (2.4)	5.54 (2.5)	6.12 (2.3)	5.88 (2.4)	10.40***
5)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6.88 (2.3)	6.68 (2.3)	7.14 (2.1)	7.01 (2.2)	8.14***
6)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9종 세트’ 와 같이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6.81 (2.3)	6.81 (2.4)	7.10 (2.2)	6.53 (2.4)	7.48***
7)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높은 연봉 보다는 일과 다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있는 일자리이다.	6.76 (2.3)	6.61 (2.3)	7.08 (2.2)	6.75 (2.3)	7.16***
8) 길어지는 취업준비기간을 감수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6.51 (2.4)	6.55 (2.3)	6.94 (2.3)	5.99 (2.6)	20.01***
9) 20대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3.97 (2.4)	4.14 (2.5)	3.97 (2.4)	3.64 (2.3)	7.24***
10) 20대 청년들의 취업난에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 이 크다.	7.43 (2.1)	7.41 (2.1)	7.60 (2.1)	7.28 (2.3)	2.78

*** p<.001, ** p<.01, * p<.05

각 항목별로 대학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취중독과 비교중독 상태이다’와 ‘20대 청년의 취업난에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이 크다’의 항목을 제외한 8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들 두 항목에 대해서는 20대 청년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동의수준이 대체로 높거나 낮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항목들을 살펴보면, 재학생 집단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사회가 경쟁사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경쟁사회 체계에 순응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데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동의점수(7.12점)를 보였으며, ‘성취중독과 비교중독 상태이다’ 항목에 동의점수(6.77점)도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대학 재학생에게도 20대 청년들이 성취중독이라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는데,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성취중독 또는 비교중독의 성향은 20대 초반의 낮은 연령대에서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성취중독이죠. 딱 나와야지 안심 되고 뭔가 한 것 같고.”(대학재학생 A1)

졸업미취업자 집단에서는 언론에서 칭하거나 설명하는 ‘5포세대’, ‘달관세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취업 9중세트’의 항목에 세 집단 중 동의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더하여 ‘좋은 일자리란 높은 연봉보다는 일과 다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일자리이다’와 ‘길어지는 취업준비기간을 감수하더라도 첫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는 항목의 동의점수가 세 집단 중 가장 높다. 이는 언론을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의 세대 또는 특성으로 설명되는 현상들이 20대 대학졸업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특성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졸업미취업자는 언론에서 특징지우는 용어와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감해요. 저희 의지가 아니죠. 어찌다 보니까. 저는 딱 보고 공감이 갔어요. 보고서 웬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말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졸업미취업자 E2)

졸업취업자 집단에서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동의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동의점수(7.01점)가 졸업미취업집단과 같이 높았다. 이는 현재 취업자라 할지라도 대학 졸업 후 미취업상태에 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자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20대 청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졸업취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졸업 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20대 시절 내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감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준비까지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요즘 5포세대라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받을 수도 없고 3포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고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까지 돈이랑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졸업취업자 C6)

“저 대학 입학할 때는 관계단절이나 혼자 따로 노는 게 없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본인이 의지적으로 단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점차 생기는 것 같은데 후배들을 보면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로 가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단절은 사회가 한다기보다 그거는 본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결정하는. 그래서 관계단절이 요즘은 특히나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졸업취업자 D2)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다들 취업이라기보다 시험을 통과해서 교사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빠지느냐? 이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 저희는 만나도 취업 얘기라든가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술 마시면서 놀거나, 그러니까 관계가 딱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 거예요. 완전 단절은 아니고 ... 내면적으로는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도 경쟁이란 말이에요. ... 같이 시험을 봐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항상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믿고 어디까지 함께 하고 그게 항상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고.”(졸업취업자 D1)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단절에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9종 세트 같은 스펙이 많을수록 좋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동의점수(6.53점)를 보였다. 이는 졸업미취업자와는 달리, 취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스펙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대 청년의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은 20대 집단 내에서도 재학여부 및 취업여부에 따른 자신의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인식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각 집단을 조금 더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학생 집단은 교육과정 중에 있는 1학년~4학년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유예생으로 나누고, 졸업미취업자 집단은 구직활동자와 비활동자, 졸업취업자집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여섯 개 집단의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IV-10 '20대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당사자 인식: 여섯 집단 비교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GLM -test
		재학생	졸업 유예생	구직 활동자	구직 비활동자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사례수(비율)	2,000 (100.0)	896 (89.6)	104 (10.4)	250 (50.0)	250 (50.0)	250 (50.0)	250 (50.0)	
1) 사회가 경쟁사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경쟁사회 체제에 순응한다.	6.97 (1.9)	7.15 (1.9)	6.91 (2.0)	7.04 (1.7)	6.78 (1.9)	6.95 (1.9)	6.49 (2.2)	5.22***
2) '성취중독' 과 '비교중독' 상태이다.	6.69 (2.2)	6.75 (2.2)	6.98 (2.1)	6.78 (2.3)	6.62 (2.3)	6.63 (2.2)	6.42 (2.2)	1.38
3)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5포세대' 이다.	6.11 (2.7)	5.70 (2.7)	6.38 (2.7)	6.70 (2.6)	6.62 (2.5)	6.21 (2.7)	6.28 (2.6)	9.16***
4) 낮은 고용안정성과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적응하며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달관세대' 이다.	5.77 (2.4)	5.51 (2.5)	5.80 (2.4)	6.08 (2.3)	6.17 (2.3)	5.75 (2.4)	6.02 (2.3)	4.75***
5)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6.88 (2.3)	6.59 (2.4)	7.46 (1.9)	7.16 (2.1)	7.12 (2.1)	7.01 (2.2)	7.00 (2.2)	6.09***
6)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9종 세트' 와 같이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6.81 (2.3)	6.74 (2.4)	7.37 (2.2)	7.22 (2.2)	6.99 (2.2)	6.43 (2.5)	6.64 (2.3)	4.77***
7)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높은 연봉보다는 일과 다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있는 일자리이다.	6.76 (2.3)	6.54 (2.4)	7.21 (2.2)	7.25 (2.1)	6.92 (2.2)	6.52 (2.4)	6.97 (2.2)	6.02***
8) 길어지는 취업준비기간을 감수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여야 한다.	6.51 (2.4)	6.44 (2.3)	7.53 (2.0)	7.17 (2.2)	6.71 (2.4)	6.39 (2.6)	5.60 (2.6)	15.80***
9) 20대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3.97 (2.4)	4.12 (2.5)	4.29 (2.4)	3.92 (2.4)	4.02 (2.5)	3.58 (2.3)	3.70 (2.2)	3.09**
10) 20대 청년들의 취업난에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 이 크다.	7.43 (2.1)	7.39 (2.1)	7.62 (1.9)	7.72 (1.9)	7.48 (2.2)	7.28 (2.3)	7.28 (2.3)	1.61

*** p<.001, ** p<.01, * p<.05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세 집단의 집단 간 차이 결과에 비해 여섯 개 집단의 차이분석에서 20대 청년들의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졸업유예생과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 미취업자가 20대 특성으로 언론에서 특징지우는 내용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는데, 이는 단지 졸업여부만이 차이가 있을 뿐, 졸업유예상태의 20대와 졸업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20대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취업지원 정책대상자로 졸업유예생과 미취업 구직활동자를 묶어 접근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취업지원 사업들의 대상자 또는 정책 목표 집단을 재학여부나 구직활동여부 각각을 단일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 정책대상자 설정 기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심리·정서적 특성

①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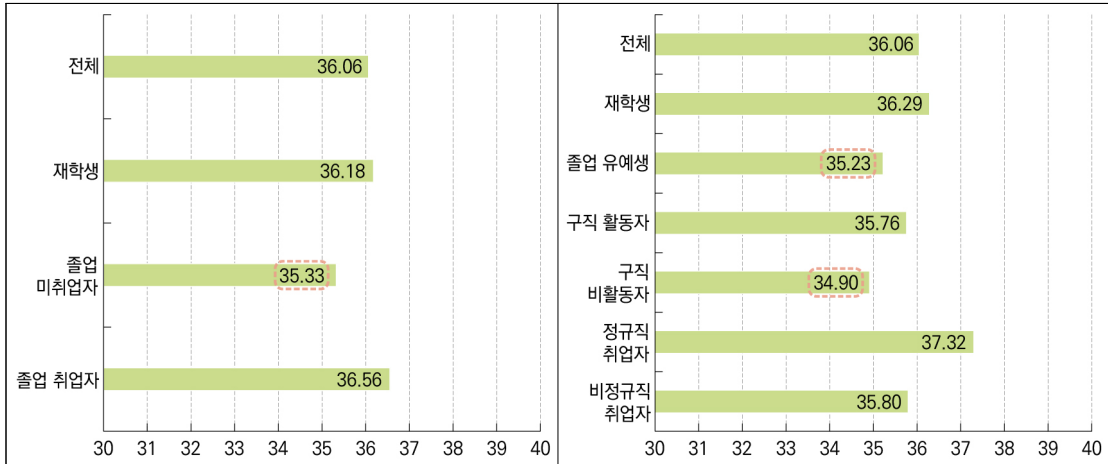
극심한 경쟁이 대학입학과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작은 성공의 경험보다는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특성으로 ‘자존감’을 11개 항목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항목의 총점을 산출하여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주24)}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졸업미취업 상태에 있는 20대 청년들이 재학생이나 졸업취업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자존감 점수(35.33점)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36.06점)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졸업미취업자 중에서도 구직 비활동자(34.90점)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는 졸업유예생(35.2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주25)}

주24) 자존감 측정 11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49$, 부정적으로 기술된 내용 역산하여 총점 산출.

(①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②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③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④나는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⑤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⑥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⑦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⑧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⑨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⑩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⑪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주25)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GLM-test의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세 집단($F=4.43^*$) 및 여섯 집단($F=3.92^*$)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p<.05$).



【그림 IV-5】 현재 상태에 따른 자존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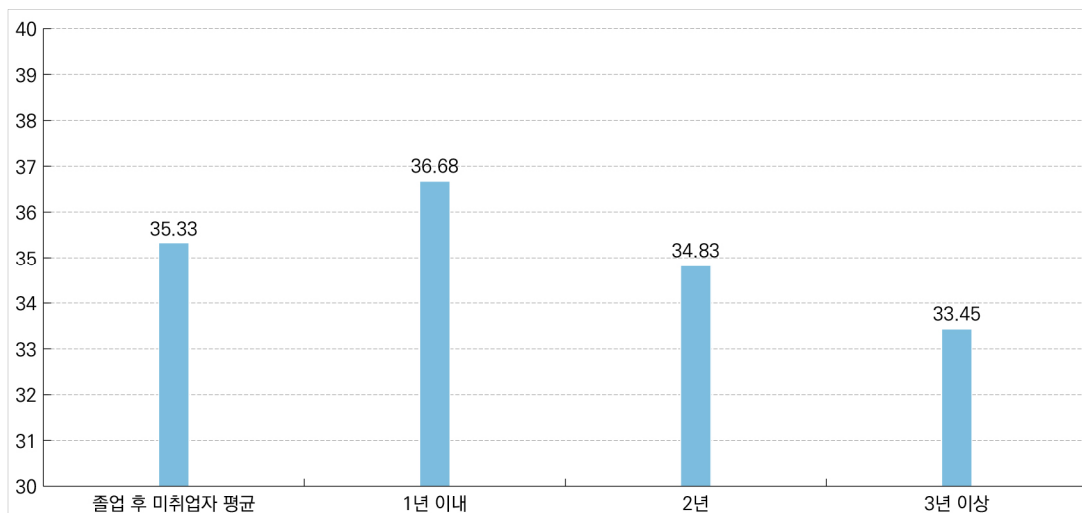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전문직 시험이나 취업을 위해 장기간 시험 준비를 하는 구직 비활동 청년들의 반복된 실패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의 연속에서 상처를 갖는다는 사례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

“제 주변에 전문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의학전문대 학원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험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 시간을 준비를 해요.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시험 풀었는데 이 점수가 좋아서 ‘와, 신난다’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쳤는데 점수가 폭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중략)...사실 그런 상태에 처해있는 학생이나 제 친구들은 돈을 집어서 받아서 학원비 같은 것도 집에서 하고 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종로4가 그쪽에 학원이 많아요.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대학로 같은 데 있으면 돈이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것도 매달 고지서 받으면 스트레스, 학원가서 시험 풀면 스트레스, 연애하다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졸업취업자 D3)

“...1년에 딱 한번 시험을 보는 거니까 못 버티면 또 백수 1년, 백수 1년 이러니까 오히려 다른 취업한, 어디든 취업한 애들을 부러워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 돈 버는 애들도 있고, 저도 그랬었지요. 또 막상 취업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공부나 할까? 그쪽이 다시 부러워지기도 하고. 항상 갈팡질팡 하면서 타인들이랑 비교를 항상 하게 되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졸업취업자 D3)

자존감 점수가 졸업미취업자 집단과 졸업을 연기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졸업유예생들이 낮다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자존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미취업자들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존감 점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존감의 점수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 후 1년 이내 상태에 있는 이들의 자존감의 점수는 전체 평균(36.06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36.68점)를 보이지만, 2년이 경과한 이들은 34.83점으로 낮고, 3년 이상이 경과한 졸업미취업자들의 자존감 총점은 33.45점으로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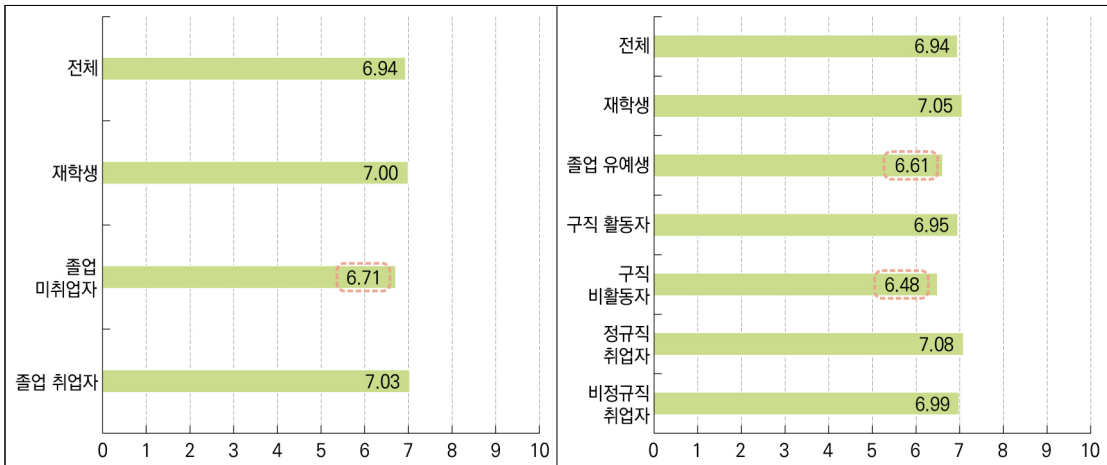
【그림 IV-6】 졸업미취업자의 졸업 후 경과 기간 따른 자존감의 비교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업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Youth Guarantee”정책의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30세 미만 졸업자 및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한 타당성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② 긍정미래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하는 실패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20대 청년들을 좌절로 빠뜨리는 것은 지금은 비록 어려울 지라도 앞으로의 삶의 지금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나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청년들의 심리·정서적인 특성으로서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긍정미래관의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로 측정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세 집단 및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주26)}



【그림 IV-7】 현재 상태에 따른 긍정미래관의 비교

분석 결과, 긍정미래관의 전체 평균점수는 9점 만점 중 6.94점으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비교해 보면, 졸업취업자(7.03점) - 재학생(7.00점) - 졸업미취업자(6.71점) 순으로 높고, 이를 여섯 집단 간 비교해 보면, 정규직 취업자(7.08점) - 1학년~4학년 재학생(7.05점) - 비정규직 취업자(6.99점) - 구직활동 미취업자(6.95점) - 졸업유예생(6.61점) - 구직비활동 미취업자(6.48점)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주27)}

주26) 긍정미래관 측정 9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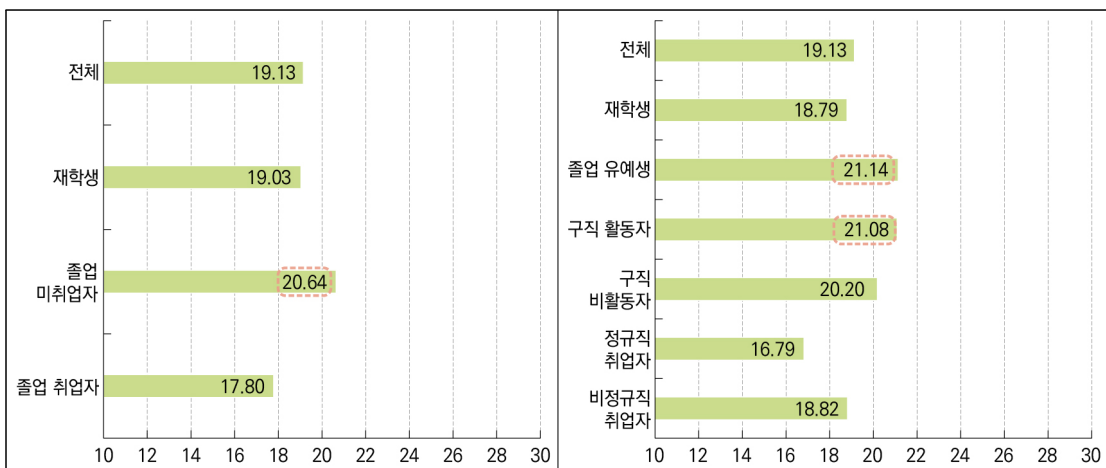
(①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②일이 잘 안될 때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③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④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⑤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⑥내게 있어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⑦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⑧내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⑨내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27)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GLM-test의 결과는 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으나, 세 집단($F=2.74$) 간 긍정미래관 총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여섯 집단($F=2.61^*$)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p<.05$).

앞서 비교·분석한 자존감의 경우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졸업미취업자와 졸업유예생이 긍정미래관의 점수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들이 20대 청년들 중에서 심리·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청년들의 심리·정서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 집단은 구직 비활동자와 졸업유예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자존감이나 긍정미래관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20대 청년들이 드러났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를 경험하는 것도 이들 취약집단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 및 문헌고찰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를 6개 항목으로 도출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세 집단 및 여섯 집단 간 비교·분석하였다.^{주28)}



【그림 IV-8】 현재 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비교

주28) 일상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측정 6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781$

①혼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여 학업이나 취업준비, 또는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어렵다. ②하루하루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압박감이 크다. ③경제적 부담으로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을 줄인다. ④취업에 성공한 친구 또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점 꺼려진다. ⑤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이 있다. ⑥부모의 기대가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총점 30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 점수(19.13점)가 20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대 전반이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세 집단 및 여섯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졸업미취업자 집단이 세 집단 중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이 보다 더 높은 집단은 졸업유예생과 구직활동자 집단으로 드러났다.

표 IV-11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여섯 집단 비교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GLM -test
		재학생	졸업 유예생	구직 활동자	구직 비활동자	정규직 취업	비정규직 취업	
사례수(비율)	2,000 (100.0)	896 (89.6)	104 (10.4)	250 (50.0)	250 (50.0)	250 (50.0)	250 (50.0)	
1) 혼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며 학업 이나 취업준비, 또는 일을 하며 지 내는 것이 어렵다.	3.17 (1.0)	3.20 (0.9)	3.51 (0.9)	3.30 (0.9)	3.14 (1.0)	2.88 (1.0)	3.16 (1.0)	8.46***
2) 하루하루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 압박 감이 크다.	3.27 (1.0)	3.19 (1.0)	3.62 (1.0)	3.51 (0.9)	3.44 (1.0)	3.04 (1.1)	3.22 (1.0)	10.40***
3) 경제적 부담으로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을 줄인다.	3.34 (1.1)	3.26 (1.1)	3.61 (1.1)	3.72 (0.9)	3.57 (1.1)	2.92 (1.1)	3.32 (1.0)	18.53***
4) 취업에 성공한 친구 또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한 친구를 만나는 것 이 점점 꺼려진다.	2.86 (1.1)	2.71 (1.0)	3.20 (1.1)	3.31 (1.1)	3.07 (1.1)	2.56 (1.0)	2.94 (1.1)	21.42***
5)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이 있다.	3.32 (1.1)	3.28 (1.1)	3.72 (1.0)	3.76 (0.9)	3.57 (1.1)	2.77 (1.2)	3.14 (1.1)	28.42***
6) 부모의 기대가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3.16 (1.1)	3.15 (1.1)	3.49 (1.0)	3.48 (0.9)	3.42 (1.0)	2.62 (1.2)	3.04 (1.1)	23.25***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 총점	19.13 (4.4)	18.79 (4.1)	21.14 (4.3)	21.08 (3.9)	20.20 (4.4)	16.79 (4.5)	18.82 (4.3)	35.41***
		19.03 (4.2)		20.64 (4.1)		17.80 (4.5)		5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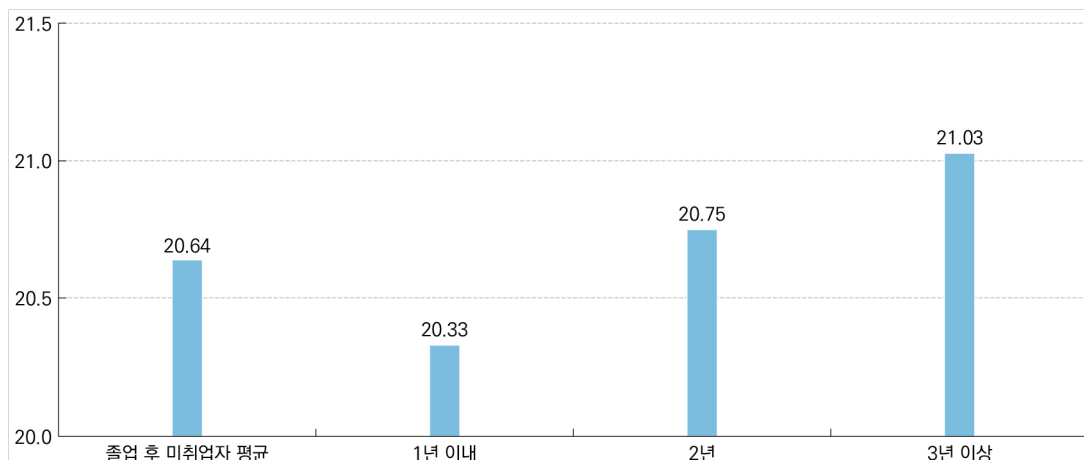
Cronbach $\alpha = 0.781$

*** p<.001, ** p<.01, * p<.05

항목별 응답 내용을 비교해보면, 졸업유예생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와 졸업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의 상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1>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졸업유예생들은 ‘혼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과 ‘시간압박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으며, 구직활동자의 경우 ‘인간관계의 단절’의 상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부채감’이나 ‘부모기대로 인한 압박감’은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 집단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른 20대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는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 [그림Ⅳ-9]와 같이, 졸업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일상에서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의 총점을 비교해 본 결과, 1년 이내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년이 경과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여 평균을 상회하고, 3년이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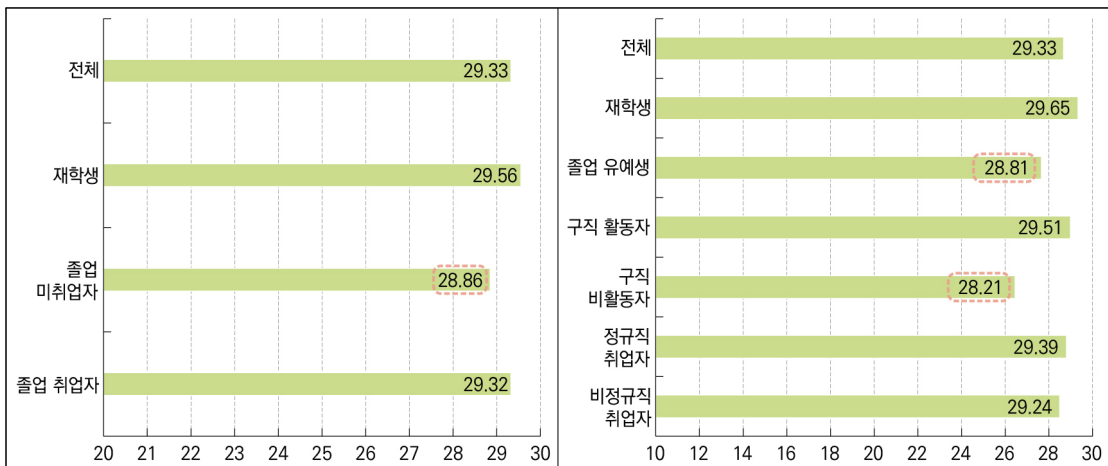
【그림 Ⅳ-9】 졸업미취업자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일상생활의 부정적 감정과 상태의 비교

④ 진로성숙도

자존감과 긍정미래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감정과 상태에 이어 20대 청년들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진로선택의 행위와 관련 있는 진로성숙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진로성숙도의 문제는 10대 청소년의 진로발달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취업의 문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만큼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극심한 취업경쟁에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측면을 도울 것인가를 파악해 내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총 8개 항목을 각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총점을 산출하여 세 집단과 여섯 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29) 분석 결과, 총점 40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평균 29.33점으로 20대 청년층 전반적으로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세 집단 비교·분석에서는 졸업미취업자 집단이 가장 낮은 진로성숙도(28.86점)를 보였고, 여섯 집단의 비교에서는 구직비활동자(28.21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은 졸업유예생(28.81점)이 가장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험이나 취업요건에 필요한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구직비활동자와 졸업유예생 집단에게는 취업기회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진로설계를 도울 수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의 정책은 구직비활동자와 졸업유예생을 목표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진로성숙도가 향상될 때, 증가하는 구직비활동자와 졸업유예생의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표면적 취업준비로 노동시장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진로탐색-진로성숙도향상-진로설계-취업지원’의 과정이 요구되며, 기존 관련 서비스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0】 현재 상태에 따른 진로성숙도 총점의 비교

주29) 진로성숙도 측정 8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34$

(①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②내 성격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③내가 관심이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다. ④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⑤내 진로(직업)을 스스로 결정한다. ⑥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⑦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싶다. ⑧희망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2) ‘대학’의 의미와 대학생활 경험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20대 청년들은 ‘대학’을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음.
- 20대 청년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은 ‘학벌사회’ 및 ‘취업공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학 1~2학년생들의 ‘반수’, ‘편입’, ‘대학중퇴’를 시도하게 하고, ‘휴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대 시키고 있음.
-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성(상경)계열로 집중되고 있는 복수전공의 선택 현상에는 서울지역 인문계열 및 교육계열의 여학생들이 쏠려 있음이 확인됨.
- 서울지역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졸업미취업자 집단에서 졸업유예 경험률이 높고, 졸업유예기간 또한 길어지며, 재학 중 복수전공, 휴학, 인턴, 교외학습활동의 경험이 졸업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드러남.
-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학금수혜총액이 많을수록 생활비대출 총액이 많으므로, 기존의 장학금지원이 수혜대상의 확대였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전액 장학금으로의 선별적 장학금의 증액이 필요함.
- 재학 중 아르바이트는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지만, 학업에 높은 수준으로 방해가 되는 장시간 근로는 등록금 충당이나 대출상환을 위해 많은 소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서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의 확대가 필요함.

(1) ‘대학’이 갖는 의미

대학진학률이 다소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고교졸업자 10명 중 7명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과정의 진학을 선택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정도면 대학진학이 보편적인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절대 다수가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현재 재학 중에 있는 20대 청년 개개인에게는 ‘대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GI)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대학의 의미’의 항목 7가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재학생의 동의수준이 졸업생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졸업미취업자 보다는 졸업취업자의 동의수준이 높다. ‘대학의 의미’를 측정한 7가지 항목 중 조사대상 전체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3.83점)인데, 이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20대 전체가 동의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집단의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2 ‘대학’ 이 갖는 의미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 점)

항목 사례수(비율)	전체 2,000(100.0)	재학생 1,000(100.0)	졸업 미취업자 500(100.0)	졸업 취업자 500(100.0)	GLM-test
1) 관심있던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3.22 (0.9)	3.30 (0.9)	3.14 (0.9)	3.12 (0.9)	8.86***
2)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3.83 (0.9)	3.87 (0.9)	3.78 (0.9)	3.81 (0.9)	1.77
3)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3.67 (0.9)	3.77 (0.9)	3.57 (0.9)	3.55 (0.9)	14.63***
4) 인간관계 맺기의 어려움과 맺어진 인간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는 곳이다.	3.22 (0.9)	3.31 (1.0)	3.11 (1.0)	3.14 (0.9)	9.34***
5) 사회진출을 유예 받는 곳이며 준비하는 곳이다.	3.61 (0.8)	3.72 (0.7)	3.49 (0.8)	3.53 (0.8)	19.09***
6) 더 알고 싶거나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한다고 느낄 수 있는 ‘배움’ 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3.29 (0.9)	3.41 (0.9)	3.17 (0.9)	3.19 (0.9)	15.84***
7) 사회생활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 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2.88 (1.0)	3.02 (1.0)	2.73 (1.0)	2.74 (0.9)	21.70***

*** p<.001, ** p<.01, * p<.05

가장 낮은 항목은 ‘사회생활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2.88 점)로, 이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가 5점 척도의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교육이 일명 ‘취업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사관학교’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정도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비롯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20대 청년들은 사회생활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 대학들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는 대학이

취업지원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청취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와 같은 지원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싸트(SSAT: 삼성직무적성검사) 가르쳐줬어요. 직무 역량 그런 제목의 수강 과목이었는데 안 보고 그 과목 특성이 그거였어요. 만약에 18학점을 들 수 있으면 그거에 구매 받지 않고 추가로 더 들 수 있는 학점이었어요…3학년 2학기니까 도움이 되겠다, 취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싸트를.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대학 재학생 A5)

“그 과목에 어떤 마케팅 발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매주 발표하고 시험, 교수님이 다 초청강사를 불러서 실무적인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위주로 강의를 하시고 교수님이 수업을 거의 안 들어오시고 …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업에서 상위 5명은 (입사필기시험이)면제된다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좀 이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이 학원화 거의 되어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3)

“저희는 토익 700점인가 넘으면 그거로 3학점 처리해주고…진로설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공필수로 넣어버려서 취업한 선배들 와서 강의를 해 주거나 교수님들이 와서 이런 거 강의를 해 주기도 하고.”(대학재학생 B3)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학점을 할애하면서까지 각 대학에서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배움’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재학생에게도 졸업생에게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학에서 취업지원과 청년들이 체감하는 도움정도의 격차(gap)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간극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대학은 취업지원으로 인한 피로감은 높아질 것이고,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원만을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이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20대 청년들은 전공지식 그 자체 내용의 배움보다는 배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공에 대한 엄청난 거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대학에서 많은 다른

분야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거를... 많은 거를 배워서...저는 가볼만한 것 같아요...저도 경험이에요...사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식보다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진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대학재학생 A5)

“엄청난 경험의 장이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해서 저는 대학이 취업양성소 이런 거에 동감하지 않아요. 대외활동이나 학교 내에서도 너무 재미있게 활동을 많이 해서 아직도 돌아가고 싶을 만큼 재입학을 하고 싶을 만큼 대학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해가지고”(졸업취업자 D2)

“저도 경험이에요. 이런 것들을 겪었다 하기보다는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현명하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실패하고 다시 겪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배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6)

“개인적으로는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와서 학교 프로그램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 했거든요. 제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혼자라면 해 보지 못했을 텐데 대학에서 장을 깔아주고 거기에 제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경험이 되게 많아서 대학 아니었으면 아마 그렇게 많이 못해 봤을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어요.”(졸업취업자 C6)

다음으로는 ‘사회진출을 유예 받는 곳이며 준비하는 곳’이라는 항목이 세 번째로 높은 동의 수준을 얻었는데,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 청취한 20대 청년들의 의견 속에는 대학을 사회진출을 위해 거쳐 가는 곳, 취업의 압박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도 좋은 기간, 또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로 존재하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도 하였다.

“대학교 다 가야된다고 그래가지고 갔고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유예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대학원에 진학을 하던 어디를 가든 다 나중에 괜찮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대학재학생 A4)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한 학기를 다니고 자퇴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즈음은 대학생들이든 졸업장이 있든 없든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졸업장까지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저한테 대학은 수단이기도 한데 일단 대학생들이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사회에 나가기에는 뭘 배울 수도 없고 경험을 따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B5)

“저는 취업이라는 생각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기는 했는데 휴학하고 배낭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게 허락될 수 있는, 어쨌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졸업취업자 C4)

(2) 학업생활

① 대학생활만족도

앞서 살펴본 ‘대학의 의미’에 이어 현재 생활하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하였던 대학생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총 15가지 항목(물리적 환경 만족도(항목 1~4), 학업지원 만족도(항목 5~8), 활동 및 생활지원 만족도(항목 9~12), 관계만족도(13~14), 학교운영참여 만족도(항목 15))로 구성된 ‘대학생활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세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15개 항목 중 ‘학생 간의 유대관계’의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3.33점)를 보였으며, 물리적 환경부분의 ‘학습 공간’과 ‘학습자료 및 인터넷 사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지원부분의 ‘학교의 장학금 지원’, 활동 및 생활지원 부분의 4개 항목에서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들의 세 집단 간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현재 대학 재학생의 만족도 점수가 졸업생들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 내 물리적 학습공간이나 학습을 위한 인터넷 사용 환경, 확대된 장학제도 등이 졸업생들이 대학에 재학했을 때보다 개선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내/외 활동의 기회나 해외경험의 지원, 취업상담, 학생상담 등의 활동 및 생활지원의 만족도 점수도 현재 재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최근 글로벌 체험활동 및 인턴 등 정부의 지원 등으로 기회가 확대되었고, 대학평가 등의 영향으로 각 대학이 취업상담 및 학생상담 등의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재학 및 졸업한 대학생들의 만족도 수준

(단위: 명, %, 점)

항목 사례수(비율)	전체 2,000(100.0)	재학생 1,000(100.0)	졸업 미취업자 500(100.0)	졸업 취업자 500(100.0)	GLM-test
1) 강의시설 및 실습시설에 만족한다.	3.20 (0.9)	3.24 (0.9)	3.18 (0.9)	3.13 (0.9)	2.67
2) 개인 또는 그룹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3.06 (1.0)	3.17 (1.0)	2.94 (1.0)	2.98 (1.0)	10.65***
3) 학습 자료와 인터넷 사용 환경에 만족한다.	3.41 (1.0)	3.46 (0.9)	3.40 (0.9)	3.31 (1.0)	4.19*
4) 학생 식당, 휴식 공간, 문화 공간 등 학생복지와 관련한 시설에 만족한다.	3.00 (1.0)	3.00 (1.0)	3.01 (1.0)	3.00 (1.0)	0.01
5) 학교의 장학금 지원에 만족한다.	2.89 (1.2)	2.95 (1.2)	2.88 (1.1)	2.78 (1.1)	3.84*
6) 교육과정의 다양한 구성과 교과목의 자율적 선택 폭에 만족한다.	2.70 (1.0)	2.66 (1.0)	2.71 (1.0)	2.77 (1.0)	2.22
7) 강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한다.	3.13 (0.9)	3.17 (0.9)	3.07 (0.9)	3.10 (0.9)	2.38
8) 내 전공에 만족한다.	3.31 (1.1)	3.37 (1.1)	3.24 (1.1)	3.26 (1.1)	2.87
9) 학교 내/외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가 충분하다.	3.05 (0.9)	3.11 (0.9)	2.98 (0.9)	3.01 (0.9)	4.11*
10) 교환학생, 해외연수 등 해외경험의 기회와 자원이 충분하다.	3.01 (1.0)	3.15 (1.0)	2.92 (1.0)	2.83 (1.0)	20.50***
11) 취업/진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2.98 (1.0)	3.13 (1.0)	2.87 (1.0)	2.80 (1.0)	24.48***
12)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2.78 (1.0)	2.89 (1.0)	2.73 (1.0)	2.62 (1.0)	13.14***
13)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 및 관계가 만족스럽다.	2.95 (1.0)	3.01 (1.0)	2.87 (1.0)	2.91 (1.0)	3.33*
14) 학생간의 유대 및 관계가 만족스럽다.	3.33 (0.9)	3.36 (0.9)	3.26 (1.0)	3.31 (0.9)	2.11
15) 도서관이용시간 변경과 같은 교내시설의 운영, 학점인정이나 재수강 등 학사규정 변경과 정에서의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진다.	2.94 (1.0)	2.94 (1.0)	2.95 (1.0)	2.95 (1.0)	0.03

*** p<.001, ** p<.01, * p<.05

② 반수경험

대학에 입학한 후 다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활을 20대 청년들과 언론에서는 ‘반수’라고

칭한다. 입학한 대학에 한 쪽 발을 걸쳐놓고 재수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로 교육부가 안민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3개 대학의 2014년 1학기 휴학 및 자퇴생 초 29만 4855만명 중 신입생이 17.2%에 해당하는 5만 779명에 달한다(중앙일보, 2015.09.19.일자).

그렇다면 반수를 시도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며, 이들 중 몇 명이나 성공하는 것인가? 또한 ‘반수’의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표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 청년 전체를 대학으로 반수 경험률과 성공률을 산출하고,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최근 경향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반수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전체의 10.9%이고, 이들 중 39.2%가 반수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자의 반수 경험률과 성공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반수의 현상이 최근에 갑자기 불거져 나온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IV-14 반수 경험률 및 성공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217 (10.9)	85 (39.2)	114 (11.4)	47 (42.1)	51 (10.2)	16 (31.4)	52 (10.4)	21 (40.4)
성별	남	12.0	35.8	12.8	37.5	10.8	33.3	10.5	34.5
	여	9.7	43.3	10.0	48.0	9.6	29.2	10.4	47.8
연령	19~24세	10.4	34.8	10.0	38.4	12.8	21.1	11.0	30.0
	25세 이상	11.4	44.1	19.7	53.6	9.1	37.5	10.3	42.9
대학설립 주체	국공립대	11.7	29.4	12.0	29.2	11.7	18.8	11.6	45.5
	사립대	10.6	42.2	11.3	45.6	9.6	37.1	7.0	39.0
대학전공 계열	인문계열	11.6	44.7	11.2	57.1	12.4	23.1	5.1	46.2
	사회계열	10.7	38.5	12.8	38.9	10.7	38.9	12.4	36.4
	교육계열	6.7	80.0	6.7	100.0	3.3	0.0	6.9	100.0
	공학계열	9.8	37.7	10.3	38.9	6.3	25.0	10.4	41.2
	자연계열	13.5	30.8	12.6	31.6	15.5	36.4	0.0	22.2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1.2	50.0	13.4	56.3	10.3	25.0	10.3	50.0
	중위소득 ±50% 이내	11.5	41.2	11.5	44.2	10.4	34.3	10.4	41.5
	중위소득 -50% 이하	9.0	26.2	9.9	23.8	9.5	25.0	9.5	33.3

반수 경험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성의 시도비율이 높지만, 성공률은 여성이 다소 높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5세 이상에서의 경험률과 성공률이 다소 높으며,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 재학생들의 경험률이 높지만, 성공률은 사립대가 높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인문계열-사회계열순으로 경험률이 높고, 성공률은 표본수가 작기는 하나 교육계열이 가장 높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경험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성공률에 있어서는 중위소득+50%이상의 경우가 그 이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수’를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수를 시도하는 66.4%가 ‘더 좋은 평판의 학교로 옮기기’위한 목적과 사유를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졸업생보다는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72.8%)로 나타났다. 이는 학벌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반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최근세대로 올수록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취업에 상관없이 원했던 전공공부를 위해’ 반수를 시도하는 비율이 졸업취업자의 경우 21.2%에 반해, 졸업미취업자(13.7%)이나 재학생(12.3%)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반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적성과 무관하게 대학에 입학하여 원하는 전공으로 바꾸기 위한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반수가 20대 후반에서 이루어졌다면, 20대 초반에서는 조금 더 나은 학벌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수의 사유가 20대 집단 내에서도 이미 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15 반수의 주요 사유

(단위: 명, %)

사유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사례수(비율)	217(100.0)	114(100.0)	51(100.0)	52(100.0)
1) 더 좋은 평판의 학교로 옮기기 위해	66.4	72.8	64.7	53.8
2)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12.0	10.5	9.8	17.3
4) 취업과 상관없이 원했던 전공공부를 위해	14.7	12.3	13.7	21.2
5) 통학하기 편한 학교로 옮기기 위해	1.8	1.8	2.0	1.9
6)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2.3	1.8	2.0	3.8
7) 기타	2.8	0.9	7.8	1.9

한편,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반수를 시도하는 비율(12.0%)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서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으로 옮기기 위한 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취업을 위한 ‘반수’를 택할 만큼 20대들에게 ‘취업공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대니까 상경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려고 반수 하는 애들이 많고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3)

“의대 가려고 많이 하더라고요...”(대학재학생 A6)

“경영학으로 많이, 아무래도 제가 어학전공이니까 경영 같은 거 하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많이 하고 싶어 해서 경쟁이 너무 세서 막아요. 그래서 경영학부 내에서도 경영은 안 되고 경제는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서 잘리면 사회대 쪽으로 가고요.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는)없는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B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착된 학벌사회와 어려운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반수가 보편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성공률은 10명 중 4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반수를 시도하고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수의 경험여부와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스티드 로짓 모델(Nest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주30)}

분석 결과, 반수의 경험여부에는 공학계열 전공(+)^만이, 그리고 시도한 반수에서 성공여부에는 연령(-)과 교육계열 전공(+), 서울지역소재의 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30) 종속변수가 다항의 선택 변수일 때, 다항로짓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이 적용될 수 있다. 다항로짓모델은 오차항이 독립적이며, 동일한 Weibull분포(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를 가정한다. 오차항에 대한 이와 같은 가정은 다항로짓모델이 비관련대안의 독립성(Independent and Irrelevant Alternative: IIA), 즉 두 선택대안의 확률비율이 다른 어떤 대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두 대안 간의 속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속성은 많은 경우 위배된다. 다항로짓모델에서 비관련대안의 독립성 속성이 위배될 경우, 다항로짓모델을 통한 추정 모수의 값은 편향(biased)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모델로 네스티드 로짓모델(Nested Logit Model)이 활용되고 있음. 이 모델은 오차항이 상관되어 있는 대안들을 묶음으로써 오차항의 공유효과(share unobservable effects)를 상쇄시킴(김준가·김호정, 2008; 이성우·민성화·박지영·윤성도, 2005; STATA12 전자매뉴얼;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p.107; 김지경·이광호, 2013, p.186).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공학계열전공자가 다른 계열전공자에 비해 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계열전공자가 다른 계열전공자에 비해,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이 반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반수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 공학계열전공자의 의학계열로의 재입학선택 또는 안정적 일자리로 연계되는 교육계열로의 재입학을 선택 하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반수를 시도하고,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16 반수 경험 및 반수 성공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Model

변수		1단계: 반수경험 유무	2단계: 반수성공 여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6 (0.15)	-0.28 (0.16)
	연령	-0.16 (0.19)	-0.88 (0.37)*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4 (0.03)	-0.23 (0.22)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5 (0.17)	-0.06 (0.19)
	전공(인문계열)	0.16 (0.23)	0.31 (0.24)
	전공(사회계열)	0.28 (0.21)	0.16 (0.23)
	전공(교육계열)	0.73 (0.49)	1.50 (0.61)*
	전공(공학계열)	0.45 (0.22)*	0.21 (0.24)
	대학 소재지(서울)	-0.21 (0.15)	0.55 (0.16)***
현재 상태	재학생	-0.17 (0.22)	0.27 (0.21)
	졸업 미취업자	0.03 (0.21)	-0.16 (0.22)
상수		3.19 (0.67)***	1.28 (1.48)
N		2,000	217
-2Log Likelihood		1373.47	-
Log likelihood chi ²		15.00	-
Likelihood Ratio		-	242.54**

*** p<.001, ** p<.01, * p<.05

③ 편입경험

앞서 살펴본 ‘반수’와 같이, 입학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자하는 시도는 ‘편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12.8%가 편입을 시도하고, 이들 중 31.0%가 편입에 성공한다.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의 편입 경험률과 성공률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고, 연령에 따른 경험률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성공률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높다. 또 경험률에 있어서는 사립대학 학생들이 다소 높지만, 성공률에 있어서는 국·공립대학이

높다. 전공계열을 기준으로 보면, 자연계열-사회계열-공학계열-인문계열-교육계열 순으로 경험률이 높지만, 성공률에 있어서는 교육계열-사회계열-인문계열-자연계열-공학계열 순으로 높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아 중위소득 +50%이상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성공률은 소득수준에 따르지 않는다.

표 IV-17 편입 경험률 및 성공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경험률	성공률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255 (12.8)	79 (31.0)	132 (13.2)	32 (24.2)	68 (13.6)	25 (36.8)	55 (11.0)	22 (40.0)
성별	남	12.0	26.7	12.0	21.7	11.2	28.6	12.8	34.4
	여	13.5	34.8	14.4	26.4	16.0	42.5	9.2	47.8
연령	19~24세	12.8	22.7	12.8	22.7	16.1	25.0	7.4	14.3
	25세 이상	12.7	41.2	15.5	31.8	12.5	43.2	11.9	43.8
대학설 립주체	국공립대	11.9	42.3	12.5	36.0	12.4	47.1	10.0	50.0
	사립대	13.0	28.1	13.4	21.5	14.0	33.3	11.3	37.8
대학전 공계열	인문계열	11.4	34.8	9.0	23.5	17.1	33.3	9.8	54.5
	사회계열	14.0	36.5	16.7	34.0	11.3	52.6	12.0	26.3
	교육계열	5.3	50.0	6.7	0.0	0.0	26.3	13.3	100.0
	공학계열	12.3	24.7	12.6	15.9	15.1	0.0	9.4	50.0
	자연계열	14.9	25.6	14.6	22.7	16.9	33.3	13.6	22.2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9.8	23.1	18.5	13.6	17.9	28.6	25.6	40.0
	중위소득 ±50% 이내	12.1	35.4	11.8	29.1	14.3	41.7	10.3	41.2
	중위소득 -50% 이하	11.7	23.6	14.6	19.4	10.3	23.1	8.4	36.4

편입을 시도하는 주요한 사유를 살펴보면, ‘반수’를 하는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재학한 학교보다 더 좋은 평판의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서’의 사유로 편입을 시도하는 비율이 전체의 63.9%이고, 졸업자보다는 현재 재학생들에게서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서’의 사유가 14.9%로 높는데, 이 또한 졸업자보다는 재학생에서 비율이 높다. ‘취업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공부를 위해’(8.6%) 항목은 졸업자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18 편입의 주요 사유

(단위: 명, %)

사유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사례수(비율)	255(100.0)	132(100.0)	68(100.0)	55(100.0)
1)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8.2	3.8	11.8	14.5
2) 재학했던 대학보다 더 좋은 평판의 학교로 옮기기 위해	63.9	66.7	63.2	58.2
3)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14.9	16.7	11.8	14.5
4) 취업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공부를 위해	8.6	6.8	11.8	9.1
5) 통학하기 편한 학교로 옮기기 위해	2.4	4.5	0.0	0.0
6)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1.2	0.8	0.0	3.6
7) 기타	0.8	0.8	1.5	0.0

‘편입’의 주된 사유가 ‘반수’와 다르지 않다면, 앞서 분석한 반수의 시도와 성공의 영향요인이 편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반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던 동일한 모델로 편입의 시도 및 성공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수’의 시도와 성공의 영향요인과는 다른 요인들이 ‘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반수의 성공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령과 대학소재지는 편입의 성공에도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편입의 경험여부에는 교육계열 전공(+)만이, 그리고 편입의 성공여부에는 남성(-), 연령(-), 국·공립대학(+), 서울지역소재의 대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계열전공자들이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편입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을 의미하며, 국·공립대학의 재학생과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생들이 시도한 편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반수’와 ‘편입’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목적과 사유로 빚어지는 현상이기는 하나,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들이 현재 대학재학생 및 졸업자 이므로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서 반수와 편입의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반수나 편입 등의 통해 서울지역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기 때문이며,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이 편입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편입을 통해 국·공립대학으로

옳겨왔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IV-19 편입 경험 및 성공의 결정요인: Nested Logit Model

변수		1단계: 편입경험 유무 추정계수 (표준오차)	2단계: 편입성공 여부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7 (0.14)	-0.32 (0.15)*
	연령	-0.15 (0.18)	-0.79 (0.38)*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9 (0.08)	-0.21 (0.18)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4 (0.16)	0.45 (0.17)*
	전공(인문계열)	0.30 (0.22)	0.20 (0.24)
	전공(사회계열)	0.05 (0.20)	0.36 (0.22)
	전공(교육계열)	1.14 (0.54)*	0.76 (0.55)
	전공(공학계열)	0.16 (0.21)	0.07 (0.23)
	대학 소재지(서울)	0.27 (0.15)	0.40 (0.16)*
현재 상태	재학생	-0.31 (0.21)	-0.15 (0.22)
	졸업 미취업자	-0.29 (0.19)	-0.05 (0.20)
상수		2.57 (0.60)***	1.85 (1.35)
N		2,000	255
-2Log Likelihood		1526.42	-
Log likelihood χ^2		16.08	-
Likelihood Ratio		-	266.59*

*** p<.001, ** p<.01, * p<.05

④ 대학중퇴

앞서 살펴본 ‘반수’와 ‘편입’이 재학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에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자퇴하고 새롭게 대학 진학을 다시 준비하거나 다른 진로를 택하기 위한 선택 또한 대학생활에서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안민석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대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33.7%가 학업중단 상태에 있다(중앙일보, 2015.09.19. 일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자 및 재학상태이기는 하나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중퇴의 의사와 대학중퇴를 희망하는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에 재학 중인 청년들 중 12.9%가 현재 다니는 대학을 중퇴할 의사가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인, 19세~24세가 25세 이상보다, 국·공립대 재학생이 사립대학 재학생보다 대학중퇴의 의사를 갖는 비율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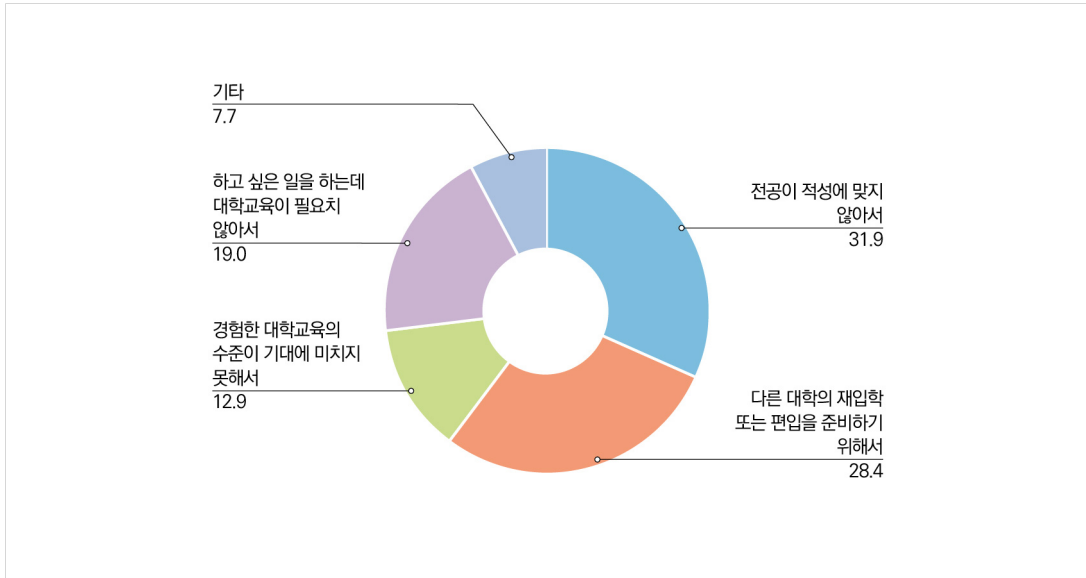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사회계열 순으로 높았고, 교육계열은 다른 계열의 1/3 수준으로 낮았다. 또한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중퇴의 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0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생의 대학중퇴의 의사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116(12.9)	780(87.1)
성별	남	14.9	85.1
	여	11.0	89.0
연령	19~24세	13.3	86.7
	25세 이상	9.5	90.5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15.5	84.5
	사립대	12.3	87.7
대학전공계열	인문계열	14.4	85.6
	사회계열	12.0	88.0
	교육계열	3.4	96.6
	공학계열	14.1	85.9
	자연계열	12.2	87.8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7.9	82.1
	중위소득 ±50% 이내	12.5	87.5
	중위소득 -50% 이하	11.5	88.5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대학을 중퇴하려는 것일까?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대학중퇴의 사유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31.9%)이고, 그 다음은 ‘다른 대학의 재입학 또는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28.4%)이다. 이들 사유로 대학을 중퇴하고자 하는 이들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지, 고등교육과정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대학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19.0%)나 ‘경험한 대학교육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12.9%)의 사유를 갖는 이들은 아예 고등교육과정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학중퇴의 의사를 갖는 재학생들의 30%를 초과한다.



【그림 IV-11】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생의 대학중퇴의 사유

이와 같은 대학중퇴의 사유에 기초한다면, 전공과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수준 등이 대학중퇴를 하고자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 1학년~4학년에 재학 중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중퇴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주31)}

분석 결과,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이 다른 지역소재 대학 학생들에 비해 대학중퇴를 할 가능성이 58% 낮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대학을 중퇴할 가능성은 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학년에 재학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학년은 3학년에 비해 5.26배, 2학년은 2.71배 대학중퇴의 가능성이 높고, 4학년은 3학년에 비해 36%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31)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확률모형로,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인 경우에 사용되며, 이항변수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 Event)이고, 확률적 선택 하에 놓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이성우·민성화·박지영·윤성도, 2005, p.59). 로지스틱회귀분 모델 분석결과에서 제시되는 회귀계수는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뿐임. 로지스틱회귀모델의 Odds Ratio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ratio를 의미하며, 설명변수의 1단위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의 odds가 변화되는 정도를 의미함.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1학년~2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때 대학중퇴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21 대학 중퇴의사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8 (0.23)	1.33 (0.31)
	연령	0.66 (0.47)	1.95 (0.93)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1 (0.12)	0.99 (0.12)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27 (0.26)	1.32 (0.34)
	전공(인문계열)	0.15 (0.38)	1.16 (0.44)
	전공(사회계열)	-0.03 (0.36)	0.97 (0.35)
	전공(교육계열)	-1.52 (1.07)	0.21 (0.23)
	전공(공학계열)	0.08 (0.34)	1.08 (0.37)
	대학소재지(서울)	-0.84 (0.26)**	0.42 (0.11)**
	대학생활만족도 총점	-0.09 (0.01)***	0.91 (0.11)***
현재 상태 (3학년=0)	1학년	1.66 (0.39)***	5.26 (2.09)***
	2학년	0.99 (0.26)***	2.71 (0.71)***
	4학년	-1.39 (0.38)***	0.24 (0.09)***
상수		1.14 (1.09)	3.13 (3.42)
N		896 ^{주)}	
LR χ^2		125.63***	
Pseudo R ²		0.18	
Log likelihood		-282.47	

주) 현재 대학재학생 1,000명 중 졸업유예자 제외

*** p<.001, ** p<.01, * p<.05

⑤ 휴학경험

앞서 살펴본 ‘반수’, ‘편입’, ‘대학중퇴’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옮겨가는 형태의 학업중단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형태 이외, 재학상태를 유지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휴학’이다.

‘휴학’은 반수나 편입 또는 대학중퇴에 비해 학생들이 쉽게 경험하는 학업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자들의 통해서도 재학 중에 학생들이 부담감 없이 선택하는 학업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년은 거의 기본.”(졸업미취업자 E2)

“휴학 엄청 하죠. 대부분 80%는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졸업하는 애들은 찾기가 힘들죠. 어떤 친구들은 여행 가는 친구도 있고 알바 하는 친구도 있고 인턴 하는 친구도…학원 다니면서 다른 중국어 같은 거 공부한다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5)

“저도 휴학을 했었어요. 요즈음은 거의 1년은 다 하는 것 같아요. (휴학목적은)친구들마다 달라요. 남자학생들은 휴학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여자애들은 다 해요. 거의 다. 주변에 다 했었어요.”(대학재학생 B4)

“저희 많이 하는데. 저도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싶어서 1년 휴학 했었고요.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정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친구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는 없고요…요즈음 분위기 자체는 1년쯤이야 일찍 나가고 늦게 나가고 졸업유예도 있는 편이니까 1년 정도는 여유롭게 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대학재학생 B1)

“1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했었는데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해외봉사를 갔다 왔거든요. 휴학 할 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휴학을 하기는 했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굳이 봉사를 하려고 휴학을 한다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휴학 하고 봉사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20대 청년들이 휴학을 경험하고 있으며, 휴학기간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시, 남성들의 대표적인 휴학사유에 해당되는 ‘군복무’를 고려하여, 군복무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한 경험에 한하여 경험여부와 사유를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39.7%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평균 2.23학기 정도를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10명 중 4명은 휴학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 청취한 바와 같이,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휴학비율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25세 이상의 경험률이 19세~24세 비율의 2배에 달하여, 대체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 휴학비율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국·공립대 재학생이 사립대학에 비해 휴학 경험률이 다소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인문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교육계열 순이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휴학 경험률 및 휴학기간

(단위: 명, %, 학기)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경험률	휴학기간	경험률	휴학기간	경험률	휴학기간	경험률	휴학기간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793 (39.7)	2.23 (1.1)	314 (31.4)	2.16 (1.1)	246 (49.2)	2.35 (1.1)	233 (46.6)	2.19 (1.0)
성별	남	42.2	2.29 (1.2)	34.2	2.23 (1.2)	49.6	2.44 (1.3)	50.8	2.22 (1.1)
	여	37.1	2.16 (0.9)	28.6	2.08 (0.9)	48.8	2.25 (1.0)	42.4	2.16 (0.9)
연령	19~24세	26.1	1.93 (0.8)	24.6	1.93 (0.9)	32.9	1.92 (0.7)	29.5	1.93 (0.5)
	25세이상	56.2	2.40 (1.1)	72.5	2.63 (1.2)	56.1	2.46 (1.2)	50.6	2.23 (1.0)
대학설립 주체	국공립대	41.4	2.19 (1.1)	32.5	2.00 (1.1)	48.2	2.33 (1.2)	50.0	2.24 (1.1)
	사립대	39.2	2.24 (1.1)	31.1	2.20 (1.1)	49.6	2.36 (1.1)	45.8	2.18 (1.0)
대학전공 계열	인문계열	39.3	2.30 (1.0)	31.4	2.03 (0.9)	50.5	2.58 (1.2)	42.0	2.32 (1.0)
	사회계열	49.2	2.29 (1.2)	40.4	2.14 (1.1)	57.7	2.60 (1.3)	55.7	2.16 (1.0)
	교육계열	26.7	1.95 (1.1)	20.0	2.50 (1.2)	33.3	1.40 (0.7)	26.7	2.50 (1.3)
	공학계열	35.6	2.13 (1.0)	29.2	2.14 (1.1)	42.9	2.13 (0.8)	44.3	2.11 (1.0)
	자연계열	32.3	2.20 (0.9)	21.9	2.48 (1.1)	45.1	1.88 (0.8)	42.4	2.25 (0.7)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36.0	2.06 (1.0)	31.9	1.95 (1.0)	35.9	2.21 (0.7)	48.7	2.16 (1.1)
	중위소득 ±50% 이내	40.4	2.23 (1.1)	31.5	2.18 (1.0)	51.3	2.37 (1.2)	47.3	2.15 (1.0)
	중위소득 -50% 이하	39.0	2.29 (1.1)	30.7	2.23 (1.2)	47.6	2.32 (1.2)	44.3	2.33 (1.0)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이 경험한 휴학은 어떠한 사유로 선택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주된 휴학의 사유는 '취업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28.8%)이며, 그 다음 순위로 높은 비율의 사유는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18.4%),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17.5%),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14.5%), '어학연수를 위해'(10.6%)이다.

그러나 세 집단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현재 재학생과 졸업자의 휴학사유의 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졸업자들이 취업관련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한 비율이 더 많은데 반해, 재학생의 경우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휴학을 하는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휴학의 사유를 종합해보면, 휴학을 선택하는 사유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크게 보아 취업준비와 학자금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최근 세대일수록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3 휴학의 주요 사유

(단위: 명, %)

사유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사례수(비율)	793(100.0)	314(100.0)	246(100.0)	233(100.0)
1) 취업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28.8	22.0	32.1	34.3
2) 어학연수를 위해	10.6	8.6	9.3	14.6
3) 봉사활동을 위해	0.6	0.6	0.4	0.9
4) 공모전준비를 위해	0	0	0	0
5)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14.5	18.2	12.6	11.6
6)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17.5	22.3	17.9	10.7
7)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18.4	18.5	16.3	20.6
8) 해외여행을 위해	5.2	5.1	6.1	4.3
9) 건강상의 이유로	1.1	1.6	1.2	0.4
10) 기타	3.3	3.2	4.1	2.6

휴학 사유에 이어 다음에서는 어떠한 이들이 휴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떠한 요인들이 휴학경험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전공자, 그리고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 졸업취업자보다는 현재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가 휴학을 경험했을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1살 많으면 휴학을 경험할 가능성이 4.29배 증가하고, 인문계열 전공자는 1.42배, 사회계열 전공자는 2.09배

정도 타 계열 전공자에 비해 휴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은 타 지역대학 재학·졸업생에 비해 1.29배 휴학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졸업취업자에 비해 현재 재학생은 1.35배, 졸업미취업자는 1.28배 휴학 경험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휴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하며, 휴학을 선택하는 이들이 서울지역 소재대학의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전공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IV-24 휴학 경험 유무의 영향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3 (0.11)	0.86 (0.92)
	연령	1.45 (0.13)***	4.29 (0.57)***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4 (0.05)	1.04 (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3 (0.11)	1.14 (0.13)
	전공(인문계열)	0.35 (0.17)*	1.42 (0.24)**
	전공(사회계열)	0.73 (0.15)***	2.09 (0.33)***
	전공(교육계열)	-0.25 (0.30)	0.77 (0.23)
	전공(공학계열)	0.19 (0.16)	1.21 (0.19)
	대학소재지(서울)	0.26 (0.11)*	1.29 (0.13)*
현재 상태	재학생	0.30 (0.15)***	1.35 (0.20)*
	졸업미취업자	0.24 (0.13)**	1.28 (0.17)
상수		-3.41 (4.13)***	0.03 (0.01)***
N		2,000	
LR χ^2		238.81***	
Pseudo R ²		0.09	
Log likelihood		-1223.72	

*** p<.001, ** p<.01, * p<.05

휴학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이어, 다음에서는 휴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운트 모델(Coun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주32) 20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델에서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타 계열전공자에 비해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전공자, 서울지역 소재대학 재학·졸업

주32) 카운트 모델(Count Model)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닌 0 또는 양의 정수(non-negative integer), 즉 자녀 수, 병원방문 횟수, 여행 횟수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수를 종속변수로 가진 많은 경우, 대체로 몇 개의 수, 즉 0, 1, 2에 상당수의 관측치가 집중되어 자료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거나(skewed to the right), 이분산성(heteroskedastic)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OLS회귀분석보다 포아송(Poisson)모델 또는 Negative Binomial모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아송 회귀모형에서는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함수(Poisson distribution func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우석진, 2013, p.140; 민인식·최필선, 2013b, p.136; 김지경·이광호, 2013, p.178에서 재인용). 휴학기간 또한 0, 1, 2의 정수를 가지며 포아송 분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이 분석모델을 사용하였음.

생, 졸업취업자보다 재학생 및 졸업미취업자가 휴학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휴학경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델에서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졸업취업자보다는 재학생이 휴학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생에 비해, 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휴학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연령수준이 높은 이들이 휴학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IV-25 휴학 기간의 영향요인: Count Model

변수		휴학 경험자	전체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01 (0.05)	-0.07 (0.05)
	연령	0.26 (0.63)***	1.12 (0.06)***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3 (0.02)	-0.01 (0.02)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02 (0.59)	0.06 (0.05)
	전공(인문계열)	0.05 (0.08)	0.24 (0.08)**
	전공(사회계열)	0.04 (0.08)	0.41 (0.08)***
	전공(교육계열)	-0.12 (0.17)	-0.28 (0.17)
	전공(공학계열)	-0.02 (0.08)	0.07 (0.08)
	대학 소재지(서울)	0.02 (0.05)	0.17 (0.05)**
현재 상태	재학생	0.13 (0.06)*	0.31 (0.07)***
	졸업 미취업자	0.08 (0.06)	0.19 (0.06)**
상수		0.47 (0.19)*	-2.21 (0.19)***
N		793	2,000
Log Likelihood		-1212.52	-2613.67
LR χ^2		28.44**	497.21***
Pseudo R^2		0.02	0.08

*** p<.001, ** p<.01, * p<.05

⑥ 복수전공 경험

앞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경험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재학과정의 경험으로서 복수전공을 살펴보려고 한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문헌연구를 통해서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과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되는 계열에서의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공계열에 따라 그 상황의 체감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포착 한 바 있다.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경영학과를 선호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3)

“공대는 잘 안해요. 과도 힘들어서.”(대학재학생 A6)

“저희 학교는 필수예요. 복수전공 혹은 심화 아니면 부전공 필수예요...이력서에 상경계열 비상경계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대학재학생 B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수전공의 경험과 그에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계열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Ⅳ-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수전공을 경험한 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19.5%이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25세 이상이 19세~24세 연령대에 비해, 사립대학 재학·졸업생이 국·공립대 재학·졸업생에 비해 복수전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복수전공 경험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390 (19.5)	1,610 (80.5)	175 (17.5)	825 (82.5)	118 (23.6)	382 (76.4)	97 (19.4)	403 (80.6)
성별	남	15.2	84.8	14.0	86.0	16.8	83.2	16.0	84.0
	여	23.8	76.2	21.0	79.0	30.4	69.6	22.8	77.2
연령	19~24세	18.2	81.8	16.9	83.1	24.8	75.2	20.0	80.0
	25세 이상	21.0	79.0	21.1	78.9	23.1	76.9	19.3	80.7
대학설립 주체	국공립대	14.6	85.4	10.5	89.5	18.2	81.8	18.0	82.0
	사립대	20.9	79.1	19.3	80.8	25.6	74.4	19.8	80.3
대학전공 계열	인문계열	32.6	67.4	36.2	63.8	35.2	64.8	24.1	75.9
	사회계열	21.2	78.8	17.7	82.3	25.0	75.0	23.4	76.6
	교육계열	42.7	57.3	30.0	70.0	46.7	53.3	60.0	40.0
	공학계열	7.9	92.1	8.0	92.0	8.7	91.3	6.7	93.3
부모 월평균 소득	자연계열	16.7	83.3	13.2	86.8	19.7	80.3	21.2	78.8
	중위소득 50% 이상	22.3	77.7	18.5	81.5	35.9	64.1	20.5	79.5
	중위소득 ±50% 이내	19.7	80.3	17.0	83.0	23.3	76.7	21.5	78.5
	중위소득 -50% 이하	17.7	82.3	18.4	81.6	20.6	79.4	13.7	86.3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인문계열-사회계열-자연계열 순으로 높으며, 공학계열은 초점집단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같이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복수전공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Ⅳ-27>에서는 어떠한 계열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초점집단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상(또는 상경)계열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는 인문계열-사회계열 순이다. 이러한 순위는 졸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재학생도 졸업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졸업자와는 달리, 재학생의 경우 공학계열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비율이 졸업자에 비해 2배가량 된다는 사실이다. 표본수가 적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학계열이 취업여건이 좋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Ⅳ-27 복수전공의 계열

(단위: 명,%)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사례수(비율)	390(100.0)	175(100.0)	118(100.0)	97(100.0)
1) 인문계열	24.6	25.1	23.7	24.7
2) 경상(또는 상경)계열	27.7	26.9	27.1	29.9
3) 경상(상경)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	21.8	24.0	21.2	18.6
4) 교육계열	8.7	5.1	13.6	9.3
5) 공학계열	8.7	12.0	5.9	6.2
6) 자연계열	4.1	3.4	4.2	5.2
7) 예체능계열	2.8	2.9	1.7	4.1
8) 기타	1.5	.6	2.5	2.1

복수전공 여부와 선택한 복수전공계열에 이어, 복수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연령(+), 인문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이 복수전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나, 공학계열 전공자는 타 계열전공자에 비해 복수전공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소재 인문계열이나 교육계열의 여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학계열은 대학의 복수전공의 제도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IV-28 복수전공 여부의 영향 요인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41 (0.12)**	0.66 (0.08)**
	연령	0.29 (0.15)*	1.34 (0.21)*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0 (0.07)	1.11 (0.07)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26 (0.15)	0.76 (0.12)
	전공(인문계열)	0.89 (0.19)***	2.45 (0.47)
	전공(사회계열)	0.31 (0.19)	1.37 (0.26)
	전공(교육계열)	1.29 (0.28)***	3.64 (1.05)***
	전공(공학계열)	-0.74 (0.22)**	0.47 (0.10)**
	대학소재지(서울)	0.54 (0.12)***	1.72 (0.21)***
현재 상태	재학생	0.07 (0.18)	1.08 (0.19)
	졸업미취업자	0.21 (0.16)	1.24 (0.20)
상수		-2.71 (0.52)***	0.06 (0.03)***
N		2,000	
LR χ^2		172.02***	
Pseudo R ²		0.08	
Log likelihood		-900.77	

*** p<.001, ** p<.01, * p<.05

⑦ 졸업유예 경험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학업중단의 경험들과는 달리, ‘졸업유예’는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상태를 유지하고자 졸업을 미루는 선택적 경험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졸업유예 제도를 운영한 26개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270여명이었던 졸업유예신청자의 수가 2014년 14,957명으로 약 1.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안민석의원실, 2014.04.04). 이처럼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은 기업에서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을 선호한다는 인식과 졸업하기 전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스펙을 쌓고, 취업지원의 정보와 기회를 조금 더 갖기 위한 20대 청년들의 나름의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졸업유예의 규모나 기간에 대해 파악된 자료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를 대상으로 20대 청년들의 졸업유예의 경험과 기간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전체의 졸업유예의 경험률은 16.2%이고,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졸업미취업자는 24.0%, 졸업취업자는 19.8% 수준이다. 이는 졸업생의 5명 중 1명이 졸업유예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9 졸업유예 경험 유무 및 기간

(단위: 명, %, 학기)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경험률	유예기간	경험률	유예기간	경험률	유예기간	경험률	유예기간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324 (16.2)	1.52 (0.9)	104 (10.4)	1.56 (1.1)	120 (24.0)	1.48 (0.7)	99 (19.8)	1.53 (0.8)
성별	남	16.3	1.61 (1.0)	11.4	1.65 (1.4)	22.4	1.52 (0.7)	20.0	1.66 (0.9)
	여	16.0	1.43 (0.7)	9.4	1.45 (0.7)	25.6	1.44 (0.7)	19.6	1.39 (0.8)
연령	19~24세	8.1	1.40 (0.8)	5.4	1.48 (0.9)	16.8	1.36 (0.6)	18.9	1.28 (0.6)
	25세 이상	26.1	1.56 (0.9)	40.8	1.62 (1.3)	27.1	1.51 (0.7)	20.0	1.58 (0.9)
대학설 립주체	국공립대	17.6	1.60 (0.8)	13.0	1.73 (1.0)	22.6	1.61 (0.8)	20.0	1.40 (0.8)
	사립대	15.7	1.49 (0.9)	9.8	1.50 (1.2)	24.5	1.43 (0.7)	19.8	1.56 (0.9)
대학전 공계열	인문계열	17.5	1.55 (0.8)	11.2	1.52 (0.8)	25.7	1.63 (0.7)	20.5	1.48 (0.9)
	사회계열	20.9	1.50 (1.1)	14.2	1.65 (1.6)	26.8	1.36 (0.6)	26.6	1.52 (0.9)
	교육계열	14.7	1.64 (0.7)	3.3	2.00	16.7	1.40 (0.5)	33.3	1.80 (0.8)
	공학계열	13.1	1.51 (0.7)	8.6	1.47 (0.6)	23.8	1.50 (0.8)	14.8	1.59 (0.9)
	자연계열	11.1	1.47 (0.8)	7.9	1.50 (1.0)	18.3	1.54 (0.9)	10.6	1.29 (0.5)
부모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5.7	1.29 (0.5)	10.9	1.23 (0.6)	28.2	1.27 (0.5)	17.9	1.43 (0.5)
	중위소득 ±50% 이내	17.8	1.53 (0.9)	11.8	1.52 (0.9)	26.0	1.52 (0.7)	21.5	1.56 (1.0)
	중위소득 -50% 이하	11.7	1.58 (1.2)	5.7	2.17 (2.3)	17.5	1.41 (0.7)	16.0	1.43 (0.5)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고, 연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졸업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집단에서의 비율이 높다. 사립대보다는 국·공립대학의 경우가 졸업유예 비율이 다소 높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인문계열-교육계열-공학계열-자연계열의 순이고,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졸업유예의 기간은 전체 평균 1.52학기로, 한 학기 반 정도의 기간을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졸업유예 경험률과 유예기간에 이어 다음에서는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타 전공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전공자와 사회계열전공자가,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이, 졸업취업자에 비해 졸업미취업자가 졸업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0 졸업유예의 결정 요인: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31 (0.13)**	0.73 (0.10)*
	연령	1.48 (0.17)***	4.41 (0.78)***
	부모 월평균 소득(log)	0.29 (0.09)**	1.34 (0.12)**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27 (0.15)	1.31 (0.20)
	전공(인문계열)	0.60 (0.24)**	1.82 (0.43)*
	전공(사회계열)	0.79 (0.22)***	2.21 (0.49)***
	전공(교육계열)	0.31 (0.39)	1.37 (0.54)
	전공(공학계열)	0.30 (0.23)	1.35 (0.31)
	대학소재지(서울)	0.53 (0.13)***	1.71 (0.23)***
현재 상태	재학생	0.10 (0.19)	1.11 (0.21)
	졸업미취업자	0.32 (0.16)*	1.38 (0.22)*
상수		-6.39 (0.67)***	0.01 (0.01)***
N		2,000	
LR χ^2		179.02***	
Pseudo R^2		0.10	
Log likelihood		-794.78	

*** p<.001, ** p<.01, * p<.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졸업유예의 가능성이 27% 낮고, 연령이 1세 높으면 졸업유예의 가능성이 4.41배 높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만원 높으면 졸업유예의 가능성은 1.34배 증가한다. 타 전공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의 전공자는 졸업유예의 가능성이 1.82배 높으며, 사회계열 전공자는 2.21배 높다. 또 서울지역대학 재학생들은 타 지역대학 재학생들에 비해 졸업유예의 가능성이 1.71배 높으며, 졸업취업자에 비해 졸업미취업자들은 졸업유예의 경험이 1.38배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졸업유예는 서울소재대학 인문 및 사회계열을 졸업한 미취업자 집단에서 경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졸업유예의 결정요인에 이어 졸업유예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운트모델(Count Model)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재학기간 중에 졸업 시기를 지체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수전공, 휴학, 인턴경험, 대외활동경험, 교외학습스터디와 같은 재학 중 경험을 분석 모델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표 IV-31 졸업유예 기간의 영향 요인: Count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09 (0.09)
	연령	1.13 (0.13)***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5 (0.06)*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23 (0.10)*
	전공(인문계열)	0.42 (0.17)*
	전공(사회계열)	0.48 (0.16)**
	전공(교육계열)	0.27 (0.28)
	전공(공학계열)	0.22 (0.17)
	대학 소재지(서울)	0.19 (0.09)*
현재 상태	재학생	0.20 (0.13)
	졸업 미취업자	0.18 (0.11)
재학 중 경험 특성	복수전공 여부(복수전공)	0.23 (0.10)*
	휴학기간	0.15 (0.03)***
	인턴경험 유무(경험)	0.34 (0.10)**
	대외활동 경험 유무(경험)	0.14 (0.09)
	교외 학습(스터디)활동 유무(활동)	0.31 (0.09)*
상수		-5.14 (0.46)***
N		2,000
Log Likelihood		297.48***
LR χ^2		-1176.05
Pseudo R ²		0.11

*** p<.001, ** p<.01, * p<.05

분석 결과, 연령수준이 높고, 부모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으며, 사립대학 재학생보다 국·공립 대학 재학생인 경우, 타 전공계열에 비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전공자일 때,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인 경우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학 중 복수전공을 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고, 휴학기간이 긴 경우,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 교외 학습스터디 경험이 있는 경우 졸업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유예의 기간은 졸업유예를 결정하는 요인과 더불어 재학기간 중 가졌던 경험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경험들 중에서도 취업경쟁을 위해 선택하는 복수전공, 휴학, 인턴, 교외학습스터디와 같은 경험들의 연장선상에서 졸업유예기간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⑧교내/외 활동

학업과 관련한 경험 이외, 대학생활에서는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동아리, 학회, 학습스터디 등을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 경험여부와 활동의 주된 목적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내 중앙 동아리 또는 학회나 학생회 활동의 경험률은 전체 조사대상의 34.2%이고, 교내 학부/학과 동아리 또는 학회나 학생회 활동의 경험률은 50.3%로 나타나, 중앙단위보다는 학과나 학부단위의 활동을 하는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32 교내/외 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교내 중앙 동아리 또는 학회, 학생회	684 (34.2)	1,316 (65.8)	337 (33.7)	663 (66.3)	152 (30.4)	348 (69.6)	195 (39.0)	305 (61.0)
교내 학부/학과 동아리 또는 학회, 학생회	1,006 (50.3)	994 (49.7)	483 (48.3)	517 (51.7)	247 (49.4)	253 (50.6)	276 (55.2)	224 (44.8)
교외 대외활동	696 (34.8)	1,304 (65.2)	333 (33.3)	667 (66.7)	164 (32.8)	336 (67.2)	199 (39.8)	301 (60.2)
교내/교외 학습활동(스터디)	820 (41.0)	1,180 (59.0)	358 (35.8)	642 (64.2)	237 (47.4)	263 (52.6)	225 (45.0)	275 (55.0)

교외활동을 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데, 교외 대외활동은 34.8%, 교내/외 학습활동은 이보다 높은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별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졸업취업자의 활동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활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업이외의 활동마저 취업을 위한 스펙의 요건을 쌓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유형의 활동경험의 주된 목적을 친교, 여가활용, 흥미주제 학습, 취업을 위한 경험 쌓기,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IV-33 교내/외 활동의 주된 목적

(단위: 명, %)

활동의 주된 목적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중앙 동아리 / 학회,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45.0	41.5	48.0	48.7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6.3	38.9	30.9	35.9

활동의 주된 목적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학생회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9.1	11.0	8.6	6.2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7.9	7.4	9.9	7.2
	5) 기타	1.8	1.2	2.6	2.1
학부/학과 동아리 또는 학회, 학생회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60.7	58.6	58.3	66.7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12.2	12.8	13.4	10.1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12.9	13.3	12.1	13.0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10.9	12.4	13.0	6.5
	5) 기타	3.2	2.9	3.2	3.6
교외 대외활동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15.4	16.2	14.6	14.6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19.4	17.7	20.1	21.6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17.5	17.7	14.6	19.6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46.1	46.8	48.2	43.2
	5) 기타	1.6	1.5	2.4	1.0
교내/교외 학습활동 (스터디)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12.7	12.8	11.0	14.2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7	3.6	3.8	3.6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32.6	42.2	27.4	22.7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49.0	38.8	56.1	57.8
	5) 기타	2.1	2.5	1.7	1.8

분석 결과, 중앙단위나 학부/학과 단위의 동아리, 학회 또는 학생회활동은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높으나, 전반적으로 졸업생에 비해 재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교 또는 여가활용의 목적으로 중앙단위 또는 학부/학과단위의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활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활동과정 속에서 20대 청년들이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으며,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도 그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키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즐겁게 겨울 스키 탄 거 밖에 없을 정도로 했었는데 그거 속에서도 배운 게 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요. 겨울 스포츠다 보니까 5주 정도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을 하면서 사람들 부대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침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면서 배울 수 없는 것들...”(대학재학생 A4)

이와는 달리, 교외 대외활동이나 교내/외 학습활동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

로'활동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교내/외 학습활동은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활동하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하나로 또는 흥미 있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하여 이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경험을 청취할 수 있었다.

“1,2학년 때 했었는데 솔직히 취업에 아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살짝 다른 거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활동을 몇 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요...(중략)...인문계는 주로 학회 같은 거 많이 하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별로 큰 학회가 몇 개씩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 인턴 자리까지 보장해주는 데가 많아서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거 같아요.”(대학재학생 A3)

“언론사가 갑자기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된 활동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4학년쯤인가 갑자기 학보사도 해 보고 약간 취업과 관련돼서 했던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2)

“공모전 학회도 있고, 공모전 사냥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거야 뭐 굳이 학회 내가 아니더라도 같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개발자나 따로 하는데 학회 같은 거는 그런 거보다는 경제시장 동파 이런 거 저는 물리학과인데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대학재학생 A1)

3) 학자금 부담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현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의 고학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를 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향후 학자금 누적 대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집단으로 드러남.
- 생활비 대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현재 졸업유예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고,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집단은 졸업미취업자임.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의 상황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환률이 높아, 상환주체는 20대 당사자가 아닌, 부모임.
-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의 범위 확대로 20대 청년들의 장학금 수혜 경험률은 높으나,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아 확대가 필요함.
-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 재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 또는 욕구를 파악할 수 없으며, 근로의 목적과 주당근로시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목표(target)집단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재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임.

(1)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간 대학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5배를 상회할 정도로, 즉 물가가 31% 오를 때, 대학등록금 상승률은 82%까지(경향신문, 2011.04.06.일자)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으며, 사립 일반대학 학생을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총비용은 8,5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기홍의원실, 2015.09.10.).

또한 2015년 졸업반 학생의 연간 대학교육비와 2015년 2/4분기 연간 가계소득과 비교해 보면, 대학교육비의 금액이 최하 소득층인 1분위 소득의 2배 가까이 됐으며, 가장 높은 소득층인 10분위조차도 연간 소득의 1/5(20.1%)에 달하는 등 이미 대학등록금은 서민가계에서는 자력으로 대학교육비를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 대출과 학생들의 재학 중 근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유기홍의원실, 2015.09.10.), 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앞서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2010년 505만원에서

2014년 704만원으로 1.3배 증가하였다(대학교육연구소, 2015.02.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의 실태를 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기 위하여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경험과 금액 그리고 상환의 부담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등록금 대출 경험

대학 재학 중 등록금 대출 경험의 유무를 조사·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의 32.5%가 등록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별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 재학생들이 국·공립대 재학생보다 대출 경험률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공학계열-사회계열-교육계열 순으로, 졸업미취업자보다는 졸업취업자가,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등록금 대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등록금 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등록금 대출 경험	
		있다	없다
전체		2,000(100.0)	
사례수(비율)		650(32.5)	1,350(67.5)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22.9	77.1
	사립대	35.2	64.8
대학전공계열	인문계열	35.8	64.2
	사회계열	30.3	69.7
	교육계열	26.7	73.3
	공학계열	31.7	68.3
	자연계열	35.8	64.2
현재 상태	재학생	29.1	70.9
	졸업 미취업자	34.8	65.2
	졸업 취업자	37.0	63.0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7.8	82.2
	중위소득 ±50% 이내	32.8	67.2
	중위소득 -50% 이하	37.7	62.3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가 다른 조건을 통제 했을 때, 등록금 대출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등록금 대출 경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IV-35 등록금 대출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5 (0.11)*	0.78 (0.08)*
	연령	0.48 (0.13)***	1.63 (0.21)***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4 (0.05)**	0.86 (0.04)**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68 (0.13)***	0.50 (0.06)***
	전공(인문계열)	-0.09 (0.16)	0.91 (0.14)
	전공(사회계열)	-0.33 (0.15)*	0.72 (0.11)*
	전공(교육계열)	-0.44 (0.29)	0.64 (0.18)
	전공(공학계열)	-0.14 (0.15)	0.86 (0.13)
	대학소재지(서울)	-0.19 (0.11)	0.83 (0.09)
현재 상태	재학생	-0.00 (0.15)	0.99 (0.15)
	졸업미취업자	0.03 (0.13)	1.03 (0.14)
상수		-0.13 (0.39)	0.87 (0.34)
N		2,000	
LR χ^2		70.53***	
Pseudo R^2		0.03	
Log likelihood		-1225.84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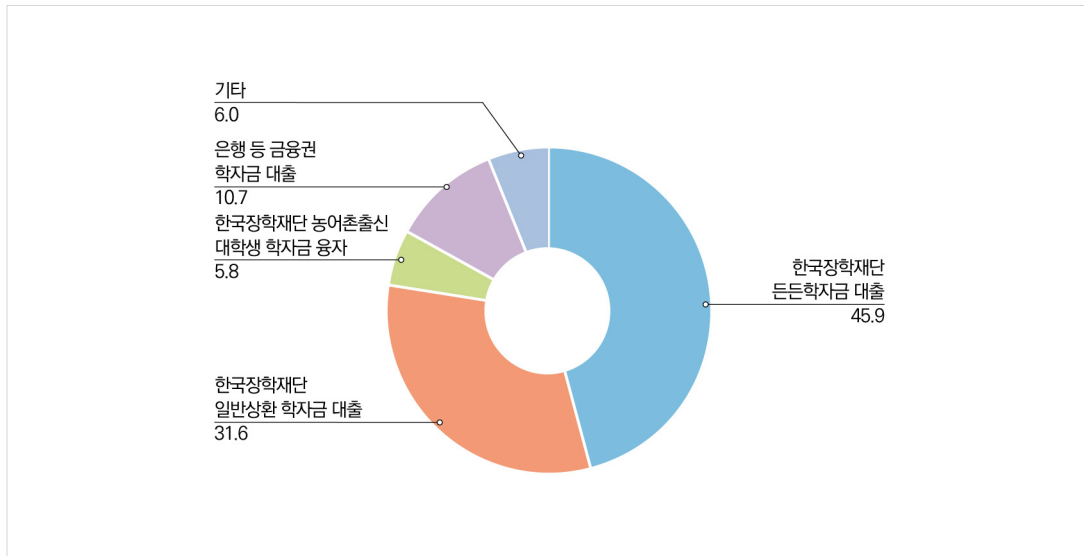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모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이 사립대학 재학·졸업생에 비해, 사회계열 전공자가 타 전공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등록금 대출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과는 달리, 연령의 경우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을 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등록금 대출의 가능성이 22%정도 낮고, 부모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1만원 높으면 등록금 대출의 가능성은 14% 낮아진다. 또한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은 사립대 재학·졸업생에 비해 등록금을 대출할 가능성이 32% 낮고, 사회계열 전공자는 타 전공자들에 비해 67% 낮다. 그러나 연령수준이 1세 높아지면, 등록금을 대출할 가능성은 1.63배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등록금 대출의 수요가 부모의 경제적 여건 수준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준이 높은 사립대학, 그리고 고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소득 9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환학자금’, 그리고 부모가 농어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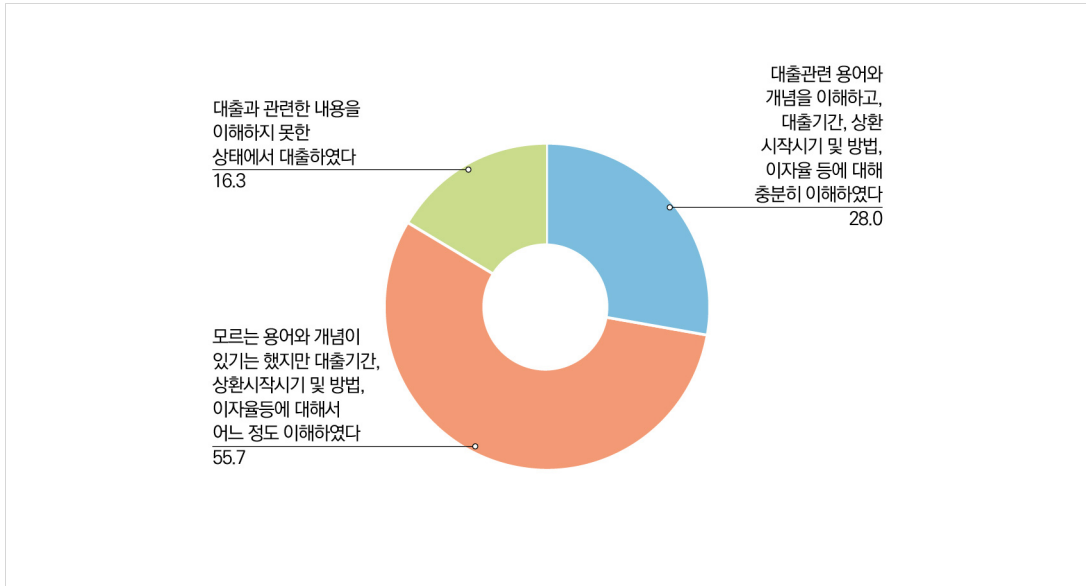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으로 구분된다. [그림 IV-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등록금을 대출한 20대 청년들의 45.9%는 취업 후 상환을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31.6%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5.8%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들 이외 10.7%는 은행 등 금융권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12】 등록금 대출의 종류

그렇다면, 등록금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들은 대출 당시,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와 방법 등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였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출 당시, 대출관련 용어와 개념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대출의 기간과 상환방법, 이자율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28.0%만이 ‘대출관련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대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고, 55.7%가 ‘모르는 용어와 개념이 있었지만, 대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였으며, 16.3%는 ‘대출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등록금 대출의 누적이 졸업시기뿐만 아니라 향후 생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대출 당사자가 대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충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IV-13】 등록금 대출 받을 당시, 대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본 등록금 대출제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고,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률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등록금 대출의 평균 총액은 1천179만원 정도이고, 대출받은 금액 중 상환한 금액은 평균 342만원으로 평균 상환률은 34% 수준이다.

등록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의 경우 평균 726.3만원, 사립대학은 이보다 많은 1천 261만원이며, 대출액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함에 따라 재학생(970만원)보다는 졸업생들의 대출 평균 총액이 많다.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1천 362만원, 졸업취업자는 1천 335만원으로 졸업미취업자의 등록금 대출액이 다소 많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는 졸업취업자가 49%인데 반해, 졸업미취업자는 37%수준으로 낮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50%층에서의 대출금액(1천 238만원)이 가장 많고, 상환률(33.0%)도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6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총액 평균과 상환 금액

(단위: 만원)

구분		등록금 대출 재학생		
		대출금 총액	대출금 중 상환 금액	상환률
전체 평균		1,179.2(925.5)	342.0(532.5)	0.34(0.4)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726.3(588.5)	221.9(277.2)	0.35(0.4)
	사립대	1,261.6(951.8)	363.9(564.2)	0.34(0.4)
현재상태	재학생	970.6(781.5)	168.7(275.4)	0.22(0.31)
	졸업 미취업자	1,362.2(1,055.3)	393.4(627.8)	0.37(0.39)
	졸업 취업자	1,335.1(941.3)	566.3(639.9)	0.49(0.39)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1,061.8(701.0)	222.3(275.8)	0.24(0.3)
	중위소득 $\pm$ 50% 이내	1,238.6(972.6)	367.6(558.8)	0.35(0.4)
	중위소득 -50% 이하	1,055.4(829.1)	302.3(499.7)	0.33(0.4)

이와 같은 대학의 유형과 졸업여부,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차이를 포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등록금 대출과 대출금액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등록금 대출 총액과 총액대비 상환비율의 영향요인을 토빗모델(Tobit Model)로 분석하였다.^{주33)}

분석 결과, 등록금 대출 총액에는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대학 3학년 이하 학생들이 4학년에 비해 등록금 대출 총액이 적고,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이 타 지역 대학 재학·졸업생에 비해, 생활비대출의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등록금 대출 총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등록금 대출 총액이 재학기간 내 누적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자가 생활비대출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출 총액 대비 상환비율에는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이 사립대학 재학·졸업생에 비해 상환률이 낮으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20대 청년들이 상환률이 다른 대출을 받은 이들에 비해 높다. 이 같은 결과는 누적된 등록금 총액이 많은 사립대학 재학·졸업생이 빠른 상환을 하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을 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빠른 상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득 9분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들의 빠른 상환은 결국, 20대 청년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상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주33) 토빗모델(Tobit Model)은 'Censored normal Regression Model'과 같이, 종속변수가 일정한 영역에서 관측될 수 없는, 즉 '0'과 같이 제한적 종속변수를 가질 때 적용하는 분석기법(Maddala, 1992; Richard, 1996; 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p.160에서 재인용).

표 IV-37 등록금 대출 총 금액 및 총액 대비 상환금 비율 : Tobit Model

변수		등록금대출 총액	대출 총액 대비 상환 비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2 (0.10)	-0.12 (0.24)
	연령	-0.12 (0.14)	0.28 (0.34)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1 (0.07)	-0.02 (0.16)
대학 특성 및 재학 학년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64 (0.14)***	-0.87 (0.37)*
	대학소재지(서울)	0.24 (0.10)*	-0.04 (0.25)
	재학학년(1학년)	-0.96 (0.35)**	1.53 (0.81)
	재학학년(2학년)	-0.54 (0.13)***	0.19 (0.33)
	재학학년(3학년)	-0.39 (0.12)**	0.13 (0.31)
	재학학년(졸업유예)	0.11 (0.15)	0.44 (0.37)
재학 중 근로 및 장학금 수혜	주당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0.01 (0.01)	-0.02 (0.01)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	0.02 (0.04)	0.03 (0.09)
	장학금 수혜 총액	-0.06 (0.05)	0.02 (0.12)
등록금 대출 종류 및 생활비 대출 경험	돈돈학자금대출	0.04 (0.12)	0.56 (0.30)
	일반상환학자금대출	0.14 (0.11)	0.68 (0.26)*
	생활비대출 경험(유)	0.34 (0.11)**	0.39 (0.26)
상수		7.14 (0.57)***	-1.13 (1.42)
Sigma		0.74 (0.03)	1.58 (0.12)
N		1,000	258
Left-Censored		742	143
LR χ^2		68.72***	31.34**
Pseudo R^2		10.64	0.05
Log likelihood		-288.61	-305.60

*** p<.001, ** p<.01, * p<.05

학자금 대출의 원금은 재학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한다고 할지라도, 졸업 시점에는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한 규모의 부채가 된다. 초점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졸업취업자들은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의 부담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모가 대신 상환을 하는 상황마저도 압박감이 적지 않은 것을 토로하였다.

“...제가 2010년에 입학하면서부터 정부지원금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가 빌리게 되는 돈들도 작고 지금도 제가 4년 다니면서 남은 돈이 3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종 지원금이 많이 늘어서 부담 자체는 크게 다들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학교생활을 약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학교를 비싼 데 다니니까 한 학기에 600만원씩이니 까 8학기 다니면 거의 5천만원이죠. 거의 그 정도 빌린 애들은 걱정을 하죠.”(졸업취업자 D3)

“저 같은 경우 국공립대라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학기를 다 다녀도 2천만원이 안 넘으니까. (국가장학금으로)거의 커버 되죠. 제가 아는 사립대 다니는 친구들, OO대나 OO대 다니는 친구들은 열에 다섯은 다 그 걱정. 취업해도 자기가 상환할 게 많으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반 톨 되게 깎이는 거예요. 저희는 그 수준에서 거의 깎이는데. 그래서 사립대 친구들을 보면 안타깝죠..”(졸업취업자 D2)

“제가 2년 재수하느라고 올 4년 다녀서 바로 취업을 하는 애들은 2년 정도 빠르잖아요.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지금 0원으로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죠.”(졸업취업자 D4)

“대학 때는 그런 게 부담인지도 모르고 빌려요. 제가 졸업했을 때 1,700만원. 저는 장학금 많이 받아서 많이 갚았는데, 많이 갚어도 1,700만원 남았었는데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빠가 내줬거든요. 이자 원금 같이 30만원 냈거든요...문제는 졸업하고 제가 내야 되는데 말한 달에 30만원인지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한 달에 30만원을 알바로 갚으려고 해도 내 생활비까지 같이 벌어서 쓰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휴학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휴학했을 때도 제가 돈을 냈었는데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도 다달이 30만원 내는 것도 힘들어요. 원금 많이 까지지도 않아요. 회사에 갔을 때 그때 5개월 있으니까 그때 한 천만원 벌었거든요. 받은 갚고 천만원 남았어요. 그거는 제가 힘들어 보이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엄마가 대신 내주셨어요. 사실 저한테는 빛이죠..”(졸업미취업자 F5)

“저도 졸업하면 바로 취직 될 줄 알고 상환기간을 졸업과 동시에 했는데 취직도 안 되서. 그때는 저의 의지가 아니라 아빠가 바로 취직할 줄 알고 기간을 만들어 놔서... 어느 순간 장학재단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상환일이 언제냐. 저도 30만원씩 나가는데 급하게 단기 알바 바짝 버는 거로 하고 일 다녔을 때는 겹치면 60만원씩 나갈 때도 있고. 그때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학자금이 반절 이상 나가니까. 요즈음은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모아둔 목돈에서 꺼거나 잠깐 부모님한테 꺾달라고 해서 갚는 중이에요.”(졸업미취업자 F5)

“취직이 계속 안 되니까. 우선 부모님이 내주시기는 하는데 갚아야 될 돈인 거고. 또 부모님이 그런 거 내주시는 애들은 더 집에서 눈치를 보죠. 마음은 더 조급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졸업미취업자 F1)

이와 같이 등록금 대출의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은 모두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대출금액의 규모와 상환시기에 따라 다소 부담을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 부담 정도의 차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금 대출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특성별 상환부담의 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고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등록금 대출 유경험자의 상환부담은 10점 중 평균 7.5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대출금액이 많은 사립대학 재학·졸업생(7.67점), 졸업미취업자(7.67점),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50%이하(7.73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상환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38 등록금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점)

구분		등록금 대출 유경험자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정도
전체 평균		7.52(2.3)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6.69(2.7)
	사립대	7.67(2.2)
현재 상태	재학생	7.36(2.5)
	졸업 미취업자	7.67(2.1)
	졸업 취업자	7.62(2.2)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6.40(2.8)
	중위소득 ±50% 이내	7.53(2.3)
	중위소득 -50% 이하	7.73(2.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환부담 정도의 차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아지고,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사립대학 졸업·재학생에 비해 부담 정도가 낮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들이 다른 종류의 학자금 대출자들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크며, 등록금대출 총액이 많은 이들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통해 누적 대출금액이 많은 사립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39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7(0.19)
	연령	0.20(0.23)
	부모 월평균 소득(log)	-0.26(0.10)*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72(0.25)**
	전공(인문계열)	0.19(0.29)
	전공(사회계열)	0.02(0.28)
	전공(교육계열)	-0.06(0.54)
	전공(공학계열)	-0.07(0.27)
	대학소재지(서울)	-0.22(0.20)
현재 상태	재학생	0.19(0.25)
	졸업미취업자	0.09(0.23)
대출 특성	든든학자금대출	0.15(0.18)
	일반상환학자금대출	0.41(0.19)*
	등록금대출 총금액	0.00(0.00)***
	등록금대출 상환율	-0.00(0.00)
상수		7.74(0.74)***
N		650
F		5.81***
Adj. R ²		0.10

*** p<.001, ** p<.01, * p<.05

② 생활비 대출 경험

앞서 제3장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등록금 대출과 더불어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와 연계한 든든생활비와 일반상환생활비 지원을 각각 학기당 최소 50만원부터 150만원(든든) 또는 100만원(일반상환)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명목 이외의 목적으로 대학생들이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대출금이 2015년 7월 말 기준으로 1조 839억원에 이르렀으며, 2013년 3월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금액으로는 23.8%(2,086억원), 건수로는 20.4%(11,263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병두의원실, 2015.09.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록금 대출에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생활비 대출을 경험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16.6%가 생활비 대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사립대학 재학·졸업생에 비해, 졸업취업자가 재학생이나 졸업미취업자에 비해 다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비 대출 경험의 차이인데, 중위소득-50% 이하에서는 경험률이 24.9%에 달하여 4명 중 한 명이 생활비 대출을 하는 반면, 중위소득 +50% 이상에서는 5.1%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활비 대출에 있어 부모의 소득수준의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40 생활비 대출 경험

(단위: 명, %)

구분		재학생	
		있다	없다
전체		2,000(100.0)	
사례수(비율)		331(16.6)	1,669(83.5)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17.4	82.6
	사립대	16.3	83.7
현재 상태	재학생	16.3	83.7
	졸업 미취업자	16.6	83.4
	졸업 취업자	17.0	83.0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5.1	94.9
	중위소득 ±50% 이내	15.3	84.7
	중위소득 -50% 이하	24.9	75.1

그렇다면,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생활비 대출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생활비 대출의 주요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상태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투입한 모델과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투입한 모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상태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투입한 모델1에서는 연령(+)과 부모소득(-), 국·공립대학(+), 서울지역대학(-), 현재 재학생(+)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모델2에서는 모델1에서 유의한 변수였던 국·공립대학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인문계열(+)과 졸업유예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가되었다.

표 IV-41 생활비 대출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모델1		모델2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4 (0.13)	0.86 (0.11)	-0.14 (0.13)	0.86 (0.11)
	연령	0.51 (0.16)**	1.66 (0.27)**	0.44 (0.17)*	1.55 (0.26)
	부모 월평균 소득(log)	-0.23 (0.05)***	0.79 (0.04)***	-0.24 (0.05)***	0.78 (0.04)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06 (0.14)*	1.07 (0.15)*	0.04 (0.14)	1.04 (0.15)
	전공(인문계열)	0.51 (0.20)	1.67 (0.34)	0.51 (0.21)*	1.66 (0.35)
	전공(사회계열)	0.08 (0.20)	1.08 (0.22)	0.08 (0.21)	1.09 (0.22)
	전공(교육계열)	0.25 (0.35)	1.28 (0.45)	0.26 (0.35)	1.30 (0.45)
	전공(공학계열)	0.05 (0.20)	1.05 (0.21)	0.07 (0.21)	1.08 (0.22)
	대학소재지(서울)	-0.29 (0.14)*	0.74 (0.11)*	-0.31 (0.14)*	0.73 (0.10)
현재 상태1	재학생	0.39 (0.18)*	1.48 (0.28)*	-	-
	졸업미취업자	0.05 (0.17)	1.05 (0.18)	-	-
현재 상태2	재학생	-	-	0.06 (0.21)	1.06 (0.23)
	졸업유예 재학생	-	-	0.56 (0.28)*	1.76 (0.50)
	졸업미취업 구직자	-	-	-0.08 (0.23)	0.92 (0.21)
	졸업미취업 비구직자	-	-	-0.25 (0.23)	0.77 (0.18)
	졸업정규직 취업자	-	-	-0.47 (0.24)	0.61 (0.15)
상수		-1.29 (0.46)**	0.27 (0.12)**	-0.89 (0.47)	0.41 (0.19)
N		2,000		2,000	
LR χ^2		41.51***		49.48***	
Pseudo R ²		0.02		0.03	
Log likelihood		-876.60		-87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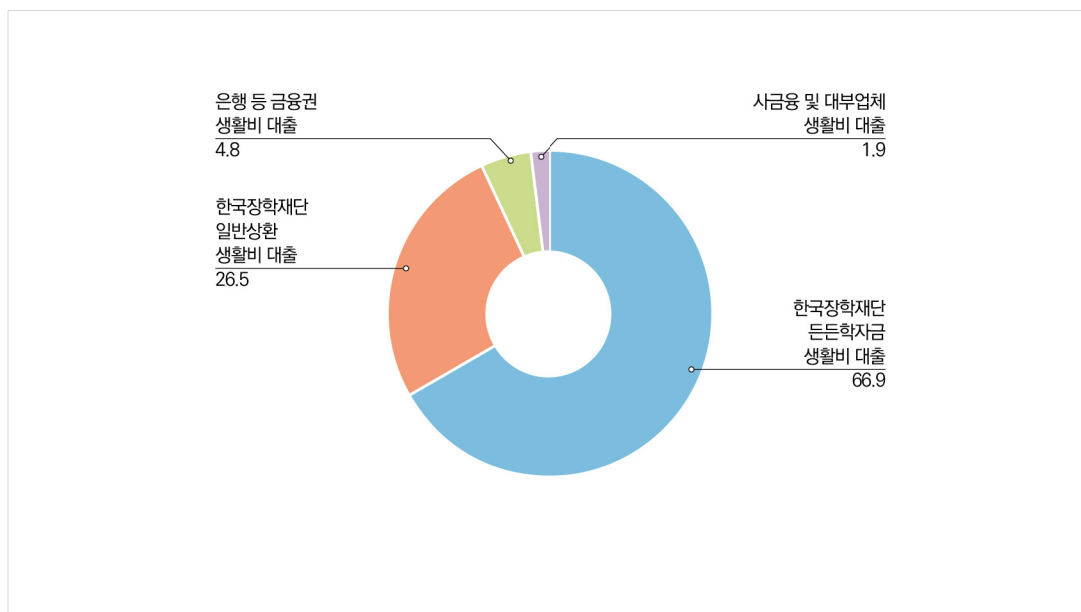
*** p<.001, ** p<.01, * p<.05

모델1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1세 높으면 생활비 대출을 할 가능성이 1.66배 높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만원 높으면 생활비 대출의 가능성은 21% 낮아진다. 또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들은 사립대학 재학·졸업생들에 비해 생활비 대출의 가능성이 1.07배 높고,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졸업생들은 생활비 대출의 가능성이 타 지역 대학 재학·졸업생들에 비해 26% 낮으며, 졸업취업자에 비해 재학생들은 1.48배 높다.

모델2에서 추가적으로 분석된 영향 요인인 인문계열 전공자의 경우 타 전공자에 비해 생활비 대출을 할 가능성이 1.66배 높고, 졸업유예생은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에 비해 생활비 대출을 할 가능성이 1.76배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수준이 높은 고학년 또는 졸업유예생들이 생활비 대출의 주요 수요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요인들의 영향으로 생활비를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서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언급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이 은행권에서의 생활비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지,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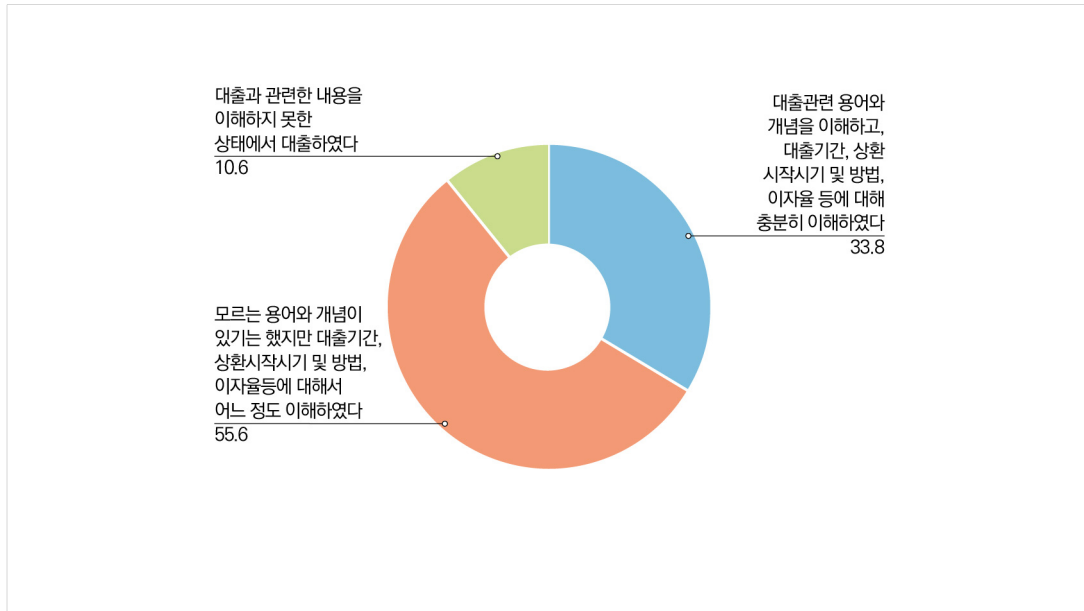
[그림 IV-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의 종류는 66.9%가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26.5%는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전체의 93.4%가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은행권(4.8%)나 사금융(1.9%)에서 생활비를 대출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



【그림 IV-14】 생활비 대출의 종류

등록금 대출에서와 같이 생활비 대출에서도 대출 당시, 대출의 용어나 대출의 조건 등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IV-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의 경험이 있는 20대 청년들 중 33.8%가 생활비 대출 당시, 용어와 개념 그리고 대출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55.6%가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10.6%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 등록금이나 생활비 대출 대상의 확대나 지급 요건의 개선도 중요하지

만,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금융인식(Literacy)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15】 생활비 대출 받을 당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다음에서는 생활비 대출금의 총액과 총액대비 상환금액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IV-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총액은 평균 33.6만원이고, 대출금 총액 대비 상환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상환율은 20% 수준이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금 총액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특성에 따라 대출금 총액이나 상환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단, 상환금액과 상환율에 있어 졸업취업자의 상환금액은 졸업미취업자의 2배 수준이며, 상환율에 있어서도 2.7배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의 66.9%가 취업 후 상환을 하는 든든학자금 생활비 지원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42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금 평균 총액과 상환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		
		대출금 총액	대출금 중 상환 금액	상환율
전체 평균		331.6(302.3)	51.2(121.8)	0.2(0.3)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323.3(287.9)	51.9(100.2)	0.2(0.4)
	사립대	334.1(307.0)	51.0(127.7)	0.2(0.3)
현재 상태	재학생	352.3(335.6)	23.7(89.9)	0.1(0.2)
	졸업 미취업자	300.4(242.1)	55.5(151.5)	0.1(0.3)
	졸업 취업자	322.2(287.6)	100.3(127.4)	0.4(0.4)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275.0(184.5)	52.5(83.6)	0.1(0.2)
	중위소득 ±50% 이내	328.0(318.5)	56.8(128.2)	0.2(0.4)
	중위소득 -50% 이하	342.7(281.8)	41.3(112.8)	0.2(0.3)

그렇다면, 다른 조건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생활비 대출의 총금액과 상환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델(Tobit Model)을 사용하여 생활비 대출 총액과 대출 총액대비 상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비 대출 총액에는 장학금 수혜 총액(+)과 생활비 대출의 종류로 든든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상환비율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졸업유예 재학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비 대출금은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20대 청년들이 은행권 등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은 이들에 비해 많고, 재학 중 장학금을 많이 받은 이들이 생활비 대출도 많은 금액을 받아 장학금이 대학생활비를 지원할 정도로 충분히 많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통해 생활비 대출을 한 20대 청년들의 상환률이 높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대출과 같이, 생활비 대출의 상환주체가 20대 청년이 아닌, 부모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졸업유예생이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에 비해 생활비 대출금의 상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다는 것은 이들의 취업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때, 생활비 대출금이 연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3 생활비 대출 총금액 및 총액 대비 상환 비율 : Tobit Model

변수		생활비 대출 총액	대출 총액 대비 상환 비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04 (0.09)	0.27 (0.39)
	연령	-0.01 (0.12)	-0.27 (0.52)
	부모 월평균 소득(log)	0.01 (0.04)	0.84 (0.33)*
대학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08 (0.10)	-0.69 (0.46)
	대학소재지(서울)	-0.05 (0.10)	-0.65 (0.46)
현재상태	재학생	-0.05 (0.16)	-1.23 (0.64)
	졸업유예 재학생	0.13 (0.20)	-3.32 (1.24)*
	졸업미취업 구직자	-0.11 (0.16)	-0.10 (0.62)
	졸업미취업 비구직자	-0.15 (0.17)	-1.28 (0.70)
	졸업정규직 취업자	-0.14 (0.17)	0.22 (0.62)
재학 중 근로 및 장학금 수혜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0.00 (0.01)	-0.01 (0.03)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	0.01 (0.04)	0.14 (0.18)
	장학금 수혜 총액	0.14 (0.04)**	-0.10 (0.18)
생활비 대출 종류	돈돈학자금 생활비 대출	0.47 (0.13)**	0.17 (0.49)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0.29 (0.11)*	1.23 (0.46)**
상수		4.19 (0.46)***	-5.16 (2.44)
Sigma		0.75 (0.03)	2.18 (0.22)
N		2,000	309
Left-Censored		1,691	65
LR chi ²		33.83**	43.85***
Pseudo R ²		0.05	0.09
Log likelihood		-350.78	-220.66

*** p<.001, ** p<.01, * p<.05

생활비 대출의 총액과 상환비율이 이상과 같다면, 상환에 대해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표IV-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는 10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평균 7.21점으로 등록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감(7.52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대체로 등록금 대출 상환에 부담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졸업미취업자의 생활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8.32점)가 앞서 분석한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정도(7.67점)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금액에 있어 등록금 대출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졸업미취업자에게 상환의 부담과 압박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생활비 대출이 갖는 또 다른 특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V-44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의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만원)

구분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
		대출상황에 대한 부담정도
전체 평균		7.21(2.6)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6.88(2.9)
	사립대	7.31(2.5)
현재 상태	재학생	7.6(2.3)
	졸업 미취업자	8.3(2.0)
	졸업 취업자	7.9(2.3)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5.20(3.0)
	중위소득 ±50% 이내	7.26(2.5)
	중위소득 -50% 이하	7.30(2.6)

이와 같은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정도의 차이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일하게 등록금대출의 총금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등록금 대출 금액이 많은 이들이 생활비 대출금액도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V-45 생활비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 정도 : Multiple Regressio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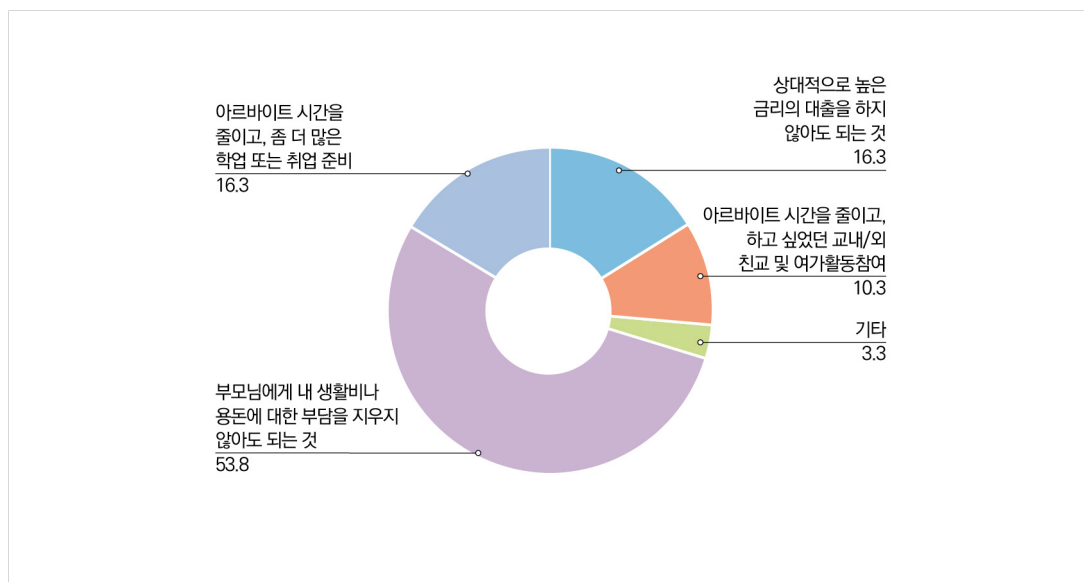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58(0.30)
	연령	-0.51(0.37)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8(0.1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45(0.33)
	전공(인문계열)	0.28(0.48)
	전공(사회계열)	0.08(0.48)
	전공(교육계열)	0.11(0.80)
	전공(공학계열)	-0.15(0.47)
	대학소재지(서울)	-0.36(0.33)
	재학생	-0.02(0.41)
현재 상태	졸업미취업자	0.55(0.40)
	졸업취업자	0.55(0.40)
대출 특성	등록금대출	-0.58(0.41)
	일반상환학자금대출	0.09(0.38)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등록금대출 총금액	0.00(0.00)**
	등록금대출 상환율	-0.00(0.00)
	상수	8.48(1.14)***
	N	331
	F	1.91*
	Adj. R ²	0.03

*** p<.001, ** p<.01, * p<.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비 대출은 20대 청년들에게 부담감만을 가져왔는가? 생활비 대출을 통해 얻은 이점은 없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로 얻은 가장 큰 이점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반 이상(53.8%)의 생활비 대출 유경험자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학업 또는 취업준비’에 시간 할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된 점이 각각 16.3%를 차지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교내/외 친교 및 여가활동 참여 시간을 가졌다는 비율도 10.3%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비 대출이 20대 청년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채감’을 완화시켜주고, 일을 병행하기 위해 충분히 갖지 못했던 시간을 갖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IV-16】 생활비 대출로 얻은 가장 큰 이점

③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 유형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분할 수 있고, 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등록금 대출만 하는 경우, 생활비 대출만 하는 경우, 또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모두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록금 대출 부담과 생활비 대출에 대한 부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등록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생활비 대출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높고, 생활비 대출에 대한 부담은 등록금 대출금액이 많은 이들이 높았다.

그렇다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는 이들은 20대 청년들 중 누구인가? 단지 부모의 소득수준이 20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유형을 결정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유형을 등록금만 대출한 경우, 생활비만 대출한 경우, 두 가지 모두 대출한 경우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 유경험자 중 등록금만 대출하는 경우가 조사대상자 전체의 53.2%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대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38.6%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6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 유형

(단위: 명, %)

구분		학자금 대출 유형		
		등록금만 대출	생활비만 대출	등록금+생활비 대출
전체		708(100.0)		
사례수(비율)		377(53.2)	58(8.2)	273(38.6)
성별	남	52.2	9.1	38.7
	여	54.2	7.4	38.4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38.7	19.4	41.9
	사립대	56.3	5.8	37.8
현재 상태	재학생	49.5	9.9	40.6
	졸업 미취업자	55.6	6.9	37.5
	졸업 취업자	57.1	6.5	36.4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72.2	2.8	25.0
	중위소득 ±50% 이내	57.1	7.8	35.2
	중위소득 -50% 이하	40.6	10.2	49.2
재학 중 아르바이트	예	43.7	11.3	45.0
	아니오	54.7	8.7	36.6

두 가지 모두를 대출하는 20대 청년들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대 재학·졸업생의 비율이 사립대학보다 높고,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두 가지 모두를 대출하는 비율이 높아, 중위소득-50%이하에서는 절반가량(49.2%)이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년들의 45.0%가 두 가지 대출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특성이 다른 조건을 통제 했을 때에도 동일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 학자금 대출 유형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등록금만 대출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만 대출하기 보다는 두 가지를 모두 대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등록금만 대출하기 보다는 생활비만 대출하거나,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대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7 학자금 대출 유형의 결정 요인: Multinomial Logit Model

구분	변수	생활비만 대출 /등록금만 대출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만 대출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52 (0.32)	-0.09 (0.17)
	연령	-0.75 (0.40)	0.49 (0.21)*
	부모 월평균 소득(log)	-0.30 (0.14)*	-0.24 (0.09)*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1.68 (0.32)***	0.53 (0.22)*
	전공(인문계열)	0.30 (0.52)	1.04 (0.27)***
	전공(사회계열)	0.56 (0.45)	0.52 (0.26)*
	전공(교육계열)	1.77 (0.65)**	0.35 (0.52)
	전공(공학계열)	0.18 (0.45)	0.31 (0.26)
	대학 소재지(서울)	0.00 (0.33)	-0.22 (0.18)
	재학생	0.25 (0.44)	0.69 (0.24)**
현재상태	졸업미취업자	-0.09 (0.43)	0.12 (0.22)
	상수	-0.27 (1.11)	-0.55 (0.68)
N		708	
Log likelihood		-603.40	
LR chi ²		78.92***	
Pseudo R ²		0.06	

*** p<.001, ** p<.01, * p<.05

또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의 경우 생활비만 대출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인문과 사회계열 전공자들은 타 전공자들에 비해 두 가지 모두를 대출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열 전공자는 등록금만 대출하기보다 생활비만 대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학생은 졸업취업자에 비해 두 가지 모두를 대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학년의 인문계열 및 사회계열 재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시사하며, 대출금액이 재학기간 중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졸업생들에 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현재의 재학생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2) 장학금 수혜

2000년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익자 원칙’을 적용한 대학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서 일명 ‘반값등록금’의 등록금 인하가 요구되자, 2012년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고자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부모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성적은 장학금 수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보니, 등록금과 생활비를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확보해야하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은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장학금 신청 요건인 성적을 갖추지 못해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 일부 사립대학이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장학금’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장학금’으로의 장학금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민일보, 2015.10.13.일자).

이와 같은 장학금 제도의 발전 동향과 최근의 사립대학에서의 장학금 운영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대학 재학 중 장학금 수혜경험과 총금액, 그리고 장학금 수혜에 따른 도움의 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① 장학금 수혜 경험

<표IV-4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이 확대된 만큼 조사대상자 전체의 장학금 수혜 경험률은 82.6%에 달한다. 국·공립대학의 재학·졸업생의 수혜 경험률이 사립대학에 비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타 전공계열에 비해 높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장학금

수혜 경험률이 높은데, 이는 시간 누적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50%이하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 경험률이 가장 높기는 하나, 국가장학금을 비롯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어 중위소득±50%이내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IV-48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장학금 수혜 경험	
		있다	없다
사례수(비율)		2,000(100.0)	
전체 평균		1,652(82.6)	348(17.4)
성별	남	81.4	18.6
	여	83.8	16.2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88.3	11.7
	사립대	81.0	19.0
대학전공계열	인문계열	80.7	19.3
	사회계열	84.2	15.8
	교육계열	88.0	12.0
	공학계열	82.1	17.9
	자연계열	81.6	18.4
학년	1학년	48.2	51.8
	2학년	79.7	20.3
	3학년	85.3	14.7
	4학년	88.9	11.1
	졸업연기(유예)	87.5	12.5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72.1	27.9
	중위소득 ±50% 이내	82.7	17.3
	중위소득 -50% 이하	86.8	13.2

그렇다면,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었을 때, 장학금 수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학금을 수혜 받을 가능성은 낮고, 국·공립대 재학·졸업생들이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졸업생이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만원 높으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23% 낮고,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이 사립대생에 비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1.66배 높다. 또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재학·졸업생은 타 지역대학의 재학·졸업생에 비해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35%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장학금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49 재학 중 장학금 수혜 경험: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9 (0.12)	0.82 (0.10)
	연령	0.00 (0.15)	1.00 (0.15)
	부모 월평균 소득(log)	-0.25 (0.08)**	0.77 (0.06)**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50 (0.16)**	1.66 (0.27)**
	전공(인문계열)	0.01 (0.20)	1.01 (0.20)
	전공(사회계열)	0.25 (0.19)	1.29 (0.24)
	전공(교육계열)	0.52 (0.39)	1.69 (0.66)
	전공(공학계열)	0.09 (0.19)	1.10 (0.21)
	대학소재지(서울)	-0.42 (0.12)**	0.65 (0.08)**
현재 상태	재학생	0.13 (0.18)	1.14 (0.20)
	졸업미취업자	-0.05 (0.16)	0.94 (0.15)
상수		2.96 (0.59)***	19.31 (11.43)***
N		2,000	
LR chi ²		44.86***	
Pseudo R ²		0.02	
Log likelihood		-901.91	

*** p<.001, ** p<.01, * p<.05

② 수혜 장학금 총액 및 도움 정도

대학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누적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것이 20대 청년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학 중 수혜받은 장학금 총액을 산출하고 도움의 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학금 수혜자의 평균 총액은 563.9만원이고, 사립대, 재학생의 경우 4학년, 부모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 50%이하에 해당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장학금 총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혜 받은 장학금에 대한 도움의 정도는 평균 7.78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50%이상에 해당되는 이들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균 수준 또는 평균 수준 이상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0 수혜 장학금의 총액 및 도움 정도

(단위: 만원)

구분		장학금 총액	도움 정도
전체 평균		563.9(579.7)	7.78(2.5)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483.5(472.9)	8.15(2.3)
	사립대	588.5(606.5)	7.67(2.5)
학년	1학년	256.6(204.7)	8.33(2.2)
	2학년	327.4(273.0)	8.00(2.4)
	3학년	508.9(490.1)	8.06(2.5)
	4학년	645.6(620.8)	8.01(2.6)
	졸업연기(유예)	560.3(629.6)	7.82(2.4)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422.1(504.8)	6.86(2.8)
	중위소득 $\pm$ 50% 이내	536.8(570.2)	7.66(2.5)
	중위소득 -50% 이하	687.0(609.1)	8.44(2.2)

그렇다면, 재학 기간 동안 받은 장학금 총액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가? 부모의 소득수준 이외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가?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 총액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토빗모델(Tobit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혜 장학금 총액에는 남성(-), 연령(-), 부모의 월평균 소득(-), 국·공립대(-),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생들이 사립대에 비해, 그리고 현재 재학생이 졸업취업자에 비해 수혜 받은 장학금 총액이 적고,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은 타 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에 비해 장학금 총액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장학금의 도움 정도에는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자가 장학금 도움정도가 낮고, 국·공립대학 재학·졸업자가 사립대학에 비해 도움정도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장학금 수혜의 기회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1 수혜 장학금의 총액 및 도움 정도: Tobit Model

변수		수혜 장학금 총액	도움정도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1 (0.05)*	-0.28 (0.21)
	연령	-0.16 (0.07)*	-0.46 (0.26)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3 (0.02)***	-0.54 (0.11)***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6 (0.06)*	1.12 (0.24)***
	전공(인문계열)	-0.18 (0.09)	0.04 (0.34)
	전공(사회계열)	-0.13 (0.08)	0.26 (0.32)
	전공(교육계열)	-0.14 (0.15)	-0.13 (0.57)
	전공(공학계열)	0.00 (0.08)	0.06 (0.32)
	대학소재지(서울)	0.16 (0.06)**	-0.65 (0.22)**
	재학생	-0.29 (0.08)***	0.29 (0.30)
현재 상태	졸업미취업자	0.02 (0.07)	-0.19 (0.28)
	상수	7.09 (0.22)***	9.65 (11.82)***
Sigma		1.09 (0.19)	4.38 (0.08)
N		2,000	2,000
Left-Censored		354	354
LR chi ²		64.80***	74.34***
Pseudo R ²		0.01	0.01
Log likelihood		-2494.71	-5154.41

*** p<.001, ** p<.01, * p<.05

(3) 재학 중 아르바이트

① 아르바이트 여부와 목적

학자금 부담에 따른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20대 청년들에게는 낯선 경험이 아니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이들은 최근세대로 올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높아 더욱 보편화되었다고 제보한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목적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의 41.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공립대 재학생에 비해 사립대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50%로 가장 높고, 학년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4학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3학년 이하 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다. 부모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장학금 수혜 경험에 없는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에 있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2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여부

(단위: 명, %)

구분		아르바이트 여부	
		예	아니오
사례수(비율)		1,000(100.0)	
전체 평균		41.1	58.9
성별	남	38.2	61.8
	여	44.0	56.0
대학설립주체	국공립대	39.0	61.0
	사립대	41.6	58.4
대학전공계열	인문계열	41.5	58.5
	사회계열	39.4	60.6
	교육계열	50.0	50.0
	공학계열	41.3	58.7
	자연계열	41.7	58.3
학년	1학년	48.2	51.8
	2학년	41.8	58.2
	3학년	44.0	56.0
	4학년	36.1	63.9
	졸업연기(유예)	41.3	58.7
부모월평균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32.8	67.2
	중위소득 ±50% 이내	40.5	59.5
	중위소득 -50% 이하	47.6	52.4
장학금수혜경험	있음	40.9	59.1
	없음	42.0	58.0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목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가? <표IV-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생활비(용돈) 충당’이 75.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앞서, 생활비 대출로 인한 이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것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던 것과 같이, 등록금 부담을 부모에게 지우면서 생활비나 용돈마저 부모에게 의존할 수 없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IV-53>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전체 평균 5.6%인데 반해서, 4학년은 7.5%, 졸업유예생은 14%로 높다는 사실이다.

표 IV-53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목적

(단위: 명, %)

구분		1) 등록금 충당	2) 나의 생활비(용 돈) 충당	3) 나의 등록금, 생활비 대출 상환	4) 해외연수, 해외여행 비용 마련	5) 원하는 것을 구입 또는 이용	6) 학원 수강 등 사교육비 마련	7) 기타
전체		6.8	75.7	5.6	3.6	5.6	1.7	1.0
학년	1학년	3.7	70.4	7.4	11.1	3.7	3.7	0.0
	2학년	7.6	71.4	1.9	4.8	13.3	1.0	0.0
	3학년	7.8	82.2	3.9	1.6	2.3	2.3	0.0
	4학년	7.5	77.6	7.5	3.7	1.9	0.0	1.9
	졸업유예	2.3	65.1	14.0	2.3	7.0	4.7	4.7

② 아르바이트 행태와 학업에 방해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일주일에 며칠 또는 몇 시간 일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학년에 따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르바이트 행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재학생들은 평균 3.64일, 주당 평균 17.5시간을 일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55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점 척도로 측정한 학업에의 방해정도는 평균 5.86으로 평가되었다. 학년수준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의 행태가 크게 차이 나는 않으나,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중위소득-50%이하에서 근로일수와 주당 근로일수가 평균보다 많으며, 학업에의 방해되는 정도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50%이상에서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이 근로일수나 주당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중위소득-50%이하의 저소득층 재학생에 비해 시간당 임금수준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저소득층의 재학생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곳에서 장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업에의 방해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V-54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일수, 시간, 월소득 및 학업 방해 정도

구분		근로일수 (단위: 일)	근로시간 (단위: 시간)	아르바이트 소득 (단위: 만원)	학업방해정도 (단위: 점)
전체 평균		3.64(1.6)	17.50(14.5)	55.57(38.1)	5.86(2.4)
학년	1학년	3.85(1.5)	18.00(13.9)	58.26(36.9)	5.52(2.7)
	2학년	3.59(1.6)	14.99(11.4)	52.98(34.3)	5.72(2.5)
	3학년	3.57(1.7)	17.79(15.7)	54.58(45.9)	6.12(2.4)
	4학년	3.64(1.6)	19.99(15.0)	55.67(30.8)	5.77(2.4)
	졸업연기(유예)	3.79(1.8)	16.28(15.7)	62.88(38.9)	—
부모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3.44(1.8)	15.26(12.6)	60.64(41.6)	5.00(2.2)
	중위소득 ±50% 이내	3.48(1.6)	17.28(13.5)	54.09(36.1)	5.90(2.4)
	중위소득 -50% 이하	4.13(1.7)	18.97(17.3)	57.57(41.9)	6.07(2.5)

③ 아르바이트를 통한 근로소득에의 영향요인

앞서, 현재 대학 재학생의 10명 중 4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더 많은 반면, 일하는 시간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길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의 여부와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의 아르바이트 여부 및 아르바이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회귀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주34)}

분석 결과, 아르바이트 여부에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르바이트 소득에는 서울소재대학 재학생일수록 소득이 적고, 등록금 충당이나 대출상환을 목적으로 할 때, 그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수록 아르바이트 소득액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34) 헤크만의 선택편의 교정회귀모델(Heckman's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 Model)은 2단계로 추정모델로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 여부 추정에서 얻어진 Inverse mills ratio를 설명변수에 포함하여 선택편의를 교정한 상태에서 최소제곱방식으로 2단계 근로소득의 영향요인을 추정한다. 근로소득의 결정요인을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쉽게 갖는 실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재학생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여 OLS방식으로 추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재학생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하여 과대추정의 문제가 생긴다. 즉, 근로소득이 없는 이들로부터 발견될 수 있는 선행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OLS 추정으로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Heckman's Selection Model이 활용된다(조혜영·김지경·전상진, 2012, p.140)

이와 같은 결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지의 여부만을 가지고는 재학생들의 경제적 필요를
기능할 수 없으며, 일하는 목적과 근로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선별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의 욕구가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새로운 지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별 조건을
단순화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표 IV-55 재학 중 근로여부 및 근로소득 영향 요인: Heckman's Selection Model

변수		1단계: 아르바이트 여부 Probit Analysis		2단계: 아르바이트 소득 Truncated Regression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08	(0.09)	8.89	(5.25)
	연령	0.26	(0.15)	6.76	(16.43)
	부모 월평균 소득(log)	0.14	(0.05)**	3.59	(5.09)
대학 및 재학 학년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0	(0.11)	-7.49	(6.59)
	학년(1학년)	-0.04	(0.29)	5.25	(11.2)
	학년(2학년)	0.09	(0.18)	-2.11	(8.73)
	학년(3학년)	0.08	(0.17)	-3.36	(8.09)
	학년(4학년)	0.23	(0.16)	-1.00	(13.04)
	대학 소재지(서울)	0.02	(0.09)	-0.91	(4.05)*
	수혜 장학금 총액	0.00	(0.00)	-	
근로특성	근로목적 (등록금 충당 및 대출 상환)			20.43	(5.51)***
	근로유형(정기적 근로)	-		0.73	(3.79)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9	(0.12)***
상수		-1.09	(0.43)*	15.16	(26.96)
lamda				-9.26	(27.75)
N		1,000		340	
Log likelihood		-553.39		-	
F		-		9.10***	
Adj R ²		-		0.23	

*** p<.001, ** p<.01, * p<.05

4) 졸업 전·후 취업준비와 구직경험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취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에 대해 조사대상 20대 청년들은 ‘인성→외국어구사능력→직무관련자격증’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학생은 ‘외국어구사능력→인성→직무관련자격증’, 졸업미취업자는 ‘직무관련자격증→외국어구사능력→외국어점수’, ‘졸업취업자는 ‘인성→직무자격증→외국어구사능력’의 순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임.
- 인턴은 전체 20대 청년들 중 16.1%가 경험을 하였고, 졸업취업자의 경험률(29.2%)이 졸업미취업자(18.2%)나 졸업유예생(22.1%)에 비해 높음. 서울소재대학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인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실증모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 인턴 유경험자들은 평균 1.36회, 6.33개월 인턴경험이 있으며, 졸업취업자의 경우 평균 1.45회, 7.7개월의 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인턴의 경험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은 취업에의 도움(5.24점/10점)보다 진로결정에 더 큰 도움(6.37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재학 중 및 졸업 후 시기 모두에 인턴 유경험자들은 진로결정에 절대적으로 도움(9점/10점)이 되며, 취업에도 도움(7.4점/10점)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인턴제의 확대 운영이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겪는 구직과정의 어려움을 종합해보면, 일자리부족과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된 취업 기회라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빚어지는 경쟁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취업요건의 상승의 문제도 주된 어려움이지만, 졸업미취업자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임. 초-중-고-대학을 거쳐 오는 과정에서 자기탐색의 기회의 부족과 자기탐색의 시간이 부재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임. 따라서 대학 재학생들에게 졸업 전 자기탐색의 기회와 시간을 의무적으로라도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1) 취업 요건과 준비

① 취업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건

앞서 제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극심한 취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보다 많은 스펙 쌓기의 경쟁으로 확장되어 있고,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생활의 내용은 ‘취업’으로 수렴되며, 취업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 개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취업스펙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요건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를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 파악된 사항들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총16개 항목을 나열하고, 각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현재 상태에 따라 20대 청년집단 내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항목 중 조사대상 전체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받은 항목은 인성(4.17점)이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 구사 능력(4.16점), 직무관련자격증(4.1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국내외 봉사활동 경험(3.07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도의 순위는 현재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세 집단별 각 항목의 중요도 점수의 차이는 직무관련 자격증 및 외모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6 취업 스펙의 주관적 중요도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 취업자	GLM-test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1) 출신대학(학벌)	3.94(1.0)	3.96(1.0)	4.01(0.9)	3.84(1.0)	3.635*
2) 전공	3.75(1.0)	3.85(0.9)	3.69(0.9)	3.60(1.0)	12.252***
3) 학점	3.67(0.9)	3.79(0.9)	3.65(0.9)	3.45(0.9)	24.846***
4) 직무(하는 일)관련 자격증	4.14(0.7)	4.15(0.7)	4.18(0.7)	4.07(0.8)	2.710
5) 외국어 점수	4.04(0.9)	4.12(0.8)	4.06(0.9)	3.88(1.0)	12.428***
6) 외국어 구사 능력	4.16(0.8)	4.25(0.8)	4.13(0.9)	4.00(0.9)	15.328***
7) 인턴경험	3.81(0.9)	3.89(0.8)	3.84(0.8)	3.62(0.9)	16.172***
8) 직무관련 경력(인턴경력 제외)	3.99(0.8)	4.00(0.8)	4.05(0.8)	3.92(0.8)	3.334*
9) 인적 네트워크(인맥)	3.99(0.9)	4.00(0.9)	4.01(0.9)	3.94(0.9)	0.945
10) 대외활동 경험	3.58(0.9)	3.57(0.9)	3.68(0.8)	3.50(0.8)	5.878**
11) 공모전 수상경력	3.50(0.9)	3.55(0.9)	3.54(0.9)	3.35(0.9)	9.334***
12) 동아리, 학회 등 교내활동 경험	3.12 (0.9)	3.11(1.0)	3.18(0.9)	3.08(0.9)	1.381
13) 국내외 봉사활동 경험	3.07(1.0)	3.07(1.0)	3.08(0.9)	3.05(1.0)	0.123
14) 인성(태도, 성격 등)	4.17(0.9)	4.23(0.8)	4.04(0.9)	4.17(0.9)	8.301***
15) 외모	3.68(0.9)	3.65(0.9)	3.74(0.9)	3.66(0.9)	1.503
16) 성별(남성/여성)	3.14(1.1)	3.02(1.2)	3.32(1.1)	3.21(1.1)	12.307***

*** p<.001, ** p<.01, * p<.05

재학생의 경우, 외국어구사능력(4.25)이 가장 중요한 스펙요건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성(4.23), 직무관련 자격증(4.15), 외국어점수(4.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가 스펙의 중요도에서 가장 점수가 낮다.

졸업자의 경우, 현재 취업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직무관련 자격증(4.18)이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구사능력(4.13), 외국어점수(4.06), 인성(4.04)의 순이다. 졸업취업자의 경우 인성(4.17)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무관련 자격증(4.07), 외국어구사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졸업자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이 국내외 봉사활동경험이라는 사실이다.

② 취업준비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외국어구사능력과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업 시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취업을 위해 해당 요건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된 내용에 기초하여 10가지 항목을 선정하고, '준비 하고 있다', 또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IV-57 재학생과 졸업 미취업자의 취업 준비 사항

(단위: 명, %, 점)

항목	전체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χ^2 -test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취업준비 항목 없음	31.9	36.4	22.8	28.396***
취업준비 항목 있음 ^주	68.1	63.6	77.2	
1) 외국어 회화 수강	14.6	21.4	16.9	—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응시	24.5	39.8	29.6	
3) 어학연수 계획 및 준비	10.4	12.6	11.1	
4) 면접훈련 교육, 컨설팅, 학습모임(스터디) 참여	9.9	21.2	13.7	
5)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22.1	35.6	26.6	
6) 공모전 준비	8.3	10.6	9.1	
7) 자격증 취득	19.8	42.0	27.2	
8)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에 참여	14.0	24.0	17.3	
9)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23.6	31.0	26.1	
10) 외모관리	14.1	20.0	16.1	

*** p<.001

주: 준비하고 있는 항목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항목 간 중복 선택

우선, 재학생 보다는 졸업미취업자 집단에서 10개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가 4학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1학년~3학년 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 재학생집단에서 취업준비 항목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졸업미취업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분석결과,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 모두 ‘토플·토익 등 외국어 시험 응시·IT·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수강·외국어회화 수강·면접훈련교육·컨설팅·학습모임(스터디)참여·어학연수 계획 및 준비’의 순으로 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을 위한 20대 청년들의 준비가 졸업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외국어점수와 컴퓨터 활용능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플·토익과 같은 외국어점수와 컴퓨터 활용능력은 취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가? 초점집단인터뷰(FGI)에 참여한 졸업취업자들 중 공학계열 전공자들은 취업에 있어 그다지 많은 스펙이 필요치 않으며, 스펙의 문제는 취업문이 상대적으로 더 좁은 인문이나 사회계열에 해당된다고 제보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체로 어학은 서류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기본 스펙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앞서, 재학생이나 졸업미취업자 외국어점수 획득을 위한 취업준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기본 스펙이라는 것이다.

“제가 느꼈을 때는 (스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 공대생들… (저는) 인턴 경력도 없고 영어성적도 없고 학점이 좋지 않지만 공대생이니까.”(졸업취업자 C5)

“스펙 같은 그것들은 거의 다 문과에 해당되는 거예요.”(졸업취업자 C5)

“(스펙)아무 쓸데없어요.”(졸업취업자 D4)

“실용적인 컴퓨터나 기사자격증 이런 거는 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거는 크게 적용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데 좋게 봐주기는 해요. 성실성을 대변한다고 저희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경험 위주의 인재를 많이 뽑는 거 같은 경향은 확실히 보여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이제 어학은 아예 기본이 되어 버렸고 그 위로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은연중에 받는 것 같아요.”(졸업취업자 D2)

“학점.”(졸업취업자 C4)

“학점이랑 토익이죠. 서류 통과하기 위해서...굳이 뽑자면 아까 인턴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 학생 때부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나. 그러니까 저는 스펙이 없어서 서류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서류 통과돼서 면접을 갔을 때는 거의 붙었거든요. 말할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졸업취업자 C1)

“인턴 경험.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학점 폐지하고 토익 폐지하고 틀에 박힌 거를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PR을 하긴 다 거기서 파생 되는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을 했어야 애깃거리가 있고 봉사활동을 갔다 와야 애깃거리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서.저는 자격증이랑 인턴.회사와 관련된 거요. 저는 전공이랑 달라서.”(졸업취업자 C6)

(2) 인턴경험

취업경쟁에서 실무경험이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면서 인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20대 청년들 간에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취업으로 연계되는 인턴과정의 경우 입사전형에 버금가는 전형을 거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률을 상승시키고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나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고^{주35)}, 각 기업에서는 자체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주36)}

인턴의 경험은 단순히 경험에 그치기도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까지 연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턴제도가 20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또는 노동시장에서 신규직원을 모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20대 청년들이 인턴의 경험이 있고, 어떠한 요인들이 인턴경험을 결정하며, 인턴의 경험이 취업이나 진로결정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를 파악하였다.

주35) IMF외환위기 직후, 1998년 청년층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지원 인턴사원제’를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로 이어짐.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2014.08)」에 따르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함(김종진, 2015.09.03., p.2~4).

주36)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턴채용 방식으로, 대기업의 ‘직무적합형 인재 채용’의 방식으로 정규직 연계 채용이 핵심임. 대기업에서의 인턴제의 활용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정부정책에 호응을 하는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인력의 채용 방식으로 정착하고 있음(김종진, 2015.09.03., p.4~5).

① 인턴경험의 유무

전체 조사대상자의 16.4%가 인턴경험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험률이 다소 높다. 그러나 졸업취업자에 한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턴 경험률이 동일하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자연계열-인문계열-공학계열-교육계열 순이며, 졸업취업자의 경우 모든 계열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비율을 갖는 반면,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계열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으며 특히 졸업유예생의 경험률은 대학 4학년에 비해 8%p 가량 높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세 집단의 인턴경험률을 비교해보면, 졸업취업자의 경험률(29.2%)이 졸업미취업자(18.2%)를 크게 상회하며, 졸업미취업자의 인턴경험률은 졸업유예생(22.1%)보다 낮다.

표 IV-58 인턴 경험률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전체 평균		328(16.4)	90(9.0)	391(18.2)	146(29.2)
성별	남	14.7	8.0	13.6	29.2
	여	18.0	10.0	22.8	29.2
대학설립 주체	국공립대	16.7	11.5	13.1	32.0
	사립대	16.3	8.4	20.1	28.5
대학전공 계열	인문계열	16.5	5.9	24.8	26.7
	사회계열	18.3	9.6	20.8	31.0
	교육계열	9.3	13.3	0.0	20.0
	공학계열	14.9	9.2	14.3	28.8
	자연계열	17.0	10.6	16.9	31.8
학년	1학년	3.6	3.6	—	—*
	2학년	1.2	1.2		
	3학년	6.5	6.5		
	4학년	14.5	14.5		
	졸업연기(유예)	22.1	22.1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인턴경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턴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낮고,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은 타 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에 비해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낮으며, 졸업취업자 보다는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 모두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31% 낮고,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은 타 지역소재 대학 재학·졸업생들에 비해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1.45배 높다. 또한 재학생은 졸업취업자에 비해 인턴경험의 가능성이 72% 낮고, 졸업미취업자는 졸업취업자에 비해 46%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인턴경험을 하고 있으며, 취업한 20대 청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인턴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인턴경험이 취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9 인턴 경험 유무 : Logistic Regression Model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36 (0.13)**	0.69 (0.09)**
	연령	0.31 (0.16)	1.37 (0.22)
	부모소득	0.01 (0.06)	1.01 (0.06)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0 (0.15)	1.10 (0.17)
	전공(인문계열)	-0.09 (0.21)	0.91 (0.19)
	전공(사회계열)	0.06 (0.19)	1.06 (0.20)
	전공(교육계열)	-0.78 (0.43)	0.45 (0.19)
	전공(공학계열)	-0.04 (0.20)	0.95 (0.19)
	대학소재지(서울)	0.37 (0.13)**	1.45 (0.19)**
현재 상태 (졸업취업=0)	재학생	-1.27 (0.18)***	0.28 (0.05)***
	졸업미취업자	-0.06 (0.15)***	0.54 (0.08)***
상수		-1.39 (0.50)**	0.24 (0.12)**
N		2,000	
LR chi ²		119.42***	
Pseudo R ²		0.07	
Log likelihood		-831.14	

*** p<.001, ** p<.01, * p<.05

② 인턴경험의 시기와 기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턴경험은 재학 중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시기에 인턴 경험이 집중되며, 인턴 경험의 시기가 20대 청년 내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표Ⅳ-6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재학 중 시기의 경험률이 71.4%로 절대 다수가 대학 재학 중에 인턴을 경험하였으나, 졸업취업자의 경우 50.7%만이 재학 중 경험이고, 32.2%는 졸업 후에, 17.1%는 재학 중에도 후에도 모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학 중과 후에 모두 경험한 비율이 졸업취업자와 졸업미취업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졸업 전과 후에 모두 인턴경험을 한 이들이 현재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Ⅳ-60 인턴경험의 시기

(단위: %)

구분		인턴경험 시기		
		재학 중에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모두	졸업 후에
전체 평균		70.0	9.2	20.8
현재 상태	재학생	100.0	—	—
	졸업미취업자	71.4	5.5	23.1
	졸업취업자	50.7	17.1	32.2

대학 졸업 전과 후에 인턴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턴경험이 단 1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은 몇 번의 인턴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턴경험의 횟수와 기간을 산출하고, 현재 상태에 따른 세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턴 유경험자들은 평균 1.36회의 인턴경험이 있으며, 그 기간은 평균 6.33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턴경험의 횟수와 기간은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횟수와 기간에 있어서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졸업자 중에서는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더 많은 횟수와 더 장기간의 인턴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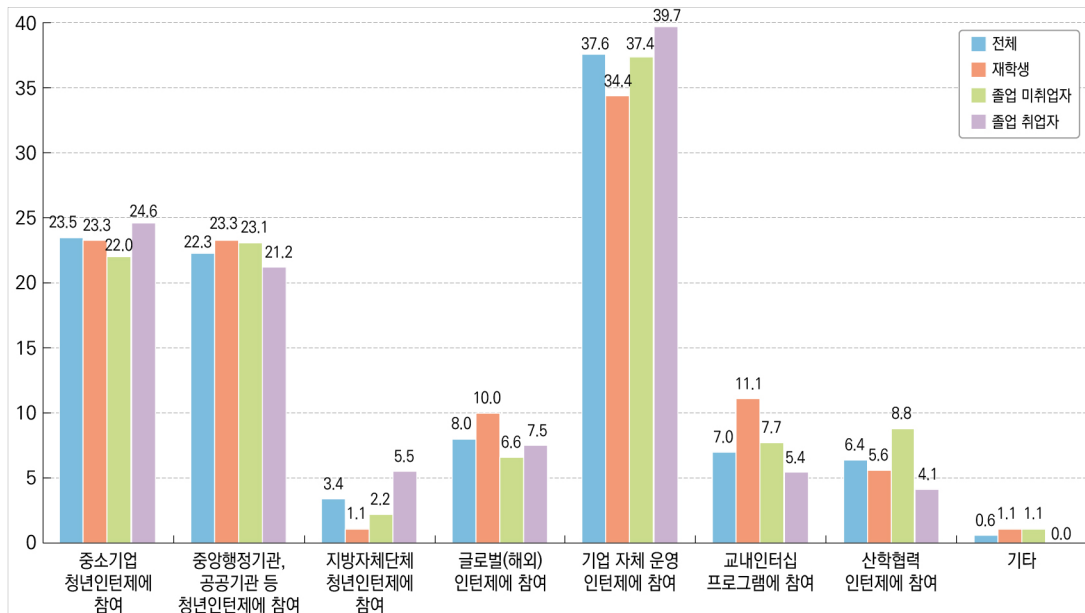
표 IV-61 인턴경험의 횟수와 기간

(단위: 개, 개월)

구분		인턴경험	
		횟수	기간(개월)
전체 평균		1.36(0.6)	6.33(6.2)
현재 상태	재학생	1.29(0.5)	4.55(4.3)
	졸업 미취업자	1.30(0.6)	5.89(6.4)
	졸업 취업자	1.45(0.7)	7.70(6.6)

③ 인턴제 종류와 도움정도

평균 1회 이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의 인턴경험을 하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는 인턴제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와 앞서 제3장에서 고찰한 정책현황에 기초하여, 20대 청년들이 경험한 7가지의 인턴제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림 IV-17】 경험 인턴제 종류의 분포(복수응답)

분석 결과, 인턴 유경험자의 37.6%가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를 경험하였으며, 졸업취업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39.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5%가 참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

제' 또한 졸업취업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24.6%의 경험률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인턴 유경험자의 22.3%가 경험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졸업취업자보다(21.2%)는 재학생(23.3%) 및 졸업미취업자(23.1%)에서의 경험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인턴기회인 '글로벌인턴제'(10.0%)나 '교내인턴십'(11.1%)에 참여하는 비율이 졸업생들에 비해 높고,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산학협력 인턴제'(8.8%)의 경험률이 재학생이나 졸업취업자에 비해 높다.

이와 같이, [그림IV-17]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졸업 전·후 다양한 인턴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경험한 인턴제도가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진로결정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턴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인턴경험이 진로결정에, 그리고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를 10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0점 중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6.37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5.24점으로 나타나, 취업보다는 진로결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참여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 재학 중 그리고 졸업 후 모두 인턴경험을 한 집단의 경우, 진로결정에의 도움정도가 10점 중 9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취업에의 도움정도도 7.4점으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에만 인턴경험을 한 청년들이 졸업 후에만 인턴경험이 있는 이들에 비해 진로결정과 취업에의 도움정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평가하였다.

표 IV-62 인턴 경험의 진로결정 및 취업에의 도움정도

(단위: 점)

구분		도움정도	
		진로결정	취업
전체 평균		6.37(2.4)	5.24(2.3)
참여시기	재학 중	6.45(2.4)	5.27(2.2)
	재학 중 + 졸업 후	9.00(1.0)	7.40(1.1)
	졸업 후	5.14(2.7)	4.48(2.8)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턴경험이 실제 취업연계보다는 진로지원으로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동시에 대학 재학 시기에도 그리고 졸업 후 취업준비

시기에도 모두 지원이 필요한 제도임을 명확하게 드러냈으며, 졸업 후보다는 대학 재학 중에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제도의 확대·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취업까지 연계되는 인턴경험은 없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자 중 인턴유경험자 327명을 대상으로 취업으로 연계된 인턴제의 유무 및 그 종류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 중 61.2%가 취업까지 이어진 인턴경험이 없고, 그 비율은 졸업미취업자(76.9%)가 취업자(5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자 전체 수준에서 보았을 때, '기업 자체운영 인턴제'와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서 취업으로 연계가 미미하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취업상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졸업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기업 자체운영 인턴제'에서 취업까지 연계된 비율이 16.7%로 같은 수준이다.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서 취업까지 연계된 비율이 11.5%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계약기간이 있는 비정규직으로 연계된 후 계약기간 만료로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IV-63 취업으로 연계된 인턴제 유무 및 종류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사례수(비율)		327(100.0)	91(100.0)	146(100.0)
취업까지 연계된 인턴제 종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2.2	0.0	16.7
	공공기관 등 청년인턴제	7.1	11.5	5.6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제	1.0	0.0	1.4
	글로벌 인턴제	1.0	0.0	1.4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14.3	7.7	16.7
	기타	3.1	3.8	2.8
취업까지 이어진 인턴경험 없음		61.2	76.9	55.6

인턴경험이 취업으로까지 연계되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이들 중 인턴경험 유경험자의 생생한 경험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청취한 20대 청년들의 인턴경험에서는 채용의 권한을 쥐고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사회가 20대 청년 인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권력관계에서 부당함이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인턴경험마저도 다층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아 중견기업의 인턴기회를 잡고, 중견기업의 인턴경험으로 대기업 인턴에 지원하는, 즉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인턴 경험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인턴이 아닌, 정부프로그램이나 학교프로그램 연계되어 운영되는 인턴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그 부실한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는 인턴에서 전환됐으니까 제가 인턴에서 된 거는 면접관님이 (제) 이미지를 좋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저희 회사에서 회사 인턴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연결해서 온 애들도 있었는데... 그 애들을 받은 (회사의) 지점에서는 회사에서 (직접) 뽑은 인턴 애들이랑 똑같이 대우를 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애를 정식 인턴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적성도 다시 쳐야 하고...개네들은 하나라도 (이력서에) 적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를 다른 회사에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용을 풀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인사담당자들이 체크하는 리스트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졸업취업자 C4)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인턴을 원하는 사람들도 다 대기업 인턴, 이름이 있는 인턴을 원하는데 그런 인턴을 가지려면 인턴 경력을 가지려면 어렵죠. 대기업 취업하는 거랑 비슷하죠. 인턴 할 때도 보고 다른 대기업 전부 다 인턴 할 때도 인적성을 봐요. 그런데 꼭 굳이 저는 대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처음 시작했던 거고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그런 데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 인턴 경험을 살려서 대기업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봤어요.”(졸업취업자 C5)

“저는 학교 프로그램 이용했어요. 저는 두 개를 다 해 봤거든요. 학교프로그램에서 2개의 기업을 해 봤고 지금 제가 일하는 데가 제가 알아본 데예요. (학교프로그램과 제가 알아본 기업의 인턴제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학교 프로그램은 교수님이랑 거기 인사담당자랑 연결을 해서 학생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물어보면 똑같아요. 하는 거 없다고. 다 시간 때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담당자도 학교에서 어떤 애가 올지 모르고 학교에서 뽑은 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한 2, 3달 하고 보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도 없고 기껏 해 봤자 현장 따라가고 그런 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회사에서 뽑은 인턴은 다르겠죠.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개 다 해본 입장으로는”(졸업취업자 C6)

“인턴 얼마 하면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교육을 받고 연수원 갔다 오고 하니까 상위 몇 %만 전환되고, 몇 %는 또 유예기간 밑으로는 또 자르고, 또 6개월 지나서 몇 % 그 중에 전환하고 그때는 또 다 자르고 그런 게 다른 거죠. 처음에 인터넷으로 공고 할 때는 얼마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교육 받으면 상위 10%, 20% 전환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런 거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죠. 그 사람들 이게 뭐냐?”(졸업취업자 C6)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학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졸업 취업자 C2)

(3) 구직경험

앞서, 취업요건의 준비와 인턴제를 통한 실무의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구직의 경험과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구직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① 현재 구직활동 여부

졸업취업자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분석하였다. <표Ⅳ-6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구직활동의 여부를 표본할당의 기준으로 적용하여 5:5의 비율을 보이며, 재학생의 경우 21.6%가 현재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재학생 표본으로 포함된 이들 중 4학년과 졸업유예생이 20.0%가량 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4학년과 졸업유예생 모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4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의 현재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전체	1,500(100.0)		1,000(100.0)		500(100.0)	
사례수(비율)	466 (31.1)	1,034 (68.9)	216 (21.6)	784 (78.4)	250 (50.0)	250 (50.0)

그렇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의 구직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본 연구에서 산출·분석된 이들 두 집단의 평균 구직활동기간은 10.44개월로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졸업미취업자는 1년을 초과하는 13.28개월, 재학생은 상대적으로 짧은 7.14개월이다.

표 IV-65 재학생 및 졸업미취업자 구직활동자의 평균 구직기간

(단위: 개월)

구분		구직활동 기간
전체 평균		10.44(11.46)
현재 상태	재학생	7.14(8.9)
	졸업 미취업자	13.28(12.6)

이와 같이 장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구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구직실패의 경험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학 및 졸업미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IV-66 재학생 및 졸업 미취업자 구직활동자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사례수(비율)	1,500(100.0)	1,000(100.0)	500(100.0)
1)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	21.0	18.1	23.6
2) 학점, 영어점수, 자격증, 인턴경험 등 모집 요건에 내가 자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23.4	27.3	20.0
3)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16.7	15.3	18.0
4) 취업 지원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12.9	11.1	14.4
5)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 일자리라는 것	12.9	16.7	9.6
6)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3.2	1.9	4.4
7)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5.6	7.9	3.6
8) 기업의 채용기준이 불명확해서	3.9	1.9	5.6
9) 기타	0.4	0.0	0.8

분석 결과, '지원요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 가를 모른다'는 것'으로 21.0%를 차지하였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상실(16.7%), 취업기회의 부족 및 비정규일자리(12.9%)의 사유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재학생이나 졸업미취업자나 구직자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이를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려움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재학생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27.3%)인 반면, 졸업미취업자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 가를 모른다'는 것'(23.6%)가 가장 높다.

이와 같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근본적으로 일자리 부족 그리고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에 집중된 취업 기회라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높아지는 자격 요건을 채워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잘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대 청년들이 초·중·고·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삶에서 스스로가 주체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취업준비 이전에 자기탐색과정이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단순기술을 위한 훈련과정에 앞서, 20대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기탐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의무적으로라도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청년들은 어떠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가? 모두 취업을 위한 시험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장기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비활동 사유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학년 이하 학년생들이 포함된 재학생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지만, 이 사유를 제외한 주된 비구직활동의 사유는 '지원요건의 부족'(18.5%)로 나타났다.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공부'(29.2%)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자격요건의 부족'(18.4%), '반복되는 구직의 실패'(10.8%)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67 구직 비활동 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 미취업자
사례수(비율)	1,500(100.0)	1,000(100.0)	500(100.0)
1) 원하는 곳 지원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18.5	18.5	18.4
2) 반복되는 구직 실패에 지쳐서	3.0	0.5	10.8
3) 구직실패 때문은 아니지만 당분간 여가를 즐기며 쉬고 싶어서	2.5	1.0	7.2
4) 내가 원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해서	9.0	8.8	9.6
5) 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1.7	0.4	6.0
6) 공무원시험 또는 자격증취득을 위해 공부 중이어서	15.6	11.2	29.2
7) 군입대 또는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이어서	2.9	3.4	1.2
8)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어서	43.8	54.5	10.4
9)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해서	1.4	0.8	3.2
10) 기타	1.6	0.9	4.0

5) 졸업 후 취업경험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졸업자의 취업경험 비율은 60.8% 이고, 졸업 후 평균 1.59회의 취업경험을 가짐. 졸업자 10명 중 4명 가량은 평균 졸업 후 경과기간 1.23년 동안 취업경험이 전혀 없음. 취업한 첫 일자리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58.0%임 수준임.
- 첫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이직의 주된 사유가 되는 것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나 고용계약만료의 사유이지만, 20대 청년들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유는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의 부재’로 드러나,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정착과 생애 삶의 기반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하며, 그러한 방식의 접근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20대 청년들은 ‘경제적 필요로 어떠한 일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정규직 취업 시 공백 줄이기’ 등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직무몰입도에 있어 정규직(4.4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3.5점)을 보임.
- 장시간 근로, 높은 업무스트레스,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 발전에 대해 탐색수준이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20대 청년들이 이직준비의 가능성이 높으나, 고용의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의 수준은 이직준비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1) 첫 취업 일자리

①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와 첫 일자리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지체되는 것은 20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근무여건이 좋은 괜찮은 일자리는 20대 청년들에게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생애 첫 일자리가 그 이후에 옮겨가는 일자리를 결정한다는, 즉 첫 일자리의 종속성에 대한 인식이 취업난 속에서 20대 청년들 사이에 지배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는 아예 진입을 꺼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어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주3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후 취업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며, 그 첫 단계로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취업경험의 유무와 경험한 일자리의 수를 조사·분석하였다.

표 IV-68 졸업자의 졸업 후 취업경험 유무 및 경험 일자리 수

(단위: 명, %, 년, 횟수)

구분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1,000(100.0)
졸업 후 취업경험	없음		39.2
	졸업 후 경과기간	평균(편차)	1.23(1.21)
	있음		60.8
	취업 경험 횟수	1회	60.3
		2회	25.6
		3회	9.2
		4회	4.1
		5회 이상	0.8
	평균(편차)		1.59(0.88)

분석 결과, 졸업자 중 졸업 후 취업경험이 있는 비율은 60.8%이고, 이들은 평균 1.59회의

주37) 비경제활동자 중 취업준비생의 규모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53만 7천명 이었으나, 2013년 5월 기준으로는 61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음. 2013년 5월 현재 비경제활동자 중 취업준비생은 11.3%를 차지함(통계개발원, 2014, p.178).

취업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1회의 취업 경험(60.8%)을 갖고, 2회의 취업 경험을 갖는 비율(25.6%)도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과는 달리,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졸업자는 39.2%로, 졸업자 10명 중 4명은 졸업 후 취업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평균 졸업 후 경과기간이 1.23년이라는 사실이다. 대학 졸업자 10명 중 4명이 1년이 넘도록 취업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졸업 후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또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일자리는 첫 일자리와 일치하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졸업자 608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취업상태, 그리고 현재의 일자리와 첫 일자리와의 일치여부를 교차방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졸업 후 취업 유경험자들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은 82.3%이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17.7%이다. 이는 졸업 후 취업은 했지만 현재 미취업인 20대 청년들은 17.7%가량 되고, 첫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든(58.0%)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든(42.0%) 상관없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82.3%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에서 현재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비율이 58.0%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9 졸업자의 현재 상태와 첫 일자리의 일치 여부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사례수(비율)	608(100.0)	108(17.7)	500(82.3)
	608(100.0)	108(100.0)	500(100.0)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일치	47.7	—	58.0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 불일치	52.3	100.0	42.0

② 첫 일자리에서의 근로여건

20대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첫 일자리는 어떠한 일자리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와 근로여건을 간략하게 조사·분석하였다. 단, 여기에서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다른 이들만을 대상으로 우선 살펴보고, 뒤에 취업자들의 현재일자리 부분에서는 첫 일자리와 현재 일자리가 같은 이들을 포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취업한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며,

첫 일자리가 정규직이었던 이들이 현재도 정규직인 비율은 65.3%에 달하지만, 첫 일자리가 정규직이었으나 현재 비정규직인 경우도 38.3%나 된다. 이는 정규직 여부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바로 사업체 규모이다.

표 IV-70 첫 일자리 고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주 등 비임금근로
사례수(비율)		318(100.0)		
전체 평균		157(49.4)	154(48.4)	7(2.2)
현재 상태	졸업 미취업자	47.2	50.0	2.8
	정규직 취업자	65.3	31.6	3.2
	비정규직 취업자	38.3	60.9	0.9

<표IV-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한 첫 일자리의 사업체 유형은 40.3%가 중소기업이며, 그 다음으로는 13.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다. 현재 졸업미취업자의 37.0%라는 결과와 일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환경과 여건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해될 수 있는 행태이다.

표 IV-71 첫 일자리 사업체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 미취업자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비율)	318(100.0)	108(100.0)	95(100.0)	115(100.0)
1) 대기업	8.5	9.3	11.6	5.2
2) 중견기업	13.2	13.0	14.7	12.2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0.3	37.0	38.9	44.3
4)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인)	2.5	3.7	1.1	2.6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9.7	12.0	7.4	9.6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11.9	13.0	9.5	13.0
7) (재단, 사단) 법인단체	4.7	3.7	5.3	5.2
8) 본인운영 사업체(창업 포함)	5.7	3.7	9.5	4.3
9) 소규모 개인사업체	2.2	2.8	2.1	1.7
10) 기타	1.3	1.9	0.0	1.7

첫 일자리 사업체 유형에 이어 근로조건을 주당 평균근로시간과 월평균 급여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41.4시간으로 주당 40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월평균 급여는 149.2만원으로 25세~29세 연령층의 평균 급여(174.6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주38)}

표 IV-72 첫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

(단위: 시간, 만원)

구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전체 평균		41.4(17.4)	149.2(52.2)
현재 상태	졸업 미취업자	38.6(16.8)	150.6(49.1)
	정규직 취업자	43.5(16.2)	160.8(60.7)
	비정규직 취업자	42.3(18.8)	138.4(45.3)

②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

다음에서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았는데, 현재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고용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현재 취업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 만료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제외하고, 20대 청년들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사유는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이다. 이는 20대 청년들은 첫 일자리로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생애 경력을 개발하고 쌓을 수 있으며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곳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층의 하청구조 속에서 다수의 20대 청년들이 ‘갑-을-병-정-무-기...’까지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서야하는 중소기업에 입직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체계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는 20대 청년들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대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38) 1인 이상 사업장 기준, 25세~29세 연령대의 임금총액 2,096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것임(한국노동연구원, 2014 KLI노동통계, p.69 표III-10에서 발췌·계산).

표 IV-73 첫 일자리 그만둔 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졸업 미취업자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비율)	318(100.0)	108(100.0)	95(100.0)	115(100.0)
1) 업무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10.4	10.2	12.6	8.7
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1.9	2.8	3.2	0.0
3)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6.6	10.2	4.2	5.2
4) 업무와 다른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져서	13.2	10.2	13.7	15.7
5)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17.0	15.7	18.9	16.5
6) 하청구조 속에서 갑의 횡포 때문에	3.1	3.7	1.1	4.3
7)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14.5	20.4	6.3	15.7
8)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19.2	13.9	22.1	21.7
9)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6.3	7.4	7.4	4.3
10)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3.1	2.8	3.2	3.5
11)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1.3	0.9	2.1	0.9
12) 기타	3.5	1.9	5.3	3.5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는 20대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에 대한 생한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다.

“저는 졸업을 하고 2월에 졸업을 했으면 그 해 8월에 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그 회사 자체가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작았지만 월급은 나쁘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 중견기업인데 가면 중소기업인 이런 시스템이어서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5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그 뒤로 1년 동안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중략)…그때 되게 멍멍하고 취직을 했었거든요. 목적이 취직이었지 적성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덜 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다음 회사에서는 내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졸업미취업자 E5)

“2년 차가 됐을 때 보니까 슬슬 제가 그때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여서 주변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아직 관리직 하기에 어린 감이 있다고 하고 저 자체도 힘들고 2년 차 되니까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다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적자가 나는데 계속 진행을 하라고 하니까 총대 메기는 싫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때 한참 삼성도 장사 안 된다고 하니까 밑에 회사한테 갈구고 그럴 때라서 전체적으로 다 힘들 때였거든요. 삼성이라고 아예 난리 쳐서 그만뒀어요. 단가 낮추라고 하니까.”(졸업미취업자 F4)

(2) 현재 취업 일자리

첫 일자리에 이어, 여기에서는 졸업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로 나누어 현재 취업한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와 취업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사항, 근로여건,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을 살펴보았다.

① 현재 일자리 선택사유와 취업의 결정적 도움 사항

취업자들이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가장 주된 사유는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다는 기대(21.0%)와 직무가 적성에 맞을 것 같다(20.0%)는 판단, 그리고 전공분야와 관련된 곳(18.2%)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합격한 곳이면 어디든 취업할 생각’이었다(18.6%)는 의견도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비정규직 취업자(21.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IV-74 현재 일자리 선택 사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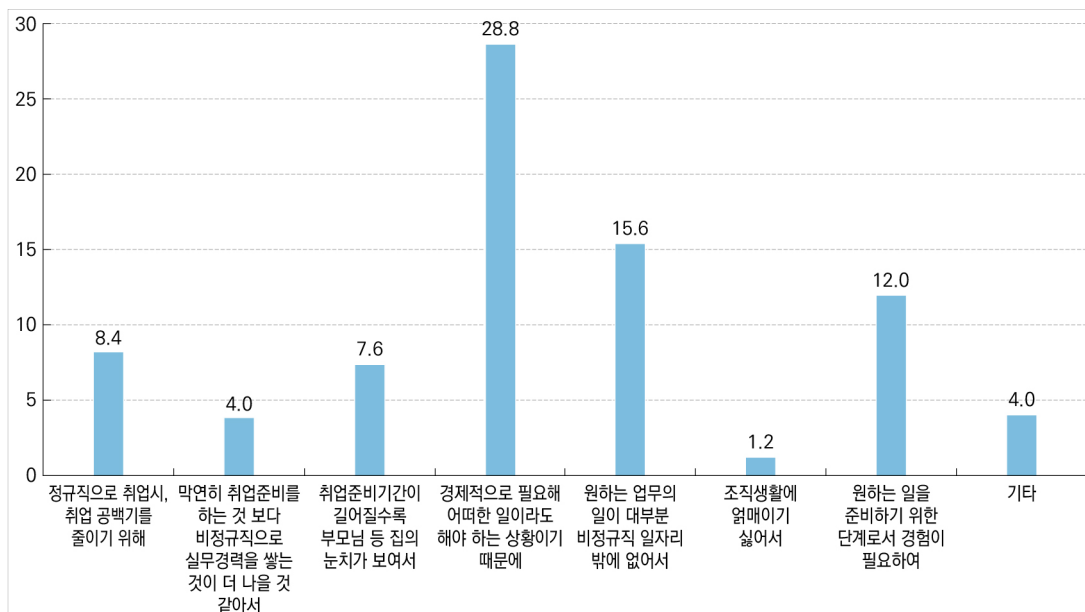
구분	전체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	500(100.0)	250(100.0)	250(100.0)
1)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0.0	22.4	17.6
2)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18.2	18.0	18.4
3)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5.6	6.4	4.8
4)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2.4	2.8	2.0
5)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2.4	3.6	1.2
6)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21.0	18.0	24.0
7)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7.2	10.4	4.0
8) 합격한 곳이면 어디든 취업할 생각이어서	18.6	15.6	21.6
9) 기타	4.6	2.8	6.4

그렇다면,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려고 장시간의 취업준비기간을 갖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 하에서, 비정규직 취업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일까?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물리는 것인가?

[그림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정규취업자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필요해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28.8%)의 사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원하는 업무의 일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어서'(15.6%)의 사유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이는 20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선택'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내몰린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경험이 필요'(12.0%)하다는 사유나 '정규직으로 취업 시,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8.4%)와 같은 사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징검다리로서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18】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사유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인턴 등 직무경험(21.4%)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전이나 창의성 등 인성적인 부분(19.2%), 부모나 지인의 추천(18.2%), 업무관련 자격증(17.6%)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정규직 취업자는 업무관련 자격증(20.4%)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성적인 부분(19.6%), 인턴 등 직무경험(19.2%)인 반면, 비정규직 취업자는 인턴 등 직무경험(23.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나 지인의 추천(20.4%)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IV-75 현재 일자리 취업 시 결정적 도움이 되었던 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규직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	500(100.0)	250(100.0)	250(100.0)
1) 학벌	6.2	4.4	8.0
2) 학점	4.4	5.6	3.2
3) 영어점수 및 회화능력	2.8	3.2	2.4
4) 제2외국어 능력	1.6	1.6	1.6
5) 업무관련 자격증	17.6	20.4	14.8
6)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0.6	1.2	0.0
7) 인턴 등 직무 경험	21.4	19.2	23.6
8) 부모나 지인의 추천	18.2	16.0	20.4
9)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공모전 수상 등 경험	2.8	3.2	2.4
10) 도전성 창의성 등 인성적인 부분	19.2	19.6	18.8
11) 전공 연계성	1.6	2.4	0.8
12) 기타	3.6	3.2	4.0

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는 다른 사항들보다는 인턴 등 직무관련 경험이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여러 건의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는데, 이들 사례에서의 공통점은 재학 기간 동안 인턴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저는 휴학을 안 하고 7학기 마치고 인턴을 했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8학기 중에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됐어요. 회사에 입사한 같은 동기가 50명 정도 되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은 10살도 나거든요. 그래서 잘된 편이고 그래서 과정에서 쉬웠지만 남들처럼 요즈음 사람들처럼 힘들다고, 문과 치고는 편하게 입사한 편이에요..”(졸업취업자 C4)

“저는 3학년 이후부터 방학 때마다 현장실습 겸 해가지고 기업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8학기 다 마쳤는데 취업이 안 돼서 졸업유예, 졸업연기 1년을 했어요. 2년을 연기를 해서. 그런데 작년 중순에 서울 일자리 플러스센터인가 갔는데 일자리 정보 같은 거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 해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일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먼저 일한 다음에, 원래 인턴을 1년을 1년 6개월에서 2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 조기에 정규직 전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졸업취업자 C6)

“3학년 끝나고 일하고 싶어서 다른 데 인턴을 했다가 그 경험을 살려서 4학년 여름방학 때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고 그 경험을 또 살려서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인턴에서 전환된 거는 아니고 다른 기업을 써서 스펙을 쌓고 쌓아서 그쪽으로 취업을 했죠...저도 2순위. 취업준비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고 연봉을 따져도 비슷비슷하니까.”(졸업취업자 C5)

②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여건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와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항에 이어 여기에서는 근로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앞서, 졸업 후 첫 일자리 사업체 유형의 분포에서는 중소기업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 일자리의 사업체 유형은 중소기업에의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IV-76 현재 일자리 사업체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비율)	500(100.0)	250(100.0)	250(100.0)
1) 대기업	10.2	9.2	11.2
2) 중견기업	12.2	15.2	9.2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37.2	50.4	24.0
4)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인)	4.2	4.4	4.0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0.4	3.6	17.2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12.8	5.2	20.4
7) (재단, 사단) 법인단체	6.6	8.0	5.2
8) 본인운영 사업체(창업 포함)	4.2	2.8	5.6
9) 기타	2.2	1.2	3.2

그렇다할지라도, 중소기업이 37.2%로 가장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정규직 취업자의 절반(50.4%)가량이 중소기업 취업자이고, 대기업의 경우 비정규직(11.2%)의 비율이 정규직(9.2%)에 비해 더 높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의 비율과 정규직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사업체는 공공기관이다. 정규직이 3.6%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7.2%에 달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규직 취업자는 5.2%에 불과한데, 비정규직 취업자는 20.4%로 4배 가까이 이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의 20대 청년의 채용 또는 ‘청년고용할 당제’^{주39)}은 운영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업체 유형에 이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Ⅳ-7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취업한 20대 청년들은 주당 평균 40.94시간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평균 170.69만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정규직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09로 평균보다 높고, 비정규직 취업자는 36.79로 평균보다 낮아 고용형태에 따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월평균 급여에서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는데, 정규직 취업자는 월평균 195.53만원을 급여로 받고, 비정규직 취업자는 월평균 145.84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7 현재 일자리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급여

(단위: 개월, 만원)

구분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전체 평균		40.94(13.5)	170.69(67.3)
고용 형태	정규직 취업자	45.09(9.4)	195.53(68.3)
	비정규직 취업자	36.79(15.6)	145.84(56.4)

③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도

근로여건에 이어 일자리 및 업무에의 적응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5문항^{주40)}과 직무몰입도 7문항^{주41)}을 ‘그렇다(1)’, ‘아니다(0)’로 측정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그림Ⅳ-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자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갖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은

주39)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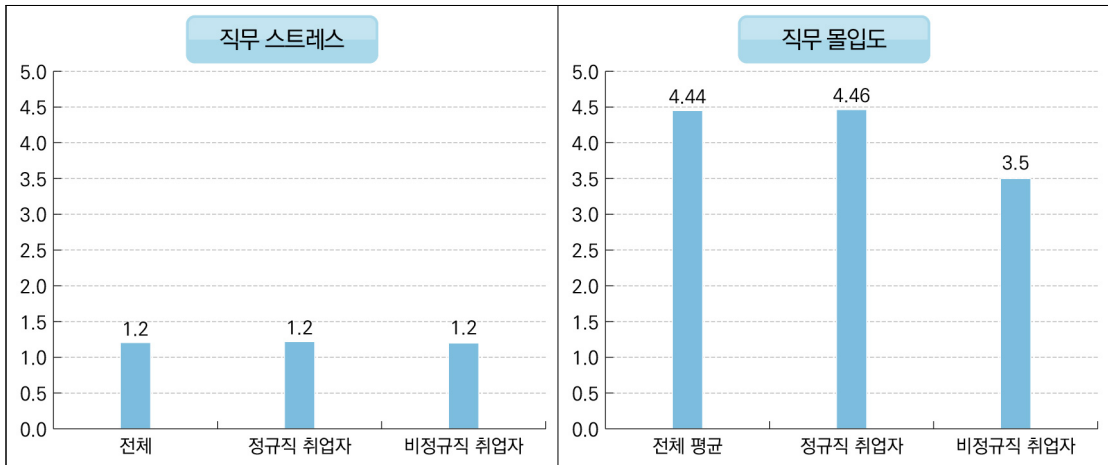
주40) 직무스트레스 측정 5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706$

(①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존중받지는 못한다. ②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 ③ 직장동료들이 나에게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④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고마워하지 않는다. ⑤ 직장 내에 갈등이 있으며, 사람들이 싸우고 말다툼을 한다.)

주41) 직무몰입도 측정 7개 항목 신뢰도 Cronbach $\alpha = 0.851$

(①직장 일을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② 직장 일이 나 스스로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③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신을 계발시킬 수 있다. ④일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⑤때때로 일을 하면 재밌고 즐겁다. ⑥일을 하면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 ⑦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한다고 느낀다.)

평균 1.2로 낮으며, 직무몰입도도 7점 중 평균 4.44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직무몰입도의 경우 정규직 취업자(4.46점)와 비정규직취업자(3.5점)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용의 불안정성이 직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19】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몰입도 비교

(3) 이직 준비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결과 자료(2014.6)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25.2%이고, 2012년 이래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퇴사율(31.6%)이 대기업(11.3%)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1년 내 기간별로 퇴사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입사 후 9개월~12개월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취업한 20대 청년들의 이직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사유에서 이직을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이직준비를 하는 사유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이직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대상자의 48.0%로, 절반 가까운 비율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규직(30.0%)보다는 비정규직 취업자가 이직을 준비하는 비율이 66.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78 이직준비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	500(100.0)	250(100.0)	250(100.0)
이직준비 함	48.0	30.0	66.0
이직준비 안함	52.0	70.0	34.0

낮지 않은 비율의 20대 청년 취업자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표IV-79>에 제시된 결과는 첫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사유와 다를 바 없다. 즉, 임금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지 못한다(25.8%)거나,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23.8%)의 사유가 절반을 차지한다.

표 IV-79 이직준비의 사유

(단위: 명, %)

구분	전체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사례수	500(100.0)	250(100.0)	250(100.0)
1) 업무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11.7	17.3	9.1
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0.4	1.3	0.0
3)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2.1	5.3	0.6
4) 업무와 다른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져서	10.8	10.7	10.9
5)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23.8	33.3	19.4
6) 하청구조 속에서 갑의 횡포 때문에	1.7	1.3	1.8
7)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20.0	0.0	29.1
8)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25.8	28.0	24.8
9) 기타	3.8	2.7	4.2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보면, 정규직의 경우 이직을 준비하는 10명 중 3명 이상은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비전(33.3%)을 위해 이직을 준비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이보다 낮은 수준(28.0%)을 보인다. 또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은 사유의 비율(17.3%)로 비정규직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이다. 비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고용계약의 만료(29.1%)가 가장 높은 비율의 이직 사유이다.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등

근로조건(24.8%), 개인의 발전가능성(19.4%) 순이다.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통해 선발한 20대 정규직 취업자들이 조직과 업무에서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어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여 나가거나 노동시장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생애 경력기반의 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젊은이들의 치기부리는 행태로만 보기에 그 규모가 작지 않고 경향성 또한 강하다.

이상과 같은 이직준비의 사유는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졸업취업자들을 통해서도 청취 할 수 있었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피로감과 좀 더 좋은 근무조건과 환경을 기대하여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례들과 취업 후 기대에 못 미치는 생활에 대한 회의감 등이 이직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해서.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사람. 주변이나 저나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졸업취업자 C2)

“지역도 있어요. 근무지. 먼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졸업취업자 C5)

“업무강도. 휴일까지는 아닌데 퇴근을 새벽에 하고 다시 또 아침에 오고 새벽 출근하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졸업취업자 C5)

“빨리 발을 빼야죠. 경력이 안 될 것 같은데...거의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좋은 대기업을 가려고 그만둔 거지 그 회사가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더 좋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완전 불안한 상황 속으로 돌아오려고 그만두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졸업미취업자 E5)

“생각한 거랑 다른 거죠. 다른 거는 없어요. 얘기 다 들어보면 3, 4개월 지나서 때려친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면 생각하는 게 달랐다. 기대와 달랐다. 비전이 없어 보인다. 비슷해요.”(졸업미취업자 F1)

이직을 준비하는 사유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어떤 이들이 이직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이직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취업자의 이직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 Ratio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51 (0.23)*	0.60 (0.14)*
	연령	-0.20 (0.28)	0.81 (0.23)
	부모소득	0.12 (0.09)	1.12 (0.11)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22 (0.28)	0.79 (0.22)
	전공(인문계열)	-0.68 (0.37)	0.50 (0.18)
	전공(사회계열)	-0.02 (0.35)	1.02 (0.36)
	전공(교육계열)	0.15 (0.66)	1.16 (0.76)
	전공(공학계열)	-0.02 (0.36)	0.98 (0.35)
	대학소재지(서울)	0.25 (0.26)	1.29 (0.33)
현 일자리 근로조건	고용형태(정규직)	-1.69 (0.25)***	0.18 (0.04)***
	일자리 유형(중소기업)	0.18 (0.23)	1.20 (0.28)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2 (0.01)*	1.01 (0.00)*
	월평균 급여	-0.00 (0.00)*	0.99 (0.00)*
현 일자리 선택사유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0.03 (0.37)	0.96 (0.36)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0.18 (0.39)	0.83 (0.32)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0.25 (0.36)	0.77 (0.28)
	고용이 안정적인 것 같아서	-0.71 (0.49)	0.49 (0.24)
	합격한 곳이면 어디든 취업할 생각이어서	0.37 (0.37)	1.45 (0.54)
직무 특성	직무스트레스	0.21 (0.08)*	1.24 (0.10)*
	직무몰입도	-0.18 (0.05)**	0.83 (0.04)**
	전공일치도	0.00 (0.10)	1.00 (0.10)
심라정서적 특성	자존감	-0.04 (0.02)	0.95 (0.02)
	긍정미래관	0.07 (0.05)	1.07 (0.06)
	진로성숙도	0.08 (0.02)**	1.09 (0.03)**
상수		-0.19 (1.23)	0.82 (1.01)
N		500	
LR chi2		140.36***	
Pseudo R2		0.20	
Log likelihood		-275.99	

*** p<.001, ** p<.01, * p<.05

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이나 전공계열 그리고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는 이직을 준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정규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도(-), 진로성숙도(+)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1)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의 주거의 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주거의 질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거비 지불능력(housing affordability)’를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소득에서 주거비 지출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소득수준이 낮은 20대 청년들은 주거비 지불능력이 낮다(김지경, 2013, p.4).

문제는 단지 대학 재학생들만이 주거의 질적 문제를 갖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시기가 지연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와 취업 후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이들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대 청년들, 특히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의 질적 문제와 높은 주거비 부담은 특정 연령층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다.

서울지역 20대 청년들의 주거불안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기존 서울지역 거주자의 수도 많고, 학업 등의 사유로 서울로 이동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들도 많은 상태에서 취업준비나 취업확정에 따라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비동거하는 이들의 주거형태, 그리고 취업을 목적으로 한 주거이동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표IV-8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 20대 청년들 중 부모와 비동거하는 비율은 전체의 24.2% 수준으로, 4명 중 1명 정도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취업자의 부모비동거 비율(31.2%)로 가장 높고, 소득이 없는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20.0%)을 보인다.

이들의 현재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절반가량(50.8%)이 월세자취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세자취(17.8%), 기숙사(13.6%) 순이다. 재학생의 경우 월세 자취를 제외하고는 기숙사의 비율이 높지만, 졸업자의 경우 전세자취의 비율이 높다.

주거의 질적 부족의 문제에 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고시원’의 경우 거주자 비율(4.1%)이 매우 낮기는 하나, 세 집단 중 졸업미취업자 집단에서의 해당 비율(6.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취업준비를 하는 미취업자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때, 경제적 지불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재학생이나 취업자에 비해 고시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표 IV-81 현재 상태별 부모 동거여부 및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사례수(비율)		2,000(100.0)	1,000(100.0)	500(100.0)	500(100.0)
부모 동거 여부	동거	75.8	77.2	80.0	68.8
	비동거	24.2	22.8	20.0	31.2
주거형태	가속사	13.6	18.9	3.0	12.8
	향토학사	0.6	1.3	0.0	0.0
	월세자취	50.8	52.6	52.0	47.4
	하숙	1.7	2.6	2.0	0.0
	고시원	4.1	3.5	6.0	3.8
	전세자취	17.8	13.6	21.0	21.8
	친인척 등 집	2.5	1.3	5.0	2.6
	자가	8.5	6.1	11.0	10.3
	기타	0.4	0.0	0.0	1.3
계		100.0	100.0	100.0	100.0

주거형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주거비에 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주거비(월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총액) 금액을 월평균 본인의 총소득과 생활비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IV-8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와 비동거하는 20대 청년들의 월평균 주거비 평균 금액은 33.63만원이고, 현재 상태에 따른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졸업미취업자 집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2 부모비동거자 월평균 주거비와 생활비

(단위: 명,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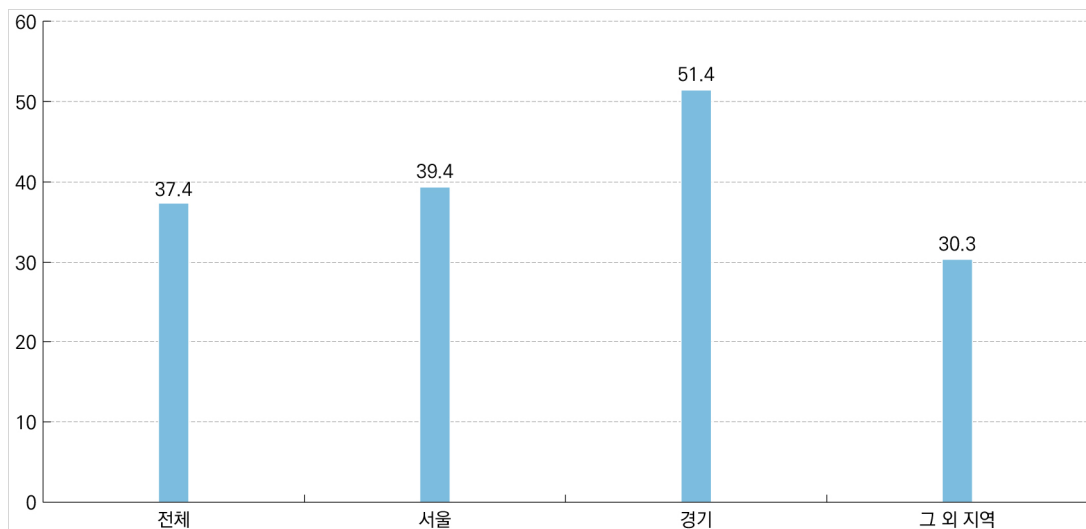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재학생	졸업미취업자	졸업취업자
사례수(비율)		484(100.0)	228(100.0)	100(100.0)	156(100.0)
월평균 주거비	월평균 금액	33.63 (21.12)	33.37 (20.21)	36.15 (21.63)	32.39 (22.08)
	월 소득 대비 비율	57.3	73.2	43.5	15.8
	월 생활비 대비 비율	29.9	54.0	65.1	40.8
월평균 본인 총소득		58.71 (38.32)	45.53 (21.19)	82.99 (71.12)	205.08 (98.57)
월평균 총 생활비		112.34 (94.38)	61.76 (35.38)	55.56 (44.30)	80 (44.13)

전체 수준에서 월평균 주거비 금액은 20대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의 57.3%, 월평균 생활비의 29.9%를 차지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대학 재학생의 경우 소득대비 73.2%, 생활비의 54.0%에 달하고,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소득대비 43.5%, 생활비 대비 65.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대 청년들의 주거지원이 소득이 없는 재학생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취업한 20대를 위한 지원으로 나누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취업목적 거주지 이동률과 이동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에게 질 좋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 어려운 서울지역에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비동거하는 조사 대상자의 현재 거주지를 이준으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살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비동거자들 중 37.4%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39.4%)보다는 경기(51.4%)에 취업목적의 거주지 이동자의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IV-20】 현 거주지별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자 비율

그렇다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20대 청년들은 어떠한 이동행태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이동 행태를 4가지 유형(①수도권 내 이동, ②비수도권 내 이동, ③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 ④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표 IV-83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자의 이동 유형

(단위: 명, %)

구분	전체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다른 권역 이동	다른 권역→수도권 이동
사례수(비율)	181 (100.0)	31.0 56(100.0)	21.0 38(100.0)	12.7 23(100.0)	35.3 64(100.0)
서울	47.5	64.3	7.9	8.7	70.3
경기	19.3	23.2	7.9	17.4	23.4
그 외 지역 *	33.1	12.5	84.2	73.9	6.3

분석 결과, <표IV-8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지 이동자의 35.3%가 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70.3%를 보였다. 다른 유형의 이동을 살펴보면, 31.0%가 수도권 내에서 이동하였고, 21.0%가 비수도권 내 이동이었으며, 12.7%만이 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은 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이 절대적으로 많아, 20대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20대 청년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았다. <표IV-84>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다른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이들의 60.9%가 월세자취의 형태로 살고 있고, 전세자취와 기숙사가 각각 1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전세자취(39.1%)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숙사(30.4%), 월세자취(26.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내의 이동이나 비수도권 내의 이동의 경우도 월세자취의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한 가지, 앞의 <표IV-81>에서 졸업미취업자의 고시원 거주비율이 재학생이나 졸업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수도권 내에서 이동한 이들

중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12.5%)이 다른 이동 유형의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4 취업 목적 거주지 이동 유형별 주거 형태

(단위: 명, %)

구분		전체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수도권→다른 권역 이동	다른 권역→수도권 이동
사례수(비율)		181 (100.0)	31.0 56(100.0)	21.0 38(100.0)	12.7 23(100.0)	35.3 64(100.0)
주거형태	가속사	11.6	1.8	13.2	30.4	12.5
	월세자취	52.5	55.4	50.0	26.1	60.9
	하숙	1.7	0.0	0.0	0.0	4.7
	고시원	7.2	12.5	5.3	0.0	6.3
	전세자취	19.9	21.4	18.4	39.1	12.5
	친인척 등 집	1.7	0.0	5.3	0.0	1.6
	자가	5.0	8.9	7.9	0.0	1.6
	기타	0.6	0.0	0.0	4.3	0.0

3. 현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유용성 평가

앞서, 제3장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지원은 크게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원제도에 대해 20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각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얼마나 되며, 궁극적으로 20대 청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즉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주42)}에 대해 인지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이용경험여부를 측정하였으며,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서비스의 도움정도를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였다.^{주43)}

주42) 학자금지원서비스 : ①등록금대출, ②생활비대출, ③국가장학금

주거지원서비스 : ①대학생전세임대주택, ②행복주택, ③희망하우징, ④행복기숙사

취업지원서비스: ①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②취업성공패키지, ③대학청년고용센터, ④해외취업지원, ⑤스펙초월멘토스쿨, ⑥중소기업청년인턴제, ⑦청년취업아카데미, ⑧해외인턴 및 글로벌 현장학습, ⑨공공기관채용형인턴제, ⑩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주43)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도움정도를 응답자 특성별로 집단별로 다양한 기초분석을

아울러, 정책대상의 범위와 내용의 개선, 그리고 정책 목표(target)집단의 설정과 조정을 위한 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정책서비스별 20대 청년들이 체감하는 도움의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서비스 인지도 및 이용경험을 통제한 실증모델 분석을 시도하였다.

1) 학자금지원

주요 발견 (Main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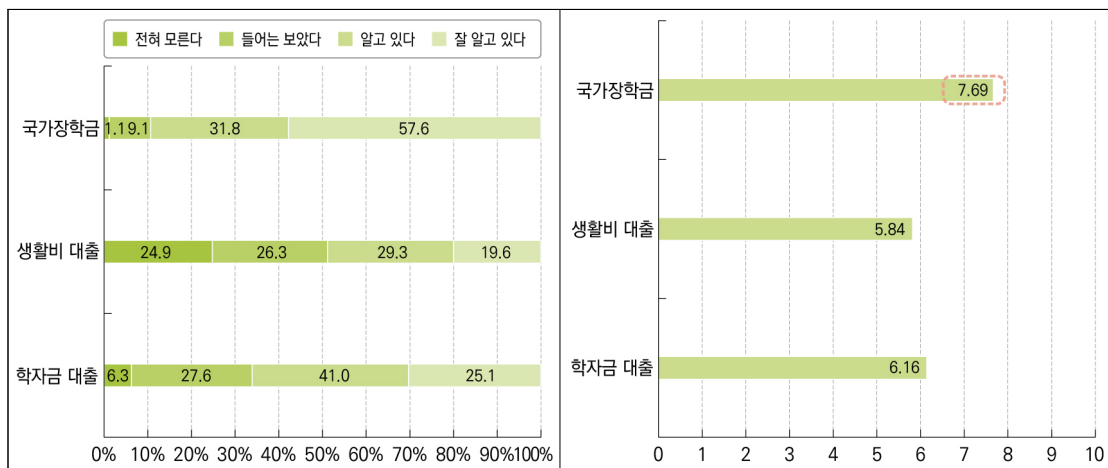
- 학자금지원서비스 중 인지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국가장학금이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의 평가수준이 사립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음.
- 등록금수준과 생활비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보다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지원에 대한 평가가 타 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음.

20대 청년들에게 학자금지원 서비스로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과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고 있지, 그리고 각 서비스의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그림I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혜자 범위가 넓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인지도가 세 가지 서비스 중 가장 높았다. 국가장학금을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57.6%에 달했고, ‘전혀 모른다’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등록금대출에 대한 인지수준이 생활비 대출에 대한 수준보다 높았으며, 생활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24.9%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가지 서비스의 인지정도의 차이가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에도 나타났다. 인지수준이 가장 높았던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20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는 10점 중 7.69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금대출은 6.16점, 생활비 대출은 5.84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실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분석하여 정리된 표의 양이 방대하여 핵심적인 내용과 모델분석 만을 보고서에 제시하였음을 밝힘.



【그림 IV-21】 학자금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지원 서비스 각각에 대한 평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서비스 평가에 있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도와 이용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요인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등록금대출에 대한 도움정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자(+), 현재 재학생(-), 졸업미취업자(-)이고, 생활비대출의 도움정도 평가에는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자(+), 현재 재학생(-)만, 국가장학금의 도움정도 평가에는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소재 재학생·졸업생은 타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등록금과 생활비대출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고, 졸업취업자에 비해 재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대출 지원에 대해 평가가 낮으며, 졸업미취업자의 경우는 등록금대출에 대해서만 취업자에 비해 평가가 낮다. 한편,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은 사립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5 학자금 지원 도움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국가장학금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5(0.10)	-0.19(0.10)	0.03(0.10)
	연령	-0.04(0.13)	-0.16(0.13)	-0.13(0.13)
	부모소득	0.04(0.05)	-0.02(0.05)	-0.11(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4(0.11)	0.22(0.12)	0.34(0.12)**
	대학소재지(서울)	0.32(0.10)**	0.26(0.10)*	0.01(0.11)
현재 상태	재학생	-0.35(0.14)*	-0.31(0.15)*	-0.21(0.15)
	졸업미취업자	-0.30(0.13)*	-0.14(0.14)	-0.18(0.14)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51(0.06)***	0.34(0.05)***	0.73(0.08)***
	이용경험 유무	1.45(0.11)***	1.49(0.14)***	1.45(0.12)***
	상수	4.24(0.43)**	5.25(0.41)***	5.07(0.49)***
N		2,000	2,000	2,000
F		43.96***	33.64***	47.86***
Adj. R ²		0.16	0.12	0.17

*** p<.001, ** p<.01, * p<.05

이와 같은 결과는 등록금수준과 생활비수준이 높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가장학금보다는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이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등록금수준이 낮은 국·공립대학의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의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거 지원

주요 발견 (Main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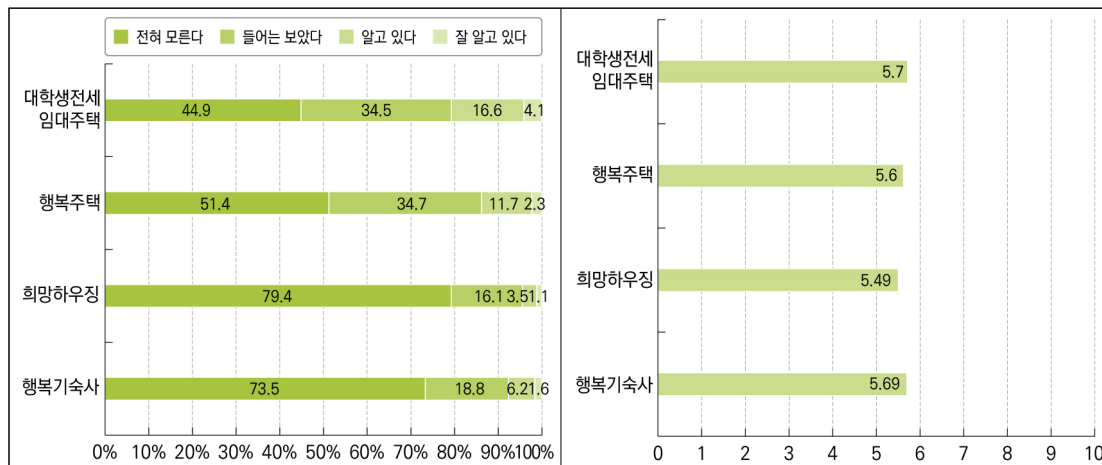
-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유용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학자금서비스와 대조적으로 보일만큼 낮은 수준임. 이는 선별적 정책으로 수혜자 대상 범위는 좁고, 청년정책이라는 명분 하에 목표 설정 대상집단의 범위가 넓은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인지도 및 정책유용성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델분석에서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함. 이는 수혜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에 높는데 따른 결과로 보임.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이어 여기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지정도와 4개의 각 서비스의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자금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Ⅳ-22]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네 가지 서비스 중 알고 있다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것은 ‘대학생전세임대주택’ 서비스뿐이다.

서울지역에 한정되기는 하나, SH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이나 건설한 원룸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희망하우징’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지정도는 매우 낮아, 79.4%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은 수혜자 규모와 범위가 매우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낮은 인지도의 영향으로 주거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 또한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네 가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차별성을 보이지 않을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아 도움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주거서비스의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Ⅳ-92>와 <표Ⅳ-9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림 Ⅳ-22】 주거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분석 결과, 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이 사립대학 재학생·졸업생에 비해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졸업취업자보다는 현재 재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평가를 하였다.

표 IV-86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¹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대학생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3(0.09)	-0.24(0.09)
	연령	-0.14(0.12)	-0.16(0.12)
	부모소득	0.05(0.04)	0.07(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42(0.11) ^{***}	0.45(0.11) ^{***}
	대학소재지(서울)	0.06(0.10)	0.06(0.10)
현재 상태	재학생	-0.39(0.14) ^{**}	-0.32(0.14) [*]
	졸업미취업자	-0.25(0.13)	-0.17(0.13)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77(0.05) ^{***}	0.57(0.06) ^{***}
	이용경험 유무	0.38(0.22) ^{***}	0.48(0.29)
	상수	4.37(0.37) ^{***}	4.68(0.37) ^{***}
N		2,000	2,000
F		29.24 ^{***}	14.64 ^{***}
Adj. R ²		0.11	0.06

*** p<.001, ** p<.01, * p<.05

결과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모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공립대학 재학생·졸업생이 사립대학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의 대상자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가 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50%이하 또는 장애인이 2순위 대상이고,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이 3순위에 놓이다보니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행복주택의 경우도 대학생 이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포함하여 수혜 대상이 포괄적이다 보니,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는 결국, 선별적 수혜대상 범위는 좁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설정되는 목표 집단의 범위는 넓은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희망하우징과 행복기숙사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이와 같은가? <표IV-8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희망하우징과 행복기숙사의 도움정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추가 발견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평가를 한 것이다. 인지도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평가가 낮다는 것은 정책서비스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20대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서비스에 있어서의 성별 효과는 추후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87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2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희망하우징	행복가속사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8(0.09)**	-0.27(0.09)**
	연령	-0.05(0.12)	-0.07(0.12)
	부모소득	0.08(0.05)	0.07(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35(0.11)**	0.38(0.11)**
	대학소재지(서울)	0.04(0.10)	0.08(0.10)
현재 상태	재학생	-0.35(0.14)*	-0.41(0.14)**
	졸업미취업자	-0.23(0.13)	-0.21(0.13)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70(0.08)***	0.45(0.07)***
	이용경험 유무	0.23(0.38)	-0.09(0.33)
	상수	4.48(0.38)***	4.84(0.38)***
N		2,000	2,000
F		12.24***	7.98***
Adj. R ²		0.05	0.03

*** p<.001, ** p<.01, * p<.05

3) 취업 지원

주요 발견 (Main Findings)

-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의 수준이 낮음. 20대 청년들의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스펙초월멘토스쿨’이나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상자 모집선발의 규모가 작고, 대학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등 사업운영의 특성에 기인하여 인지수준이 낮은 것임.
- 취업지원서비스 10가지 각각의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당사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대체로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서울지역 소재 대학생·졸업생이 각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남.

주거지원서비스에 이어 여기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20대 청년들의 인지정도와 10개의 각 서비스의 정책유용성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정도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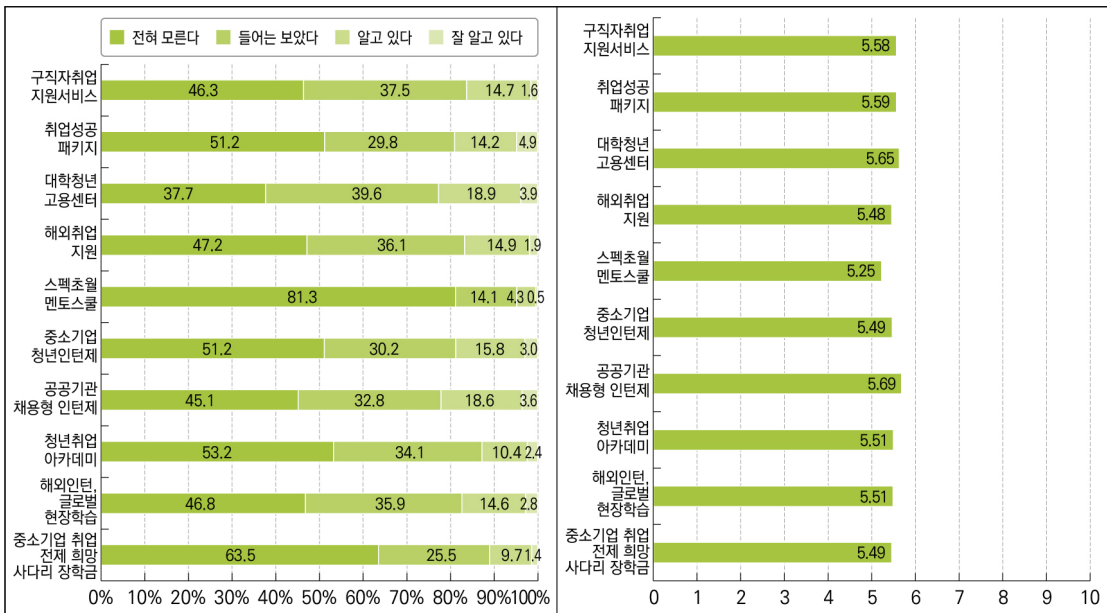
먼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전반적으로 정책서비스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V-23]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10가지 서비스 중 알고 있다는 비율이 20% 수준에 이르는 것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청년고용센터'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뿐이다.

'스펙초월멘토스쿨'의 경우 81.3%가, 그리고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경우 63.5%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이들 사업이 취업지원 서비스 정책유용성 평가를 위해 제시된 10개의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낮은 인지도 수준을 보인 것은 사업운영의 특성에 기인한다.

스펙과는 상관없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멘티를 선발하고, 원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주는 '스펙초월멘토스쿨'의 모집·선발 인원은 500명 수준이며,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직접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 운영의 내용과 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20대 청년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에 영향을 받는 각 사업이 20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낮은 수밖에 없으며, 각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도 [그림Ⅳ-23]과 같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Ⅳ-23】 취업지원서비스 인지정도 및 도움정도

그러나 주거지원 서비스에서와 같이, 인지도가 낮아 도움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표IV-88>에서 <표IV-9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인지도 및 이용경험 유무의 영향을 제외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하나로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한 졸업미취업자 대상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에는 연령만이,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가 낮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88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Ⅰ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4 (0.08)	-0.23 (0.09)*
	연령	-0.24 (0.11)*	-0.16 (0.11)
	부모소득	0.07 (0.04)	0.06 (0.04)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2 (0.10)	-0.01 (0.10)
	대학소재지(서울)	-0.12 (0.09)	-0.12 (0.09)
현재 상태	재학생	-0.20 (0.13)	-0.10 (0.13)
	졸업미취업자	-0.12 (0.12)	-0.03 (0.12)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46 (0.59)***	0.47 (0.05)**
	이용경험 유무	0.44 (0.16)**	0.73 (0.18)***
상수		4.91 (0.34)**	4.81 (0.35)***
N		2,000	2,000
F		13.51***	20.15***
Adj. R ²		0.05	0.08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표IV-89>에 제시된 대학청년고용센터, 스펙초월멘토스쿨, 청년취업아카데미의 도움정도 평가에도 서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2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대학청년고용센터		스펙초월멘토스쿨		청년취업아카데미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16	(0.09)	-0.19	(0.09)*	-0.11	(0.09)
	연령	-0.20	(0.11)	-0.30	(0.11)**	-0.34	(0.11)**
	부모소득	0.06	(0.04)	0.02	(0.04)	0.06	(0.04)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0	(0.10)	0.08	(0.10)	0.04	(0.10)
	대학소재지(서울)	-0.10	(0.09)	-0.20	(0.09)*	-0.18	(0.09)
현재 상태	재학생	-0.23	(0.13)	-0.13	(0.13)	-0.29	(0.13)*
	졸업미취업자	-0.28	(0.12)*	-0.13	(0.12)	-0.25	(0.12)*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49	(0.05)***	0.49	(0.08)***	0.37	(0.06)***
	이용경험 유무	0.51	(0.16)**	0.68	(0.34)*	0.59	(0.21)**
상수		4.87	(0.35)***	5.16	(0.35)***	5.31	(0.35)***
N		2,000		2,000		2,000	
F		17.34***		8.09***		10.46***	
Adj. R ²		0.0		0.03		0.04	

*** p<.001, ** p<.01, * p<.05

인지도 및 이용경험 유무의 영향을 제외하고, 대학청년고용센터의 경우, 졸업미취업자 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스펙초월멘토스쿨의 경우 성별과 연령, 그리고 서울지역소재 대학이,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연령과 현재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취업자에 비해 졸업미취업자가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대한 평가가 낮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이 사립대학보다 스펙초월멘토스쿨에 대한 평가가 낮다. 또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졸업취업자보다 재학생과 졸업미취업자가 청년취업아카데미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표Ⅳ-90>에 제시된 해외취업지원과 해외인턴 및 글로벌 현장학습의 도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인지도 및 이용경험 유무의 영향을 제외하고, 해외취업지원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서울지역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이 사립대학의 경우보다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낮고,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취업지원에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연령과 대학소재지는 해외인턴, 글로벌 현장학습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변수이외에 추가적으로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에 비해 해외인턴이나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0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3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해외취업지원		해외인턴, 글로벌현장학습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0	(0.09)*	-0.08	(0.09)
	연령	-0.23	(0.11)*	-0.31	(0.11)**
	부모소득	0.04	(0.04)	0.03	(0.04)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14	(0.10)	0.06	(0.10)
	대학소재지(서울)	-0.21	(0.09)*	-0.22	(0.09)*
현재 상태	재학생	-0.11	(0.13)	-0.19	(0.13)
	졸업미취업자	-0.20	(0.12)	-0.26	(0.12)*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43	(0.05)***	0.55	(0.05)***
	이용경험 유무	0.89	(0.21)***	0.54	(0.22)*
	상수	5.01	(0.34)***	5.02	(0.35)***
N		2,000		2,000	
F		14.66***		17.42***	
Adj. R ²		0.06		0.07	

*** p<.001, ** p<.01, * p<.05

<표IV-91>에 제시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의 도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연령이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는 성별과 대학소재지,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에는 대학소재지만이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고, 서울지역소재 대학의 재학생·졸업생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중소기업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에 낮은 평가를 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91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4 : Multiple Regression Model

구분	변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취업희망사다리 장학금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개인 및 부모 특성	성별(남성)	-0.23 (0.09)*	-0.16 (0.09)	-0.18 (0.09)
	연령	-0.37 (0.11)**	-0.25 (0.12)*	-0.34 (0.12)**
	부모소득	0.01 (0.04)	0.03 (0.04)	0.02 (0.05)
대학 및 전공 특성	대학설립주체(국공립)	0.03 (0.10)	0.03 (0.11)	0.07 (0.11)
	대학소재지(서울)	-0.19 (0.09)*	-0.22 (0.10)*	-0.17 (0.10)
현재 상태	재학생	-0.11 (0.13)	-0.15 (0.13)	-0.06 (0.14)
	졸업미취업자	-0.13 (0.12)	-0.20 (0.12)	-0.15 (0.13)
정책인지도 및 이용경험	인지정도(4점 척도)	0.40 (0.05)***	0.61 (0.06)***	0.54 (0.05)***
	이용경험 유무	0.54 (0.20)**	0.16 (0.27)	0.73 (0.20)***
상수		5.46 (0.35)***	4.99 (0.37)	5.19 (0.36)***
N		2,000	2,000	2,000
F		12.71***	14.35***	17.55***
Adj. R ²		0.05	0.06	0.07

*** p<.001, ** p<.01, * p<.05

이상과 같이,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 10가지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들만이 도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인, 서울지역 소재 재학생·졸업생이 평가 점수가 낮다. 이는 20대 내에서도 연령수준이 높은 서울지역 소재 대학졸업 남성들이 서울지역에서의 취업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경과된 시간 속에서 실패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지원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V 장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2. 정책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3. 정책 비전의 설정과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4.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 및 과제

제 V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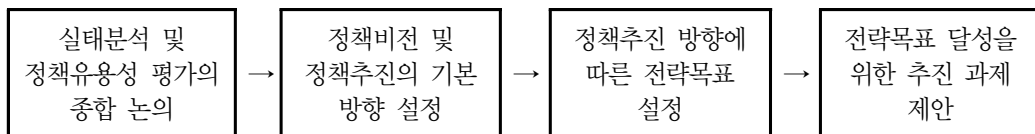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

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본 장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 고찰한 정책현황과 제4장에서 분석된 20대 청년의 실태 및 현행 지원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의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발전전략은 단계적으로 도출되었는데, 우선 제4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20대 청년들의 실태와 현행 지원정책의 유용성 평가 결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발견하고, 정책적 발전전략 도출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비전을 설정하고, 제2장에서 고찰된 이미 드러난 20대 청년들의 문제들과 제3장에서 고찰된 현행 정책들, 그리고 제4장에서 분석된 내용들을 재검토·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 가지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그림 V-1】 정책 발전전략 도출의 과정

* 이 장은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정책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

1) 20대 청년 집단의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본 연구의 실태조사 전반에서 나타난 주요한 발견은 20대 청년집단이 연령보다는 현재 상태(재학생 vs 졸업생, 취업자 vs 미취업자, 구직활동자 vs 비활동자, 정규직 vs 비정규직)에 따라 이질성이 높은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된 상태라는 사실임. 여기에 부모소득과 같은 계층의 기준과 서울 등 지역의 기준, 그리고 국·공립대학 등의 대학의 유형까지 고려하면, 20대 청년을 둘러싼 이슈별로 20대 청년 집단의 일명 ‘쪼개짐’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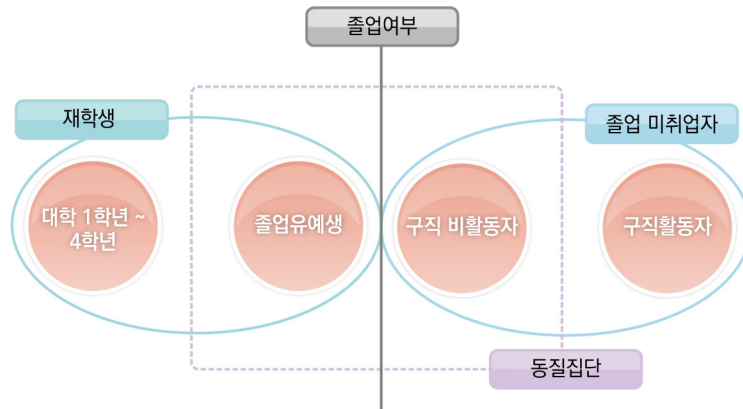
20대 청년집단이 다 분화되었다는 것은 정책대상으로서 20대 청년을 접근함에 있어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이슈별 정책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 집단 내 이질성과 이질성을 나타내는 분류의 기준을 면밀하게 살피는 정책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은 어렵다.

예컨대 20대 청년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책유용성 평가 또한 높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수준을 증액시키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보조금으로서의 장학금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단순히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길고,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모두 받는 비율이 높고, 장학금 총 수혜금액이 많은 이들이 총대출금액도 많기 때문에, 수혜 요건에 다른 장학금 수혜와 중복될 수 없다는 제한을 둔다거나, 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신청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으로 설계가 된다면 실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 필요가 있는 주된 집단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20대 청년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다 분화된 집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대 청년들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다 분화되었다 할지라도 세분화된 집단 간의 차이의 ‘이질성’에만 집중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세분화된 상태의 집단들 속에서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 기준에 없던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재학생 중 졸업을 연기한 ‘졸업유예생’과 졸업미취업자 중 ‘구직비활동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상태에 있다는 상태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에 대한 인식, 자존감이나 긍정미래관과 같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다.



【그림 V-2】 20대 청년 다 분화(multi-differentiation) 상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동질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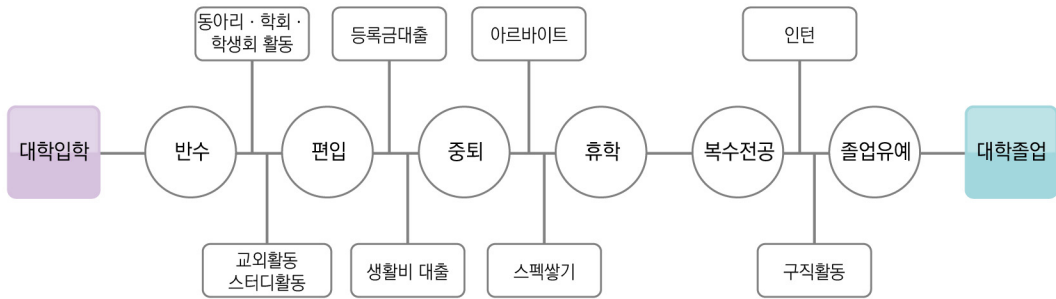
이 같은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20대 청년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계획한다면, 이 두 집단의 청년들을 묶어 가장 우선 지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책사업 우선 대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대 청년집단이 정책대상자로서 다 분화되었다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에 비추어 볼 때, 각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 범위와 우선 지원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정책대상자의 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각 단계의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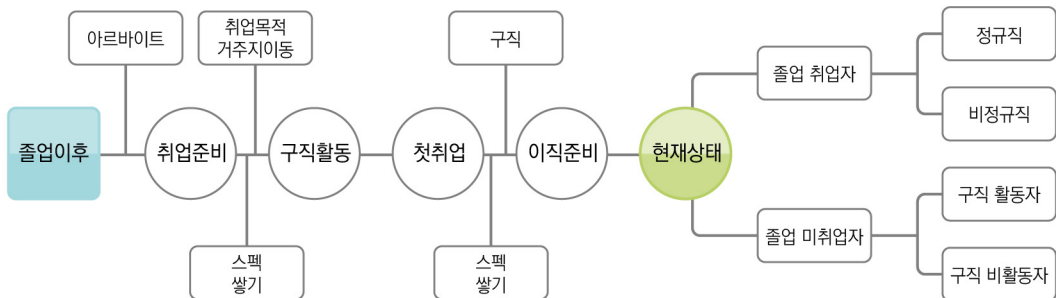
‘대학 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의 단선적 이행 경로를 가졌던 기존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행(transition)의 지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쉽게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고 고착화된 상태이다. 제4장의 실태분석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이행의

지체는 단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뭉뚱그려 말할 수 없을 만큼, 대학입학과 동시에 ‘반수’와 ‘편입’, ‘대학중퇴’, ‘휴학’ 등으로 대학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이행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미루는 ‘졸업유예’가 대학 졸업으로의 이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그림 V-3】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그렇다면, 졸업하고 나서는 노동시장으로 빠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10명 중 4명은 졸업 한 지, 1년 23개월이 되도록 취업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첫 일자리로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하기 위해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 V-4】 졸업 후 현재 상태까지의 이행(transition)단계의 세분화와 지체 장기화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이행의 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속속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학 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하고 정책적 접근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취업을 상승'만이 고려되어도 무리가 없지만, 현재 20대 청년들의 지체되는 이행과정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의 문제만이 아닌, 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20대 청년들의 삶의 과정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선적 구조로 20대 청년 지원정책들이 설계되다 보니, 대학입학 후 이행단계가 세분화 되고, 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빚어지는 문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책 욕구를 현행 정책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각 부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정책들을 모아 나열하는 것이 아닌,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정책'으로서, 20대 청년이 중심이 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 중 대상자 정책으로서의 20대 청년정책은 부재하다.

20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에는 우리사회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20대 청년들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체와 추진의 주체는 누구인지, 20대 청년 정책을 위한 기본정책 정책 추진체계 또한 요구된다.

3) '개인', '생활균형', '발전가능성'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20대 청년' 특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그리고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준비하는 사유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은 일과 다른 생활의 균형, 그리고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가치를 기존 세대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태분석의 결과에 있어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던 졸업미취업 집단은 '좋은 일자리'란 높은 연봉보다는 일과 다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일자리'라는 데에 재학생이나 졸업취업자에 비해 높은 동의의 수준을 보였다.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하기에는 자격요건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들은 높은 연봉보다는 생활의 균형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실태분석에서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자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점차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더 지체될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취업을 했다할지라도 장시간 근로나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규직 취업자도 이직을 준비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직을 준비하는 정규직 취업자의 33.3%는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이고, 그 다음이 28.0%를 차지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이다.

개인의 성취에 대한 중요성은 졸업한 20대 청년들보다 현재 재학 중인 청년들에게서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현재 재학생들이 20대가 ‘성취중독과 비교중독 상태’라는 데에 10점 만점 중 6.77점의 수준으로 동의하였으며, 이는 졸업미취업자(6.7점)나 졸업취업자(6.52점)에 비해 높다. 이에 더하여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대학재학생 그룹 중 서울지역 상위권 사립대학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 스스로가 성취중독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기도 하였다.

20대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기존의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경쟁’과 ‘성취’중심의 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부인할 수 없다면, 20대 청년이 갖는 ‘개인’ 과 ‘개인의 성취’ 중심의 가치관은 기존 세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기존의 조직과 기업 내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타진한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이들이 노동시장 안과 밖을 넘나들며 안착하지 못한 채 떠다니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이들의 생애자립기반의 마련과 안착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20대 청년에 대해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며, 기존의 질서와 기존 세대의 필요 판단으로 설계된 청년 정책들도 이제는 청년 친화적인(Youth Friendly)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청년문제의 현상, 대표적으로 고용의 문제에 더 막대한 지출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효과는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20대 청년들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여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년 친화적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

3. 정책 비전의 설정과 정책추진의 기본 방향

1) 정책 비전의 설정

정책 비전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
-------	----------------------------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의 비전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4.15.) 이나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7.27.)과 같은 대책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이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대책은 청년정책 중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라 20대 청년정책의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공유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초를 고려하고, 앞서 제2장의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20대 청년들의 문제들과 제3장 정책의 현황들에 대한 고찰을 통한 정책적 대응 수준, 그리고 실태분석 및 정책유용성 평가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20대 청년정책의 중·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궁극의 목적을 정책비전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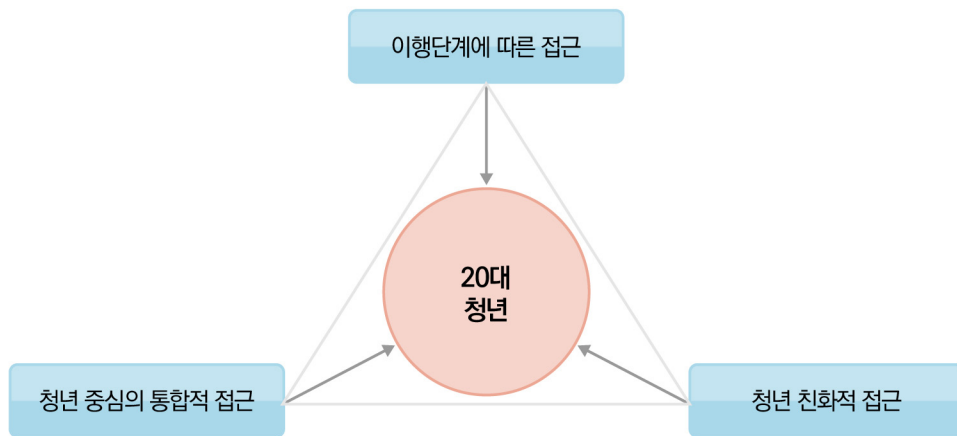
또한 현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의 하나인 ‘국민행복’의 추진을 위해 구성된 4가지 추진전략 영역에 20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분야들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주4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의 발전전략의 정책비전을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비전에는 20대 청년정책이 기존의 청년고용종합대책과 같이 고용문제 해소에 집중된 ‘경제정책’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조되고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주45) 박근혜정부 국정 비전 “희망의 새 시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국정기조: I.경제부흥, II.국민행복, III.문화융성, IV.평화통일 기반구축, 국민행복분야 4가지 추진전략: ①맞춤형고용복지, ②창의교육, ③국민안전, ④사회통합(관계부처합동, 2013.5.28. p.3)

2)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20대 청년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바, 즉 “20대 청년들이 꿈을 그리며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2장의 선행연구와 제3장의 정책현황 그리고 제4장의 실태 및 정책유용성 평가·분석에서 발견된 주요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논의하고, 세 가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을 도출에 있어, 전제되었던 시각은 20대 청년들을 정책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지 않고, 이들의 입장에 서서 20대 청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림 V-5】 정책 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

(1) 이행단계에 따른 접근

기본방향 1	이행단계에 따른 접근(Approach of Transition Steps)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가 세분화되고, 각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 하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 특히 이행과정의 지체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2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행 단계별 차이를 보이는 정책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transition from youth to adulthood)은 더 이상

표준적이거나 선형적이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의 대학생활, 졸업과 노동시장 이행의 모습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생애 과업 수행의 진전과 퇴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성인기 이행의 특성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성장 경로를 그려보면 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확연히 드러난다.

20대 청년들은 이전까지 삶의 목표였던 ‘대학입학’ 후에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불확실한 탐색과 이동을 시도한다. 즉,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더 나은 평판의 대학’을 목적으로 10% 이상의 신입생들이 반수를 준비하며, 비슷한 비율이 재학생중 같은 이유로 편입을 시도한다. 반수와 편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또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여행·휴식이나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휴학한다. 학기를 마치고 학점을 채워 졸업 요건이 되더라도 취업 여부의 불확실성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은 16%에 달한다. 이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체감 정도는 더 높아, 휴학은 “거의 다”, 졸업 유예도 만연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서 확인되었다.

취업을 위한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된다. 취업에 유리할 것을 예상하고 복수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0% 내외인데, 특히 인문계열이나 교육계열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들은 복수전공을 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30~40%에 이른다.

재학생들은 외국어 능력이나 업무관련 자격증이 취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약 64%의 재학생들이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턴 경험은 취업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요건으로 여겨지나, 인턴 경험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어서 16% 정도의 청년들이 인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대학 입학 직후부터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취업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난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 대학 기간 내내 취업준비와 경쟁력 구비에 노력했지만, 모집 요건에 내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구직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르는 미취업자의 비율은 4명중 1명꼴로 높다. 진지한 자기 성찰과 탐색이 되지 않은 채 외적 경쟁력 요건 구비에만 매달려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졸업 미취업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복되는 구직 실패에 지쳐서’,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중이어서’라는 사유로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다.

무작정 한 취업중심 풍토가 보여주는 부작용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것이,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청년들의 상태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 정도에 불과해, 괜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20대 청년 대부분이 이런 괜찮은 일자리를 목표로 경쟁적인 취업준비에 뛰어들었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실망실업자가 되기 십상이다. 자신의 삶이나 진로에 대한 탐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역량도 미비하다.

(2)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

기본방향 2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nd Inclusive Approach)
고용문제의 양적인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청년들의 중층적, 다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 등 각 분야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대 청년 정책이 통합적으로 기획·운영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0대 청년들이 처한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이란 우선, 이들이 처한 어려움이 비단 일자리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이행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통합적(integrated approach)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더하여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통합적 접근(inclusive approach)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율을 높이는 고용문제의 양적인 접근만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한귀영, 2015). 진로탐색이 되지 않은 채 무작정 한 취업 경쟁에 휩쓸리고,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상환의 부담을 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우며,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주거비 부담이 버겁고, 반복되는 구직 실패 속에서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고용대책을 넘어서서 통합적인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고용의 양적 확대보다는 이들의 성인기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복지, 가족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과 사회체험 등 다양한 방면의 복합적 개입을 포괄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영국의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인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에서는 채무해결, 주거안정 지원, 심신건강 증진 서비스 등이 결합되어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정연순 외, 2013), “Youth Guarantee Scheme”을 적극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가들의 공통점은 공적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들(대학, 청년단체, 직업훈련기관, 개인고용서비스, 기업, 민간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연계한 광범위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EU, 2013.2.19.).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현재 청년 정책에서 취약한 채무 문제, 주거안정 정책이나 심신건강 증진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가 적극적으로 설계된 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이 통합적으로 기획·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청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나 일괄적 정책체계가 없어 사업 분절에 따른 정책효과성 저하, 사업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연달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이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여러 소관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기능중심의 분절적 지원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청년 정책이 양적인 고용확대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통합 지원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관점의 전환과 아울러 정부의 청년사업의 기획, 조정, 통합 기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편, 20대 청년들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취약집단을 위한 적극적 포용 정책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청년 니트(NEET)나 장기 미취업자,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들과 같이, 대략 규모로만 파악될 뿐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비가시화 된 집단의 적극적 발굴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사업의 강화,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적극적 배려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로서 성남시가 발표한 청년배당^{주46)}이나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사회 밖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 계획^{주47)}과 같은 20대 청년 공적 부조 정책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에서 주거수당이나 생활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심도 깊게 검토한다는 전제하고, 취약한 이행기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전면적,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46) 성남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책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시범단계에서 월 10만원씩을 19~20세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급여 수준과 지급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강남훈, 2015).

주47)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니트(NEET)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사회 밖 청년들에게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까지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평균 50만원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서울시보도자료, 2015.11.5.일자).

(3) 청년 친화적 접근

기본방향 3	청년 친화적 접근(Youth Friendly Approach)
• 실효성 있는 20대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변화한 20대 청년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감안한 사회·문화적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고용문제를 비롯하여 20대 청년들을 둘러싼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 심각성이 표면화되면서, 그 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대응 수단의 적합성이나 정책대응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나 ‘일자리 000개 늘리기’, ‘고용률 70% 달성’과 같이 양적 목표 달성을 강조한 반면, 그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대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에 맞추어진 친화적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청년중심의 친화적 정책이란 각종 지원 정책들이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성장과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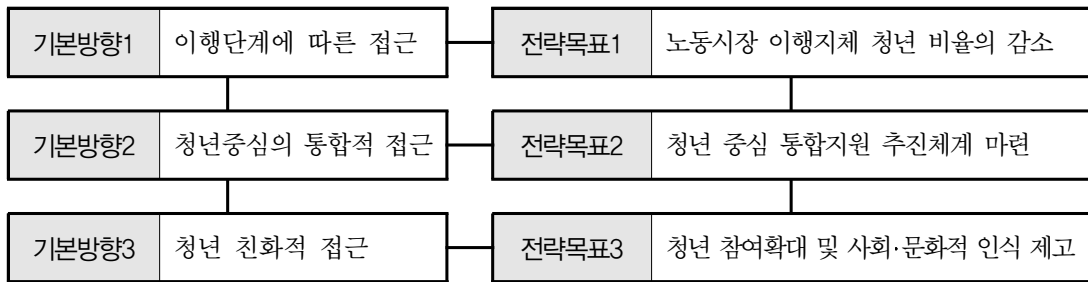
20대 청년정책이 청년 친화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급여수준은 이외로 높지 않고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나 미래 전망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일과 삶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변화는 여타 청년 대상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전통적인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변화,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 일과 다른 생활의 균형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정연순 외 2013; 한귀영, 2015), 셰어 하우스(share house)을 비롯하여, 기존 주거문화와는 다른 자립·공존적 주거 실험 등(서울특별시·청년허브, 2015)을 통해서 표출된 20대 청년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감안한 사회·문화적 정책 설계 역시 요구된다. 고용서비스, 교육훈련정책, 주거정책 등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청년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방식, 그리고 조직문화에도 이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4.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 목표 및 과제

1) 세 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앞서 논의하고 설정한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여기에서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략목표는 추후 정책효과성 평가 시 준거가 될 수 있도록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림 V-6】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첫 번째, 이행단계에 따른 접근에 따른 전략목표는 ‘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 비율의 감소’를 이다. 이 전략목표 하에서는 현행 20대 청년 지원의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들을 중요 추진과제로 포함한다.

두 번째,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에 따른 전략목표는 ‘청년 중심 통합지원의 추진체계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20대 청년정책이 기존의 각 분야별 정책의 묶음에서 대상자정책으로의 전환하며, 정책대상자를 중심으로 각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 추진주체, 정책계획 등의 내용이 중요 추진과제로 포함된다.

세 번째, 청년 친화적 접근에 따른 전략목표는 ‘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이다. 20대 청년들의 정책욕구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조정 단계에 당사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20대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제고 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사회적 안착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 그리고 청년 친화적인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사회문화적 인식수준의 제고를 중요 추진과제로 포함한다.

2)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앞서 설정된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전략과제를 제안하였다. 전략과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20대 청년정책 발전전략이 기존의 청년고용대책과 같은 분야의 또는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둔 대책이 아닌,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 전반의 밑그림으로 제안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존 고용대책에서 제시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세부정책과제들의 반복·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된 전략과제는 총 10개로, 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비율의 감소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4가지, 청년중심의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략과제 3가지, 그리고 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제고를 위한 전략과제 3가지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전략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목표1.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① 20대 청년의 진로탐색 및 개발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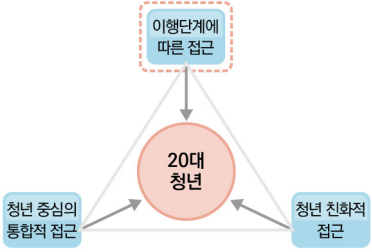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 및 흥미와 능력에 대한 풍부한 탐색, 그리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직업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성취에 달려 있다. 현재의 취업지원 중심 정책은 이러한 이행의 기초를 지원하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자기 이해를 포함한 진로탐색과 개발은 청년기 전반에 걸친 과업이지만, 정책적으로는 특히 대학 입학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의 방식은 이수학점으로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은 강의실에서의 집체강의 방식이 아닌,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후기청소년 또는 20대 청년들의 진로체험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강의 모형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20대 청년들은 졸업 전·후 인턴제도의 도움이 취업연계보다는 진로결정에 더 많은 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 자체의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인턴제가 아닌, 정부지원 인턴제는 그 운영의 실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제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의 인턴제를 대학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는 ‘진로결정’ 또는 ‘진로지원’ 목적의 인턴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4학년과 졸업유예생, 그리고 졸업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연계’ 인턴제로 이원화하여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또는 학교자체 인턴프로그램 운영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인턴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질적 평가의 실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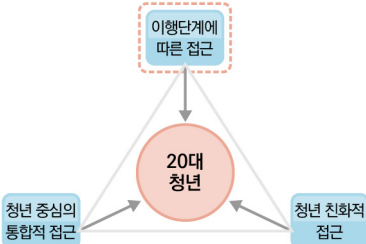
전략과제 1 20대 청년의 진로탐색 및 개발 지원 강화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대학 입학 후 저학년 시기에 진로탐색 및 개발 집중 지원 - 이수학점으로 의무적 기회 부여 - 대학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강의 운영 모형 개발·보급 • 졸업유예생 및 졸업미취업자 진로탐색 및 개발 지원을 위한 고용센터 기능 강화 • 기존 정부지원 인턴제도 졸업 전 진로결정을 위한 인턴제도와 졸업 후 취업연계 인턴제도로 이원화 운영 및 운영 내용 모니터링·질적 평가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V)	■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V)	■ 정책 우선 대상	재학 1~4학년생 (V)
	기존정책 확대 (V)		교육부 (V)		졸업유예생 (V)
	기존정책 개선 (V)		보건복지부 ()		미취업 구직활동자 ()
	신규정책 도입 ()		안전행정부 ()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V)
			여성가족부 (V)		비정규직 취업자 ()
			지자체 ()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② 20대 청년의 심리·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강화

본 연구의 실태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졸업한 20대 청년들과는 달리, 재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행태 중 하나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시험 준비를 위한 ‘휴학’이 아닌,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휴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이 매우 지친 일상을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학 중 학업과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스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함께 ‘홀로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졸업할 시기가 되었지만, 취업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졸업유예상태에 있으면서, 재학생도 아니면서 졸업생도 아닌 상태에서의 고립감과 확신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크다. 이에 더하여 재학 중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의 상환의 부담은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졸업 후 미취업상태에서의 부담은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졸업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고, 자존감과 긍정미래관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큰 폭으로 낮아진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누적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으며, 전문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전략과제 2 20대 청년의 심라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확대 및 강화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대학 재학생 심리·정신건강 서비스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 졸업미취업자 대상 심리·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구축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기청소년 및 20대 청년대상 상담지원 기능의 확대·강화 - 청년단체를 활용한 심리·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고학년, 졸업유예생, 졸업미취업자대상 취업지원 및 복지지원서비스의 연계의 강화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 신규정책 도입 ()	■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	재학 1~4학년생	(√)	
			교육부	(√)	졸업유예생	(√)	
			보건복지부	(√)	미취업 구직활동자	(√)	
			안전행정부	(√)	미취업비구직활동자	(√)	
			여성가족부	(√)	비정규직 취업자	()	
			지자체	(√)	정규직 취업자	()	
			■ 정책 우선 대상			기타	()

게다가, 대학의 학생생활상담 또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내에 그러한 곳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조차 모를 정도로 접근성이 낮다. 졸업미취업자들의 경우는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 재학생들의 심리·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며, 졸업미취업자 대상 심리·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졸업한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기관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후기청소년 및 20대 청년대상 상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능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방안 이외, 20대 청년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청년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형태의 심리·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4학년 재학생과 졸업유예생,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재학 중 누적된 대출과 취업준비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간의 감소로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을 하며, 여기에 취업을 목적으로 수도권내의 이동을 했거나 다른 권역에서 서울로 이동한 20대 청년들은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까지 더해진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취업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취업준비와 학자금대출상환 그리고 주거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연계된 상담이 필요하고, 그에 연계된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상으로 한 연계서비스의 강화를 제안한다.

③ 노동시장 이행 취약집단 지원 강화 및 발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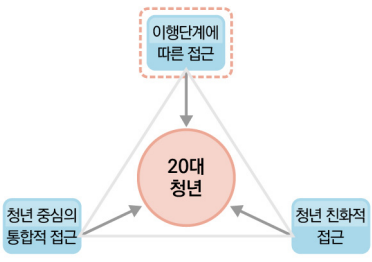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본 여건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이해를 포함한 진로탐색이 안되어 있는 집단이다.

후자의 경우는 앞서 전략과제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 전반의 진로탐색 및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논의하면,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이행의 지체가 심화될 가능성은 가장 높지만, 빠른 취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저소득층 청년들이다. 다시 말해, 부모소득에 연계되어 수혜 받는 장학금 금액이 많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해야만 졸업까지 생활이 가능하고, 여기에 장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휴학을 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졸업을 유예하지는 못하고 빠른 취업을 선택한다.

노동시장 여건이 20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다보니, 빠른 취업을 하는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일이며, 첫 일자리 이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미취업사유가 고용만료이다.

정부에서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고용할당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공공기관은 정규직 20대에 비해 비정규직 20대의 비율이 4배에 달할 만큼 20대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 이외에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이 아닌, 현실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생활장학금을 국가장학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졸업 이후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의 운영을 ‘고용의 여부’ 만을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고용’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의 제1항을 <표Ⅴ-1>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정규직 고용으로 이행 시,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전략과제 3 노동시장 이행 취약집단 지원 강화 및 발굴 확대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장학금의 신설 및 선별적 지급 운영제도 마련 ‘청년고용할당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저소득층 청년들의 우선 고용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정규직 고용 의무로 개정 및 저소득 청년 우선고용 명시 - 졸업유예생, 구직비활동 미취업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 가시화된 20대 청년 집단에 대한 정책연구 강화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V)	■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V)	■ 정책 우선 대상	재학 1~4학년생 (V)
	기존정책 확대 ()		교육부 (V)		졸업유예생 (V)
	기존정책 개선 ()		보건복지부 ()		미취업 구직활동자 (V)
	신규정책 도입 (V)		안전행정부 (V)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V)
			여성가족부 ()		비정규직 취업자 (V)
			지자체 ()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활동자와 졸업유예상태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비 가시화된 집단에 대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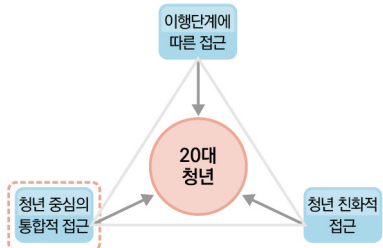
(2) 전략목표2.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① 20대 청년정책 기획·조정·통합 추진의 근거법률 마련

본 연구의 제3장 정책현황의 청년지원과 관련된 그 간 발의된 법안의 현황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청년지원을 위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안이 2014년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발의된 상태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존재하기는 하나, 고용 이외에 정책들을 포괄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법률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발의된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기존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추진해온 청년 관련 정책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부처로 모아지며,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획·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고, 다 부처에 흩어져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중복 사업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해소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국회정무위원회, 2014.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발의된 제정 법률안들과 같이, 20대 청년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명칭을 「청년발전기본법」에서 「청년지원기본법」으로 수정하여 제안한다.

전략과제 4 20대 청년정책 기획조정통합 추진의 근거법률 마련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기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발의 법안과 같이, 20대 청년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근거 법률의 제정 -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법안(2014.3.13.),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법안(2014.5.22.) - 기 발의된 「청년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청년지원기본법」으로 수정하여 제안함.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	■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 ()	■ 정책 우선 대상	재학 1~4학년생 (✓)
	기존정책 확대 ()		고용노동부 (✓)		졸업유예생 (✓)
	기존정책 개선 ()		교육부 (✓)		미취업 구직활동자 (✓)
	신규정책 도입 (✓)		보건복지부 ()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
			안전행정부 ()		비정규직 취업자 (✓)
			여성가족부 (✓)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②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의 추진 주체 확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통합적 정책지원을 추진할 주체가 확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발전기본법」으로 기 발의된 두 가지 법안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를 법률의 소관부처와 정책추진의 주체로 설정한 바 있다. 시기 상 먼저 발의된 박기춘의원의 발의 법안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청년정책의 추진 주체이자 청년기본계획의 수립주체로 명시하였고, 김상민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로 명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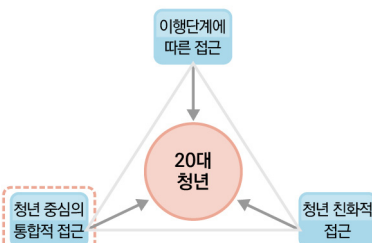
이 두 가지 발의 안은 모두 장단점을 갖는데, 먼저 여성가족부가 20대 청년정책의 주관부처가 될 경우, 현재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정책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으로까지 정책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라는 대상자 정책의 주관부처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20대 청년을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청년’ 대상자 정책의 주관부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은 10대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고,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측면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20대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연계 고리 정책들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가 되었을 때, 기획이 취약해지고 조정의 기능만이 남을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처로 하였을 경우, 다수의 부처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 정책의 시행이 추진력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부처 간 연계와 강한 협업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대상자 정책의 특성 상, 각종 정책의 조정 및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본연의 기능이 청년정책의 기획과 조정에 큰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책사업 실행부처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기획이 약하고 조정의 기능만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략과제 5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의 추진 주체 확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된다면, 추진 주체가 확정되어야 하나, 기 발의된 법안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를 추진 주체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다른 부처 등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장단점을 비교함. - EU의 “Youth Guarantee Scheme” 운영 성공사례에 기초한다면, 고용노동부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며, 청년위원회도 그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으나,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현재의 한계가 있음.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 신규정책 도입 (√)	■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 (√)	■ 정책 우선 대상	재학 1~4학년생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안전행정부 () 여성가족부 (√)		졸업유예생 (√) 미취업 구직활동자 (√)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 비정규직 취업자 (√)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여성가족부나 기획재정부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면, 고용노동부와 청년위원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소관부처이고,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다른 관계부처들이 연계되어 움직이는 유럽연합의 “Youth Guarantee Scheme”의 추진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로 청년위원회의 경우,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사업의 기획·조정 평가 등에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다 보니 통합지원정책의 보완적인 지원 역할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표 V-2 20대 청년중심 통합정책 추진 주체로서 확정 시 장·단점 비교

구분	박기춘의원 발의 법안	김상민의원 발의 법안	연구진 검토 1안	연구진 검토 2안
부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장점	•대상자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기 수행 •24세 청소년까지 지원	•각종 국가정책의 조정 및 중장기 정책전략 수행	•청년고용종합대책 수립 경험 다수 •Youth Guarantee Scheme”의 모형 적용 가능	•청년대상에 초점 둠 •소통, 정책기획조정 기능 수행
단점	•20대 대상 정책 기획 조정의 경험 미미	•기본 기능 및 성격이 정책 실행부처 아님	•포괄적 정책 기획조정 경험 미미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 기능 부재

(3) 전략목표3.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① 20대 청년 당사자의 청년 기획 및 조정예의 참여 근거 마련

20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내용이 적절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기획 및 조정단계에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중심의 통합적 정책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20대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전략과제로 제안한다.

전략과제 6 20대 청년 당사자의 청년 기획 및 조정에의 참여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2항의 내용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에 청년당사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회 구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범위에 청년당사자 대표를 추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20%를 청년당사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 신규정책 도입 ()	■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	()	재학 1~4학년생	(✓)
			고용노동부	(✓)	졸업유예생	(✓)
			교육부	(✓)	미취업 구직활동자	(✓)
			보건복지부	()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
			안전행정부	()	비정규직 취업자	(✓)
			여성가족부	()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지난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제와 같은 취지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김광진의원외 대표 발의, 2014.10.29.)에서, 동법 제4조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일정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에 기초하여 구성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현황’을 볼 때, 현재 위촉 민간전문가 8명 중 1명만이 청년에게 할당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청년당사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 내용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20%를 청년당사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을 제안한다.

표 V-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생략)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협의회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현행과 같음)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사업주단체의 대표 3. 학교와 청소년협의회 등 교육과 청소년기관·단체의 대표 4. 청년고용과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년 당사자 대표

표 V-4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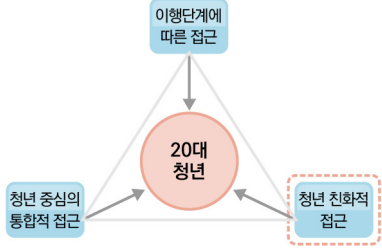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구성)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위원회구성) 영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생략 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 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 2. 사업주단체: 생략 3. 교육 및 청소년기관·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사무처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5. 청년 당사자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20%해당하는 인원을 위촉

② 20대 청년 친화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보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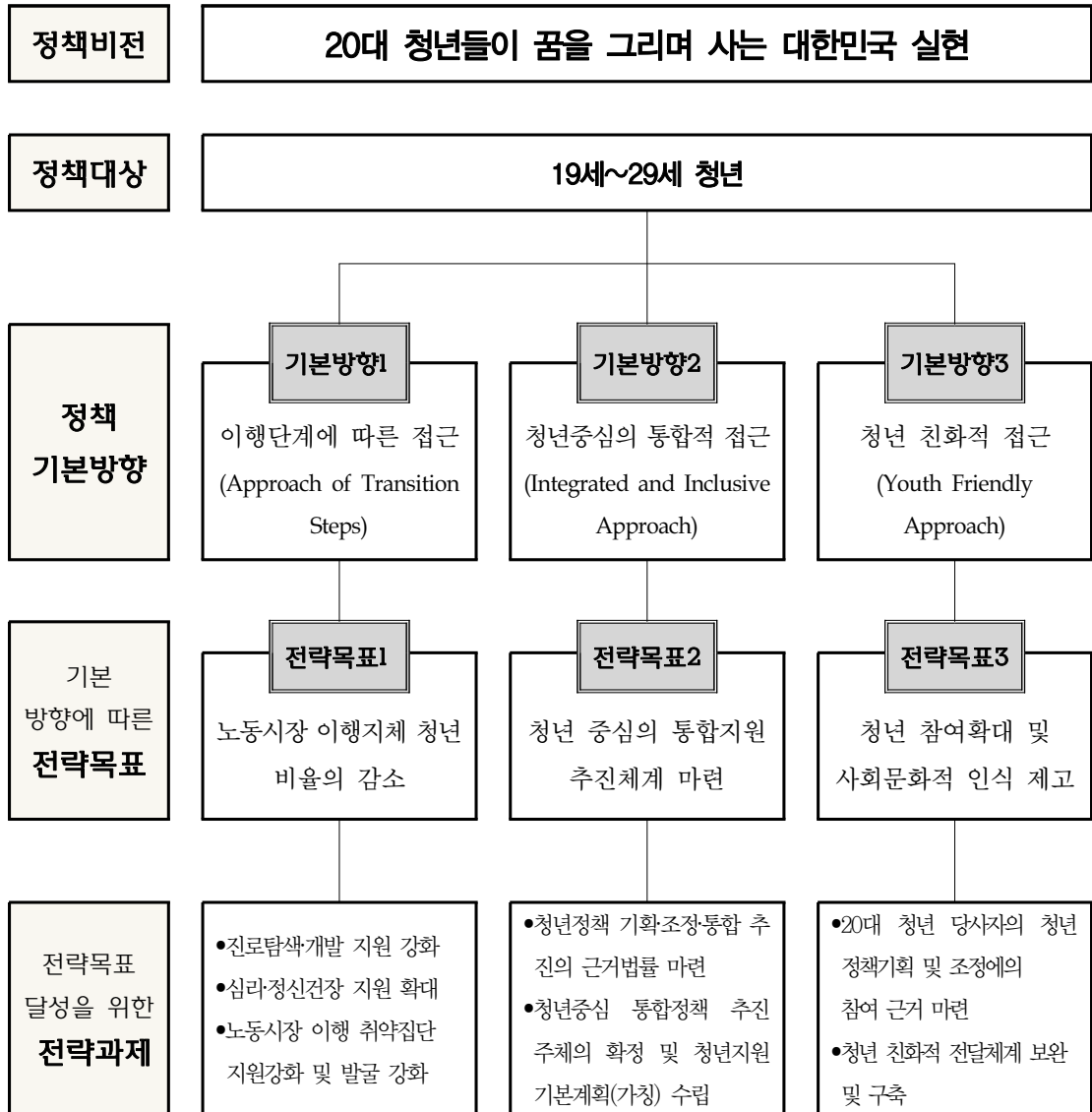
20대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20대 청년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청년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청년 친화적 접근성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행정기관 또는 대학 중심의 청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설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년고용센터가 꼭 대학 캠퍼스 내에만 설치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용과 심리·정서적 복지서비스 및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합 지원센터가 졸업미취업자, 그 중에서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구직비활동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노량진 고시촌이나 취업학원 밀집지역 등지에 설치된다면, 청년들의 접근성의 확보는 물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일상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보완과 신규 전달기관 추가 구축 시, 청년들의 일상성을 고려하고 정책수요의 목표 집단을 고려하여 구축할 것은 제안한다.

전략과제 7 20대 청년 친화적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보완구축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기존 행정기관 또는 대학 중심의 청년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청년 친화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 - 대학 캠퍼스 밖 청년고용센터의 설치 고려 20대 청년들의 일상성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지원의 수요가 많은 집단의 밀집지역에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노량진고시촌, 취업학원 밀집지역 등에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학자금대출 상환 상담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합 지원센터 설치					
■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강화 (V)	■ 관계 부처	기획재정부 ()	■ 정책 우선 대상	재학 1~4학년생 (V)
	기존정책 확대 (V)		고용노동부 (V)		졸업유예생 (V)
	기존정책 개선 (V)		교육부 (V)		미취업 구직활동자 ()
	신규정책 도입 (V)		보건복지부 ()		미취업 비구직활동자 (V)
			안전행정부 ()		비정규직 취업자 ()
			여성가족부 (V)		정규직 취업자 ()
					기타 ()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의 발전전략 정책비전 및 정책추진의 세 가지 기본방향의 설정,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목표의 설정, 그리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7개의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V-7] 및 <표 V-5>와 같다.



【그림 V-7】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전략의 기본 틀(안)

표 V-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기본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전략과제 실천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이행단계에 따른 접근 (Approach of Transition Steps)	노동시장 이행지체 청년 비율의 감소	1. 진로탐색개발 지원 강화	1-1. 대학 저학년시기 진로탐색 및 개발 집중 지원 1-2. 졸업유예생 및 졸업미취업자 진로탐색 및 개발지원을 위한 고용센터 기능 강화 1-3. 정부인턴제도 졸업 전 진로 결정 지원을 위한 인턴제, 졸 업 후 취업연계로 이원화 운 영 및 운영내용 모니터링 및 질적 평가 실시
		2. 심라정신건강 지원 확대	2-1. 대학재학생 심라정신건강서 비스 체계화 및 운영 내실화 2-2. 졸업미취업자 대상 심라정 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보완 구축 2-3. 고학년, 졸업유예생, 졸업미 취업자 대상 취업지원 및 복 지지원서비스 연계 강화
		3. 노동시장 이행 취약집단 지원강화 및 발굴 강화	3-1.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대상 생활장학금 제도 신실운영 3-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 조 ‘청년고용할당제’ 정규직 고용 의무로 개정 3-3. 비가시화된 20대 청년집단 에 대한 정책 연구 강화
청년중심의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nd Inclusive Approach)	청년 중심의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4. 청년정책 기획조정통합 추진의 근거법률 마련	4-1. 「청년지원기본법」(가칭) 제 정 추진
		5. 청년중심 통합정책 추진 주체의 확정 및 청년지원 기본계획(가칭) 수립	5-1. 기재부, 여가부, 고용노동 부, 청년위원회의 통합정책 추진주체에 법적·행정적 검토 (※법제정에 따라 추가 논의)
청년 친화적 접근 (Youth Friendly Approach)	청년 참여확대 및 사회문화적 인식 제고	6. 20대 청년 당사자의 청년 정책기획 및 조정예의 참여 근거 마련	6-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 령」 제5조, 청년고용촉진특별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개정
		7. 청년 친화적 전달체계 보완 및 구축	7-1. 행정기관, 대학 중심의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청년 친 화적 보완 7-2. 정책지원 수요가 많은 집단의 밀집지역에 전달체계 구축 7-3. 고용, 복지, 학자금대출 상 환 상담 동시 지원센터 설치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

- 강남훈(2015). 성남 청년배당 어떻게 준비되고 있다. **녹색평론**, 144, 서울: 녹색평론사
-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토해양부(2012). 대학생 주거비 경감을 위한 대학 기숙사 건설 지원 추진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2013).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 권혜자(2014).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한국의 사회동향2014, pp.176-181.
- 금재호(200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제3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자료집**, pp.1~25.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12, 4월호). 청년취업난의 악화(1): 피해자는 누구인가?. **월간 노동리뷰**, 85, pp.17-38.
- 김기민(2015). **고용의 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교를 중심으로**. KLI 패널브리프, 제1호, pp1-10.
- 김문희(2015). OECD의 유럽청년보장(Youth Guarantee) 제도 연구. **The HRD Review**, 글로벌리포트(1.27), pp.96-115, 세종: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성환, 박상우(2008).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층의 직장 이행과정 분석-첫 직장 규모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1(4), pp.1479-1501.
- 김수정, 김영(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pp.223-247.
- 김안나, 김성훈(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 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pp.163-180.
- 김안나, 이병식(2008). 학자금 대출이 재학기간 연장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4), pp.55-73.

- 김지경(2013).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현황**. NYPI청소년정책 리포트, 4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2013).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Ⅱ: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하, 이병식(2009).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직접효과, 소득분위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 **교육행정학연구**, 27(3), pp.447-470.
- 김태완, 강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훈(201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고용법제 개선 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pp.59-72.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남재량(2011). 최근 청년 니트(NEET)의 현황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11년 3월호, pp.29-40. 한국노동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2015a). 대교연 통계(기본) 2015-2015년 9호, 통권 28호, VIII-1. 장학금
- 대학교육연구소(2015b).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현황’ 정보 공개 청구 자료.
- 박동, 박천수, 이종원(2014). **대학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진희, 김두순, 이재성(2015). **최근 청년노동시장 현황과 과제.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 제언**.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pp.117-139
- 박천수, 박동, 김수진(2013). **청년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반상진(2012). 대학등록금의 쟁점 분석과 합리적 대안 모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97-115
- 변창흠(2014). 행복과 공간적 정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제53호**, 21(3), pp.45-51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소영현(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집, pp.387-416.

- 송창용, 신동준(2013).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실태와 영향. *HRD Review*, 16(2), pp.174-18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오호영(2009). 국민통합을 위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HRD Review*, 12(3), pp.29-3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선영, Cuervo, Wyn(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김숙진, 박현준(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욱, 김균, 이만기(2010). **취업(채용) 경로별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공고용서비스(PES)의 발전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오찬호(2010). 후기청소년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기억과 전망, 통권 22호**, pp.214-251.
- 오찬호(2015). **진격의 대학교**. 경기: 문학동네
- 오혜진(2013).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문학연구**, 38집, pp.463-488.
- 오호영, 송창용, 송봉모(2012).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실태 파악을 통한 진로정책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광호(2003).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3호**, pp.331-349.
- 이병희(2011).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pp.71-95.
- 이상호(2015).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어떻게 가능한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73-108, 서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이지은(2015).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KLI 패널브리프, 제3호, pp.1-5.
- 이태형(2015). **서울시 대학생 생활실태·정책평가보고서**. 대학생 정책 연구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 자료집.
- 장휘숙(2010).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다은, 강선일, 나해리, 정은주(2014). **대한민국 취업전쟁 보고서**. 서울: 더퀘스트.
- 전병유(2009).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양극화**, 신자유주의 대안론, 서울: 창비

- 전상진(2004). 학교위기에 대한 세대이론적 접근-교육학적 모라토리움의 세대이론적인 재구성.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2호. pp.195-218
- 전상진(2011). 미래예측, 복고, 청소년 -후기근대 청소년의 위험과 도전과제에 대한 시간사회학적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제27권**, pp.152-178.
- 전상진(2013). 세대통합을 위한 또는 세대통합에 관한 교육체계의 역할; 교육체계는 문제의 해결책일까, 아니면 원인일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RM 2013-09** pp.39-69.
- 전상진, 정주훈(2006). 한국후기청소년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6호**, pp.261-285.
- 전주용, 강순희, 김미란, 남기곤, 민주홍(2013). **청년층 노동시장 정책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상근(2011).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 서울: 시대의창.
- 정연순, 변정현, 황여정, 宮本美子(2013).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 니트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정의철(2012). 주거비용이 청년층의 가구형성이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18(2)**, pp.19-31.
- 정인수, 남재량, 이승우 (2006).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조혜영, 김지경, 전상진(2012).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대학재학 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희경, 박동열, 김민규(2014).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상기, 김진영(2014).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이 학자금 부담경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GRI 연구논총, 16(1)**, pp.191-219. 경기개발연구원
- 채창균, 오호영, 윤형한, 정재호, 신동준, 이인재(2012). **주요 청년 고용정책 이슈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년일자리허브(2014). **News from Welfare-State** 자료집. 서울: 서울시.
- 최은영(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제 106호**
- 최은영, 권지웅, 김기태, 남지, 정원준, 황서연(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통계개발원(2014). **2014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고용정보원(2015a).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2015b). **청년패널 2007 7차조사(2013)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2014). **2014 KLI노동통계**.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황서연(2014).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 모델과 당면과제: 청년주거빈곤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106호.

한귀영(2015).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청년 의식 조사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5-70, 서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윤형(2013).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서울: 어크로스.

후루이치노리토시(2014).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서울: 민음사.

Blatterer, H.(2007). *Coming of age. In Times of uncertainty*. New York & Oxford: Berghahn Books.

European Youth Forum(2012). *A Youth Guarantee for Europe*, pp.6-17.

Neil J. Salkind(2009). *Exploring Research*. New Jersey: Prentice Hall.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Publishing, pp.207-218.

UNICEF (2013). *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

[기사 및 자료]

경향신문(2011.4.6.) **10년간 물가 31% 오를 때 등록금 최고 82% 올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062128035&code=940401

관계부처합동(2013.5.28.).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2014.4.15.).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정책**.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2015.7.27.).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보도자료.

- 국민일보(2015.5.19.). “제구실 못하는 청년인턴제 손본다… 취업·교육 등 목적별 전환 분산된 사업 통폐합 추진”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82723&code=11131800>
- 국민일보(2015.10.13.).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장학금=성적우수’ 파괴…대학 장학제 패러다임 바꾼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77340&code=11131300&cp=du>
- 국회(2014.3.13.).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909701). 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자료.
- 국회(2014.5.22.). 청년발전기본법안(의안번호: 1910709). 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자료.
- 국회(2014.6.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5552).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자료.
- 국회(2014.10.2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2181).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자료.
- 국회(2015.4.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4658).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자료.
- 국회기획재정위원회(2014.11). 청년발전기본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자료.
- 대학교육연구소(2015.2.15.) 학자금 대출액 4년 만에 3배 늘어, 1인당 빚 525만원 → 704만원. <http://khei-khei.tistory.com/1271>
- 김종진(2015.9.3.). 청년 인턴 노동현실과 제도적 보호 방안 과제. 제2차 콜로키움 발표 자료.
- 대한토지주택공사(2014.11.17.). 2015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22513¬ice_type=apt
- 매일노동뉴스(2015.5.22.), “청년고용 의무화 첫째, 이행 공공기관 큰 폭 증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40>
- 민달팽이유니온(2014.11.13.),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곳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다.” . <http://minsnailunion.tistory.com/206>
- 민병두의원실(2015.9.25.). 대학생 대출, 1조원 돌파.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SH공사(2015.5.19). 희망하우징 소개. http://www.i-sh.co.kr/www/m_157/wpge/lease_wish_intro.do

- 서울시(2015.11.5). **사회 밖 청년에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지원**. 보도자료.
- 아시아경제(2015.6.8). **인포그래픽 2030세대 “버는게 없어 쓰지도 못해”**.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0817200231441>
- 안민석의원실(2014.4.4). **취업준비생을 두 번 올리는 일선대학들, 졸업 유예대가로 비용 청구**. 보도자료. <http://m.blog.daum.net/osan21/7828757>
- 유기홍의원실(2015.9.10.). **201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①: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 보도자료.
- 오찬호(2015.05.12.). **20대 대학 재학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제1차 콜로키움 발표 자료.
- 전국무역인연합 시장동향(2013.3.6.). **“EU, 회원국에서 사회투자로서 Youth Guarantee Scheme 이행촉구”**. <http://cafe.daum.net/ktrc21/d9c/286>
- 정책공감블로그(2015.5.19).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157>
- 조선일보(2015.2.24.). **‘달관세대가 사는 법’ 덜 벌어도 덜 일하니까 행복하다는 그들... 불황이 낳은 ‘달관(達觀)세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3/2015022300056.html
- 주간경향(2014.3.11.). **너에겐 설렘, 나에겐 설움. 대학생 해외연수 희비쌍곡**.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3041130551&code=115>
- 중앙일보(2013.5.19.). **저소득층엔 무상장학금, 중산층은 학자금 대출로**. <http://news.joins.com/article/17831001>
- 중앙일보(2013.6.4.). **취업...어학 스펙 부모소득 순...학점은 무관**.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706082&ctg
- 중앙일보(2015.9.19.). **반수권하는 수능...대학 1학년때 자퇴·휴학 5만명**. <http://news.joins.com/article/18699539>
- 통계청(2014.7.1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겨레신문(2015.7.2.). **사립대 국고보조금 절반이 서울에 쏟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98539.html>
- 한겨레신문(2015.9.9.). **송아지 24마리 팔아 졸업하니 백수... ‘헬조선’ 의 대학생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18.html

한국경영자총협회(2014.6). **2014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 결과**.

한국경제(2015.1.14.). **장그래보다 더 미생인 청년 5명 중 1명**.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48507B>

한국교육개발원(2013.2.26.). **독일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acNum0=15248>

한국교육개발원(2013.2.26.). **프랑스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

한국대학신문(2014.8.24.). **매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 전쟁’**.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8185>

EU(2012.12.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P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Establish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36>

EU(2013.02.19.) **Youth Guarantee**. <http://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공전환기숙사 <http://happydorm.or.kr/hub/20/2040.kmc>

대학교육연구소 <http://http://khei-khei.tistory.com/>

대학생전세임대주택 <http://myhome.lh.or.kr/welfare/rent/base01.asp>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연구윤리가이드. <http://www.apa.org/ethics/code/index.aspx>

미국 SRCD(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연구윤리가이드(Ethical Standards in Research). <http://www.srkd.org/about-us/ethical-standards-research>

스웨덴 중앙학자금 지원처 <http://www.csn.se/en/2.1034/2.1036/2.1037/2.1038/1.9265>

영국 정부 통합 사이트 <https://www.gov.uk/student-finance/loans-and-grants>

통계청 <http://www.kostst.go.kr>

핀란드 사회안전보장 사무소, <http://www.kela.fi/web/en/housing-supplement-for-students>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행복기숙사 <http://happydorm.or.kr/hub/20/2010.kmc>

행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

호주 보건사회복지부 홈페이지 www.humanservices.gov.au

[참고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청소년기본법

.....

부록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ID					
---	-----------------------------------	----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20대 청년, 후기청소년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만19세~만29세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바쁘시더라도 20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세부 조사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6~7월

조 사 기 관 : 입소스 사회여론조사본부

담당 연구원 : 배예영 차장

연 락 처 : 02-6464-5307

< Web 설문 구축 시 확인사항 >

- 각 문항에서 ◆는 Web 설문 구축 시 분기(로직)·데이터 저장 여부·화면 구현 등을 관련하여 설명함

- 분기(로직)

- hard: 응답값 범위, 그 외 범위 응답 불가
- soft: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응답 가능한 범위, 확인창으로 응답값 확인

확인창 내용 : 응답한 내용이 맞습니까? 예 → 이후 문항으로 이동 / 아니오 → 해당 문항 재질문

<응답 대상 판별>

<조사 대상자 기준>		
구분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 제외
연령	만19세~만29세 (1986년 6월 1일~1996년 12월 31일 출생자)	1986년 6월 1일 이전, 199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대학 유형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4년제 일반대학 휴학생, 2·3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 해외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전공 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상경 or 경상계열 포함),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전공자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

SQ1. 귀하의 출생년월은 언제 입니까? 19__년 __월

→ 1986년 6월 1일~1996년 12월 31일은 SQ2번으로

→ 1986년 6월 1일 이전, 199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는 조사 종료

SQ3. 귀하가 재학하고 있거나 최종 졸업한 대학교(학부)는 어디입니까? 대학명을 검색해 주십시오.
대학명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기타'를 응답해 주세요.

대학교

→ '일반대학 219개교' 응답, SQ2-1, SQ2-2는 리스트에 있는 응답으로 auto coding 후 SQ3번으로

→ '기타' 응답자는 조사 종료

◆ 2015년 기준, 일반대학 219개교(국·공립38, 사립 181) + '기타' Web에서 구현 : 리스트 제공

SQ2-1. 귀하가 재학하고 있거나 최종 졸업한 대학교(학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세종 | |

SQ2-2. 귀하가 재학하고 있거나 최종 졸업한 대학교(학부)의 설립주체는 누구입니까?

- | | |
|---------|-------|
| 1. 국·공립 | 2. 사립 |
|---------|-------|

SQ3. 귀하가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대학의 주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 | | | |
|---------|------------------------|---------|------------|
| 1. 인문계열 | 2. 사회계열(상경 or 경상계열 포함) | 3. 교육계열 | ↩ |
| 4. 공학계열 | 5. 자연계열 | | ↩ → SQ4번으로 |
| 6. 기타계열 | → 조사 종료 | | |

SQ4. 귀하의 현재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응답 기준>

- 졸업 후 미취업상태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③~④ 중에 응답해 주세요.
- 졸업 후 미취업상태로 주 15시간 이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⑥번으로 응답해 주세요.

<용어 설명> 구직활동이란?

구직사이트에 등록, 일사원서나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함

1. (재학생)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으로 2015-1학기를 등록하여 다니고 있다
2. (재학생) 4년제 일반대학 재학생으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은 연기(졸업유예)한 상태이다
3. (졸업-미취업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으로 현재 미취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4. (졸업-미취업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으로 현재 미취업상태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5. (졸업-취업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6. (졸업-취업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으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7. (졸업-취업자) 4년제 일반대학 졸업생으로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다
8. 위 ①~⑦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사 종료

SQ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 SQ5-1번으로
2. 여 → SQ4의 ①응답자는 1-1번으로, SQ4의 ②응답자는 1-1번을 ⑤로 auto coding 후 1-2번으로, SQ4의 ③~⑦응답자는 1-2번으로

SQ5-1. (SQ5의 ①응답자만) 군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SQ4의 ①응답자는 1-1번으로, SQ4의 ②응답자는 1-1번을 ⑤로 auto coding 후 1-2번으로, SQ4의 ③~⑦응답자는 1-2번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공통>

I. 재학 또는 졸업대학 일반 현황

1. 귀하가 현재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대학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응답해 주십시오.

1-1. 학년 (SQ4의 ①~②응답자만 : 재학생)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졸업연기
1-2. 입학년도	_____ 년 → SQ4의 ③~④응답자는 2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1-3번으로
1-3. 졸업년도 (SQ4의 ③~⑦응답자만 : 졸업생)	_____ 년 ◆ hard: 1-2.입학년도<1-3.졸업년도 ◆ soft: 1-3.졸업년도 - 1-2.입학년도 ≤ 2

II. 대학생할만족도 및 대학이 갖는 의미에 관한 인식

2. 귀하가 현재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의시설 및 실습시설에 만족한다.	1	2	3	4	5
2) 개인 또는 그룹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1	2	3	4	5
3) 학습 자료와 인터넷 사용 환경에 만족한다.	1	2	3	4	5
4) 학생 식당, 휴식 공간, 문화 공간 등 학생복지와 관련한 시설에 만족한다.	1	2	3	4	5
5) 학교의 장학금 지원에 만족한다.	1	2	3	4	5
6) 교육과정의 다양한 구성과 교과목의 자율적 선택 폭에 만족한다.	1	2	3	4	5
7) 강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내 전공에 만족한다.	1	2	3	4	5
9) 학교 내/외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가 충분하다.	1	2	3	4	5
10) 교환학생, 해외연수 등 해외경험의 기회와 지원이 충분하다.	1	2	3	4	5
11) 취업/진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12)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13) 교수와 학생간의 유대 및 관계가 만족스럽다.	1	2	3	4	5
14) 학생간의 유대 및 관계가 만족스럽다.	1	2	3	4	5
15) 도서관이용시간 변경과 같은 교내시설의 운영, 학점인정이나 재수강 등 학사 규정 변경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의견반영이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3. 귀하가 경험한 '대학이 갖는 의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내가 경험한 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관심있던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1	2	3	4	5
2)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 가야 하는 곳이다.	1	2	3	4	5
3)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1	2	3	4	5
4) 인간관계 맺기의 어려움과 맺어진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느끼는 곳이다.	1	2	3	4	5
5) 사회진출을 유예 받는 곳이며 준비하는 곳이다.	1	2	3	4	5
6) 더 알고 싶거나 내가 인간으로서 성장한다고 느낄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1	2	3	4	5
7) 사회생활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1	2	3	4	5

Ⅲ.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 미래관, 진로성숙도

4. 귀하는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2)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3) 가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1	2	3	4	5
4)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에게도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1	2	3	4	5
6) 내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별로 없다.	1	2	3	4	5
7) 때때로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1	2	3	4	5
9) 전반적으로 나는 실패적인 것 같다.	1	2	3	4	5
10) 가끔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5. 다음의 각 항목이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예	아니오
1) 내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의욕적이다.	1	0
2) 일이 잘 안될 때에는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1	0
3)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1	0
4) 장래에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0
5) 앞으로 내 인생에서 보통사람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0
6) 나에게 있어 과거의 경험이 장래를 위한 좋은 준비가 되고 있다.	1	0
7) 내 미래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0
8) 내 미래에 대해 큰 신념을 가지고 있다.	1	0
9) 내 미래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	0

6. 진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태도, 행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2) 내 성격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로(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다.	1	2	3	4	5
4)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1	2	3	4	5
5) 내 진로(직업)를 스스로 결정한다.	1	2	3	4	5
6) 내 직업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1	2	3	4	5
7) 내 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고 싶다.	1	2	3	4	5
8) 희망 직업을 갖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것이다.	1	2	3	4	5

7.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혼자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며 학업이나 취업준비, 또는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 하루하루 일상에서 느끼는 시간 압박감이 크다.	1	2	3	4	5
3) 경제적 부담으로 친구, 선·후배와의 만남을 줄인다.	1	2	3	4	5
4) 취업에 성공한 친구 또는 나보다 더 좋은 곳에 취업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점 꺼려진다.	1	2	3	4	5
5)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감이 있다.	1	2	3	4	5
6) 부모의 기대가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1	2	3	4	5

IV. 청년세대 특성에 관한 인식

8. 다음은 '20대 청년세대'의 특성으로 언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20대 청년들은...)	동의안함 ← → 동의함									
1) 사회가 경쟁사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경쟁사회 체제에 순응한다.	1	2	3	4	5	6	7	8	9	10
2) '성취중독'과 '비교중독' 상태이다.	1	2	3	4	5	6	7	8	9	10
3)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5포세대'이다.	1	2	3	4	5	6	7	8	9	10
4) 낮은 고용안정성과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 적응하며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달관세대'이다.	1	2	3	4	5	6	7	8	9	10
5)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6)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9종 세트'와 같이 스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	2	3	4	5	6	7	8	9	10
7) 20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 높은 연봉보다는 일과 다른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있는 일자리이다.	1	2	3	4	5	6	7	8	9	10
8) 길어지는 취업준비기간을 감수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9) 20대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개인들이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0) 20대 청년들의 취업난에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이 크다.	1	2	3	4	5	6	7	8	9	10

V. 대학생 생활 경험

9. 귀하는 대학 입학 후 '반수' 경험이 있습니까?

<용어 설명> 반수(半修)란?

대학 재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입학을 다시 준비(대입 재수)하는 것을 의미함

1. 있다

→ 9-1번으로

2. 없다

→ 10번으로

9-1. (9의 ①응답자만) 반수를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더 좋은 평판의 학교로 옮기기 위해
2.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3. 취업과 상관없이 원했던 전공공부를 위해
4. 통학하기 편한 학교로 옮기기 위해
5.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6. 기타()

9-2. (9의 ①응답자만) 반수에 성공하여 대학을 옮겼습니까?

1. 예

2. 아니오

10. 귀하는 대학 입학 후 편입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0-1번으로 2. 없다 → 11번으로

10-1. (10의 ④응답자만) 편입준비를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전문대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 옮기기 위해 | 2. 재학했던 대학보다 더 좋은 평판의 학교로 옮기기 위해 |
| 3.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재입학하기 위해 | 4. 취업과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공부를 위해 |
| 5. 통학하기 편한 학교로 옮기기 위해 | 6.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
| 7. 기타() | |

10-2. (10의 ④응답자만) 편입에 성공하여 대학을 옮겼습니까?

1. 예 2. 아니오

11. 귀하는 대학 입학 후 군복무를 제외한 이유로 휴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1-1번으로 2. 없다 → 12번으로

11-1. (11의 ④응답자만) 휴학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취업관련 시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 2. 어학연수를 위해 |
| 3. 봉사활동을 위해 | 4. 공모전준비를 위해 |
| 5. 진로를 고민하기 위해 | 6. 심리·정서적 재충전을 위해 |
| 7. 학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 8. 해외여행을 위해 |
| 9. 기타() | |

11-2. (11의 ④응답자만) 휴학했던 기간은 총 몇 학기입니까? 총 _____ 학기

- ◆ hard: 1≤학기 ◆ soft: 7≤학기

12. 귀하는 복수전공을 하고 있거나 복수전공을 하였습니까?

1. 예 → 12-1번으로
2. 아니오 → SQ4의 ③~⑦응답자는 13번으로,
SQ4의 ①응답자는 13번을 ②로 auto coding 후 14번으로,
SQ4의 ②응답자는 13번을 ④로 auto coding 후 13-1번으로

12-1. (12의 ④응답자만) 복수로 전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1. 인문계열 | 2. 경상(또는 상경)계열 |
| 3. 경상(상경)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 | 4. 교육계열 |
| 5. 공학계열 | 6. 자연계열 |
| 7. 예체능계열 | 8. 기타() |

→ SQ4의 ③~⑦응답자는 13번으로

→ SQ4의 ①응답자는 13번을 ②로 auto coding 후 14번으로

→ SQ4의 ②응답자는 13번을 ④로 auto coding 후 13-1번으로

13. 귀하는 졸업을 연기(유예)하고 있거나 유예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3-1번으로 2. 없다 → 14번으로

13-1. (13의 ④응답자만) 졸업을 연기(유예)한 기간은 총 몇 학기입니까? 총 _____ 학기

- ◆ hard: 1≤학기

14. 귀하가 하고 있거나 재학 중 참여했던 교내/외 활동에 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각 항목별 활동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활동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활동 항목	14-1. 활동 여부	14-2. (14-1의 ①응답자만) 활동을 한 가장 주된 목적 ※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주된 목적 한 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1) 교내 중앙 동아리 또는 학회, 학생회	1. 활동함 2. 활동안함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5. 기타 ()
2) 교내 학부/학과 동아리 또는 학회, 학생회	1. 활동함 2. 활동안함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5. 기타 ()
3) 교외 대외활동	1. 활동함 2. 활동안함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5. 기타 ()
4) 교내/교외 학습활동(스터디)	1. 활동함 2. 활동안함	1. 여러 선·후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2. 취미·여가활용의 목적으로 3. 흥미 있던 학습을 목적으로 4.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5. 기타 ()

→ SQ4의 ①응답자는 15번으로, SQ4의 ②응답자는 16번으로, SQ4의 ③~⑦응답자는 17번으로

15. (SQ4의 ①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있습니까?

1. 있다 → 15-1번으로 2. 없다 → 16번으로

- 15-1. (15의 ①응답자만)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다른 대학의 재입학 또는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3.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4. 경험한 대학교육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5.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대학교육이 필요치 않아서
6. 교수·학생, 선·후배, 친구관계에 회의감이 느껴져서
7. 기타()

VI. 학자금 부담 및 장학금

16. (SQ4의 ①~②응답자만) 귀하가 이번학기(2015-1학기)에 실제 납입한 등록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실제 납입 등록금 _____ 만원

◆ hard: 0≤실제 납입 등록금≤700

◆ soft: 0≤실제 납입 등록금≤9

17. 귀하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등록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생활비대출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있다 → 17-1번으로 2. 없다 → 18번으로

- 17-1. (17의 ①응답자만) 등록금대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3.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4. 은행 등 금융권 학자금 대출
5. 기타()

◆ hard: 1≤응답값≤5

- 17-2. (17의 ①응답자만) 등록금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 내용에 대한 귀하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1. 대출관련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대출기간, 상환 시작시기 및 방법, 이자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2. 모르는 용어와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대출기간, 상환 시작시기 및 방법, 이자율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
3.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하였다

- 17-3. (17의 ①응답자만) 현재까지 대출받은 등록금 총액과 등록금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한 금액이 없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대출금 총금액 _____ 만원,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_____ 만원

→ 대출금 총금액=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17-5번으로

◆ hard: 1≤대출금 총금액, 0≤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대출금 총금액

◆ soft: 1≤대출금 총금액≤50

17-4. (17의 ① & 17-3의 '대출금 총금액>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응답자만)

현재 등록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월평균 상환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매월 상환 금액(이자포함) _____ 만원

◆ hard: 0≤매월 상환 금액, 매월 상환 금액≤17-3.대출금 총금액 - 17-3.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17-5. (17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체감하는 등록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부담 없음	보통										매우 부담
0	1	2	3	4	5	6	7	8	9	10	

18.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생활비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8-1번으로

2. 없다

→ 19번으로

18-1. (18의 ①응답자만) 생활비대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1.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2.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

3. 은행 등 금융권 생활비 대출

4. 사금융 및 대부업체 생활비 대출

5. 기타()

◆ hard: 1≤응답값≤2

18-2. (18의 ①응답자만) 생활비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 내용에 대한 귀하의 이해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1. 대출관련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대출기간, 상환 시작시기 및 방법, 이자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2. 모르는 용어와 개념이 있기는 했지만 대출기간, 상환 시작시기 및 방법, 이자율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였다

3.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하였다

18-3. (18의 ①응답자만) 현재까지 생활비 대출금 총액과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환한 금액이 없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대출금 총금액 _____ 만원,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_____ 만원

→ 대출금 총금액=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18-5번으로

◆ hard: 1≤대출금 총금액, 0≤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대출금 총금액

◆ soft: 대출금 총금액≤10

18-4. (18의 ① & 18-3의 '대출금 총금액>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응답자만)

현재 생활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월평균 상환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얼마나 됩니까?

상환하지 않고 있다면 '0'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매월 상환 금액(이자포함) _____ 만원

◆ hard: 0≤매월 상환 금액, 매월 상환 금액≤18-3.대출금 총금액 - 18-3.대출금 중 상환한 금액

18-5. (18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체감하는 생활비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입니까?

전혀 부담 없음	보통										매우 부담
0	1	2	3	4	5	6	7	8	9	10	

18-6 (18의 ①응답자만) 생활비대출로 귀하가 얻은 가장 큰 이점은 무엇입니까?

1.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좀 더 많은 학업 또는 취업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

2.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하고 싶었던 교내·외 친구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

3.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4. 부모님에게 내 생활비나 용돈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것

5. 기타()

19.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장학금 수혜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9-1번으로

2. 없다

→ SQ4의 ①~④응답자는 20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2번으로

19-1. (19의 ①응답자만)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장학금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국가장학금 I 유형 또는 II 유형 | 2. 국가근로장학금 |
| 3. 대통령과학장학금 | 4. 드림장학금 |
| 5. (이공계)국가우수장학금 | 6. (인문계)인문100년장학금(인문계 국가우수장학금) |
| 7. 희망사다리장학금 | 8. 교내 재단 장학금 |
| 9.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 10. 기타() |

19-2. (19의 ①응답자만)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의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등록금을 면제 받았을 경우, 등록금의 금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장학금 총금액 _____ 만원

◆ hard: 1≤장학금 총금액 ◆ soft: 장학금 총금액≤10

19-3. (19의 ①응답자만) 귀하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장학금 수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 없음	보통								매우 도움	
0	1	2	3	4	5	6	7	8	9	10

→ SQ4의 ①~④응답자는 20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2번으로

<재학생 및 졸업-미취업자만>

V. 재학 중 및 취업 전 아르바이트

20. 귀하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1. 예 → 20-1번으로 2. 아니요 → 21번으로

20-1. (20의 ①응답자만)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총 몇 개입니까? 총 _____ 개

◆ hard: 1≤아르바이트 수

20-2. (20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1. 등록금 충당을 위해 | 2. 나의 생활비(용돈) 충당을 위해 |
| 3. 나의 등록금, 생활비 대출 상환을 위해 | 4. 해외연수,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 5. 원하는 것을 구입 또는 이용하기 위해 | 6. 학원 수강 등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
| 7. 기타() | |

20-3. (20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 하는 날은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입니까? 일주일 평균 _____ 일

◆ hard: 1≤일≤7

20-4. (20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 SQ4의 ①응답자는 20-5번으로, SQ4의 ②~④응답자는 20-6번으로

◆ hard: 1≤시간≤168

20-5. (20의 ① & SQ4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됩니까?

전혀방해 안됨		보통								매우 방해	
0	1	2	3	4	5	6	7	8	9	10	

20-6. (SQ4의 ②~④ & 20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가 취업준비에 어느 정도 방해가 됩니까?

전혀방해 안됨					보통					매우 방해
0	1	2	3	4	5	6	7	8	9	10

<응답 기준>

○ 20-7년부터 20-11번 문항 응답 시,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20-7. (20의 ①응답자만) 현재 귀하의 아르바이트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1. 교내 근로장학생
2. 일거리가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
3. 일하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형태
4. 기타()

◆ SQ4의 ③~④응답자는 ①응답 불가

20-8. (20의 ①응답자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의 <업·직종 분류>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매장관리	2. 서빙주방	3. 서비스	4. 생산·기능
11) 편의점	21) 음식점/레스토랑	31) 영화·공연·전시	41) 공사현장
12) 대형마트/슈퍼마켓/아울렛/백화점	22) 메일리 레스토랑	32) 테마파크·레포츠	42) 전단배포
13) PC방/DVD방/노래방/영화방	23) 뷔페·연회장	33) 숙박·호텔·리조트	43) 주유·세차
14) 당구장/오락실·게임장	24) 커피전문점	34) 안내데스크·메프	44) 청소·미화
15) 의류·잡화/가전·휴대폰/화장품·뷰티/사무·문구용품/가구·침구소품 매장	25) 매스트푸드	35) 나레이터 모델/피팅 모델	45) 배달·운전
16) 청과·육산·수산·농산물매장	26) 베이커리/아이스크림	36) 조출연자/사진·촬영보조	46) 운반·이사/택시서비스·택배
17) 찜질방·사우나	27) 일반주점·호프	37) 보안·경호·경비	47) 제조·가공/포장·조립
18) 독서실·교시원	28) 카페	38) 여행가이드	48) 전기공사·설치/기계정비·수리
19) 도서·DVD대여점	29) 푸드코트/급식	39) 헤어·피부·미용	49) 물류·창고관리
20) 기타 매장	30) 조리·주방보조	40) 기타 서비스	50) 기타 생산·기능
5. 사무·회계	6. IT·디자인	7. 상담·영업	8. 강사·교육·개인지도
51) 사무보조	61) 사이트운영·관리	71) 고객상담	81) 입시·보습학원
52) 자료입력·문서작성	62) 쇼핑몰·오픈마켓	72) 전화주문·접수	82) 외국어·어학원
53) 경리·회계·총무	63) 프로그래머	73) 아웃바운드 TM	83) 방문·학습지
54) 비서·전화응대	64) 컴퓨터 A/S	74) 설문조사·리서치	84) 개인지도·과외
55) 번역·통역	65) 웹디자인	75) 영업·마케팅	85) 컴퓨터·IT
56) 편집·교정·교열	66) 그래픽·일러스트	76) 기타 상담·영업	86) 자격증·기술
57) 복사·출력·제본	67) 편집·산업디자인		87) 예체능·레포츠
58) 실험·연구보조	68) CAD·CAM		88) 유아·유치원
59) 공공기관	69) 기타IT·디자인		89) 기타 강사·교육
60) 기타 사무			

20-9. (20의 ①응답자만)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는 일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답 기준>

○ 1주 = 7일, 1개월 = 4주
 ○ 예) 8일 근무 : 0년 0개월 1주 1일 11주 근무 : 0년 2개월 3주 0일
 14개월 근무 : 1년 2개월 0주 0일 5년 근무 : 7년 0개월 0주 0일

총 ____년 ____개월 ____주 ____일

◆ hard: 0≤년, 0≤개월≤11, 0≤주≤3, 0≤일≤6, '0년 0개월 0주 0일' 응답 불가

20-10. (20의 ①응답자만)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세후) ____ 만원

◆ hard: 1≤소득≤1,000

20-11. (20의 ①응답자만)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까?

1. 시급으로 계산 (시간당 ____ 원) ◆ hard: 1≤시급≤100,000
2. 일당으로 계산 (일당 ____ 원) ◆ hard: 1≤일당≤200,000
3. 일의 건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 (건당 ____ 원) ◆ hard: 1≤건당≤100,000
4. 시급 + 건당 금액으로 계산 (시간당 ____ 원 + 건당 ____ 원) ◆ hard: 1≤시급≤100,000 ◆ hard: 1≤건당≤100,000
5. 월급으로 계산(월급 ____ 원) ◆ hard: 1≤월급≤10,000,000 ◆ hard: 월급여≤20-10. 응답값
6. 기타()

→ 22번으로

21. (20의 ②응답자만) 현재는 아니지만 최근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21-1번으로 2. 없다 → 22번으로

21-1. (21의 ①응답자만) 하던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학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2. 취업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3. 일하는 곳에서의 부당행위가 너무 심해서 4. 생활비, 여학연수비, 여행경비 등 목표로 한 금액을 다 모아서
5. 더 일하고 싶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6.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7. 일하는 곳에서의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너무 심해서 8. 기타()

21-2. (21의 ①응답자만) 최근 3개월 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2개 이상의 일을 한 경우, 소득이 많은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교내 근로장학생
2. 일거리가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
3. 일하는 장소와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일하는 형태
4. 기타()

<재학생 및 졸업생 공통>

VII. 취업준비와 인턴 및 구직활동 경험

22.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출신대학(학벌)	1	2	3	4	5
2) 전공	1	2	3	4	5
3) 학점	1	2	3	4	5
4) 직무(하는 일)관련 자격증	1	2	3	4	5
5) 외국어 점수	1	2	3	4	5
6) 외국어 구사 능력	1	2	3	4	5
7) 인턴경험	1	2	3	4	5
8) 직무관련 경력(인턴경험 제외)	1	2	3	4	5
9) 인적 네트워크(인맥)	1	2	3	4	5
10) 대외활동 경험	1	2	3	4	5
11) 공모전 수상경력	1	2	3	4	5
12) 동아리, 학회 등 교내활동 경험	1	2	3	4	5
13) 국내외 봉사활동 경험	1	2	3	4	5
14) 인성(태도, 성격 등)	1	2	3	4	5
15) 외모	1	2	3	4	5
16) 성별(남성/여성)	1	2	3	4	5

◆ 항목 rotation

23. 귀하는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인턴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SQ4의 ①~②응답자는 23-1번을 ①로 auto coding 후 23-2번으로, SQ4의 ③~⑦응답자는 23-1번으로
2. 아니요 → SQ4의 ①~④응답자는 24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6번을 ①로 auto coding 후 26-1번으로

23-1. (23의 ①응답자만) 언제 인턴경험을 하였습니까?

1. 대학 재학 중에 2. 대학 재학 중에도 졸업 후에도 모두 3. 대학 졸업 후에

23-2. (23의 ①응답자만) 총 몇 곳에서 인턴경험을 하였습니까? 총 ____ 곳

◆ hard: 1≤곳,

◆ soft: 10≤곳

23-3. (23의 ④응답자만) 인턴경험을 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응답 기준>	
○ 1주 = 7일, 1개월 = 4주	
○ 예) 8일 근무 : 0년 0개월 1주 1일	11주 근무 : 0년 2개월 3주 0일
14개월 근무 : 1년 2개월 0주 0일	5년 근무 : 7년 0개월 0주 0일

총 ____년 ____개월 ____주 ____일

◆ hard: 0≤년, 0≤개월≤11, 0≤주≤3, 0≤일≤6, '0년 0개월 0주 0일' 응답 불가

23-4. (23의 ④응답자만) 어떤 인턴제에 참여한 것입니까?

참여한 경험이 2가지 이상이라면 경험했던 인턴제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 |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청년인턴제에 참여 |
| 3.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제에 참여 | 4. 글로벌(해외)인턴제에 참여 |
| 5.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 6. 기타 () |

◆ hard: 23-4.선택한 보기 수≤23-2.응답값

23-5. (23의 ④응답자만) 인턴경험이 진로 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 없음	보통									매우 도움
0	1	2	3	4	5	6	7	8	9	10

23-6. (23의 ④응답자만) 인턴경험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 없음	보통									매우 도움
0	1	2	3	4	5	6	7	8	9	10

23-7. (23의 ④응답자만) 인턴경험이 취업에 도움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 23-1의 ②~③응답자는 23-8번으로

→ 23-1의 ④응답자 중 SQ4의 ①~④응답자는 24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6번을 ①로 auto coding 후 26-1번으로

◆ soft: 23-6의 ①~④응답자, [도움이 된 이유] 응답 시 확인창

◆ soft: 23-6의 ⑤~⑩응답자, [도움이 안 된 이유] 응답 시 확인창

◆ 한 페이지에 도움이 된 이유와 도움이 안 된 이유를 구별하여 쓸 수 있도록 구현

23-8 (23-1의 ②~③응답자만)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진 인턴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인턴제
참여 경험입니까? 참여한 경험이 2가지 이상이라면 경험했던 인턴제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 | 2.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청년인턴제에 참여 |
| 3. 지방자치단체 청년인턴제에 참여 | 4. 글로벌(해외)인턴제에 참여 |
| 5.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 | 6. 취업까지 이어진 인턴경험 없다 |
| 7. 기타 () | |

→ SQ4의 ①~④응답자는 24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6번을 ①로 auto coding 후 26-1번으로

<재학생 및 졸업-미취업자만>

24. 다음은 취업 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의 사항을 귀하는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하였습니까?

항목	현재 준비중	이미 준비함	준비하지 않음
1) 외국어 회화 수강	1	2	3
2)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응시	1	2	3
3) 어학연수 계획 및 준비	1	2	3
4) 면접훈련 교육, 컨설팅, 학습모임(스터디) 참여	1	2	3
5) IT,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수강	1	2	3
6) 공모전 준비	1	2	3
7) 자격증 취득	1	2	3
8)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에 참여	1	2	3
9)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1	2	3
10) 외모관리	1	2	3

→ SQ4의 ①~②응답자는 25번으로, SQ4의 ③응답자는 25번을 ①로 auto coding 후 25-1번으로,

SQ4의 ④응답자는 25번을 ②로 auto coding 후 25-4번으로

◆ 항목 rotation

25. 귀하는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직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경우 '2.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용어 설명> 구직활동이란?

구직사이트에 등록, 입사원서나 이력서 제출, 입사시험 응시 등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말함

1. 예 → 25-1번으로 2. 아니오 → 25-4번으로

25-1. (25의 ①응답자만) 구직활동을 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답 기준>

○ 1주 = 7일, 1개월 = 4주
 ○ 예) 8일 근무 : 0년 0개월 1주 1일 11주 근무 : 0년 2개월 3주 0일
 14개월 근무 : 1년 2개월 0주 0일 5년 근무 : 7년 0개월 0주 0일

총 ____년 ____개월 ____주 ____일

◆ hard: 0≤년, 0≤개월≤11, 0≤주≤3, 0≤일≤6, '0년 0개월 0주 0일' 응답 불가

25-2. (25의 ④응답자만) 구직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1.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가를 모른다는 것
2. 학점, 영어점수, 자격증, 인턴경험 등 모집 요건에 내가 지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3. 서류/면접의 지속적인 탈락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4. 취업 지원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5. 구인 일자리가 대체로 낮은 임금, 비정규 일자리라는 것
6. 구직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7.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8. 기업의 채용기준이 불명확해서
9. 기타 ()

25-3. (25의 ④응답자만) 일자리 정보를 얻는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학교 취업정보 또는 지원센터
2. 취업사이트, 카페 등
3. 기업정보제공 유료서비스
4. 취업한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정보
5. 공공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6. 민간취업알선기관의 홈페이지
7. 기업의 홈페이지
8. 기타 ()

→ SQ4의 ①~②응답자는 36번으로, SQ4의 ③~④응답자는 26번으로

25-4. (25의 ②응답자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원하는 곳 지원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2. 반복되는 구직 실패에 지쳐서
3. 구직실패 때문은 아니지만 당분간 여가를 즐기며 쉬고 싶어서
4. 내가 원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해서
5. 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서
6. 공무원시험 또는 자격증취득을 위해 공부 중이어서
7. 군입대 또는 시험 합격 후 대기 중이어서
8. 구직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어서
9. 기타 ()

「
「
「
「
「
「
「
「
「

→ 25-5번으로

→ SQ4의 ①~②응답자는 36번으로, SQ4의 ③~④응답자는 26번으로

→ 25-5번으로

25-5. (25-4의 ①~⑦,⑨응답자만) 구직활동을 안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응답 기준>

○ 1주 = 7일, 1개월 = 4주

○ 예) 8일 근무 : 0년 0개월 1주 1일 11주 근무 : 0년 2개월 3주 0일
14개월 근무 : 1년 2개월 0주 0일 5년 근무 : 7년 0개월 0주 0일

총 ____년 ____개월 ____주 ____일

◆ hard: 0≤년, 0≤개월≤11, 0≤주≤3, 0≤일≤6, '0년 0개월 0주 0일' 응답 불가

→ SQ4의 ①~②응답자는 36번으로, SQ4의 ③~④응답자는 26번으로

<졸업생만>

VIII. 졸업자의 취업 경험 및 첫 일자리

26. 귀하는 대학졸업 후 취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1. 예 → 26-1번으로
2. 아니오 → 36번으로

26-1. (26의 ①응답자만) 졸업 후 취업한 경험은 총 몇 번입니까?

총 ____ 회

→ SQ4의 ③~④응답자는 26-2번을 ②로 auto coding 후 26-3번으로,

→ SQ4의 ⑤~⑦응답자이고 26-1번의 '1'응답자는 26-2번을 ④로 auto coding 후 27번으로

→ SQ4의 ⑧~⑨응답자이고 26-1번의 '2 이상'응답자는 26-2번으로

◆ hard: 1≤횟수

◆ soft: 5≤횟수

26-2. (26의 ①응답자만)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가 현재 일자리와 같습니까?

1. 예 → 27번으로
2. 아니오 → 26-3번으로

26-3.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응답 기준>

○ 1주 = 7일, 1개월 = 4주

○ 예) 8일 근무 : 0년 0개월 1주 1일 11주 근무 : 0년 2개월 3주 0일
14개월 근무 : 1년 2개월 0주 0일 5년 근무 : 7년 0개월 0주 0일

총 ____년 ____개월 ____주 ____일

◆ hard: 0≤년, 0≤개월≤11, 0≤주≤3, 0≤일≤6, '0년 0개월 0주 0일' 응답 불가

26-4.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어 설명>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서 5조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 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 종업원, 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인)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6. (재단, 사단) 법인단체
7. 본인운영 사업체(창업 포함)
8. 기타 ()

26-5.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해당사항 없음

26-6.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주당 평균 _____ 시간 ◆ hard: 1≤시간≤168 ◆ soft: 시간≤14

26-7.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 귀하가 받은 월평균 급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월평균(세후) _____ 만원 ◆ hard: 1≤급여≤1,000

26-8.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에서 했던 일의 내용이 귀하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전공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맞지 않았다 2. 잘 맞지 않았다 3. 보통이었다
4. 잘 맞았다 5. 매우 잘 맞았다

26-9. (26-2의 ②응답자만) 첫 취업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3.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4. 업무와 다른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져서
5.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6. 하청구조 속에서 감의 횡포 때문에
7.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8.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9.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10. 기타()

→ SQ4의 ③~④응답자는 36번으로, SQ4의 ⑤~⑦응답자는 27번으로

<졸업-취업자만>

IX. 졸업-취업자의 현 일자리

27. 귀하의 현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어 설명>

-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서 5조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 직전 3개 사업 년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자산규모 300억 이상) 대기업 이하(자산규모 5조원)의 기업으로, 대기업수준의 세계화, 경영혁신,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어서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 자본금, 종업원, 시설 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4. 정부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인)
5.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6. 교육기관(대학, 초/중/고 등)
7. (재단, 사단) 법인단체 8. 본인운영 사업체(창업 포함)
9. 기타 ()

→ SQ4의 ⑤,⑦응답자는 29번으로, SQ4의 ⑥응답자는 28번으로

28. (SQ4의 ⑥응답자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으로의 취업 시, 취업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2. 막연히 취업준비를 하는 것 보다 비정규직으로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3.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 등 집의 눈치가 보여서
4. 경제적으로 필요해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 원하는 업무의 일이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어서
6. 조직생활에 적응하기 싫어서
7. 원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서 경험이 필요하여
8. 기타()

29. 현 일자리에서 귀하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당 평균 _____ 시간

- ◆ hard: 1≤시간≤168 ◆ soft: 시간≤14

30. 현 일자리에서 귀하가 받은 월평균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세후) _____ 만원

◆ hard: $1 \leq \text{급여} \leq 1,000$

31. **현 일자리에서 하는 일의 내용이 귀하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전공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맞지 않다 2. 잘 맞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잘 맞다 5. 매우 잘 맞다

32. 귀하가 **현 일자리에서 일하고자** 결정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내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어서
3. 보수가 많을 것 같아서
4.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5.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6. 근무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7. 고용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
8. 합격한 곳이면 어디든 취업할 생각이어서
9. 기타{ }

33. 귀하가 현 일자리에 입사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학벌
2. 학점
3. 영어점수 및 회화능력
4. 제2외국어 능력
5. 업무관련 자격증
6.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7. 인턴 등 직무 경험
8. 부모나 지인의 추천
9.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공모전 수상 등 경험
10. 도전성 창의성 등 인성적인 부분
11. 기타()

34. 귀하는 현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예 → 34-1번으로 2. 아니오 → 35번으로

34-1. (34의 ①응답자만) 이직을 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2.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3. 함께 일하는 동료,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4. 업무와 다른 새로운 일이 하고 싶어져서
5. 개인의 발전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6. 하청구조 속에서 갑의 횡포 때문에
7.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8.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9. 기타()

◆ hard: SQ4의 ⑤, ⑦ 응답자는 34-1의 ⑦ 응답 불가

35. 귀하의 **현** 일자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이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나는...)	예	아니오
1)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존중받지는 못한다.	1	0
2)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트집을 잡는다.	1	0
3) 직장동료들이 나에게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1	0
4)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고마워하지 않는다.	1	0
5) 직장 내에 갈등이 있으며, 사람들이 싸우고 말다툼을 한다.	1	0
6) 직장 일을 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1	0
7) 직장 일이 나 스스로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한다.	1	0
8) 직장에서 배울 것이 있고 자신을 개발시킬 수 있다.	1	0
9) 일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갖는다.	1	0
10) 때때로 일을 하면 재밌고 즐겁다.	1	0
11) 일을 하면 만족과 자부심을 느낀다.	1	0
12) 일을 하면 내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한다고 느낀다.	1	0

<재학생 및 졸업생 공통>

X. 청년대상 정책에 관한 주관적 평가

36.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학자금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지원 항목에 대한 인지 정도, 이용 경험 여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는 이유, 20대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학자금지원 항목	36-1. 인지 정도	36-2. 이용 경험 여부	36-3. (36-2의 ④응답자만) '나'에게' 도움 되는/안 되는 이유		36-4. '20대 청년'들에게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전혀도움안됨 ←————→ 매우도움									
1)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2) 장학재단 생활비대출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3) 국가장학금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 36-2번의 ①응답자는 36-3번으로, 36-2번의 ②응답자는 36-4번으로

- ◆ hard: 36-1의 ①응답자는 36-2의 ②만 응답 가능
- ◆ hard: 17-1의 ①~③응답자는 36-1-1)의 ① 응답 불가, 36-2-1)의 ①만 응답 가능
- ◆ hard: 18-1의 ①~②응답자는 36-1-2)의 ① 응답 불가, 36-2-2)의 ①만 응답 가능
- ◆ hard: 19-1의 ①~⑦응답자는 36-1-3)의 ① 응답 불가, 36-2-3)의 ①만 응답 가능
- ◆ 36-3은 한 페이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구별하여 쓸 수 있도록 구현

3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지원 항목에 대한 인지 정도, 이용 경험 여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는 이유, 20대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거지원 서비스>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 취약계층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지역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해주는 지원														
2)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3) 희망하우징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지원														
4) 행복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인 50%출자하여 기숙사를 건립하고, 낮은 이용료의 기숙사 제공														
항목	37-1. 인지 정도	37-2. 이용 경험 여부	37-3. (37-2의 ④응답자만) '나'에게' 도움 되는/안 되는 이유		37-4. '20대 청년'들에게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전혀도움안됨 ←————→ 매우도움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2) 행복주택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항목	37-1. 인지 정도	37-2. 이용 경험 여부	37-3. (37-2의 ①응답자만) '나에게' 도움 되는/안 되는 이유		37-4. '20대 청년'들에게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전혀도움안됨 ← → 매우도움									
3) 희망하우징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4) 행복기숙사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 37-2번의 ①응답자는 37-3번으로, 37-2번의 ②응답자는 37-4번으로

◆ hard: 37-1의 ①응답자는 37-2의 ②만 응답 가능

◆ 37-3은 한 페이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구별하여 쓸 수 있도록 구현

38.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지원 항목에 대한 인지 정도, 이용 경험 여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안 되는 이유, 20대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취업지원 서비스>														
1)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직자특성에 맞는 직업진로지도서비스 프로그램제공 2)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자대상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최장 1년 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 등이 가능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 시, 성공수당 지급 3)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해외취업지원: K-Move스쿨 등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교육, 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 지급 5) 스펙초월멘토스쿨: 스펙과 상관없이 멘토링 및 교육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경로 구축 6)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 제공 및 창작창업 희망자 창작인턴 기회제공 7)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8) 해외인턴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산업현장의 실무경험 기회제공 및 취업연계 9)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공공기관에서 청년층 취업역량 기회 제공 10)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 지원														

항목	38-1. 인지 정도	38-2. 이용 경험 여부	38-3. (38-2의 ①응답자만) '나에게' 도움 되는/안 되는 이유		38-4. '20대 청년들'에게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전혀도움안됨 ← → 매우도움									
1)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2) 취업성공 패키지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3) 대학청년 고용센터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4) 해외취업지원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항목	38-1. 인지 정도	38-2. 이용 경험 여부	38-3. (38-2의 ③응답자만) ‘나에게’ 도움 되는/안 되는 이유		38-4. ‘20대 청년들’에게 도움 정도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안 되는 이유	전혀도움안됨 ← → 매우도움									
5) 스펙초월 멘토스쿨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6) 중소기업청년 취업인턴제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7) 청년취업 아카데미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8) 해외인턴, 글로벌 현장학습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9)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10)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 사다리 장학금	1. 전혀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알고 있다 4. 잘 알고 있다	1. 있다 2. 없다			1	2	3	4	5	6	7	8	9	10

→ 38-2번의 ①응답자는 38-3번으로, 38-2번의 ②응답자는 38-4번으로

◆ hard: 38-1의 ①응답자는 38-2의 ②만 응답 가능

◆ 38-3은 한 페이지에 도움이 되는 이유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를 구별하여 쓸 수 있도록 구현

XI. 사회·인구학적 특성

39.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 | 12. 전북 |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 17. 세종 | |

40.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예 → 41번으로 2. 아니오 → 40-1번으로

40-1. (40의 ②응답자만) 귀하의 현재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 1. 기숙사 | 2. 향토 학사 | 3. 월세 자취 |
| 4. 하숙 | 5. 교시원 | 6. 전세 자취 |
| 7. 친인척 등 아는 사람의 집 | 8. 자가(본인,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 | 9. 기타() |

40-2. (40의 ②응답자만) 월세,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주거비 총 _____ 만원 ◆ hard: 0≤주거비 ◆ soft: 주거비=0

40-3. (40의 ②응답자만) 취업준비 또는 취업으로 거주지 이동을 하였습니다습니까?

1. 예 → 40-3-1번으로 2. 아니오 → 41번으로

Abstract

A Study of Mid- and Long-term Polic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Youth in their 20s and Post-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olic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youth in their 20s and post-adolescents after investigating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they encounter during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from the aspect of 'state-experience, consciousness-emotion, selection-action'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assessment on the usefulness of current support policies by those in their 20s.

For this,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category of the youth in their 20s and post-adolescents based on related laws and programs, examined two theoretical views which explain moratorium on entry to adulthood and problems and policy challenges which are observed in their 20s and analyzed current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developed to handle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youth in their 20s and post-adolescents.

A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with a total of 36 respondents in six different groups, an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against 2,000 young adults in their 20s were analyzed. Then, the usefulness of the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analysis on these results, key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be the ground for deriving a policy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youth in their 20s were obtained. In other words, major policy implications on the youth in their 20s were discovered as policy targets such as the multi-differentiation of the youth group, segmentation of transition steps, extension of each step, individuals & life balance and assessment of high values on personal growth potential.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framework and assignments of the policy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youth in their 20s were derived.

In terms of the vision of the government policies for the youth in their 20s, 'Build the Republic of Korea where young adults live with hope and dream' was set.

The three basic directions for promoting the policy under the policy paradigm were i) approach of transition steps, ii) integrated and inclusive approach and iii) youth-friendly approach.

According to these basic directions, in addition, the following three strategic goals were set: i) to reduce the percentage of youth in moratorium on labor market; ii) to establish a youth-centric integrated support system; iii) to expand the youth's participation and improve socio-cultural awareness.

Then, a total of 7 strategic plans aimed to achieve the said strategic goals and 14 specific goals targeted to carry out these plans were derived.

Keywords: 20s, Youth, Post-adolescents, Transition, Policy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락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56-4 93330

